

## 차례

“당신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주석 시리즈에서 사용한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	i
석의에 영향을 주는 히브리어 문법 형태에 대한 간략한 정의 .....	iii
이 주석 시리즈에서 사용한 약어들 .....	ix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	x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	xiii
신명기 개론 .....	1
신명기 1 장 .....	8
신명기 2 장 .....	39
신명기 3 장 .....	52
신명기 4 장 .....	61
신명기 5 장 .....	84
신명기 6 장 .....	99
신명기 7 장 .....	108
신명기 8 장 .....	118
신명기 9 장 .....	126
신명기 10 장 .....	134
신명기 11 장 .....	141
신명기 12 장 .....	149
신명기 13 장 .....	159
신명기 14 장 .....	170
신명기 15 장 .....	180
신명기 16 장 .....	188
신명기 17 장 .....	196
신명기 18 장 .....	215
신명기 19 장 .....	225
신명기 20 장 .....	231
신명기 21 장 .....	237
신명기 22 장 .....	247
신명기 23 장 .....	255
신명기 24 장 .....	265
신명기 25 장 .....	275

신명기 26 장	283
신명기 27 장	289
신명기 28 장	297
신명기 29 장	325
신명기 30 장	323
신명기 31 장	331
신명기 32 장	341
신명기 33 장	365
신명기 34 장	381
부록 I: 구약 예언서 개론	387
부록 II: 메소포타미아 지역 강대국들에 대한 역사적인 개요	391
부록 III: 구약 연대 도표	387
부록 IV: 신앙적 진술	387

## 특별주제 목차

이스라엘(이름), 1:1	10
시내산의 위치, 1:2	12
고대 근동 달력, 1:3	12
하나님의 이름들, 1:3	13
출애굽의 시기, 1:3	17
이스라엘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거하던 사람들, 1:4	18
천(알레프), 1:25	24
의, 1:16	25
키 큰/강한 전사들이나 종족을 일컫기 위해 사용한 용어들, 1:28	31
믿음, 1:32	32
책임질 나이, 1:39	35
홍해, 1:40	36
출애굽과 관련된 광야, 2:1	40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 2:15	44
하나님께서 강압케 하심, 2:30	49
마음, 2:30	49
규빗, 3:11	56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용어들, 4:1	62
밥의 복음적 편향, 4:6	65
불, 4:11	67
언약, 4:13	68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 4:32	73
선지자의 모델 대 사도의 모델, 4:31	74
알다, 4:35	79
영원히, 4:40	81
인자함(헤세드), 5:10	88
거룩, 5:12	90
안식, 5:12	91
평화와 전쟁, 5:17	93
영광, 5:24	96
속량하다/구속하다, 7:8	112
그 땅을 차지하다, 8:1	119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8:5	121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은혜로운 행동, 9:4-6	128
족장에게 주신 언약적 약속, 9:5	128
나중에 신명기에 추가된 글, 10:6	136
야웨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따라 요구하시는 내용, 10:12	138
우상숭배의 결과, 11:16-17	145
가나안인의 풍요 숭배에 대해 이스라엘이 취해야만 하는 태도, 12:3	151
야웨라는 “이름,” 12:5	153
물렉, 12:31	158
구약의 예언, 13:1, 3	160
슬픔의 의식, 14:1	171
구약의 음식규정, 14:3	173
혐오, 14:3	173
술(발효)과 술취함(인박함), 14:26	177
유월절, 16:1	189
오경의 모세 저작설, 17:14	206
비난할 것 없음, 죄없음, 결백함, 책망받을 것 없음, 18:13	221
이스라엘에서의 사형 죄, 21:21	243
목 맴, 21:22	244
저주, 21:23	245
성경에서 사용된 상징적 수, 23:2	257
구제, 24:13	270
고대 근동에서의 도량형, 25:13	278
모세의 법에서의 십일조, 26:12	286
아멘, 27:15	293
구약에서의 회개, 30:1	324
이스라엘의 축제, 31:10	334
히브리 시, 신 32 장에 대한 통찰	342
믿음, 신뢰, 믿다, 32:4	347
귀신, 32:17	352
개인적 악	353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 32:22	355
축복, 33:1	366
손을 얹음, 34:9	384

## 이 구약 주석 시리즈에서 사용한 전문적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 가. 사전

고대 히브리어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사전으로서 여러 종류가 있다.

가. 프란시스 브라운, S. R. 드라이버, 찰스 A. 브릭스가 공저한 히브리어 영어 구약사전. 이것은 윌리엄 게제니우스의 독어판 사전에 기초한다. 이 책은 약어로 **BDB** 로 알려져 있다.

나. 루트빅 쾰러와 발커 바움가트너가 저술하였고 M. E. J. 리차드슨이 영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아람어 구약사전. 이 책은 약어로 **KB** 로 알려져 있다.

다. 윌리엄 L. 할러데이가 저술한 간이 히브리어 아람어구약사전이 있는데 이 책은 독일어로 쓰여진 위의 사전에 기초한다.

라. 윌렘 A. 반 게머른이 편저한 다섯 권으로 된 새 국제 구약 신학과 석의 사전. 이 책은 **NIDOTTE** 로 표시된다.

유의할 만하게 사전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곳에서, 나는 여러 영어 번역본(**NASB, NKJV, NRSV, TEV, NJB**)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번역본들은 “충어적”인 것으로부터 “역동적 등가번역”을 따른 것까지 다양하다(참조,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 어떻게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가, 28-44 쪽).

### 나. 문법

문법적인 내용은 요한 요셉 오웬의 4 권으로 된 구약의 분석적 열쇄에 일반적으로 의존한다. 이 책은 벤자민 데이빗슨의 분석적 히브리어 갈대아어 구약사전으로 뒷받침된다.

“당신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시리즈의 구약주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문법적 구문적 자료는 국제성서공회의 “번역가들을 돕기위한 시리즈”이다. 그 책들은 “\_\_\_\_\_의 핸드북”이란 이름을 가진다.

### 다. 본문

나는 자음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본문(맞소라 모음부호와 각주가 아니라)이 영감으로 되었다고 믿는다. 전체가 손으로 직접 쓰여져 전해져 왔고, 고대의 본문이기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다음의 이유에 기인한다:

가. 하팩스 레고메논(히브리어 구약성경에서 단 한 번만 쓰인 단어)

나. 관용적 용어(문자적 의미를 적용할 수 없는 단어나 구)

다. 역사적 불확실성(고대 세계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

라. 히브리어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어휘가 썸어의 다중적인 의미를 가짐

마. 고대 히브리어 본문을 후기의 서기관들이 손으로 베끼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

바. 이집트에서 훈련받은 히브리 서기관들은 그들이 필사하는 본문이 자신들에게 완전하게 이해가 되게 본문을 자유롭게 고치는 경향을 가짐(**NIDOTTE**, 52-54 쪽)

맞소라본문 전통 이외에 히브리어 단어와 본문에 대한 여러 자료가 있다.

1. 사마리아 오경

2. 사해사본

3. 나쉬 파피루스(십계명)

4. 세버러스 두루마리(오경)

5. 몇 가지 후기의 동전, 편지, 도편 자료(불에 굽지않은 도자기 조각 위에 쓴 글)

그러나 구약은 많은 경우 헬라어 신약 사본의 경우와 달리 사본적 계보가 없다. 맛소라 본문(주후 900 년 경)에 대한 본문적 신뢰성에 대하여는 NIDOTTE, 1 권 51-67 쪽에 있는 브루스 K. 왈트키의 “구약 성경 본문의 신뢰성”을 참고하라.

히브리어 본문은 독일성서공회에서 1997 년에 발행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인데 이 본문은 레닌그라드 사본(주후 1009 년)에 기초한다. 간혹 히브리어 본문이 명료하지 않거나 분명하게 혼동이 있을 경우에는 고대 사본들(헬라어 70 인역, 아람어 탈군, 시리아어 페쉬타, 라틴 벌게이트)을 참조하였다.

## 석의에 영향을 주는 히브리어 문법 형태에 대한 간략한 정의

### I. 히브리어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간략한 고찰

히브리어는 서남 아시아의 셈족(셈어)어군에 속한다. 이 이름(현대 학자들에 의해 불리는데)은 노아의 아들인 셈(참조, 창 5:32; 6:10)에서 유래한다. 셈의 후예는 창 10:21-31에서 아랍인, 히브리인, 시리아인, 아람인, 앗시리아인들이다. 사실상 어떤 셈어는 함의 계열(참조, 창 10:6-14)에 속하는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나안어, 페니키아어, 이디오피아어가 여기에 속한다.

히브리어는 이 셈어의 북서쪽 지류에 속한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 고대 언어 그룹에 속하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가. 아모리어(주전 18 세기에 아카디아어로 쓰여진 마리 서판)

나. 가나안어(주전 15 세기에 유가릿어로 쓰여진 라스 샤므라 서판)

다. 가나안어(주전 14 세기에 가나안 아카디아어로 쓰여진 아마르나 편지)

라. 페니키아어(히브리어는 페니키아 알파벳을 사용한다)

마. 모압어(주전 840 년의 메사 비문)

바. 아람어(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 언어로서 창 31:47[2 단어]; 램 10:11; 단 2:4-6; 7:28; 스 4:8-6:18; 7:12-26에 사용되었고 팔레스타인에서 1 세기에 유대인들이 말했던 언어이다)

히브리어는 사 19:18에서 “가나안의 입”으로 불린다. 이것은 주전 180 년경 쓰여진 지혜서(벤 시라의 지혜)서론에서 처음으로 “히브리어”로 불린다(그리고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속하는 다른 몇 곳에서, 참조, 앵커 바이블 사전, 제 4 권, 205 쪽 이하). 이 언어는 모압어 및 유가릿에서 사용된 언어와 아주 밀접한 언어이다. 성경 이외의 곳에서 고대 히브리어가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1. 게제르 달력, 주전 925 년(한 남학생의 글씨연습)
2. 실로암 명각, 주전 705 년(터널벽에 쓴 글)
3. 사마리아 도편, 주전 770 년(부서진 도자기 위에 기록한 세금 내역)
4. 라기스편지, 주전 587 년(전쟁과 관련한 통신 내용)
5. 마카비 시대의 동전과 인장들
6. 사해사본 본문들
7. 많은 종류의 비문들(참조, “언어[히브리어],” ABD 4:203 쪽 이하)

히브리어는 다른 모든 셈어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자음(세 자음 어근)으로 단어가 형성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어형변화가 있는 언어이다. 세 자음으로 된 어근은 고유 뜻을 가진다. 또한 전접어 후접어 혹은 단어 안에 추가되는 어소(후에는 모음, 참조, 수 그린,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적 분석, 46-49 쪽)에 의해 구문적인 기능을 나타낸다.

히브리어는 산문과 시에서 단어가 구분되어 사용된다. 단어의 뜻은 전승적 어원(언어적 기원이 아닌)을 따른다. 단어와 소리(유사음어 쓰기)에 기초한 언어 유희가 매우 일반적이다.

## II. 술부에 대한 동사의 상

### 가. 동사

문장의 일반적인 순서는 동사, 인칭대명사, 주어(수식 어구와 함께), 목적어(수식 어구와 함께)이다. 기본적으로 아무 표시가 없는 동사는 칼, 완료, 남성, 단수이다. 히브리어 사전과 아람어 사전은 이 형태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동사의 어형변화는 다음을 보여 준다

1. 수—단수, 복수, 쌍수
2. 성—남성과 여성(중성은 없음)
3. 태—직설법, 가정법, 명령법(행동과 사실과의 관계)
4. 시제(동사의 상)

- ㄱ. 완료, 이것은 어떤 행동이 시작, 계속, 종결의 의미에서 마쳐짐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이 동사 형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행동을 나타낸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구문 개관에서 말하기를

“완료형이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한 가지 점은 어떤 일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미완료형은 어떤 상태가 가능하거나 그것을 바라고 있거나 혹은 그것을 기대함을 뜻할 수 있지만, 완료형은 그 일이 사실이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것이 분명함을 나타낸다”(36 쪽).

S. R. 드라이버는 히브리어에서 시제의 사용에 대한 논문에서 이 점을 설명하기를,

“완료형은 실제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이 바뀔 수 없는 의지적 결심에 의해 이미 성취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결심, 약속,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선언은 완료형으로 말해진다”(17 쪽, 예, 예언적 완료형).

로버트 B. 치숨은 석의에서 강해까지에서 이 동사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동사형태는) 어떤 사건 전체를 외부에서 조망한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나 상태(일이나 마음의 상태를 포함하여)와 관련하여 단순히 사실을 나타낸다. 어떤 행동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에는 종종 화자나 해설가의 수사적 관점에서 완료된 것임을 보여준다(실제로 그것이 일어났는지 또는 안 일어났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완료형은 과거, 현재, 혹은 미래에 일어난(날) 행동/상태에 관계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영어처럼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는 언어로 완료형의 시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는 반드시 문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86 쪽).

- ㄴ. 미완료, 이것은 어떤 행동이 진행중(완료되지 않고, 반복적, 계속적, 혹은 불확실한)임을 뜻하며, 종종 목표를 향해 가는 움직임을 나타낸다. 대개 이 동사 형태는 현재와 미래에 속하는 행동을 말한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구문 개관에서 말하기를

“모든 미완료형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 상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나 발전해 가고 있는 것 혹은 불확실한 것이다. 이 모든 경우에 이 동사 형태는 어떤 의미(곧, 불완전하다는 의미)에서 부분적이다.

로버트 B. 치숨은 석의에서 강해까지에서 말하기를

“미완료형은 상과 태를 함께 나타내기에 이것의 본질을 한 가지 개념으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떤 때는 미완료형이 직설법적 의미로서 객관적인 진술에 사용된다. 다른 경우에는 이 동사형태는 어떤 행동을 보다 더 주관적으로 나타내는데 가정적인 것, 조건적인 것, 가능한 것 등이 쓰인다”(89 쪽).

- ㄷ. 첨가되는 와우, 이것은 동사를 그 앞에 나오는 동사(들)의 행동에 연결시킨다.  
ㄹ. 명령형, 이것은 화자의 의지와 청자가 할 여지를 반영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口. 고대 히브리어에서 오직 큰 문맥이 저자가 의도한 시간적 측면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짓게 한다.

나. 일곱가지 주요 어형변화 형태와 그 기본적 의미. 실제로는 이 동사형태가 문맥에서 서로 연결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떼어내서 이해하면 안된다.

1. 칼 동사,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형태이면서 모든 동사형태의 기본이 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어떤 원인이나 특별한 면을 말하지 않는다.
2. 니팔 동사, 두 번째로 자주 쓰인다. 대개 수동형이지만, 이 동사형태는 또한 상호작용이나 재귀적 기능을 갖는다. 이 동사도 어떤 원인이나 특별한 면을 말하지 않는다.
3. 피엘 동사, 이 동사는 능동형이고 어떤 행동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것을 나타낸다. 칼동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발전되거나 어떤 상태로 확장되고 있다.
4. 푸알 동사, 이것은 피엘동사와 대응하는 수동형이다. 종종 분사로 사용된다.
5. 히트파엘 동사, 이것은 재귀적 혹은 상호작용적 의미를 갖는 동사형이다. 이것은반복적 혹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피엘형의 행동을 나타낸다.
6. 히필 동사, 이것은 피엘동사와 대조되며 원인을 나타낸다. 이 동사형은 허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일의 원인을 드러낸다. 독일인 히브리어 문법학자인 에른스트 엔니는 피엘동사가 일이 어떤 상태로 되는 것을 나타내고 히필동사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인다고 믿었다.
7. 호팔 동사, 이것은 히필의 수동형이다. 마지막 두 동사형태는 7 가지 동사 형태 가운데 가장 적게 사용된다.

위 사항의 대부분은 브루스 K. 왈트키 와 M. 오카너가 공저한 히브리어 성경 구문개론 343-452 쪽을 참조했다.

작용자와 원인자 도표. 히브리어의 동사체계를 이해하는 한 가지 열쇠는 이것을 태와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어떤 동사형태는 다른 동사형태와 대조를 이룬다(예, 칼-니팔; 피엘-히필)

다음의 도표는 원인과 관련하여 동사형태의 기본적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태 또는 주어	이차 원인자가 없음	능동적 이차 원인자	수동적 이차 원인자
능동태	칼	히필	피엘
중간태 수동태	니팔	호팔	푸알
재귀/상호관계적	니팔	히필	히트파엘

이 도표는 최근의 아카디아어 연구결과에 힘입어 이루어진 동사체계에 대한 좋은 자료에서 왔다(참조, 브루스 K. 왈트키, M. 오카너, 히브리어 성경 구문개론 , 354-359 쪽).

R. H. 케넷은 히브리어 시제에 대한 짧은 논의에서 필요한 경고를 제시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히브리어의 동사를 가르치면서 각 동사형태가 히브리인의 마음에 의미하고 있는 뜻을 파악하는데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다시말하면 각 히브리어 시제마다 이에 상응하는 여러 라틴어나 영어의 동사형태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각 시제를 획일적으로 번역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은 각 히브리어 동사형태가 구약성경의 언어에 생명력과 힘을 공급하는 분명한 뜻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따르는 어려움은 히브리인들이 행위로 보는 것에 대해 우리의 것과 완전히 다른 관점의 차이에 전적으로 기인한다; 우리가 ‘시제’라고 표현함에 있어서 보듯이 가장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는 시간적 요소는 그들에게는 이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라틴어나 영어의 동사 형태에 크게 의존하여 각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를 해석하려 하지 않고, 그것이 히브리인의 마음에 제시하고 있는대로 각 행위의 상을 이해하려는 것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분명하게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시제’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동사에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낳게 한다. 소위 히브리어의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행위의 상태만을 표현한다. ‘상태’라는 용어를 명사와 동사 모두에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혼동만 아니라면, 실제로는 ‘상태들’이라는 표현이 ‘시제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어떤 히브리어 동사를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히브리어에는 전혀 없는 요소(시간적)를 추가시키는 부작용없이 해내는 것은 불가능함을 항상 명심해야만 한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떤 행동을 말함에 있어서 그것을 결코 과거, 현재, 또는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고 단지 완료형, 즉 이루어진 일, 또는 미완료형, 즉 발전하고 있는 과정의 일로서 생각했다. 우리가 어떤 히브리어 시제가 영어의 과거, 과거완료, 또는 미래와 상응하다고 말함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과거, 과거완료, 미래로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음을 뜻한다. 히브리인들은 어떠한 동사형태도 행동이 일어난 시간을 말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서론과 1 쪽).

다음으로 유익한 경고로서는 슈 그룹,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적 분석,이 말하기를,

“고대에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언어를 대상으로 현대의 학자가 재구성한 어원적 세계와 지각적 관계성이 단순히 학자들의 통찰력을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학자들 자신의 언어를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학자들이 주장하는대로 그러한 어원적 관계성이 고전 히브리어에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128 쪽).

#### 다. 법

1. 그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직설법)를 표현하기 위해서 완료시제나 분사(모든 분사는 직설법이다)를 사용한다.
2.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 있었다(가정법)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 ㄱ. 특별한 의미를 더 내포하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다
    - (1) 청유법(자음  $\text{ה}$  이 추가됨), 이것은 1 인칭 미완료형으로서 소원, 청원, 혹은 자기 격려(즉, 화자가 소원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 (2) 지시법(내적 변화), 이것은 3 인칭 미완료형으로서(부정문의 경우 2 인칭에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원, 허가, 충고, 혹은 권면을 나타낸다
  - ㄴ. 완료 시제를 루 또는 루레와 함께 사용한다  
이 구조는 코이네 헬라어에서 제 2 유형의 조건절과 유사한 구문이다. 거짓 진술(조건절)이 거짓 결론(조건문의 귀결절)으로 결과를 맺는다.
  - ㄷ. 미완료 시제를 루와 함께 사용한다  
문맥과 루는 미래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와 더불어 이러한 가정법적 용법을 가진다.  
J. 와쉬 왓쓰의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에 나오는 몇 가지 예는 창 13:16; 신 1:12; 왕상 13:8; 시 24:3; 사 1:18(참조, 76-77 쪽).

라. 와우-전환/연속/접속. 히브리어(가나안어)가 갖는 이 독특한 구문적 특성은 오랫동안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이 용법은 장르마다 종종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혼란이 생긴 이유는 초기의 학자들이 유럽인들이었고 그들이 자신의 모국어에 비추어 히브리어를 이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어려움을 가져오자, 그들은 히브리어가 고대의 고풍스럽게 “보여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탓으로 핑계를 댔다. 유럽의 언어들은 시제(시간)에 기초한 동사형태를 갖는 언어이다. 완료형이나 미완료형의 동사 어간에 자음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어떤 종류의 다양한 설명과 문법적인 의미가 특별히 가능하게 된다. 이 용법은 행동이 다르게 보이게 한다.

1. 역사적 이야기체에서는 동사들이 일정한 형태를 따라 서로 연결되어 사용된다.
2. 앞에 붙는 와우로 시작되는 동사는 그 이전에 사용된 동사(들)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
3. 항상 큰 문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동사들의 용법을 파악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

셈족어의 동사들을 문맥에서 따로 떼어내어 분석해서는 안된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에서 완료형과 미완료형 앞에 쓰이는 히브리어 와우용법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52-53 쪽). 완료형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나타내지만,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완료형의 동사는 종종 미래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미완료형에 있어서도 일어난다. 즉 와우가 추가된 미완료형의 동사는 과거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시제 자체가 변하여 된 것이 아니라,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그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이 특별히 바뀌는 것에 기인한다. 와우 완료형은 예언에서 잘 사용되는 형태이며, 와우 미완료형은 이야기체에서 잘 사용된다(54, 68 쪽).

왓쓰는 계속해서 정의하기를

“와우 접속법과 와우 연속법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해석에서 나타난다:

1. 와우 접속법은 항상 병행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2. 와우 연속법은 항상 연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와우가 연속적인 미완료형과 사용되는 유일한 경우이다. 와우 연속법으로 연결되는 미완료형의 관계는 시간적 연속, 논리적 연속, 논리적 원인, 또는 논리적 대조를 나타낸다. 이 모든 경우에 하나의 연속성이 있다”(103 쪽).

마. 부정사 – 두 종류의 부정사가 있다

1. 부정사 절대형, 이것은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강하고 독립적이고, 뚜렷한 구문이다... 주어로서 사용될 때 종종 쓰여진 동사없이 나타난다. 부정사 절대형이 홀로 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생략된 동사는 “~이다”라는 동사로 이해된다” J. 와쉬 왓쓰,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92 쪽).
2. 부정사 연계형, 이것은 “전치사, 소유 대명사, 연계 관계에 의해 문법적으로 문장에 연결된다”(91 쪽).

J. 와인그린은 고전 히브리어의 실제적 문법에서 연계상태에 대해 설명하기를

“두 개(혹은 그 이상)의 단어가 서로 밀접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합성할 경우에, 의존적인 단어(혹은 단어들)가 연계상태에 있다고 말한다”(44 쪽).

바. 의문법

1. 이것은 항상 문장의 처음에 나타난다.
2. 해석적인 중요성
  - ㄱ. 하 –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 ㄴ. 할로’ – 저자가 “네”라는 답을 기대한다

부정

1. 이것은 항상 부정하려고 하는 단어 앞에 나타난다.

2. 부정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단어는 로'이다.
3. '알'이라는 단어는 부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청유형과 지시형과 함께 사용된다.
4. 르빌티'이라는 용어는 “~하지 않기 위해서”를 나타내며 부정사와 함께 사용된다.
5. '엔'이라는 용어는 분사와 함께 사용된다.

#### 사. 조건절

1. 4종류의 조건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이네 헬라어의 경우와 평행을 이룬다.
  - ㄱ.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거나 성취된 것으로 여기는 생각의 경우(헬라어의 제 1 유형)
  - ㄴ. 사실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성취가 불가능한 경우(헬라어의 제 2 유형)
  - ㄷ.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아마 일어날지도 모르는 경우(헬라어의 제 3 유형)
  - ㄹ. 일어날 가능성이 보다 적어서 그 성취가 의심이 되는 경우(헬라어의 제 4 유형)
2. 문법적인 표시
  - ㄱ. 사실이나 실제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 항상 직설법 완료형 혹은 분사를 사용하는데 대개의 경우 조건절은 다음의 말로 시작한다
    - (1) 임
    - (2) 키(혹은 아셰르)
    - (3) 힌 혹은 힌네
  - ㄴ. 사실에 반대되는 조건절은 항상 완료 시상 동사나 분사를 사용하는데 불변화사인 루 혹은 룰레로 시작한다
  - ㄷ.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조건절은 항상 미완료형 동사나 분사가 조건절에 사용되는데, 대개는 불변화사인 임 혹은 키 로 시작한다.
  - ㄹ.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조건절은 미완료형 가정법이 조건절에 나오고 항상 불변화사 임으로 시작한다.

## 이 주석에서 사용한 약어들

AB	앵커 바이블 주석,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 데이빗 노엘 프리드먼 편저
ABD	앵커 바이블 사전(6 권), 데이빗 노엘 프리드먼 편저
AKOT	구약의 분석 열쇄, 존 조셉 오웬스
ANET	고대 근동 본문, 제임스 B. 프릿처드
BDB	히브리어 영어 구약사전, 프란시스 브라운, S. R. 드라이버, C. A. 브릭스 공저
BHS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트엔지아, <i>GBS</i> , 1997
IDB	인터프리터스 성경사전(4 권), 조지 A. 버트릭
ISBE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5 권), 제임스 오르
JB	예루살렘 성경
JPSOA	맛소라 본문에 따른 성경: 새 번역(미국 유대인 출판협회)
KB	히브리어 아람어 구약사전, 루드빅 켈러, 왈커 바움가르트너
LAM	성경의 고대 동방 사본(페쉬타), 조지 M. 람사
LXX	칠십인역(헬라어-영어), 존더반 출판사, 1970
MOF	제임스 모팻의 새 번역 성경
MT	맛소라 히브리어 본문
NAB	새 미국 성경 본문
NASB	새 미국 표준 성경
NEB	새 영어 성경
NET	<i>NEB</i> 성경: 새 영어역, 제 2 베타역
NRSV	새 개정 표준 성경
NIDOTTE	새 국제 구약 신학과 석의 사전(5 권), 윌렘 A. 반게머른 편저
NIV	새 국제역

NJB	새 예루살렘 성경
OTPG	구약성경 분해 가이드, 토드 S. 빌, 윌리엄 A. 뱅크스, 콜린 스미스
REB	개정 영어 성경
RSV	개정 표준역
SEPT	칠십인역(헬라어-영어), 존더반, 1970
TEV	세계성서공회의 오늘의 영어역
YLT	영의 문자적 번역 성경, 로버트 영
ZPBE	존더반 그림 성경 백과사전(5 권), 메릴 C. 텐니 편저

## 저자의 글: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성경적인 해석은 고대의 감동받은 저자를 이해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를 현대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이성적이고 영적인 과정이다.

해석의 영적인 과정은 중대하지만 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기대를 포함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1) 그를 위한 (2) 그를 알기 위한 (3) 그를 섬기기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과정은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와 죄의 고백과 순종하려는 자세가 포함된다. 해석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신비스럽다.

해석의 이성적인 과정은 설명하기에 좀 더 쉽다. 우리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정당하게 본문을 다루어야 하며 우리의 개인적이고 교파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 아무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해석가가 될 수 없다. 이 주석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세 해석원리를 포함한 조심스럽고도 이성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 제 1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성경책이 쓰인 역사적 배경과 저자와 연관된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다. 원저자는 전달하려는 내용과 목적을 가졌다. 본문은 고대의 감동받은 원저자가 결코 의미하지 않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 수 없다. 그의 의도는 우리의 역사적, 감정적, 문화적, 개인적, 또는 교파적인 필요가 아니라는 것이 열쇠이다. 적용은 해석의 총체적인 동반자이지만 적절한 해석은 반드시 적용에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성경본문은 오직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이 의미는 원래 성경저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시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 하나의 의미는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의 중심 진리에 상응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 제 2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문학적인 단위를 확정짓는 것이다. 성경의 각 책은 각각 통일적인 문서이다. 해석자들은 진리의 한 면을 위해 다른 면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문학적 단락을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전체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한다. 각 장, 단락, 절은 전체 성경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해석은 반드시 전체에 대한 연역적인 접근으로 시작하여 각 부분에 대한 귀납적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문단으로 이루어진 각 문학적 단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장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단락구분도 감동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구분들은 우리에게 단락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 문장, 절, 구나 단어 수준이 아닌 문단 수준에서의 해석은 성경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따르는 열쇠이다. 문단들은 자주 주제나 중심 문장으로 불리는 하나의 통일된 논제를 가지고 있다. 문단속의 각 단어, 구, 절과 문장은 어찌되었건 이 통일된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이 주제를 한정하고 확장하고 설명하고 질문한다. 적절한 해석을 위한 실제적인 열쇠는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학적 단위 안에서 각 문단을 기초로 한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는데 있다.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현대 영어 번역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번역판들은 그들이 다른 번역이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1. 신약 헬라어 본문은 네 번째 개정판이다(UBS<sup>4</sup>). 이 책은 현대 원문 연구학자에 의해 단락으로 나누어졌다.
2. 뉴킹제임스역(NKJV)은 공인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헬라어 원문 전통을 기초로 축어 적으로 번역되었다. 이 책의 단락 구분은 다른 번역판 보다 길게 되었다. 이렇게 긴 단락들은 학생들이 통일된 논제를 보는데 도움을 준다.
3. 신개정표준역(NRSV)은 수정된 축어역이다. 이것은 다음에 열거된 두 현대번역본의 중간 지점에 있다. 이것의 단락 구분은 주제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4. 현대영어성경(TEV)은 미국성서공회에서 출판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현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신국제역(NIV)에서와 같이,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자주 주제보다는 화자를 중심으로 문단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해석자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약 헬라어 본문(UBS<sup>4</sup>) 과 현대영어성경(TEV)을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지만 그들의 단락 구분이 다르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5. 신예루살렘성경(NJB)은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유럽인의 시각으로 단락 짓는 것을 비교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6. 본 주석에서 사용한 본문은 1995 년에 개정된 신미국표준역(NASB)으로서 축어적인 번역본이다. 각 절의 주석은 이 번역본의 구분을 따르고 있다 (본 주석에서 역자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신미국표준역 개정판 본문을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으로 대신하였다).

### 제 3 원리

세 번째 원리는 성경의 단어나 구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헬라어의 단어나 구절들은 자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는 것은 헬라어 본문에 나타난 상이점들을 이해하고 가능한 해석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작업은 교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입은 저자의 원문대로 이해하도록 독자를 도와준다.

본 주석은 독자가 자신의 해석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된 답을 주기보다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다른 가능한 해석들은 우리가 편협하고 독단적이며 교파 중심으로 빠지지 않도록 종종 도와준다. 해석가들은 옛문서의 해석이 얼마나 애매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폭넓은 해석의 범주를 가져야 한다. 성경을 진리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위의 세 원리들은 옛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역사적인 제한들을 극복하도록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본 주석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밥 어틀리  
동텍사스침례대학  
1996 년 6 월 27 일



## 성경읽기를 위한 바른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그것에 궁극적인 권위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삶에 의미를 주는가?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계속 되었다(전 1:13-18; 3:9-11).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씨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릴 때 몇몇 식구들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 몸이 성장하는 만큼 나 자신과 내 주위의 세계에 대한 질문도 커졌다. 익숙한 문화와 진부한 종교생활은 내가 읽거나 경험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했다. 그때에 나는 담담하고 둔감한 나만의 세계 속에서 혼동과 착음, 기다림, 그리고 자주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의 대답은 (1) 개인적인 철학 (2) 고대의 신비 (3) 개인적인 경험이나 (4) 심리적 투영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세상을 보는 나의 눈과, 내게 왜 사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답할 수 있는 검증이 가능하고 증거가 충분할 뿐 아니라 이성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나는 이 대답을 개인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발견했다. 나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고 내가 발견한 믿을 만한 증거들은 (1) 고고학으로 확실하게 증명되는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 (2) 구약성경의 예언들의 정확성 (3)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1,600 년이 넘도록 일관성이 있는 성경의 메시지와 (4)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간증들이다. 믿음의 일관된 체계인 기독교는 인류의 복잡한 질문을 답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면뿐 아니라 성경을 신뢰하게 되는 데서 오는 경험적인 면을 통해 나에게 감정적인 기쁨과 안정을 주었다.

나는 성경을 통해 내 삶의 중심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은 강렬하면서도 내적 자유를 맛보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의 매우 다른 해석들이 주장되어지고 때로는 같은 교회나 학교에서조차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놀라움을 기억한다. 성경의 영감과 신뢰하는 확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난해한 구절들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와 옳음을 주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상반되는 해석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거나 거부할 것인가?

이 일은 내 인생의 목표와 믿음의 여정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무한한 평화와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마음은 (1) 포스트 모던시대의 상대주의; (2) 모순된 종교 체제들의 독단주의(세계 종교들); 그리고 (3) 교파적인 우월감 안에서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을 바랬다. 고문서의 바른 해석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 나 자신이 역사적, 문화적, 교파적, 경험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랐다. 나의 견해를 견지하기 위해 종종 성경을 읽었다. 나는 나 자신의 불안함과 부당함을 발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비록 나는 철저히 객관적일 수 없었지만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읽게 되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함으로써 그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편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나에게 있어서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었다. 바른 성경읽기를 함에 있어서 번역가 자신이 종종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된다!

성경연구를 위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점검할 전제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 I. 전제들

가.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유일한 계시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 저자의 역사적 상황과 원저자인 성령의 의도하심 안에서 해석되어져만 한다.

나. 나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쓰인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를 역사적, 문화적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맞추신다.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지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우리시대의 관점이 아닌 성경시대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처음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에게 의미하지 않았던 내용을 현재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

다. 나는 성경이 통일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성경에 어렵고 역설적인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좋은 해석가는 성경 바로 그 자체다.

라. 나는 모든 말씀(예언을 제외하고)이 감동된 원저자의 의도에서 오로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우리는 원저자의 의도를 완전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해하도록 돕는 여러 가지의 지침들이 있다:

1.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장르(문학의 유형)
2.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나 특별한 사건
3. 각 단락 및 전체 책의 문학적 배경
4. 전체 메시지와의 연관성에서의 문학적 단락의 개요
5.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특별한 문법적인 요소
6.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용어들
7. 대구(평행) 구절들

이와 같은 영역의 연구는 성경구절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표다.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나의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해석상 지나친 다양성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부적절한 방법을 말하고자 한다.

## II. 부적절한 방법들

가. 성경의 책들의 문학적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문장, 구, 심지어 각각의 단어들을 저자의 의도나 전체 상황과 관계없이 진리의 진술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본문사용”(proof-texting)으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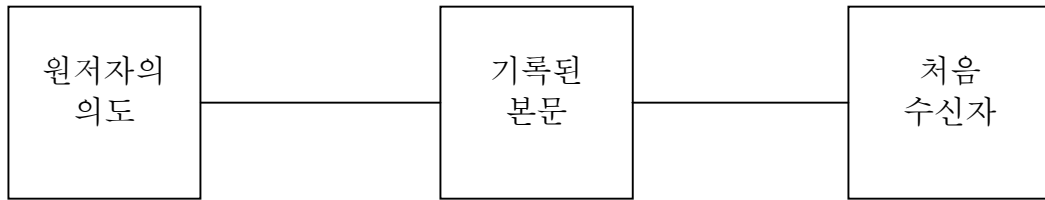
나. 본문이 거의 또는 전혀 지지하지 않는 상상적인 역사적 상황을 대용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조건 신문정도로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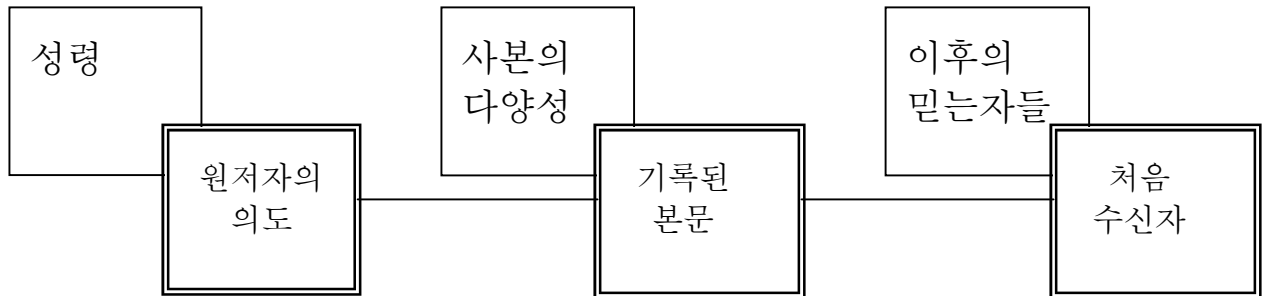
라. 성경을 처음의 청취자와 원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철학적, 신학적 메시지로 우화화 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마. 원저자의 목적과 그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학적 체계, 선호하는 교리나 현대 논쟁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원래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을 다룰 때 설교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종종 행해진다. 이것은 “독자 중심”(“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해석이라고 종종 불려진다.

인간의 글을 통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최소한의 세 가지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다른 독서법들이 세 요소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성경의 독특한 감동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정된 아래의 도표가 좀 더 적절하다:



실제로 세 가지 요소 모두가 해석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검증을 위해 나의 해석은 첫 두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원저자의 의도와 본문. 이제까지 잘못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1) 우화화나 영해하는 본문과 (2) “독자 중심” 해석(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 이러한 잘못은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기, 편견, 방법, 적용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해석의 범주나 한계 그리고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구조는 바른 해석의 범주를 갖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독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일관성 있는 바른 성경읽기나 해석이 되도록 돕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겠는가?

### II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가능한 방법들

지금 나는 특별한 문학 형태에 대한 독특한 해석 기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원리가 모든 형태의 성경본문에 적용된다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성서유니온)는 특별한 문학형태에 따라 접근하기에 좋은 책이다.

나의 방법은 네 가지 개인적인 읽는 단계를 통해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하시도록 우선적으로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 본문, 그리고 독자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주석가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 받을 수 있는 독자를 보호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성경은 주석가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준다.” 이것은 연구를 돕는 주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본문 자체가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소한의 다섯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원저자의
  - ㄱ. 역사적 배경
  - ㄴ. 문학적 배경

2. 원저자가 선택한
  - ㄱ. 문법적 구조(구문법)
  - ㄴ. 당시의 용법
  - ㄷ. 문학적 형태
3. 우리의 적절한 이해
  - ㄱ.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적용을 위한 유일한 원천이다. 슬프게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자주 의견이 맞지 않는다. 믿는 자들이 성경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다!

네 가지 읽는 단계는 아래의 해석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가. 독서의 첫 번째 단계

1. 단번에 그 책을 읽으라. 다른 번역을 읽되 가능하면 다른 번역이론에 속한 번역본을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ㄷ. 풀어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전체본문의 중심목적을 찾아라. 주제를 찾아라
3. (가능하면)문학적 단위, 장, 문단, 혹은 중심목적이나 주제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문장을 파악하라.
4. 뚜렷한 문학적 유형을 파악하라.
  - ㄱ. 구약
    - 1) 이야기체
    - 2) 시(지혜문학, 시편)
    - 3) 예언서(산문, 시)
    - 4) 법률
  - ㄴ. 신약
    - 1) 이야기체(복음서, 사도행전)
    - 2) 예화(복음서)
    - 3) 편지/서신서
    - 4) 계시 문학

나. 독서의 두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중요한 논제나 주제를 찾으라.
2. 중요한 논제를 말하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진술하라.
3. 목적 진술문을 점검하고,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용하여 개요를 넓혀라.

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성경에서 역사적인 상황과 특별한 사건을 확인하라.
2. 성경에 언급된 역사적인 내용들을 열거하라.
  - ㄱ. 저자
  - ㄴ. 날짜
  - ㄷ. 수신자
  - ㄹ. 글을 쓴 특별한 이유
  - ㅁ. 저술의 목적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의 요소
  - ㅂ.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언급

3. 해석할 성경본문의 단락별 개요를 만들라. 문학의 단위에 항상 유념하라. 문학적 단위는 여러 장이나 문단에 걸쳐 있을 수 있다. 이과정은 원저자의 논리와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4.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역사적 배경을 점검하라.
- 라. 독서의 네 번째 단계
1. 본문의 특별한 문학적 단위를 여러 번역본을 사용하여 다시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ㄷ. 풀어 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문학적 또는 문법적 구조를 확인하라.
    - ㄱ. 반복적인 표현, 엡 1:6, 12, 13
    - ㄴ. 반복되는 문법적 구조, 롬 8:31
    - ㄷ. 대조되는 개념들
  3. 다음의 항목들을 파악하라.
    - ㄱ. 중요 용어
    - ㄴ.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
    - ㄷ. 문법적으로 중요한 구조
    - ㄹ. 어려운 단어, 절, 문장
  4. 평행되는 구절들을 확인하라.
    - ㄱ. 해당되는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을 찾아라
      - 1) “조직신학”책
      - 2) 참조성경
      - 3) 성구사전
    - ㄴ. 당신의 주제에서 역설적인 짝을 이루는 것을 찾아라.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는 서로 대립적인 짝으로 나타난다; 많은 교파적 대립은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반쪽 본문사용에 기인한다. 모든 성경은 영감에 의해 쓰였다. 우리의 해석은 성경의 취지에 입각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의 완전한 메시지를 찾아내야만 한다.
    - ㄷ. 같은 책, 같은 저자, 같은 문학형태 안에서 평행되는 구절들을 찾아라;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한분이시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5. 역사적 배경과 사건에 대한 당신의 연구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라
    - ㄱ. 해설 있는 성경
    - ㄴ. 성경백과사전, 성경핸드북, 성경사전
    - ㄷ. 성경개론서
    - ㄹ. 성경주석(고금을 막론하고 개인 성경연구를 바르게 도울 수 있는 주석을 사용하라.)

#### IV. 성경해석의 적용

이제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의 원래의 상황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당신의 삶과 문화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는 성경의 권위를 “원저자가 그의 시대에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우리시대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가 시간과 논리 안에서 의도한 바를 따라야 한다. 성경이 그 시대에 말하고자 한 것을 알기 전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 성경 본문은 그것이 의미하지 않았던 것을 결코 의미할 수 없다!

당신의 세분화된 단락 수준(독서의 세 번째 단계)의 개요는 당신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적용은 단어 수준에서가 아니라 단락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어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구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문장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해석의 과정에서 영감 받은 사람은 오직 원저자뿐이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원저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조명은 영감이 아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원저자의 의도안에 머물러야만 한다. 적용은 전체 글, 각 문학적 단위, 문단에 나타난 일반적인 의도에 특별하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오늘날의 쟁점이 성경을 해석하게 말고; 성경이 말하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본문으로 부터 원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만약 본문이 원리를 뒷받침한다면 그것은 타당하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원리들은 자주 본문의 원리가 아닌 “우리의” 것이 되고 있다.

성경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본문(예언은 제외)에는 단지 하나의 의미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의미는 그 시대의 위기나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는 원저자의 의도와 연관이 있다. 하나의 의미에서 다양한 적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수신자의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원저자가 의미했던 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 V. 해석의 영적인 면

지금까지 나는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본문중심의 과정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해석의 영적인 면을 간단하게 논하고자 한다. 다음은 나에게 도움을 준 점검목록이다:

- 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고전 1:26-2:16).
- 나. 개인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용서와 깨끗이 해주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요일 1:9).
-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갈망하도록 기도하라(참조 시 19:1-14; 42:1 이하; 119:1 이하).
- 라. 허락하신 새로운 깨달음을 당신의 삶에 즉각 적용하라.
- 마. 겸손함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라.

성령의 영적인 인도와 논리적인 방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음에 인용된 내용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갖도록 내게 도움을 주었다:

가. 제임스 W. 사이어, 왜곡된 성경(*Scripture Twisting*), 17-18 쪽에서:

“성령의 감동은 영적 엘리트에게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경적인 기독교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위한 전문적 강의도, 그것을 터득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또한 모든 타당한 해석이 자신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성령께서 지혜, 지식, 영적분별의 특별한 은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런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을 권위있게 해석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성경은 최종권위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신 사람들에게도 권위를 갖는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배우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책임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 결론적으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참된 계시라는 것이라는 점과, 또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이 궁극적인 권위라는 점과, 성경은 결코 신비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 키에르케가드의 글, 버나드 램, 성경해석학, 75 쪽에서:

키에르케가드에 의하면, 성경의 문법적, 사전적, 역사적 연구는 필요할 뿐 아니라 바른 성경읽기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위해서는 사람의 입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열망하며 진심으로 읽어야 한다. 부주의하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학적이나 직업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사랑의 편지(love letter)로 읽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 라울리, 성경의 계시, 19 쪽에서:

“성경의 단순한 지적인 이해는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모든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다. 단순한 지적이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적 이해가 영적 이해(영적 보화)에 이르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이해를 위해 지적인 깨달음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려는 열정과 영적수용성을 가져야 한다. 그 결과 그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뛰어 넘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성경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 VI. 본 주석의 체계

본 연구안내주석은 당신의 해석과정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가. 각 책의 간단한 역사적 개요를 소개한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를 실시한 후 이 안내를 보라.

나. 각 장의 처음 부분에 문맥적 통찰력 난을 넣었다. 이것은 문학적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다. 각 장 혹은 주요 문학적 단위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 가지 현대 번역본의 문단분할과 그 제목을 제시했다:

1.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NASB)
2. 뉴킹제임스역(NKJV)
3. 신개정표준역(NRSV)
4. 현대영어성경(TEV)
5. 예루살렘역(JB)

문단구분은 영감 되지 않았다. 그것은 문맥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다른 번역이론과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진 여러 현대어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원저자가 가졌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제 문장” 또는 “본문의 중심 생각” 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통일된 생각이 역사적, 문법적으로 적절한 해석의 열쇠이다. 문단보다 작은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또한 각 문단은 앞뒤의 문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책 전체의 문단 개요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반드시 영감 된 원저자가 주장하는 주제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야 한다.

라. 밥(Bob)의 설명은 한 절씩 해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도록 도와준다. 그의 설명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1. 문학적 상황
2. 역사적, 문화적 통찰력
3. 문법적 지식
4. 단어 연구
5.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마. 때에 따라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 대신에 다른 여러 현대 번역본도 보충적으로 사용되었다:

1. “공인본문”으로 알려진 뉴킹제임스역
2. 개정표준역 전국교회협의회 축어적 개정판인 신개정표준역
3. 미국성서공회의 등가번역본인 현대영어성경
4.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영어 등가 번역본인 예루살렘역

바. 헬라어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여러 영어번역본을 비교하는 것이 본문의 문제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1. 사본의 다양성
2. 대체할 수 있는 단어의 뜻
3. 문법적으로 어려운 본문이나 구조
4. 애매한 본문

영어번역본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깊고 철저한 연구가 되도록 도와준다.

사.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장의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들에 대한 생각할 질문들을 제시했다.



# 신명기 서론

## I. 중요성

가. 이 책은 신약에서 많이 인용된 4 권의 구약 책 가운데 하나이다(즉, 창세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신명기는 83 회 인용되었다.

나. 틴데일 구약주석 시리즈인 J. A. 톰슨의 “신명기”를 인용하면  
“신명기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이다. 이 책이 모든 시대에 걸쳐 가정과 개인의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은 성경의 그 어떤 책들이 한 것보다 더 뛰어나다”(11 쪽).

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즐겨 인용하신 구약의 책 가운데 하나였다:

1. 주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거듭하여 이 책에서 인용하여 말했다  
ㄱ. 마 4:4; 눅 4:4 - 신 8:3  
ㄴ. 마 4:7; 눅 4:12 - 신 6:26  
ㄷ. 마 4:10; 눅 4:8 - 신 6:13
2. 이 책은 산상수훈의 배경에 개요를 제공한다(참조, 마 5-7 장).
3. 예수님은 신 6:5 을 가장 커다란 계명으로 인용하셨다(참조, 마 22:34-40; 막 12:28-34; 눅 10:25-28).
4.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 책(창세기-신명기)을 자주 인용하셨는데 이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오경을 성경의 가장 권위있는 부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라. 이 책은 성경에서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새로운 환경에서 재해석하는 뚜렷한 예를 보여준다. 이것의 한 예로서 출 20:11 과 신 5:15 에 있는 십계명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들 수 있다. 출 20 장은 광야방랑 시기와 관련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고, 신 5 장은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정착할 것을 준비할 때에 모압평지에서 주신 것이다.

마.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평지(요단강 동편)에서 한 연속적인 설교의 내용이다. 세 가지 설교는 모두 그것을 행한 장소의 이름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모두 한 장소를 가리킨다.

1. “요단 저쪽 습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1:1
2.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1:5
3. “요단 동쪽 벳브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4:46
4. “모압 땅에서,” 29:1

바. 신명기는 또한 이 책의 형성에 관하여 오늘날 구약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는 책이다. 현대 학자들은 신명기와 오경의 다른 책들이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해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 II. 책의 이름

가. 히브리 성경에서 토라(오경)의 책 제목은 처음 나오는 열 단어 가운데 하나로 되어있는데, 대개의 경우 첫 단어가 책이름이다:

1. 창세기, “태초에”
2. 출애굽기,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이름들이다”
3. 레위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4. 민수기, “그리고 광야에서”
5. 신명기, “이것이 그 말씀이다”

나. 탈무드에서 신명기는 “율법의 반복”(창 17:18 의 미쉬나 핫토라)으로 불린다.

다. 칠십인역(LXX)으로 불리는 헬라어 구약성경은 주전 250 년 경 헬라어로 번역되었다. 이 번역본은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으로 일컫는데 이는 17:18(즉, “이 율법책의 사본을 만들라”)의 오역이다.

라.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이책을 “두 번째 율법”(듀테로노미엄)이라고 일컫는 제롬의 라틴 벌케이트역에 기초한다.

마. 이 책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 가르침을 주는 책이다.

1. “이 율법책,” 28:61
2. “이 율법,” 1:5; 4:8; 17:18, 19; 27:3, 8, 26
3. “설명적인 다른 표현들,” 4:1, 45; 6:17, 20; 12:1

## III. 정경화 — 이 책은 히브리어 성경의 세 부분 가운데 첫 부분인 토라를 결론짓는 책이다

가. 토라 혹은 율법 — 창세기-신명기

나. 예언서:

1. 전기 예언서 — 여호수아-열왕기하(룻기 제외)
2. 후기 예언서 — 이사야서-말라기(다니엘과 애가 제외)

다. 성문서:

1. 메길룻(5 책):
  - ㄱ. 아가서
  - ㄴ. 전도서
  - ㄷ. 룻기
  - ㄹ. 애가
  - ㅁ. 에스더
2. 다니엘서
3. 지혜서:
  - ㄱ. 욥기
  - ㄴ. 시편
  - ㄷ. 잠언
4. 역대상하

#### IV. 장르

가. 신명기에는 여러 장르가 사용되고 있다.

1. 역사적 설명
  - ㄱ. 1-4 장
  - ㄴ. 34 장
2. 권면- 6-11 장
3. 안내- 12-28 장
4. 시/찬송/노래 – 32 장
5. 축복 – 33 장

나. 신명기는 29:21; 30:10; 31:26 에서 이 책을 생명을 위한 야웨의 지침(토라)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할 믿음과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책이다.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지도자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계시를 주셨다. 인간 지도자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지만, 기록된 계시는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강조된다.

#### V. 저자

가. 유대적 전통

1. 고대의 전통은 이견없이 모세가 저자임을 말한다.
2. 이 내용은 다음에 나온다:
  - ㄱ. 탈무드 – 바라 바트라 14b
  - ㄴ. 미쉬나
  - ㄷ. 벤 시라의 지혜서 24:23(주전 185 년 경 쓰임)
  - ㄹ.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 ㅁ. 플라비우스 요세퍼스
3. 성경 자체:
  - ㄱ. 사사기 3:4 와 여호수아 8:31
  - ㄴ. “모세가 말하기를”:
    - (1) 신명기 1:1, 3
    - (2) 신명기 5:1
    - (3) 신명기 27:1
    - (4) 신명기 29:2
    - (5) 신명기 31:1, 30
    - (6) 신명기 32:44
    - (7) 신명기 33:1
  - ㄷ.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 (1) 신명기 5:4-5, 22
    - (2) 신명기 6:1
    - (3) 신명기 10:1
  - ㄹ. “모세가 기록하기를”
    - (1) 신명기 31:9, 22, 24
    - (2) 출애굽기 17:14

- (3) 출애굽기 24:4, 12
- (4) 출애굽기 34:27-28
- (5) 민수기 33:2
- ㄱ. 예수님은 신명기에서 인용하거나 신명기의 내용을 암시할 때 “모세는 말하기를”/“모세가 기록하기를”이라고 말씀했다:
  - (1) 마 19:7-9; 막 10:4-5 – 신 24:1-4
  - (2) 막 7:10 – 신 5:16
  - (3) 눅 16:31; 24:27, 44; 요 5:46-47; 7:19, 23
- ㄴ. 바울은 모세를 저자로 확인하고 있다:
  - (1) 롬 10:19 – 신 32:21
  - (2) 고전 9:9 – 신 25:4
  - (3) 갈 3:10 – 신 27:26
  - (4) 행 26:22; 28:23
- ㄷ. 베드로는 오순절에 행한 설교에서 모세를 저자로 확인한다 – 행 3:22
- ㅇ.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를 저자로 말한다 – 히 10:28; 신 17:2-6

#### 나. 오늘날의 학자들

1. 많은 18 세기 19 세기의 신학자들은 그라프-윌하우젠의 다중 저자설(JEDP)을 따라 요시아왕 시대에 제사장/선지자인 저자가 그의 영적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신명기를 기록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견해는 신명기가 주전 621 년 경에 모세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록되었다고 본다.
  2. 그들의 주장은 다음에 기초한다:
    - ㄱ. 왕하 22:8; 대하 34:14-15, “나는 율법책을 하나님의 전에서 발견했다”
    - ㄴ. 12 장은 성막과 후기의 성전을 하나로 말한다
    - ㄷ. 17 장은 후기의 왕들에 대해 말한다.
    - ㄹ. 과거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책을 저술하는 것은 고대 근동과 유대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 ㅁ. 신명기와 여호수아서, 열왕기서, 예레미아서 사이에 있는 스타일, 어휘, 문법적 유사성
    - ㅂ. 신명기가 모세의 죽음(34 장)을 기록한다
    - ㅅ. 모세오경에 있는 명백하게 보이는 후기 편집:
      - (1) 신 3:14
      - (2) 신 34:6
    - ㅇ. 하나의 문맥과 동일한 역사적 시기로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때때로 설명할 수 없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점: 엘, 엘 샤다이, 엘로힘, 야웨.
- 다. 분명히 약간의 편집으로 추가된 부분이 있다. 유대 서기관들은 정기적으로 고대 문서를 개정하던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다. 메소포타미아 서기관들은 자료를 추가하는 것을 삼갔다. 신명기에 있는 어떤 예들로는 다음과 같다:
1. 27:3, 8
  2. 28:58
  3. 29:21, 29
  4. 30:10, 19
  5. 31:24

## VI. 시기

- 가.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다면 출애굽 시기와 기간에 대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1. 왕상 6:1 을 글자 그대로 택한다면 주전 1445 년(제 18 왕조의 투트모세 III 와 아멘호텝 II):
    - ㄱ. 칠십인역은 480 년 대신에 440 년으로 말한다
    - ㄴ. 이 숫자는 햇수보다 세대를 의미할 수 있다(상징적)
  2. 고고학적 자료들은 출애굽 시기로 주전 1290 년을 지지한다(이집트의 제 19 왕조):
    - ㄱ. 세티 I (1390-1290)는 이집트의 수도를 테베에서 델타지역의 소안/타니스로 옮겼다.
    - ㄴ. 라암세스 II (1290-1224):
      - (1) 그의 이름은 히브리 노예들이 건설한 도시에 나온다(참조, 창 47:11; 출 1:11)
      - (2) 그는 47 명의 딸을 가짐
      - (3) 그의 왕위를 그의 장자가 계승하지 못했다
    - ㄷ. 팔레스타인에 있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주요 도시들이 주전 1250 년 경에 파괴되어 신속하게 재건되었다.
- 나. 오늘날 학자들의 다중 저자설
1. J(야웨) 주전 950 년
  2. E(엘로힘) 주전 850 년
  3. JE(조합) 주전 750 년
  4. D(신명기) 주전 621 년
  5. P(제사) 주전 400 년

## VII.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자료들

- 가. 주전 1000-2000 년 시기에 있었던 히타이트 조약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신명기(또한 출애굽기-레위기 및 수 24 장)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고대에 속하는 조약이다. 이 조약 형태는 주전 1,000 년 이후에 바뀌었다. 이점은 신명기의 역사성을 입증한다. 이 분야에 있어서 더 자세한 내용은 G. E. 멘텐홀이 지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서의 법과 계약 과 M. G. 클라인의 강대국 왕의 조약 을 보라.
- 나. 히타이트 조약과 신명기가 병행되는 내용:
1. 서언(신 1:1-5, 화자의 서론, 야웨)
  2. 왕이 이전에 행한 일을 회고함(심 1:6-4:4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
  3. 조약 용어들(신명기 5-26 장):
    - ㄱ. 일반적인 것(신명기 5-11 장)
    - ㄴ. 특별한 것(신명기 12-26 장)
  4. 조약의 결과(신명기 27-29):
    - ㄱ. 혜택(신명기 28 장)
    - ㄴ. 결과(신명기 27 장)
  5. 신적 증인(신 30:19; 31:19, 또한 32 장, 모세의 노래는 증인의 기능을 함):
    - ㄱ. 신전에 조약의 한 사본을 보관함
    - ㄴ. 또 다른 사본은 봉신의 신전에 보관하여 매년 읽음

ㄷ. 히타이트 조약이 후기의 앗시리아와 시리아에서 행한 조약과 달리 독특한 점은:

- (1) 왕의 이전 행동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
- (2) 저주의 부분이 더 약하게 말해지고 있는 점이다

다. 히타이트 조약 형태는 주전 1,000 년 이후에 조금 바뀌었다(한 조항이 빠짐). 신명기의 형태는 모세와 여호시아의 시대에 가장 잘 맞는다!

라. 히타이트 조약에 대한 좋은 논의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K. A. 키친의 고대 동양과 구약, 99-102 쪽을 보라.

### VIII. 문학적 단위(문맥)

가. 책의 서론, 1:1-5

나. 첫 번째 설교, 1:6-4:43(오늘날 주시는 야웨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의 교훈)

다. 두 번째 설교, 4:44-26:19(오늘날 모든 경우를 위해 주시는 야웨의 법)

1. 일반적인 것 – 십계(5-11 장)
2. 특별한 경우와 적용(12-26 장)

라. 세 번째 설교, 27-30 장(미래를 위해 주시는 야웨의 율법 27-29 장)

1. 저주(27 장)
2. 축복(28 장)
3. 언약의 갱신(29-30 장)

마. 모세의 마지막 말들, 31-33 장

1. “고별”설교, 31:1-29
2. 모세의 노래, 31:30-32:52
3. 모세의 축복, 33:1-29

바. 모세의 죽음, 34 장

### IX. 주요 진리

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의 마지막 준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창세기 15 장)이 성취되었다!

나. 창세기 12:1-3 은 땅과 씨(후손)를 약속했다. 구약은 땅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신약은 “씨”에 초점을 두게 된다(참조, 갈라디아서 3 장).

다. 모세는 유목생활이 아니라 정착된 농경생활을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킨다. 그는 시내산 언약을 약속의 땅에 적합하게 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헌장이다.

라. 이 책은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언약은 조건적이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믿음, 회개, 순종으로 반응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만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27-29 장의 저주가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중요한 본보기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지도자일지라도 순종이 필요하다. 불순종은 항상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신명기 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뉴킹 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이전의 명령	역사적 회고 (1:1-3:29)	서론	모세의 첫 번째 강화 (1:1-4:43)
1:1-8	1:1-5	1:1-5	시간과 장소 1:1-3 1:4-5 호렘에서의 마지막 교훈 1:6-8
임명받은 지파 지도자들	1:6-8	1:6-8	
1:9-18	1:9-18	1:9-15 1:16-18	1:9-18
이스라엘이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함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군들을 보냄	가데스: 이스라엘이 믿음을 잃음
1:19-25	1:19-21 1:22-25	1:19-21 1:22 1:23-25	1:19-28
1:26-33	1:26-33	1:26-28 1:29-33	1:29-33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처벌		주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심	가데스에서 주신 야웨의 지시
1:34-40	1:34-40	1:34-38 1:39-40	1:34-40
1:41-46	1:41-45	1:41 1:41-46	1:41-46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 문단의 분할은 영감되지는 않았지만 원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따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현대 번역본은 문단을 나누고 문단의 요약해 놓았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 주제, 진리,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 번역본은 그 자체의 독특한 방법으로 주제를 요약한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번역본이 주제와 문단나누기에 있어서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라.

매 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먼저 읽고 주제(문단)를 찾은 다음, 우리의 이해를 현대 번역본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원저자의 논리와 표현을 따라 그의 의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로지 원저자만이 영감을 받았다—따라서 독자들은 그 메시지를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성경의 독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감된 진리를 적용할 책임이 있다.

부록 1, 2, 3에 자세히 설명해 놓은 기술적인 용어들과 약어들을 참조하라.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1:1-5

<sup>1</sup>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습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sup>2</sup>호렙 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 <sup>3</sup>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sup>4</sup>그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죽인 후라 <sup>5</sup>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1:1** “이는 말씀이니라” 이것은 이 책 전체에 대한 히브리어 제목이다. 히브리어 동사인 “말하다”(BDB 180, KB 210, 피엘 완료형)는 명사인 “말들”(BDB 182)과 같은 어원을 가진다. 이 책 자체가 이것이 모세의 말이라고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책 전체를 후기의 편집자, 교정자, 수집자의 작품으로 여길 가능성을 제거한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실제로 모세가 한 말을 갖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상 야웨의 말씀이다(참조, 7:4; 11:13-14; 17:3; 29:6). 이 사실은 어떤 편집자들에 의해 이 책의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부인하거나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기록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책 전체의 내용과 신학은 모세의 것이다.

비슷한 표현들이 신명기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 새로운 구분을 주고 있다:

1. “이는 말씀이다,” 1:1(1:1-5, 첫 번째 설교에 대한 서언)
2. “이는 율법이다,” 4:44(4:44-49, 두 번째 설교에 대한 서언)
3. “이는 명령이다,” 6:1
4. “이는 언약의 말씀이다,” 29:1(세 번째 설교의 시작)
5. “이는 축복의 말씀이다,” 33:1

내가 논란이 많이 있는 저자/저작 시기를 다룸에 있어서, 나는 모든 성경이 영감으로 된 것임을 믿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참조, 딤후 3:15-17). 저자와 저작 시기는 해석학적 문제이지 영감의 문제가 아니다! 성령은 성경의 모든 본문에 있어서 신적 저자이시다. 이것이 전제로 되어야 하는 가정인가? 절대적으로 그러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제로서, 어떤 성경본문에 대한 석의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고 연구되어야 할 점이다. 영감과 정경화에 대한 교리는 성경의 권위가 기초한 두 개의 기둥이다!

■ “모세가 말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모세가 단번에 그들 모두에게 직접 말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장로들에게 말하고 장로들은 작은 규모의 사람들에게 그의 말을 되풀이하여 전했다. 혹은 글로 적은 문서를 의미할 수도 있다.

■ “이스라엘 무리에게”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이스라엘(이름)**

**I. 이름의 뜻이 불확실하다(BDB 975).**

- 가. 엘 이 끝까지 해내신다
- 나. 엘 이 끝까지 해내십시오(지시형)
- 다. 엘 이 보존하신다
- 라. 엘 이 싸우십시오
- 마. 엘 이 다투신다
- 바. 하나님과 다투는 자(창 32:28)

**II. 구약에서의 용법**

- 가. 야곱의 이름(남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 BDB 784, 참조 창 25:26)은 그가 압박강 가에서 영적 인물과 씨름을 한 후에 바뀌었다(참조, 창 32:22-32; 출 32:13). 종종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어원적이기보다 소리에 의한 효과를 가져온다(참조, 32:28). 이스라엘은 그의 이름이 되었다(예, 창 35:10; 32:13).
- 나. 이것은 야곱의 12 아들을 모두 일컫는 명칭이 되었다(예, 창 32:32; 49:16; 출 1:7; 4:22; 28:11; 신 3:18:10:6).
- 다. 이것은 출애굽 이전(참조, 창 47:27; 출 4:22; 5:2)과 출애굽 이후(참조, 신 1:1; 18:6; 33:10)에 12 지파로 이루어진 국가를 나타내는 명칭이 되었다.
- 라.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왕국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여러 지파들이 이 왕국을 세웠다(참조, 왕상 12 장).
  - 1. 공식적으로 갈라지기 이전에 이러한 구분이 시작되었다(예, 삼하 3:10; 5:5; 20:1; 24:9; 왕상 1:35; 4:20)
  - 2. 이 명칭은 앗시리아에 의해 사마리아가 주전 722 년에 멸망할 때 까지 북왕국에 속한 지파들에게 사용되었다(참조, 왕하 17 장).
- 마. 어떤 경우에는 유다에게 사용되었다(예, 사 1 장; 미 1:15-16).
- 바. 앗시리아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야곱의 후손을 가리키는 통칭적인 명칭으로 다시 사용되었다(예, 사 17:7, 9; 렘 2:4; 50:17, 19).
- 사. 제사장들과 구분되는 일반 백성을 일컫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대상 9:2; 스 10:25; 느 11:3).

■ “요단 저쪽” 이것은 “~쪽 지역”을 의미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BDB 719). 이어지는 두 문장은 매우 특별하게 모세가 이 계시를 준 이스라엘 진의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이 표현은 (1) 요단의 동쪽지역(참조, 민 35:14; 신 1:1, 5; 4:41, 46, 47, 49) (2)서쪽지역(참조, 신 3:20, 25; 11:30; 9:1)을 일컫는 관용어가 되었다. 강의 어느 쪽을 말하는 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표현이 요구된다(참조, R. K. 해리슨, 구약개론, 636-638 쪽).

■ “광야” 이것은 사막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초원을 의미한다(BDB 184).

■ “아라바”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건조한 평야”를 말한다(BDB 787). 이것은 요단 계곡을 가리키는데(즉, 대 협곡 골짜기) 갈릴리 바다로부터 아카바만까지 이어진다(실제로 터키에서

모잠비크까지). 따라서 이것은 남쪽(오늘날의 의미)과 사해 북쪽을 다 포함하기에 우리는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정확한 지점을 알기 어렵다. 이것은 요단강 동쪽 연안(참조, 3:17; 4:49) 또는 서쪽 연안(참조, 11:30)을 말할 수 있다. 1 절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한 여정을 요약한다.

■ “습” 이것은(이집트에서 빌린 외래어로서) 문자적으로는 “갈대”를 말한다(BDB 719). 염분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 풀(참조, 욥 2:5) 혹은 보다 일반적 의미에서 민물에서 자라는 풀(참조, 출 2:5)을 말한다. 여기서는 “갈대가 자라는 지역”이나 습으로 불린 도시로 해석할 수 있는데 40 절과 관련이 있다(즉, 홍해는 문자적으로 “갈대의 바다”를 뜻한다).

■ “바란” “바란”이라는 용어(BDB 719)는 시내 광야의 북쪽에 있고 유다 광야의 남쪽에 있는 광야를 말한다(참조, 민 13:3, 26). 가데스 바네아 오아시스는 이 광야지역에 위치했다. 2:1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러나 이 절에서 바란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장소(아마도 도시)일 것이다.

■ “도벨” 이 용어는 “백색 도료” 말한다(BDB 1074). 알려지지 않은 장소이지만, 분명히 모압 지경의 요단강 동쪽에 있는 장소를 말한다.

■ “라반” 이 용어는 “흰색”을 말한다(BDB 526 III). 알려지지 않은 장소이다. 어떤 학자는 시내산에서 모압에 가는 길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참조, 민 33:20-21의 립나) 어떤 이는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의 도시나 마을로 본다.

■ “하세롯” 이것은 장소이름이며(BDB 719), 학자들로부터 “아라바”로 언급된 이스라엘 진을 시내산과 모압평지에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는 장소이다(참조, 1:2). 만일 그렇다면, 라반은 립나(참조, 민 33:20-21)일 것이고 하세롯은 민 33:17-18을 가르킨다. 이곳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과 그두라와 재혼한 일에 대해 불평했던 장소이다(참조, 민 12장).

■ “디사합” 이 이름(아람어로 “장소”와 히브리어로 “금”의 합성어)은 “금이 있는 곳”을 뜻한다(BDB 191). 랍비들은 이것을 이집트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그들에게 금을 준 것으로 보지만(참조, 출 3:22; 11:2; 12:35), 문맥상 이것은 지역의 이름이다.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지명이다. (1) 요단강 동편 모압 땅으로서 언급된 다른 장소와 가까이 있는 곳이거나 (2) 시내산에서 모압으로 오는 길에 있었을 것이다.

**1:2** “호렘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 이 절은 이스라엘이 호렘산/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오아시스까지 이동한 것의 요약일 수 있다. 그렇다면 1-3 절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이 절이 포함된 이유는 여정이 11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한 세대(38년 이상)가 온전히 걸렸다. 11일 여행길이라는 표현은 호렘산/시내산이 시나이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것을 확인해 준다.

율법을 주신 곳이 “호렘”으로 불림을 주목하라. 호렘은 히브리어로 “낭비”나 “망함”을 뜻한다(BDB 352, KB 349). 시내(BDB 696)는 히브리어가 아니며 호렘이라는 명칭과 함께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야웨를 만나도록 한 장소를 일컫는다(예, 호렘, 출 3:1; 신 1:6, 19; 4:10, 15; 5:12 시내, 출 19; 레 7:38; 25:1; 26:46; 27:34; 민 1:1, 9; 3:1, 4, 14; 9:1, 5).

왜 신명기에서는 “호렘”이 출애굽기에서는 “시내”라는 이름이 자주 사용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모세의 글에는 문학적 다양성이 나타난다. 이것은 다음에 기인할 수 있다:

1. 다른 서기관들에 의해 기록된 구전
2. 모세가 다른 서기관을 사용함
3. 후기 서기관에 의한 개정으로서 이유가 알려지지 않음

#### 4. 문학적 다양성

##### 특별주제: 시내산의 위치

- 가. 만일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한 삼일 길을 상징적이 아닌 글자대로의 의미로 말한 것이라면(3:18; 5:3; 8:27), 이 시간은 전통적 장소인 시나이반도 남쪽에 도달할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산을 가데스 바네아 오아시스 근처에 있는 산으로 본다.
- 나. 신평야에 있는 “예벨 무사”로 불리는 전통적 장소를 여러 내용이 지지한다:
1. 산 앞에 커다란 평지가 있다.
  2. 신 1:2 은 시내산으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1 일 길이라고 말한다.
  3. “시내”는 히브리어 용어가 아니다. 이것은 사막에 자라는 작은 덤불을 말하며 신평야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 산에 대한 히브리어는 호렘(광야)이다.
  4. 주후 4 세기 이후에 시내산은 전통적으로 알려진 곳이 되었다. 이것은 시나이반도의 많은 지역과 아라비아를 포함하는 말인 “미디안 땅”에 있다.
  5. 고고학은 출애굽 여정에 언급된 시나이반도 서쪽에 있는 몇 도시(엘림, 도브가, 르피딤)의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시내산에 대한 전통적인 확인은 주후 385-8 년에 쓰여진 실비아의 순례가 있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참조, F. F. 브루스, 사도행전 주석, 151 쪽).

■ “세일 산” BDB 973 은 “세일”을 (1) 염소 (2) 털이 많은 (3) 나무들로 머리털처럼 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반면, KB 1989 는 “털이 많은”의 뜻을 제시한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에돔과 관련이 있다(참조, 창 14:6; 36:20-21, 30; 신 1:2, 44; 2:1, 4-5; 33:2). 이것은 종종 산을 말한다(참조, 창 14:6; 36:8-9; 신 2:1). 따라서 원래 에돔이 소유로 삼은 호리족의 산지를 말한다.

■ “가데스 바네아” 이것은 에돔의 국경지대에 있는 큰 오아시스로서(참조, 민 20:16) 브엘세바로부터 약 80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4 개의 샘이 있다. 이름이 두 요소로 되어있다. 첫 번째 요소는 히브리어로 “거룩”을 뜻한다(BDB 873). 두 번째 요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곳은 광야방랑 시기에 축이 되었다(참조, 민 13-14 장).

1:3 “마흔째 해” 이것은 신명기에만 나오는 언급이다. “40”(BDB 917)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로서 길지만 끝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을 뜻한다. 정확한 연대는 38 년으로 보인다(시내로부터 모압 평지까지).

■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저자는 이스라엘에게 준 이 말을 한 장소와 시간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히 밝히고 있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고대 근동 달력

가나안 (왕상 6:1, 37-38; 8:2)	수메리안-바벨론 (니푸르 달력)	히브리 (게젤 달력)	현대의 월
아빍(보리의 “초록 이삭”)	니사누	니산	3-4 월
진(봄의 반짝임)	나야루	리야르	4-5 월
	시마누	시반	5-6 월
	두-우주	탐무즈	6-7 월
	아부	압	7-8 월
	우루루	에룰	8-9 월

	테스리투	티스리	9-10 월
에타님(영원한 물의 근원)	아라-삼나	마체스반	10-11 월
불(곡식위의 비)	키슬리무	키스레브	11-12 월
	테비투	테벳	12-1 월
	샤바투	쉐밋	1-2 월
	아다루	아달	2-3 월

■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모세는 통로이다. 이 모든 명령은 언약을 주신 야웨로부터 왔다.

모세의 글에 하나님을 일컫는 매우 많은 종류의 이름이 있다. 다음은 신명기 1-4 장에 나오는 예이다.

1. 여호와(야웨), 1:3, 8, 27, 34, 41, 42, 43, 45; 2:12, 14, 15, 17, 21, 31; 3:2, 20, 21, 26(2 회); 4:12, 14, 15, 21, 27
2. 여호와(야웨) 우리 하나님(엘로힘), 1:1, 19, 20, 25, 41; 2:20, 36, 37; 3:3; 4:7
3. 여호와(야웨) 너희 하나님(엘로힘), 1:10, 21, 26, 30, 31, 32; 2:7(2 회), 30; 3:18, 20, 21, 22; 4:2, 3, 4, 10, 19, 21, 23(2 회), 24, 25, 29, 30, 31, 34, 40
4. 여호와(야웨),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엘로힘), 1:11, 21; 4:1
5. 하나님(엘로힘), 1:17; 2:33; 4:24(질투하시는 하나님), 31(공홀히 여시기는 하나님), 32, 33
6. 주(아돈) 여호와(야웨), 3:24
7. 여호와(야웨) 나의 하나님(엘로힘), 4:5
8. 여호와(야웨) 그는 하나님이시다(엘로힘), 4:35, 39

이 다양성에 대하여 많은 견해가 있다:

1. 여러 저자
2. 여러 서기관
3. 신학적 이유
4. 문학적 다양성

구약 성경의 저자, 수집, 편집, 서기관들의 활동과 관련된 활동이 우리에게 신비로운 일에 속함을 구약학자들이 인정해야만 한다. 우리의 현대 서구의 문학기론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선형적인 신학적 가정들이 하나 혹은 오직 하나의 해석을 요구함을 잘 알고 주의해야 한다. 신비로운 것은 신비로운 일로 여겨야 한다.

####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

##### 가. 엘

1. 비록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가 아카디아어의 “강하다” 또는 “능하다”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말하지만 이 용어가 고대에 가진 고유한 의미는 불확실하다 (참조, 창 17:1; 민 23:19; 신 7:21; 시 50:1).
2. 가나안 만신전에서 높은 신은 엘 이다(라스 샤므라 본문)
3. 성경에서 엘은 보통은 다른 용어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이러한 합성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는 방법이다.
  - ㄱ. 엘-엘론 (“아주 높으신 하나님”), 창 14:18-22; 신 32:8; 사 14:14
  - ㄴ.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또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창 16:13
  - ㄷ.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또는 “공홀이 많으신 하나님” 또는 “산의 하나님”), 창 17:1; 35:11; 43:14; 49:25; 출 6:3

- ㄹ.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창 21:33. 이 용어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다. 삼하 7:13, 16
- ㅁ. 엘-베릿 (“언약의 하나님”), 삿 9:46
- 4. 엘은 다음과 동격을 이룬다
  - ㄱ. 야웨 시 85:8; 사 42:5
  - ㄴ. 엘로힘 창 46:3; 욥 5:8, “나는 엘 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엘로힘)이다”
  - ㄷ. 샤다이 창 49:25
  - ㄹ. “시기” 출 34:14; 신 4:24; 5:9; 6:15
  - ㅁ. “자비” 신 4:31; 느 9:31; “신실하신” 신 7:9; 32:4
  - ㅂ. “크고 두려우신” 신 7:21; 10:17; 느 1:5; 9:32; 단 9:4
  - ㅅ. “지식” 삼상 2:3
  - ㅇ. “나의 견고한 피난처” 삼하 22:33
  - ㅈ. “나의 신원자” 삼하 22:48
  - ㅊ. “거룩하신 분” 사 5:16
  - ㅋ. “힘” 사 10:21
  - ㅌ. “나의 구원” 사 12:2
  - ㅍ. “크고 능하신” 렘 32:18
  - ㅎ. “갹으심” 렘 51:56
- 5. 수 22:22 에는 구약에서 자주 합성어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엘, 엘로힘, 야웨 가 반복됨)
- 나. 엘론
  - 1. 이 이름의 기본적인 뜻은 “높은,” “존귀하신,” 또는 “높이 들리신”이다(참조, 창 40:17; 왕상 9:8; 왕하 18:17; 느 3:25; 렘 20:2; 36:10; 시 18:13).
  - 2. 이 이름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칭호와 병행하는 의미를 갖는다.
    - ㄱ. 엘로힘 - 시 47:1-2; 73:11; 107:11
    - ㄴ. 야웨 - 창 14:22; 삼하 22:14
    - ㄷ. 엘 샤다이 - 시 91:1, 9
    - ㅁ. 엘 - 민 24:16
    - ㅂ. 엘라 - 다니엘 2-6 장, 에스라 4-7 장; 단 3:26; 4:2; 5:18, 21 에서는 일라이르(아람어로 “높으신 하나님”)와 연결됨
  - 3. 이 이름은 종종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였다.
    - ㄱ. 멜기세덱, 창 14:18-22
    - ㄴ. 발람, 민 24:16
    - ㄷ. 모세, 신 32:8 에서 나라들에 대해 말함
    - ㄹ.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신약의 누가복음은 또한 헬라어로 같은 뜻을 지닌 헵시스토스를 사용(참조, 1:32, 35, 76; 6:35; 8:28; 행 7:48; 16:17)
- 다. 엘로힘(복수형), 시편에서 주로 사용된 엘로아(단수형)
  - 1. 이 이름은 구약 이외의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 2.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는 이방의 신들을 말할 수 있다(참조, 출 12:12; 20:3). 아브라함의 가족은 다신교적 신앙을 가졌다(참조, 수 24:2).
  - 3.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가리킬 수 있다(참조, 출 21:6; 시 82:6).
  - 4. 엘로힘은 영적 존재들(악한 천사)들에게도 사용되었다, 신 32:8(LXX); 시 8:5; 욥 1:6; 38:7. 이것은 또한 사람인 재판관들에게도 사용되었다(참조, 출 21:6; 시 82:6).

5. 성경에서 이것은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이름이다(참조, 창 1:1). 이 이름이 야웨와 함께 사용된 창 2:4 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것은 기본적(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 행성에 있는 생명있는 모든 것의 창조주, 보존자, 공급자로 나타낸다(참조, 시 104).  
 이것은 엘과 동의어적이다(참조, 신 32:15-19).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시 14 편(엘로힘)이 시 53 편(야웨)와 정확하게 병행하듯이, 이 이름은 야웨와 병행한다.
6. 비록 복수형이 이방신들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 호칭은 종종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 이름은 단수형 동사를 가져 유일신적 의미를 나타낸다.
7. 이 용어는 이스라엘인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사용된다.
  - ㄱ. 뎀기세텍, 창 14:18-22
  - ㄴ. 발람, 민 24:2
  - ㄷ. 모세가 이방 나라들에 대해 말할 때, 신 32:8
8. 이스라엘이 유일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을 복수형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이하다! 비록 아주 분명하지만 않지만, 여기에는 여러 이론이 있다:
  - ㄱ. 히브리어에는 많은 복수형이 있는데 종종 강조를 나타낸다. 이것은 복수형이 어떤 개념을 극대화하는후기의 히브리어 문법 용어로 “위엄을 나타내는 복수형”에 가깝다.
  - ㄴ. 이것은 천사들의 모임을 일컬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다(참조, 왕상 22:19-23; 욥 1:6; 시 82:1; 89:5, 7).
  - ㄷ. 이것은 신약의 계시에서 삼위이신 한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 1:1 에서 하나님의 창조; 창 1:2 에서 성령이 행하심;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에 있어 아버지의 대행자였다(참조, 요 1:3, 10; 롬 11:36; 고전 8:6; 골 1:15; 히 1:2; 2:10).

#### 라. 야웨

1. 이것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구속자이시다! 인간은 언약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약속,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신다(참조, 시 103).  
 이 이름은 창 2:4 에서 엘로힘과 함께 나타난다. 창 1-2 장은 창조에 대한 두 개의 기록이 아니라 두 가지 강조점을 갖는 것이다: (1) 하나님은 우주(물질적)의 창조자이시고 (2) 인류의 특별한 창조자이시다. 창 2:4 은 인간의 특권적인 지위와 창조목적에 대해 특별한 계시로 시작하며, 또한 죄의 문제와 인간의 독특한 지위와 관련된 반역을 다룬다.
2. 창 4:26 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야웨)을 불렀다” 고 말한다. 한편 출 6:3 은 초기에 언약 백성이 된(족장들과 그들의 가족)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직 엘 샤다이라고 알았음을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 야웨는 오직 한 번 출 3:13-16 (특히 14 절)에서 설명된다. 그러나 모세의 글은 종종 어원에 의해서가 아니라(참조, 창 17:5; 27:36; 29:13-35) 언어유희로 해석된다. 이 이름의 뜻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론이 있다(IDB 제 2 권, 409-11 쪽에서 취함):
  - ㄱ. 아라비아 어원, “뜨거운 사랑을 보임”
  - ㄴ. 아라비아 어원, “불어냄”(폭풍의 신으로서 야웨)
  - ㄷ. 우가리트어(가나안어) 어원, “말하다”

- ㄹ. 페니키아어 비문에서 원인을 말하는 분사, “유지시키는 자” 또는 “세우는 자”
  - ㄱ. 히브리어 칼 동사형, “계신 분” 또는 “존재하는 분”(미래적 의미로는 “앞으로 계실 분”)
  - ㄴ. 히브리어 히필 동사형, “있게 하시는 분”
  - ㄷ. 히브리어 어원, “살다”(예, 창 3:20), 에서 “항상 계시며 홀로 살아계신 분”
  - ㅇ. 출 3:13-16 의 문맥에서 미완료형이 완료형의 의미로 쓰인 것, “나는 내가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다” 또는 “나는 내가 항상 있었듯이 계속 있을 것이다”(참조, 와쉬 왓쓰, 구약의 문맥 개요, 67 쪽)
- 야웨란 이름은 종종 축약적으로 혹은 원래의 형태로서
- (1). 야(예, 할렐루-야)
  - (2). 야후(이름, 예, 아사야)
  - (3). 요(이름, 예, 요엘)
3. 후기 유대교에서 이 언약적 이름을 매우 거룩하게 여겼다(4 자음). 따라서 유대인들은 출 20:7; 신 5:11; 6:13 의 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신에 히브리어로 “주인,” 남편,” “주”-아돈 혹은 아도나이(나의 주)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들이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야웨를 만날 때마다 “주”로 발음했다. 이것이 왜 야웨를 주라고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4. 엘처럼 야웨는 종종 다른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강조한다. 가능한 많은 조합에서 일부를 여기에 제시했다.
    - ㄱ. 야웨-이레(야웨께서 공급하신다), 창 22:14
    - ㄴ. 야웨-로페카(야웨께서 너의 치료자이시다), 출 15:26
    - ㄷ. 야웨-니시(야웨는 나의 깃발), 출 17:15
    - ㄹ. 야웨-메카디스켄 (야웨는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출 31:13
    - ㄱ. 야웨-샬롬(야웨는 평화이시다), 삿 6:24
    - ㄴ. 야웨-쓰바웃(만군의 야웨), 삼상 1:3, 11; 4:4; 15:2; 종종 예언서에서 쓰임
    - ㄷ. 야웨-로이(야웨는 나의 목자), 시 23:1
    - ㅇ. 야웨-치드케누(야웨는 우리의 의이시다), 렘 23:6
    - ㅈ. 야웨-삼마(야웨께서 거기 계시다), 겔 48:35

#### 1:4

NASB, NRSV “그가 물리친 후에”  
 NKJV “그가 죽인 후에”  
 TEV “주께서 물리치신 후에”  
 NJB “그가 물리치신 후에”

동사(BDB 645, KB 697, 히필 부정사)는 “치는 것”을 의미하며 신학적으로는 야웨가 하신 일을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자이시고 유일하게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 “시혼” 시혼(BDB 695)은 요단 동편에서 바산왕 옥의 나라에 이웃한 지역을 다스리던 아모리 왕이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참조, 2:4-9) 유대인의 친척인 모압(룻이 자신의 딸로부터 얻은 후손, 참조, 창 19:30-38)과 에돔을 치지말도록 명령받았다. 요단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시혼의 왕국을 통과하는 방법이었다. 수도인 헤스본은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한 첫 번째 주요 도시였다(참조, 2:26-37; 민 21:21-32).



■ “옥” 옥(BDB 728)은 바산지역의 왕이었다. 그는 두 큰 성읍 (참조, 수 12:4)과 여러 마을(참조, 3:1-10)을 다스렸다. 그는 가나안 땅에 거하던(참조, 2:20; 수 12:4) 르파임(거인들, 참조, 3:11)의 하나였다. 헤브론에 사는 자로서 거인들의 후손(참조, 2:11)인 그들은 이스라엘이 충성된 두 스파이의 보고를 물리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참조, 민 13:22).

### 특별주제: 출애굽 시기

가. 출애굽 시기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두 가지가 있다:

1. 왕상 6:1 은 “출애굽 때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480 년”이라고 말한다
  - ㄱ. 솔로몬은 주전 970 년부터 다스렸다. 이 내용은 칼칼 전투(주전 853 년)에 근거하여 확실한 연대로 여겨진다.
  - ㄴ. 성전은 그의 치리 4 년(주전 965 년)에 건축이 시작되었고, 따라서 출애굽은 주전 1445/6 년에 일어났다.
2. 이 일은 이집트의 18 왕조때 일어났을 것이다.
  - ㄱ. 압제하던 바로는 토포세 3 세(주전 1490-1436 년)이었을 것이다.
  - ㄴ. 출애굽시의 바로는 아멘호텝 2 세(주전 1436-1407 년)이었을 것이다.
    - (1) 어떤 이는 여리고와 이집트의 외교적 교류가 아멘호텝 3 세 (주전 1413-1377 년) 통치시기에 없었던 것이 출애굽이 있는 증거라고 여긴다.
    - (2) 아마르나 본문은 아멘호텝 3 세의 통치때 가나안 땅에 횡횡한 하비루에 대한 외교자료를 도편조각에 기록했다. 따라서 출애굽시의 바로는 아멘호텝 2 세 이다.
    - (3) 사사들의 시대는 13 세기를 출애굽시기로 잡을 때 기간이 충분하지 않게된다.
3. 이 시기에 대한 어려움은:
  - ㄱ. 70 인역(LXX)은 480 년이 아니라 440 년으로 말한다.
  - ㄴ. 480 년은 40 년씩 12 세대를 말한다고 볼 때 상징적 숫자이다.
  - ㄷ. 아론부터 솔로몬 때까지 12 세대의 제사장이 있다(참조, 대상 6 장), 또한 솔로몬 때부터 제 2 성전 때까지 12 세대이다. 유대인들은 헬라인처럼 한 세대를 40 년으로 계산했다. 따라서 480 년이 사용된다(숫자의 상징적 사용)(참조, 빔슨의 출애굽과 정복시기에 대한 재고).
4. 다른 3 곳에서 시기에 대해 언급한다:
  - ㄱ. 창 15:13, 16(참조, 행 7:6), 400 년간의 속박
  - ㄴ. 출 12:40-41(참조, 갈 3:17)
    - (1) MT - 이집트에서 430 년간 나그네 생활
    - (2) LXX - 이집트에서 215 년간 나그네 생활
  - ㄷ. 삿 11:26 - 정복에서 입다의 시기까지 300 년의 기간(1445 년설 지원)
  - ㄹ. 행 13:19, 출애굽, 방랑, 정복 - 450 년
5. 열왕기의 저자는 특별한 역사적 자료를 사용해 어림으로 숫자를 말하지 않았다(에드윈 킬레, 히브리 왕들의 연대, 83-85 쪽)

나. 고고학의 잠정적인 증거는 주전 1290 년설, 혹은 이집트의 제 19 왕조시대를 지원하는 것 같다.

1. 요셉은 하루에 자기 아버지와 바로를 방문할 수 있었다. 이집트의 수도를 테베에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으로 처음 옮긴 이집트 출신의 바로는 세티 1 세(1309-1290)로서, 그는 아바리스/소안/타니스로 불린 옛 힉소스 왕조의 수도로 옮겼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했던 바로였을 것이다.
  - ㄱ. 이것은 힉소스의 이집트 통치에 대한 두 가지 내용에 들어 맞는다.
    - (1) 라암세스 2 세 시기에 세워진 비에서 아바리스(힉소스가 주전 1700 년 대에 세움)가 세워진지 400 년 되었음을 기념한다
    - (2) 창 15:13 의 예언은 400 년 간의 압제를 언급한다
  - ㄴ. 이 점은 요셉이 힉소스(셈족) 바로에 의해 등용되었음을 암시한다. 출 1:8 은 이집트의 새 왕조를 일컫는다.
2. 이집트어로 “외국에서 온 통치자들”의 의미인 힉소스는 이집트인이 아닌 셈족 통치자들 이었고 제 15-16 왕조(주전 1720- 1570 년)에 이집트를 통치했다. 어떤 이는 이들을 요셉이 권력의 자리에 오른 것에 연결시킨다. 우리가 주전 1720 년에서 출 12:40 의 430 년을 제하면 주전 1290 년이 된다.
3. 세티 1 세의 아들은 라암세스 2 세(1290-1224)였다. 이 이름은 히브리 노예들이 건설한 국고성의 한 이름으로 언급된다, 출 1:11. 또한 이집트의 고센 근처에 같은 이름의 행정구역이 람세스로 불렸다, 창 47:11. 아바리스/소안/타니스는 주전 1300-1100 년에 “람세스의 집”으로 알려졌다.
4. 토티세 3 세는 람세스 2 세처럼 위대한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5. 람세스 2 세는 별개의 궁전에서 산 47 명의 딸들이 있었다.
6. 고고학은 가나안에서 성벽이 있는 여러 큰 도시들(하솔, 데빌, 라기스)이 파괴된 후에 주전 1250 년 부근에 급히 재건축되었음을 보여준다. 38 년 간의 광야방랑기를 고려할 때 주전 1290 년이 잘 들어맞는다.
7. 고고학은 람세스의 후계자인 메르넵타(주전 1224-1214[참조, 주전 1220 년경의 메르넵타 비문])의 기념비에서 가나안 남쪽에 있던 이스라엘에 대해 말한다.
8. 에돔과 모압은 주전 1300 년대 후기에는 강한 국가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들은 15 세기에는 잘 조직되어있지 않았다(글뤽).
9. 쉬필드 대학출판사가 출판한 존 J. 빔슨의 출애굽과 정복시기를 재고함은 이른 시기의 출애굽을 지지하여 이 모든 고고학적 증거를 반박하고 있다.

#### 특별주제: 이스라엘 이전에 팔레스틴에 거하던 사람들

가. 민족들의 목록이 여러 개가 있다.

1. 창 15:19-21(10)
 

ㄱ. 겐	ㄴ. 헷	ㄷ. 아모리	ㄹ. 여부스
ㄴ. 그니스	ㄷ. 브리스	ㄹ. 가나안	
ㄷ. 갓몬	ㄹ. 르바	ㅈ. 기르가스	
2. 출 3:17(6)
 

ㄱ. 가나안	ㄴ. 브리스
ㄴ. 헷	ㄷ. 히위
ㄷ. 아모리	ㄹ. 여부스

3. 출 23:28(3)
  - ㄱ. 히위
  - ㄴ. 가나안
  - ㄷ. 헷
4. 신 7:1(7)
 

ㄱ. 헷	ㄴ. 가나안	ㄷ. 여부스
ㄴ. 기르가스	ㄷ. 브리스	
ㄷ. 아모리	ㄹ. 히위	
5. 수 24:11(7)
 

ㄱ. 아모리	ㄴ. 헷	ㄷ. 여부스
ㄴ. 브리스	ㄷ. 기르가스	
ㄷ. 가나안	ㄹ. 히위	

나. 이름의 기원에 대하여는 역사적 자료가 부족하기에 미심쩍다. 창 10:15-19 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 족속으로 여러 민족을 언급한다.

다. 창 15:19-21 의 긴 목록에 나와 있는 족속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

1. 겐
  - BDB 884
  - 이스라엘 족속이 아님
  - “버리는 자” 혹은 “장색”과 관련된 이름으로서 금속과 관련된 일이나 음악과 관련이 있었을 것임(참조, 창 4:19-22)
  - 헤브론 가까이 시내광야 북쪽에 거주
  -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관련(참조, 사 1:16; 4:11)
2. 그니스
  - BDB 889
  - 유대인과 친척관계
  - 에돔의 부족(참조, 창 15:19; 30:15, 42)
  - 네겔에 거주
  - 유다에 흡수되었을 것임(참조, 민 32:12; 수 14:6, 14)
3. 갓몬
  - BDB 870 II
  - 이스라엘 족속이 아님, 아마도 이스마엘의 후손(참조, 창 25:15)
  - “동쪽사람”이란 이름
  - 네겔에 거주
  - “동쪽의 사람들”에 관련되었을 것임(참조, 욥 1:3)
4. 헷
  - BDB 366
  - 이스라엘 족속이 아님
  - 헷의 후손
  - 아나톨리아 왕국에서 욥(소아시아, 터키)
  - 가나안에 일찍부터 거주함(참조, 창 23; 수 11:3)
5. 브리스
  - BDB 827
  - 이스라엘 족속이 아님, 아마도 후리 족속
  - 유다의 산립지역에 거주(참조, 창 34:30; 사 1:4; 16:10)

- |         |                                                                                                                                                                                                                                                                                                                                                                                                               |
|---------|---------------------------------------------------------------------------------------------------------------------------------------------------------------------------------------------------------------------------------------------------------------------------------------------------------------------------------------------------------------------------------------------------------------|
| 6. 르바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DB 952</li> <li>- 이스라엘 족속이 아님, 아마도 거인들(참조, 창 14:5; 민 33:33; 신 2:10-11, 20)</li> <li>- 요단강의 동쪽에 거주</li> <li>- 전사들/영웅들</li> </ul>                                                                                                                                                                                                                                     |
| 7. 아모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DB 57</li> <li>- 함으로부터 기인한 셈족의 북서쪽 종족(참조, 창 10:16)</li> <li>-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일반적 명칭이 됨(참조, 창 15:16; 신 1:7; 수 10:5; 24:15; 삼하 21:2)</li> <li>- 이름은 “서쪽”을 의미함</li> <li>- ISBE 1 권 119 쪽은 이 용어에 대해 말하기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ㄱ. 일반적으로 팔레스틴 거주자</li> <li>ㄴ. 해안가 평야지대에 반대되는 산지에 거한 사람들</li> <li>ㄷ. 특별하게 자기들의 왕을 가진 족속</li> </ul> </li> </ul> |
| 8. 가나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DB 489</li> <li>- 함의 후손(참조, 창 10:15)</li> <li>- 일반적으로 요단강 서쪽에 살던 모든 족속들</li> <li>- 가나안의 뜻은 불확실하다. 아마도 “상인” 또는 “붉은 자주 염색”</li> <li>- 해안가 평야를 따라 살던 민족(참조, 민 13:29)</li> </ul>                                                                                                                                                                                        |
| 9. 기르가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DB 173</li> <li>- 함의 후손(참조, 창 10:16), 또는 적어도 “가나안[지경]의 사람으로부터,” ISBE 2 권 1232 쪽)</li> </ul>                                                                                                                                                                                                                                                                         |
| 10. 여부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DB 101</li> <li>- 함의 후손(참조, 창 10:16)</li> <li>- 여부스/살렘/예루살렘에 거주(참조, 수 15:63; 삿 19:10)</li> <li>- 겔 16:3, 45 은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 사이의 혼혈로 봄</li> </ul>                                                                                                                                                                                                                     |
| 11. 히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DB 295</li> <li>- 함의 후손(참조, 창 10:17)</li> <li>- 70 인역은 호리 족속으로 번역함(참조, 창 34:2; 36:20-30; 수 9:7)</li> <li>- 히브리어 “동굴”에서 유래했을 것이고, 동굴 거주자임</li> <li>- 그들은 레바논의 고원지대에 살았다(참조, 수 11:3; 삿 3:3). 삼하 24:7 에서 그들은 두로와 시돈 근방에 살았던 것으로 열거된다.</li> </ul>                                                                                                                       |

■ “아스다롯” 이 도시(BDB 800)는 가나안 풍요의 신인 바알-아세라/아스타르테에서 여성 신의 이름을 따라 불렸다. 르파임의 이름이 언급되기 때문에, 이 도시의 이름이 창 14:5 에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 “에드레이” 이것은 옥이 다스리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참조, 수 12:4; 13:12).

**1:5 “모압 땅에서”** 이곳은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진을 친 곳이다. 이 장소는 사해 북쪽에 있으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서 신명기가 쓰여진 곳이다.

■ “모세가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동사(BDB 383, KB 381, 히필 완료형)는 “의지적인 실행”을 의미한다(참조, 창 18:27; 출 2:21; 삿 19:6).

■ “이 율법을 설명하기” 이 동사(BDB 91, KB 106, 피엘 완료형)는 명확히 하는 것 혹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이 곳 이외에서는 두 곳에서만 사용되었는데 “글로 쓰다”로 번역되었다(참조, 27:8; 합 2:2). 명확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교훈은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언약적인 상황에서는 위험하다.

“율법”이란 용어(즉, 오경 BDB 260)는 히브리어에서 “가르침” 혹은 “교훈”을 뜻한다(참조, 4:8, 44; 27:3, 8, 26; 28:58, 61; 29:20, 28; 30:10; 31:9, 11, 12; 32:46). 이 문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요단을 건너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여리고 맞은 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말한다.

#### 개역개정 1:6-8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sup>7</sup>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겟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sup>8</sup>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1:6 “여호와”**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이다(즉, 야웨, BDB 217). 1:3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 “우리 하나님” 복수형 인칭대명사는 시내산에서 시작되고 받아들여진 언약적 관계를 뜻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엘로힘”(BDB 43)이 사용되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 공급자, 유지자로서 나타낸다(예, 창 1:1-2:3). 1:3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 “호렙” 1:2의 설명을 보라.

■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그들에게 처음에 주셨던 명령인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을 실행에 옮길 때라고 말씀한다(참조, 창 15:13-21; 민 13-14)! 그들은 호렙산에 일년 정도 머물렀다(출 19:1과 민 10:11을 비교하라).

#### 1:7

NASB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NKJV	“방향을 돌려 여행하여”
NRSV	“여행을 다시 하여”
TEV	“진을 거두고 진행하여”
NJB	“진행하여 여행을 계속하라”

첫 번째 동사(BDB 815, KB 937, 칼 명령)는 “돌아서다”를 뜻하지만, 여러가지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보기 위해 돌아서는 것, 출 2:12; 16:10; 민 12:10
- 방향을 바꾸기 위해 돌아서는 것, 창 18:22; 24:49; 출 14:25; 21:33; 신 1:7, 24; 2:3; 9:15; 10:5
- 다른 신에게 돌아가는 것, 레 19:4; 신 29:18; 30:17; 31:18, 20
- 도움을 구하는 것, 레 19:31; 20:6
- 하루의 시간이 바뀌는 것
  - 저녁, 신 23:11
  - 아침, 출 14:27

두 번째 동사(BDB 652, KB 704, 칼 명령)는 “잡아 당기다,” “끌어 올리다,” 혹은 “출발하다”를 뜻한다. 민수기에서는 종종 이스라엘 족속이 진을 옮겨가며 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용법은 신명기에 계속된다(예, 1:7, 19, 40; 2:1, 24). 원래 이 단어는 천막의 말뚝을 잡아 끌어 올리는 것을 말한다.

■ “가라” 이것은 평행으로 사용된 세 번째 칼 명령이다(BDB 97, KB 112).

■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남북방향으로 4 지역으로 나누어 말한다:

1.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서” – 이것은 요단강 동편 강가와 시혼과 옥의 나라를 가리킨다.
2. “아라바에서” – 이것은 요단의 단층으로 형성된 계곡을 가리킨다(BDB 787, 참조, 1:1, 7; 2:8; 3:17; 4:49; 11:30; 수 8:14; 11:2, 16; 12:3; 18:18)
3. “산지와 저지대에서” – 이것은 사해의 서쪽과 남쪽지역을 가리키는데, 후에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다.
4. “네게브” – 이것은 사해의 남쪽과 서쪽에 걸쳐있는 건조한 지역이다(BDB 616)
5. “해변가에” – 이것은 이집트에서 레바논까지 이르는 해안가 평야지대이다(즉, 쉘렐라, BDB 410)

이 모든 지역은 창세기 15 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을 가리킨다.

1:8 8 절은 연속되는 명령이다:

1. “보라” - BDB 906, KB 1157, 칼 명령
2. “들어가라” - BDB 97, KB 1112, 칼 명령
3. “취하라” - BDB 439, KB 441, 칼 명령(8:1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히브리어로 “앞에 놓았다”라는 것은 “주었다”와 같은 의미이다(BDB 678, KB 733, 칼 완료형).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그들에게 주시고 계신다(창 12:1, 5; 15:12-21; 출 6:8), 하지만 그들은 그 땅을 취하여야만 한다. 근간이 되는 이 언약에서 조차 조건적인 면이 있음을 주목하라(예, 4:1; 5:33; 6:18; 8:1; 16:29; 30:16, 19).

■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9:5 의 특별주제: 족장에게 주신 언약적 약속을 보라.

4:37; 6:10; 9:5; 10:11, 15; 30:20 창 12:5-7; 13:14-17; 15:18; 26:3; 출 32:13; 33:1 을 보라. 이 땅은 남쪽으로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지역을 포함하고, 북쪽으로는 비블로스, 세판, 세단, 르보하맛을 포함했을 것이다(아마도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의 근원지까지 포함하였을 것이다, 참조 창 15:18). 맥밀란 성경지도의 47 쪽을 보라.

약속의 땅의 일반적인 경계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한다(출 34:1-12; 신 1:6-8; 3:12-20; 11:24; 수 1:3-4).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 모든 지역이 이스라엘의 지배에 들어갔다.

### 개역개정 1:9-15

<sup>9</sup>그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sup>10</sup>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 같이 많거니와 <sup>11</sup>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sup>12</sup>그러나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sup>13</sup>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 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sup>14</sup>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sup>15</sup>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 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1:9** “그 때에” 이것은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다. 처음 4 장은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을 돌이켜 보는 내용이다. 이 표현은 과거에 있는 일을 지칭하는 방법이다(참조, 1:9, 16, 18; 2:34; 3:4, 8, 12, 18; 4:14).

■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같은 문제(즉, 모세가 유일한 재판관으로서 일을 감당하는 것)를 놓고 출 18:13-26 에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준 충고를 보라.

**1:10**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이것은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일부였다(예, 창 13:16; 17:2, 20; 22:17; 49:4; 레 26:9; 신 7:13).

■ “하늘의 별 같이” 이 구는 창 15:5; 26:4; 신 10:22; 28:62 에도 나온다. 이스라엘 민족의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참조, 창 16:10)를 나타내는 다른 평행적인 구는 “땅의 먼지”(참조, 창 13:16; 28:14; 민 23:10)와 “바다의 모래”(참조, 창 22:17; 32:12)가 있다. 이 사람들은 모두 100 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던 한 사람에서 나왔다(즉, 아브라함)!

신 1:28 에서 이스라엘은 별보다 많은 수였지만 가나안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무서워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1. 그들의 수
2. 그들의 크기
3. 성벽으로 둘러 싸인 그들의 도시.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의 삶과 운명에 있어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말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이것은 분명히 관용적인 표현이다. 1,000 이라는 수자는 10 을 공약수로 하는 수자(3 제곱)이면서 많거나, 수가 많음을 나타내는 상징이다(참조, 시 90:4; 뱀후 3:8). NIDOTTE 제 1 권 417 쪽에는 이 수자와 관련된 과장법적 용법이 다음과 같이 열거된다:

1.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기 위해, 신 1:11; 욥 42:12; 5; 시 144:13
2. 군사적인 축복을 나타내기 위해, 수 23:10
3. 불신앙으로 인한 군사적 저주를 나타내기 위해, 신 32:30; 사 7:23; 30:17; 암 5:3
4. 지속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 시 90:4
5.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나타내기 위해, 신 7:9; 시 105:8
6. 하나님의 진노 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출 34:7; 신 5:9-10
7. 하나님의 전에 있는 축복을 나타내기 위해, 시 84:10

**1:12** “다투는 일” 이것은 “법적 소송”을 말한다(BDB 936).

**1:13** “택하라” 이 동사(BDB 396, KB 393)는 칼 명령이다. 모세가 자신과 함께 (모세가 임명한다) 공동체를 위해 책임(그들이 선택한다)을 지도록 백성들(즉,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새로운 재판관들(즉, 지파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어야 했다:

1. “지혜롭고” – (BDB 314)는 생각이 깊고 경건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뜻한다(즉, 요셉, 창 41:33, 39; 다윗, 삼하 14:20; 솔로몬, 왕상 2:9; 3:12; 5:21)
2. “분별하고” – (BDB 106, KB 122, 니팔 분사)는 사려깊고, 분별하며, 지적인 사람임을 뜻한다(예, 요셉, 창 41:33; 램 4:22 에서는 부정적인 예가 나옴)
3. “경험있는” – (BDB 393, KB 390, 칼 수동 분사). 이것은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보통 단어이다.  
 ㄱ. NASB, TEV, NJB, JPSOA – 경험있는

- ㄴ. NKJB – 지식있는
- ㄷ. NRSV, REV – 명망있는
- ㄹ. JB – 검증된
- ㅁ. NIV – 존경받는
- ㅂ. NET – 알려진

■ “내가 그들을 세워” 이 동사(BDB 962, KB 1321)는 칼 미완료형으로서 청유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모세는 이렇게 택하여진 사람들을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우고 임명했다(예, 출 1:11; 18:21; 신 17:14, 15; 삿 11:11).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택하신” 분은 바로 야웨였다(BDB 542, KB 534, 칼 미완료형, 15 절). 이 점은 하나님의 선택임을 드러낸다(예, 4:20, 34; 왕상 11:37). 인간이 일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뒤 따른다!

**1:15**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이 구분은 후에 군사적인 단위가 되었다(참조, 출 18:21).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천(알레프)

이것은 “천”(BDB 48)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진다.

1. 가족의 단위, 수 22:14; 삿 6:15; 삼상 23:23; 숙 9:7; 12:6
2. 군대의 단위, 출 18:21, 25; 신 1:15
3. 글자 그대로 천, 창 20:16; 출 32:28
4. 상징적인 수자, 창 24:60; 출 20:6; 34:7; 신 7:9; 램 32:18
5. 동계 언어인 우가리트어의 알루프는 “지도자”를 의미한다, 창 36:15



NASB, NKJV “지휘관들”  
 NRSV, TEV “관리들”  
 NJB “서기관들”

이 용어(BDB 1009)는 원래 서기관을 가리키지만, 신 1:15; 20:5, 8, 9; 또는 수 1:10, 32에서는 이 의미가 들어맞지 않는다. 이 문맥에서 이것은 하급 재판관이나 부족의 지도자를 돕는 자를 뜻한다.

UBS에서 발행한 신명기의 핸드북 26 쪽에서 설명하기를 “그들은 장로들 (민 11:16) 재판관들 (신 16:18; 수 8:33)과 함께 언급되며, 또한 군사적인 문맥에서 나온다(신 20:5, 8, 9; 수 1:10; 3:2).”

#### 개역개정 1:16-18

<sup>16</sup>내가 그 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라

<sup>17</sup>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낮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sup>18</sup>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 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1:16-17** 모세는 지파의 새 재판관들에게 공평무사할 것을 주문했다(참조, 16:19; 24:17). 공평함은 하나님의 성품이다(참조, 10:17). 이스라엘은 야웨의 성품을 드러내는 국민이요 사회가 됨으로써 세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리에 이르게 하도록 요청을 받은 것이다. 인간의 타락이후(즉, 창 3 장)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지만 이상적인 이스라엘(즉, 예수, 참조, 사 53 장)은 이 일을 성취했다(즉, 요 14:5-7, 8-11).



■ “타국인” 법적 영역에 있어서 유대인이 아닌 자들도 이스라엘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되었다(참조, 레 19:33-34, 35). 이스라엘은 그들을 관대하게 대해야 했다(참조, 레 23:22; 신 10:19; 24:17; 27:19).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타국인이었기 때문에(참조, 출 22:21; 23:9),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았다!

■ “공정히”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의

“의”는 성경학도가 그 개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폭넓게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 또는 “의”로 설명된다. 메소포타미아 용어에서 이 말은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에서 유래하였고 벽과 울타리가 수평적으로 곧은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축기구로 사용된 점에 기인한다. 하나님은 이 용어를 자기 자신의 성품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평가하는 곧은 날(자)이시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더불어 재판에 있어 그의 권리를 확인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참조, 창 1:26-27; 5:1, 3; 9:6).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무대요 배경이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절정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다! 인간의 충성됨 여부는 시험되었으나(참조, 창 3 장), 최초의 부부는 이것에 실패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는 결과를 낳았다(참조, 창 3 장; 롬 5:12-21).

하나님은 교제를 고쳐 회복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일을 행하신다. 인간은 이 단절을 회복시킴에 있어 무력하다(참조, 롬 1:18-3:20).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초대와 인간의 회개하고,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반응에 기초한 언약의 개념이었다. 타락을 인하여 인간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참조, 롬 3:21-31; 갈 3 장). 하나님 자신은 인간이 언약을 깨트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도권을 갖고 일하셔야만 했다. 하나님은 다음의 일을 하셨다

1.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심(즉, 법적인 의).
2.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에게 의를 거저 주심(즉, 전가된 의).
3. 의(즉, 그리스도를 닮음, 하나님 형상의 회복)를 사람들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제공하심.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따른 반응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선언하시고(즉, 거저 주시고) 공급하시지만, 인간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반응을 나타내야 한다

1. 회개
2. 믿음
3. 삶에서 나타나는 순종
4. 인내

따라서 의는 하나님과 그의 창조의 걸작과의 언약적이고 상호 관계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힘주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한 계속해서 적합한 반응을 나타내야 한다. 이 개념은 “믿음에 의한 칭의”로 불린다. 이 개념은 복음서에 나타나지만 이 용어로서는 아니다. 이 개념은 주로 바울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그는 헬라어 단어인 “의”의 여러 형태를 포함하여 100 번 이상 사용하였다.

바울은 잘 교육받은 랍비로서 히브리적 개념인 세텍을 나타내기 위해 헬라 저작에서 단어를 택하지 않고 70 인역의 디카이오쉬네를 사용했다. 헬라 저작에서 이 용어는 신성과 상류사회에 대한 기대에 들어 맞는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히브리어적 개념에서 이 용어는 항상 언약과 관련되었다. 야웨는 공평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의

성품을 닮기 원하셨다. 구속받은 인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새로움은 경건함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로마 천주교는 칭의에 초점을 맞춘다). 이스라엘은 신성국가로서 세속적인 것(사회적 규범)과 신성한 것(하나님의 뜻) 사이에 뚜렷한 구별점이 없었다. 이 구분은 “정의”(사회와 관련됨)와 “의”(종교와 관련됨)의 경우처럼 영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나 헬라어 용어에서 나타난다.

예수님의 복음(좋은 소식)이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를 통하여, 성자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간청과 복음으로 이끄심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칭의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경건함으로 나타나야만 한다(어거스틴의 입장은 종교개혁가들의 강조점인 거저주시는 복음과 로마 카톨릭의 강조점인 사랑과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변화된 삶 둘 다였다).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의”를 객관적 소유격으로 이해했다(즉,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는 행위[지위적인 성화]인 반면, 카톨릭은 주관적인 소유격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닮는 과정[경험적이고 점진적인 성화]이다. 사실상 두 가지 다 틀림이 없다!!).

내 생각에는 창세기 4 장부터 계시록 20 장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에덴에서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은 지상에서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배경으로 시작하고(참조, 창 1-2 장) 같은 배경으로 끝난다(참조, 계 21-22).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은 회복될 것이다!

위의 논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에 제시되는 헬라어 단어 그룹을 예시하는 신약성경의 귀절들을 보라:

1.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종종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제시된다)
  - ㄱ. 로마서 3:26
  - ㄴ. 데살로니가 후서 1:5-6
  - ㄷ. 디모데 후서 4:8
  - ㄹ. 요한계시록 16:5
2.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 ㄱ. 사도행전 3:14; 7:52; 22:14(메시아의 칭호)
  - ㄴ. 마태복음 27:19
  - ㄷ. 요한일서 2:1, 29; 3:7
3.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의이다
  - ㄱ. 레위기 19:2
  - ㄴ. 마태복음 5:48(참조, 5:17-20)
4. 의를 제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 ㄱ. 로마서 3:21-31
  - ㄴ. 로마서 4 장
  - ㄷ. 로마서 5:6-11
  - ㄹ. 갈라디아서 3:6-14
  - ㅁ. 하나님께서 주심
    - 1) 로마서 3:24; 6:23
    - 2) 고린도 전서 1:30
    - 3) 에베소서 2:8-9
  - ㅂ. 믿음으로 받음
    - 1) 로마서 1:17; 3:22, 26; 4:3, 5, 13; 9:30; 10:4, 6, 10
    - 2) 고린도 전서 5:21
  - ㅅ. 아들의 사역을 통하여

- 1) 로마서 5:21-31
- 2) 고린도 후서 5:21
- 3) 빌립보서 2:6-11
5. 하나님의 뜻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 ㄱ. 마태복음 5:3-48; 7:24-27
  - ㄴ. 로마서 2:13; 5:1-5; 6:1-23
  - ㄷ. 디모데 전서 6:11
  - ㄹ. 디모데 후서 2:22; 3:16
  - ㅁ. 요한일서 3:7
  - ㅂ. 베드로 전서 2:24
6.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 ㄱ. 사도행전 17:31
  - ㄴ. 디모데 후서 4:8

의는 하나님의 특성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한 인간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이것은

1. 하나님의 선언이고
2. 하나님의 선물이며
3.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러나 거룩하게 됨의 과정은 활발하면서도 건실하게 추구해야하는 일로서 재림의 때에 하루에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원을 받음으로 회복되지만 삶을 사는 동안 계속 진행되어 우리가 죽는 날 혹은 주님이 임하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만남이 될 것이다!

이 논의를 결론짓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글을 인용하려고 한다. 이것은 IVP에서 출판한 바울과 그의 서신에 대한 사전에서 옮겨왔다:

“칼빈은 하나님의 의가 관계에 미치는 면에 대하여 루터가 했던 것 보다도 더 강조했다. 루터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는 면제의 측면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갖는 놀라운 성격 혹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을 강조했다”(834 쪽).

나에게 있어서 신자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는 세 가지 측면을 갖는다:

1. 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동방 교회와 칼빈의 강조점)
2. 복음은 진리다(어거스틴과 루터의 강조점)
3. 복음은 변화된 삶이다(로마 카톨릭의 강조점)

위의 것은 모두 진실되며 건강하고, 튼튼하며, 성경적인 기독교에 있어서 함께 있어야만 하는 내용이다. 어느 것이든지 하나만 더 강조하거나 어느 것을 빠뜨리면 문제가 야기된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환영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추구해야 한다!

■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공정히”는 문자적으로 “얼굴”을 뜻한다(BDB 815). 동사(BDB 647, KB 699, 히필 미완료형)는 “여기다”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이 재판관에게 나아갈 때에, 재판관은 자기 앞에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려고 하거나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해서는 안되며, 송사를 공평하고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 재판관은 모든 소송을 편견이나 선입관없이 다루어야만 한다(참조, 레 19:15).

■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이 동사(BDB 158 III, KB 185, 칼 미완료형)는 “무서움” 혹은 “위엄에 눌림”을 뜻한다. 이 문맥에서 “무서움”이 요구된다. 신명기에서 이 용어는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재판관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두려워해서는 안되며(1:17)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18:22).

이 용어는 시편에서 종종 언약에 따른 신자가 야웨께 대해 갖는 존경심과 두려워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예, 33:8; 22:23).

■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선지자로 여겨졌다(참조, 18 절; 18:15-22).

#### 개역개정 1:19-21

<sup>19</sup>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 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sup>20</sup>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sup>21</sup>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1:19-25** “그 때에 우리가 떠나” 이 동사(BDB 652, KB 704, 칼 미완료형)는 출애굽기에서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출 12:37; 13:20; 14:15; 16:1; 민 33 장에서 여러 곳). 이 절들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행과 관련이 있다.

**1:19** “호렙” 거룩한 산에 대한 두 가지 명칭인 호렙과 시내는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었다. 호렙은 셈어적 용어이다. 시내산은 셈어적 명칭은 아니지만 신 광야와 관련이 있는 이름일 것이다. 신은 그 지역에 흔히 있는 조그마한 식물로서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의 이름이다. 어떤 이는 호렙은 산지를 시내는 봉우리를 말한다고 믿지만,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광야”(BDB 184)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초지를 뜻하는데, 이들은 시나이 반도에 걸쳐 있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가졌다. 거기에는 자연적 조건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되었다. 하나님은 이 40 년을 지내는 동안 초자연적으로 그들에게 물과 양식을 공급하셨다. 오늘날 이 광야는 엘 티로 불리는데, “방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여정은 대략 160 킬로미터에 이르며 매우 황량한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 “아모리 족속의 산지” 이것은 가나안 땅의 남쪽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즉, 네게브, 아라바).

■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는 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방법은:

1. 모세의 말
2. 성막 위에 머물렀던 쉼이나 영광의 구름이다. 이것이 이동할 때 이스라엘은 따라갔다.

■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히브리어에서 거룩을 가리키는 말은 카도쉬(BDB 871)로서 이 말에서 “가데스”가 유래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표현은 “거룩한-(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을 뜻하며, 아마도 “거룩한 도시” 혹은 “거룩한 장소”를 뜻한다. 이곳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천막을 쳤던 중요한 장소이었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친 중요한 곳이었다.

**1:20-21** 이 두 절에는 인칭대명사 “우리” 와 “너희”가 바뀌어 사용되기에 주석가들에게 어려움을 야기시킨다. 신명기 책 전체에서 “너희”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칭대명사이다. 이 점은 어떤 사람들이 신명기가 여러 저자에 의해 쓰여진 책이라고 믿는 한 가지 이유이다. 나는 모세가 이 책의 대

부분을 썼다(혹은 쓰도록 구술했다)고 믿는다. 한편 그의 저작은 후기의 서기관들에 의해 편집되었고 아마도 원래의 기록자가 설명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1:21**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 .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것은 8 절에 대한 있는 내용을 말할것 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을 백성들에게 말씀했다(참조, 12:5-7; 13:14-17; 15:18; 26:3).

이 절은 7, 8 절과 같이 여러 명령이 포함된다:

1. “보라” - BDB 906, KB 1157, 칼 명령
2. “올라 가라” - BDB 748, KB 828, 칼 명령
3. “차지하라” - BDB 439, KB 441, 칼 명령
4. “두려워 말라” - BDB 431, KB 432, 칼 미완료형, 그러나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5. “당황하지 말라” - BDB 369, KB 365, 칼 미완료형, 그러나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NASB, NRSV “두려워 말고 혹은 당황하지 말라”  
NKJV “두려워 말고 혹은 용기를 잃지 말라”  
TEV “머뭇거리지 말고 혹은 걱정하지 말라”  
NJB “걱정하지 말고 혹은 용기를 잃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금지는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과 임재를 그들이 믿는 것에 기초한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12 번 사용되었다(예, 31:8; 수 1:9; 8:10; 10:25; 대상 22:13; 28:20; 대하 20:15; 32:7; 렘 30:10; 46:27).

#### 개역개정 1:22-25

<sup>22</sup>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sup>23</sup>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둘을 택하매 <sup>24</sup>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 곳을 정탐하고 <sup>25</sup>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1:22** 민수기 13:1-3 은 이 절의 배경이 된다. 이것은 모세가 지파에게 명한 내용을 상기시킨다:

1. “보내라” - BDB 1018, KB 1511, 칼 청유형
2. “정탐하라” - BDB 343, KB 340, 칼 미완료형,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3. “알리게 하자” - BDB 996, KB 1427,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히필 미완료형

**1:23** “내가. . .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둘을 택하매” 모세는 지혜롭게 행하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포함시켜 모든 이가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짐을 느끼게 했다.

**1:24** “에스골 골짜기” 이 용어(BDB 79)는 “송이” 혹은 “줄기”를 뜻한다. 민수기 13:23-24 은 그들이 포도송이 하나를 취하였는데 이것이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 가져왔다고 말한다. 이 일은 이 골짜기(혹은 와디)가 지금의 히브리어 이름을 갖게된 이유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남쪽에서 이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불확실한데 아마도 헤브론 근처 어딘가 였을 것이다(참조, 민 13:22, 23).

■ “정탐하고” “정탐하다”(BDB 920, KB 1183, 피엘 미완료형)는 “발”(BDB 919)이라는 말의 변형으로서 그들이 그 땅을 두루 다녔음을 암시한다. 그들은 타고 다닐 짐승이 없었다. 따라서 그들이 이 땅을 두루다닌 것은 믿음의 걸음을 실제로 옮긴 것이다. 그들을 지역의 거주민들이 보았다.

**1:25**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언약에 대한 확인인가! 그럼에도 그들은 신학적인 증거를 따라 행하지 않고 두려움을 따라 행했다(예, 21 절).

### 개역개정 1:26-33

<sup>26</sup>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여  
<sup>27</sup>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sup>28</sup>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sup>29</sup>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sup>30</sup>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sup>31</sup>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sup>32</sup>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sup>33</sup>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1:26** “거역하여” 이 동사(BDB 598, KB 632, 히필 미완료형)는 신명기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이다(예, 1:26, 43; 9:7, 23, 24; 21:18, 20; 31:27; 또한 시편에서). 같은 어족인 아람어에서는 “~와 논쟁하다”를 시리아어에서는 “~와 다투다”를 뜻한다. 이 단어는 의지적이고 알려진 불순종을 나타낸다!

■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8 절과 21 절에 있는 명령은 그들이 올라가 그 땅을 취하라는 것이었다.

**1:27**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백성들은 그들의 장막안에서 원망했다(BDB 920, KB 1188, 니팔 미완료형); 그들은 공개적으로 원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고(참조, 시 106:25)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거역하고 있음을 아셨다(즉, “중상하며 속삭이는 자들,” 잠 16:28; 18:8; 26:20, 22).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참조, 25 절 c) 우리의 마음—우리의 동기도 아신다(참조, 민 14:1-6).

■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이 절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기와 성품에 대해 비난하고 있었다(예, 9:28). 그들은 시내에서 가데스까지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공급하심을 모두 잊고, 파괴적인 것으로 이해한 그들의 현재 상태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

**1:28**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정탐군들에게 돌리려 했다. “낙심”(BDB 587, KB 606)은 두렵게 되어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게 된 사람에 대한 은유이다(참조, 20:8; 수 2:11; 5:1; 7:5; 아마도 14:8).

■

NASB, REV	“몸집이 크고 키가 큰”
NKJV, Peshitta	“세고 큰”
NRSV, TEV,	
NJB, NIV	“강하고 큰”
NET	“수가 더 많고 큰”

여러 번역본에 비추어 볼 때 처음 단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첫 단어는 동의어인가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

이 형용사(BDB 152)는 기본적으로 “커다란”을 뜻한다. 이 용법은:

1. 넓은 면적
2. 많은 수
3. 강한 강렬함
4. 심각한 중대성

이 용어는 이렇듯 널리 사용되며 광범위한 언어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오직 문맥이 그 뜻을 명확히 해준다. 70 인역은 이 용어를 “더 수가 많고 강한”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구약에서 번역상 생기는 문제 가운데 “거인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

■ “아낙 자손” 이 단어(BDB 778 I)는 문자적으로 “목이 긴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말은 거인을 가리킨다(참조, 창 6 장).

**특별주제: 키 큰/강한 전사들이나 종족을 일컫기 위해 사용한 용어들**

몸이 크고/키 크고/강한 이들 민족은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려진다:

1. 네필림(BDB 658) – 창 6:4; 민 13:33
2. 르파임(BDB 952 혹은 BDB 952 II) – 창 14:5; 신 2:11, 20; 3:11, 13; 수 12:4; 13:12; 삼하 21:16, 20, 22; 대상 20:4, 6, 8
3. 삼숨뫼(BDB 273), 숨뫼(BDB 265) – 창 14:5; 신 2:20
4. 에뫼(BDB ) – 창 14:5; 신 2:10-11
5. 아나킴(아낙의 자손, BDB 778 I) – 민 13:33; 신 1:28; 2:10-11, 21; 9:2; 수 11:21-22; 14:12, 15

■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는 이 성읍들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를 갖고 있다. 라기스는 남쪽에 있는 아모리인들의 도시였는데 그 성벽의 두께는 약 9미터에 이르렀다. 이 성읍들의 벽은 때때로 작은 탑이나 높은 탑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읍들을 볼 때 얼마나 압도당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성곽이 있는” BDB 130, KB 148, 칼 수동 분사는 “접근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라는 과장법은 바벨론에 세워진 지구랏트의 이름에 대한 같은 은유적 표현에서 나타난다(참조, 창 11:4).

### 1:29

NASB	“놀라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NKJV	“혼비백산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 말라”
NRSV	“무서워 하거나 그들을 두려워 말라”
TEV	“그 민족들을 두려워 말라”
NJB	“도망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 말라”

첫 동사(BDB 791, KB 888, 칼 미완료형)는 “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아람어에서 이것은 “떨다”를, 시리아어에서는 “우연히 혹은 폭력적으로 급습하다”를 뜻한다(참조, 7:21; 20:3; 31:6).

두 번째 동사(BDB 431, KB 432, 칼 미완료형)는 “무서움” 혹은 “두려움”을 말한다. 이것은 두려움을 말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1. 적을 두려워함 – 신 1:21, 29; 2:4; 3:2, 22; 7:18, 19; 20:1, 3; 31:6; 수 11:6
2. 그 땅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함 – 신 28:10(참조, 수 4:24); 수 9:24
3. 이스라엘이 야웨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존경해야함 – 신 4:10; 5:5; 6:2, 13, 24; 10:12, 20; 13:11; 14:23; 17:13, 19; 19:20; 21:21; 25:18; 28:58; 31:12; 수 4:24

**1:30**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와 공급을 나타내며 크게 격려를 주는 귀절이다. 30 절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 그들보다 앞서 가신다(참조, 9:3); 33 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기 위해 앞서 행하신다.

▣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것은 “거룩한 전쟁” 혹은 헤렘의 예이다(BDB 355, 예, 신 2:24; 3:6; 7:2; 20:16-18; 수 6:17, 21; 8:26; 10:1, 28, 37; 11:12, 20-21). 이것은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대한 호의만이 아니다(참조, 창 15:16).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에게 회개할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도 심판하신다(즉, 앗시리아와 바벨론에 포로됨)!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신다(예, 신 3:22; 20:4; 수 10:14, 42; 11:5-6)!

**1:31**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겠느니라” “안고 가다”(BDB 669, KB 724, 칼 완료형)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들어 나르는 것 또는 “어떤 이를 부양함”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즉, 부모)되심은 성경적이며 개인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놀라운 은유이다(참조, 8:5; 32:6; 출 4:22; 시 27:10; 68:5; 103:13; 잠 3:12; 사 1:2; 63:16; 렘 3:19; 호 11:1-4; 말 1:6; 행 13:18). 구약에서 “아들”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신 야웨와 관련이 있는 은유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 왕과 그의 특별한 후손인 사람을 일컫는 용어가 되었다(즉, 메시아, 시 2:2, 7; 행 13:33).

**1:32** “이 일에”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부터(창세기 13 장) 출애굽까지(출애굽기 - 민수기)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하고 개인적인 임재와 돌보심을 포함한다.

▣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동사(BDB 52, KB 63, 히필 분사)는 중요한 신학적 용어이다. 이것은 언약의 핵심에 있는 개인적인 관계에 기초한다.

**특별주제: 믿음(피스티스[명사], 피스티오[동사], 피스토스[형용사])**

가.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이다(참조, 히 11:1, 6). 이것은 예수님의 초기 설교의 주제였다(참조, 막 1:15). 새언약의 두 가지 요구조건은 회개와 믿음이다(참조, 1:15; 행 3:16, 19; 20:21).

나. 이 단어의 어원

1.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용어는 충성, 충실성, 혹은 신뢰할 수 있음을 뜻하며,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2. 이것은 히브리어(예문, 예무나, BDB 53)로서 “확실하거나 안정적인 것”을 뜻한다. 구원하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진리의 내용), 도덕적 삶(생활양식), 그분에 대한 우선적이고 개인적(그를 환영함)이며 의지적인 헌신(결단)을 말한다.

다. 구약에서의 용법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아들을 낳고 후손을 갖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었음이 강조되어야 한다(참조, 창 12:2; 15:2-5; 17:4-8; 18:14).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약속에 반응했다. 그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13 년이나 기다려야 했던 약속에 대해 아직 의심과 어려움을 가졌다. 하나님은 흠이 있는 인간의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위해 기꺼이 일하신다(참조, 마 17:20).

라. 신약에서의 용법

“믿다”라는 용어는 헬라어(피스튜오)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믿다,” “믿음,” 혹은 “신뢰하다”로 번역된다. 예를 들면, 명사형은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동사형은 자주 사용된다. 요 2:23-25 에서 군중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서 진실되게 고백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믿다”라는 용어가 피상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예들은 요 8:31-59 과 행 8:13, 18-24 에 나온다. 성경적인 믿음은 초기 단계에 나타내는 반응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제자도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참조, 마 13:20-22, 31-32).

마. 전치사와 함께 사용된 용법

1. 에이스 는 “안으로”를 뜻한다. 이것은 믿는 자가 그들의 신뢰/믿음을 예수님 안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독특한 구문이다
  - ㄱ. 그의 이름 안에(요 1:12; 2:23; 3:18; 요일 5:13)
  - ㄴ. 그 안에(요 2:11; 3:15, 18; 4:39; 6:40; 7:5, 31, 39, 48; 8:30; 9:36; 10:42; 11:45, 48; 17:37, 42; 마 18:6; 행 10:43; 빌 1:29; 뱀전 1:8)
  - ㄷ. 내 안에(요 6:35; 7:38; 11:25, 26; 12:44, 46; 14:1, 12; 16:9; 17:20)
  - ㄹ. 아들 안에(요 3:36; 9:35; 요일 5:10)
  - ㅁ. 예수 안에(요 12:11; 행 19:4; 갈 2:16)
  - ㅂ. 빛 안에(요 12:36)
  - ㅅ. 하나님 안에(요 14:1)
2. 엔 은 “안”을 뜻한다, 요 3:15; 막 1:15; 행 5:14.
3. 에피 는 “안” 또는 위를 뜻한다, 마 27:42; 행 9:42; 11:17; 16:31; 22:19; 롬 4:5, 24; 9:33; 10:11; 딤후전 1:16; 뱀전 2:6
4. 전치사 없이 쓰인 여격, 갈 3:6; 행 18:8; 27:25; 요일 3:23; 5:10
5. 호티 는 “믿다”를 뜻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을 밝힌다
  - ㄱ.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요 6:69)
  - ㄴ.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요 8:24)
  - ㄷ.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그 안에 계신다(요 10:38)
  - ㄹ. 예수님은 메시아다(요 11:27; 20:31)
  - 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요 11:27; 20:31)
  - ㅂ.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요 11:42; 17:8, 21)
  - ㅅ.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다(요 14:10-11)
  - ㅇ.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왔다(요 16:27, 30)
  - ㅈ.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의 언약적 이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시 하였다(요 8:24; 13:19)
  - ㅊ.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롬 6:8)
  - ㅋ.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살전 4:14)

**1:33**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하나님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백성들 앞서 행하셨는데 이것은 “영광의 구름 쉼기나”로 알려졌다(예, 출 13:21-22; 14:19, 24; 19:16-18; 20:21; 24:15, 18; 33:9-10; 레 16:2; 민 9:15-23; 14:14; 시 78:14).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혹은 운행을 상징하는데 성경 곳곳에서 나타난다(예, 왕상 8:10, 12; 겔 1:4; 단 7:13; 마 24:30; 26:64; 행 1:9-11; 살전 4:17; 계 1:7).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 개역개정 1:34-40

<sup>34</sup>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sup>35</sup>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sup>36</sup>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sup>37</sup>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sup>38</sup>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sup>39</sup>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sup>40</sup>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1:34**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맹세하여”(BDB 989, KB 1396, 니팔 미완료형)라는 똑 같은 표현이 이스라엘과의 언약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용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불순종-저주의 필연적 결과에 대해 태도를 분명히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계속되는 세대에 영향을 주지만, 저주는 출애굽한 자들로서 최초의 악한 세대(즉,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야웨의 약속을 믿지 않은)인 한 세대로 국한됨을 주목하라.

**1:35** 야웨의 명령을 따라 그 땅 취하기를 거부했던 군대에 징집되는 연령(즉, 20 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벌을 받았고 백성들은 그들이 죽기까지(즉, 38 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여야만 했다.

단지 긍정적 보고를 했던 두 명의 정탐 갈렙(참조, 36 절)과 여호수아(참조, 1:38)만 제외되었다. 언약을 불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참조, 신명기 27-29 장)과 모세(참조, 신 3:26-27)에게 언약에 따른 저주를 가져온다

■ “좋은 땅” 이것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참조, 출 3:8; 신 1:35; 3:25; 4:21, 22; 8:7, 20; 수 23:13). 좋다는 것은 (1) 하나님의 임재(즉,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 86:5; 100:5; 106:1; 107:1; 118:1, 29; 145:9; 또한 암 5:4, 6, 14, 15 의 평행법을 주목하라)와 (2) “젖과 꿀이 흐르는 땅”(예, 출 3:8, 17; 13:5; 33:3; 민 13:27; 14:8; 16:13, 14; 신 6:3; 11:9; 26:9, 15; 27:3; 31:20; 수 4:6)을 의미한다.

**1:36** “그가 밟은 땅을” 갈렙이 취하고 유산으로 얻을 그 땅은 헤브론 주위에 있었다. 우리는 이곳이 에스골 골짜기 근처(참조, 수 15:13)였을 것으로 보는데 그 곳에는 거인들이 살았다!

■ “온전히” 이것은 “전심으로”(BDB 569, KB 583, 피엘 완료형)를 뜻한다. 여러 가지 숨은 동기를 갖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갈렙은 그의 온 마음을 다해 야웨를 사랑했고 쫓았다. 이것은 참된 헌신에 대한 은유이다(예, 민 14:24; 32:11-12; 수 14:8, 9, 14; 왕상 11:6). 이것은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모든 목숨으로”와 비슷한 표현이다(참조, 신 6:5; 10:12; 13:3; 20:2; 왕상 9:4; 11:4).

**1:37**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모세는 자신의 불순종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려고 했다(참조, 신 3:26, 아담이 그렇게 시도했었음, 참조, 창 3:12), 한편 민 20:7-13, 24; 27:14; 신 4:21 을 보라.

“진노하다”(BDB 60, KB 72, 히트파엘 완료형)는 동사는 “코구멍” 혹은 “코”를 뜻하는 명사에서 왔다. 이 표현은 (1)코 구멍이 벌어지는 것을 화내는 것의 모습으로 취한 것이거나 (2) 코에서 쉼쉼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말함이 분명하다. 이 용어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신인동형적으로) 화내심을 의미한다(참조, 출 32:12; 신 1:37; 4:21; 9:8, 20; 왕하 24:20).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경우는 “더디 노를 발하시며”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참을성 있음을 강조한다(예, 출 34:6; 민 14:18; 느 9:17; 잠 14:29).

**1:38**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네 앞에 서 있는”은 지도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의 관용법이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었다. 이 말은 미래에 그가 지도자로서 할 역할에 대한 예언으로 여겨진다.

■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 동사(BDB 304, KB 302, 피엘 명령)는 “강하게 하다”를 뜻한다(예, 3:28). 수 1:6, 7, 9, 18 에서 야웨 자신이 이 일을 하신다!

■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족장들에게 주신 예언(예, 창세기 12, 15, 18, 26 장)에서 그들의 자손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을 상기시킨다(예, 3:28; 31:7; 수 11:23).

**1:39**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이것은 민 14:3, 31 에 나온다. 어른들의 불신앙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그 땅을 정녕히 유업으로 받을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역사적으로 이것은 출애굽할 당시의 아이들을 일컫는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해하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까지는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이 본문에서 두 측면/기둥이 엮힌다:

1. “나는 그것을 그들에게 주겠다”(하나님의 주권, 참조, 8 절)
2. “그들은 그것을 얻을 것이다”(인간의 선택과 책임, 참조, 8 절)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책임질 나이

교회는 바울을 따라 창세기 3 장을 인간의 죄/악의 근원으로 강조했다. 이것은 어거스틴/칼빈주의에서 전적타락(즉, 인간이 도움없이 하나님께 반응하기가 불가능함)에 대한 강조점으로 발전했다. 이것은 칼빈주의 5 대 기둥의 하나를 이루었고 기독교의 기초원리가 되었다.

그러나 랍비들은 창세기 3 장을 악의 출발로 여기지 않았고(어떤 이는 창세기 6 장을 강조함), 오히려 지식과 헌신에 기초한 개인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들은 선하고 악한 두 가지 의도(벧제르)를 말했다. 고전적인 예는 다음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악하고 다른 하나는 선하다. 음식을 가장 잘 먹이는 쪽이 가장 큰 녀석이 된다.” 따라서 성장하고 언약적 지식/헌신을 할 수 있는 나이 이후에라야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예, 바르 미쯔바는 13 세의 소년을, 발 미쯔바는 12 살의 소녀를 지칭한다). 이 신학적 관점에 대한 성경의 다른 예는 요나서 4:11 과 이사야서 7:15-16 이다.

이것은 대립되는 용어이다:

1. 바울/어거스틴/칼빈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무능력을 강조했다.
2. 랍비들/예수님/바울은 언약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것은 어느 한쪽만의 진리가 아니라 양쪽 모두를 택해야 하는 내용이다! 신학적인 구조에 주의하자! 성경적인 진리는 긴장이 있는 짝으로 제시됨을 깨달자. 신자들은 이 긴장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빠르고 쉬운 답 혹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원해서는 안된다!

**1:40** “홍해 길을 따라” 이것은 엘랏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아카바 만 옆의 “왕의 고속도로”로 불리는 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민 14:25). 만일 이것이 “개략적으로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출애굽 초기에 건넌 이집트 쪽 바다를 일컫는 것이 아니다.

## 특별주제: 홍해

### I. 이름

- 가. 문자적으로는 얄 수프이다.
  - 1. “풀의 바다” 또는 “갈대의 바다”(이집트어 어원)
  - 2. “(땅)끝에 있는 바다”(셈어 어원)
- 나. 이것은 다음을 말할 수 있다
  - 1. 바닷물, 왕상 9:26(아카바 만); 욥 2:5(지중해)
  - 2. 민물, 출 2:3; 사 19:26
- 다. 70 인역은 이 단어를 처음으로 “홍해”로 번역하였다. 아마도 이들 번역가들은 이것을 에돔(붉음)의 바다로 연결시킨것이다. 이 지칭은 라틴 벌게이트역과 후에 흙정역에 이어졌다.

### II. 위치

- 가. 이 이름과 관련이 있을 여러 개의 장소(물이 있는)가 있다:
  - 1.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 사이에 있으며 약 300 킬로미터에 이르는 좁은 바다(수에즈 만)
  - 2.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사이에 있으며 약 180 킬로미터에 이르는 바다(아카바 만)
- 나. 이것은 멘잘레 호수(높 지대임)의 남쪽 해안에 있는 타니스, 소안, 아바리스, 람세스에서 가까운 나일 삼각주의 동북쪽에 있는 물이 얇은 늪지대를 말할 수 있다.
- 다. 이것은 은유적으로 신비한 남쪽 바다를 지칭할 수 있는데, 종종 (지구)끝에 있는 바다를 일컬었다. 이 경우에 다음을 말할 수 있다
  - 1. 오늘날의 홍해(수에즈 만, 또는 아카바 만, 참조, 왕상 9:26)
  - 2. 인도양(참조, 헤로도투스 1, 180)
  - 3. 페르시아 만(참조, 요세푸스, 안티. 1.7.3)

### III. 민수기 33 장에서의 습

- 가. 민 33:8 에서 기적적으로 나누어진 이 물은 습으로 불린다.
- 나. 민 33:10,11 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얄 습 옆에 진을 쳤다고 말한다.
- 다. 물이 있는 두 개의 장소는 서로 다르다.
  - 1. 처음 것은 홍해(수에즈 만)가 아니다
  - 2. 두 번째 것은 홍해(수에즈 만)일 수 있다
- 라. 습은 구약에서 3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 1. 야웨가 물을 갈라 놓아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지나갔지만 이집트 군인들은 빠져 죽은 곳
  - 2. 홍해(수에즈 만)가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곳
  - 3. 홍해(아카바 만)가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곳
- 마. 얄 습은 “갈대 바다”를 의미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1. 홍해(짘물)에는 갈대(파피루스)가 자라지 않거나/없었다
  - 2. 추정되는 이집트 어원은 땅을 말하지 호수를 가리키지 않는다
- 바. 습은 셈족에 기원을 둔 “끝”을 일컫는 말로서 남쪽에 있는 신비하면서도 알려지지 않은 물의 장소를 뜻한다(성경에의 접근, 제 1 권, 291-304 쪽에 있는 버나드 F. 밋스의 글 “홍해인가 갈대바다인가? 얄 습이 정말로 말하는 것”을 보라).

### 개역개정 1:41-46

<sup>41</sup>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sup>42</sup>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sup>43</sup>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sup>44</sup>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 때 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 산에서 처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sup>45</sup>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sup>46</sup>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 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1:41**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것은 분명히 범죄의 결과와 관련된 회개의 경우이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불신앙을 인하여 결코 다시 가질 수 없는 잃어버려진 기회가 많이 있음을 보인다. 이 문맥은 그들이 야웨께 순종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참조, 43 절). 이 신학적 진리는 구약의 많은 역사적 이야기에서 커다란 관심이 두어지는 내용이다.

**1:42**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승리의 열쇠는 그들의 군사적 힘이 아니라 야웨의 임재이다(참조, 43 절).

**1:43** 이스라엘에 대해 언급하는 병행되는 표현을 보라:

1. “너희가 듣지 않았다” - BDB 1033, KB 1570, 칼 완료형
2. “너희가 명령을 듣지 않고 반역했다” - BDB 598, KB 632, 히필 미완료형
3. “뻔뻔하게 행했다” - BDB 267, KB 268, 히필 미완료형

만일 이스라엘이 야웨의 말씀을 좀 더 일찍 듣고 그대로 행했더라면, 그들은 성공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이것을 하려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자기들의 고집을 따라 제멋대로 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문맥은 순종이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과 임재와 능력을 누림에 있어 절대로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나타낸다!

**1:44**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1:4 의 특별주제: 이스라엘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거하던 사람들을 보라.



NASB	“너희를 부수어”
NKJV	“너희를 물리쳐”
NRSV	“너희를 쳐서”
TEV	“너희를 뒤쫓아”
NJB	“너희를 쫓아”

이 동사(BDB 510, KB 507, 히필 미완료형)는 “쳐서 가루로 만들다”는 뜻이다. 이것은 민 14:45 에서 사용되었다.

이 형용사는 올리브에서 기름을 내기 위해 치는 것을 말한다(참조, 출 29:40; 민 28:5). 이것은 (1) 금 송아지(참조, 신 9:21)와 (2) 우상을 부숴(참조, 말 1:7)에서는 파괴하는 의미를 갖는다.

■ “세일 산에서” 세일은 에돔을 말한다.

■

NASB, NKJV,

NJB “호르마에”

NRSV, TEV “호르마까지”

호르마는 “물아 냐의 장소”를 말한다. 이 용어(BDB 356)는 “멸망에 드러짐”을 뜻하며 민 21:3의 사건을 반영한다. 이것은 원래 스밧(참조, 삿 1:17)으로 불렸다. 이스라엘이 이 곳을 멸망시킨 후에 이곳 이름을 야웨께 드림/야웨를 위해/께 멸망시킴(여호수아서 6-7장에서 여리고처럼)으로 다시 이름지었다. 이곳은 브엘세바 동북쪽에 있으며 시므온 자파에게 할당된 지역이다.

전치사(BDB 723 III)는 가나안인들/아모리인들이 에돔(세일)에서부터 브엘세바 인근의 북동쪽 지역까지 이스라엘 족속을 추격하여 그들을 완전히 패하게 한 것을 암시한다! 야웨는 반역하고 제멋대로 하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

**1:45**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백성들은 겉으로 울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 그들의 울음은 회개 때문이 아니라 전쟁에 패한 결과였다.

■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듣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듣고 계셨지만 “아니다”라고 말씀했다. 죄는 용서받은 죄일찌라도 항상 이에 따른 결과를 가져온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신명기의 기본적 저작 목적은 무엇인가?
2. 왜 시혼과 욕은 2장 3장에서는 충분히 설명되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는가?
3. 모세의 사법제도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열거하라.
4. 거인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5.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왜 그렇게 노를 발하셨는가?
6. 이스라엘 족속의 회개는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 신명기 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뉴킹 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광야에서의 날들	역사적 회고 (1:1-3:29) 1:46-2:8a	광야에서 보낸 날들 1:46-2:1	가데스에서 아르논까지
2:1-7			2:1-7
		2:2-6	1:4-5
		2:7	
2:8-15		2:8-9	2:8-13a
	2:8b-13a		
		2:10-12	
	2:13b-15	2:13-15	2:13b-15
2:16-23	2:16-25	2:16-19	2:16-25
		2:20-23	
2:24-25		2:24-25	
시혼 왕을 물리침		이스라엘이 시혼왕을 물리치다	시혼의 왕국을 정복함
2:26-37	2:26-30	2:26-27	2:26-29
		2:28-30	2:30-37
		2:31-37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2 장의 간략한 구조

가.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 4-7 절

나.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 8-15 절

다. 이스라엘과 암몬의 관계, 16-19 절

라. 20-23 절은 르파임과 관련된 삽입구이다(1:28 절의 특별주제를 보라)

마. 이스라엘과 요단강 동편에 있던 아모리인들과의 관계, 24-37 절

##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2:1-5

<sup>1</sup>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sup>2</sup>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sup>3</sup>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sup>4</sup>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sup>5</sup>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sup>6</sup>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sup>7</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2:1 “광야” 출애굽과 관련된 여러 “광야”가 있다.

### 특별주제: 출애굽과 관련된 광야

1. 술 광야 – 이집트의 북동쪽(예, 출 15:22)
2. 바란 광야 – 시나이 반도의 중앙(예, 창 21:21; 민 10:12; 12:16; 13:3, 26)
3. 신 광야 – 시나이 반도의 남쪽(예, 출 16:1; 17:1; 민 33:11, 12, 또한 “시내 광야”로 불림, 예, 출 18:1, 2; 민 1:1, 19; 3:4; 9:1, 5)
4. 신 광야 – 가나안 남쪽(예, 민 13:21; 20:1; 27:14; 33:36; 34:3; 신 32:51)

2:1 “홍해 길로” 이것은 사해 양쪽에 남북으로 난 골짜기(참조, 8 절)로서 요단 단층 계곡에 있는 아라바 길을 의미한다(참조, TEV “아카바 만으로 가는 길”). 이것은 넓은 계곡으로서 엘랏 성읍이나 아카바 만에 있는 에시온게벨 근처에서 시작하여 에돔 모압 아모리인의 왕국을 통과하여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까지 이른다. 구약에서 “왕의 계곡”이라고 불린다(참조, 민 20:17 과 21:22).

“홍해”(BDB 410 과 693)는 문자적으로는 “갈대/풀의 바다”이다. 이 용어는 “남쪽에 있으면서 알려지지 않았고 신비한 호수나 바다”를 가리킨다. 이 용어는 이 곳과 1:40 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때에 건넌던 장소로서 시나이 반도 동쪽에 있는 아카바 만을 말할 수 있다. 구약의 한 곳에서 이 용어는 인도양을 말하고 있다. 1:40의 특별주제를 보라.

■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신명기는 이것을 야웨께서 모세에게 한 계시로 나타낸다(참조, 1, 2, 9, 17, 31 절). 야웨께서 그의 백성을 이끄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모세에게 주신 직접적 계시(참조, 2 절)
2. 영광의 구름 설키나의 이동
3. 우림과 둠밈의 사용(예, 대제사장)

■ “세일 산” 이것은 에돔 땅을 가리킨다(참조, 5 절; 1:2; 출 3:1; 17:6).

## 2:3

NASB	“돌아서”
NKJV, NRSV	“가장자리를 따라가서”
TEV	“방랑하여”
NJB	“멀리가서”

이 동사(BDB 685, KB 738, 3 절의 칼 부정사 연계형과 1 절의 칼 미완료형)는 “돌아가다,” “순회하다,” “돌러싸다”를 뜻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악하고 믿지 않는 세대를 인하여 명확한 방향을 갖지 못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38 년동안 방랑했다. 하지만 야웨께서는 특별하고도 분명하게 모세에게 지시하시려고 한다. “순회하다” 또는 “가장자리를 따라 가다”는 이 본문에 잘 맞는 내용이다.

■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것은 민수기 20 장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에돔 땅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에돔사람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압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그들도 이를 거절하였다. 이것은 이른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었다(참조, ICC 34 쪽). 여기서 이스라엘은 왕의 길로 지나갈 수 있는지 요청하였는데, 이 길은 이 나라들의 중양을 지나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지불하여 음식과 물을 사려했지만 에돔과 모압 사람들(에서와 롯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혈연관계에 있는)은 “안된다”고 대답했다. 에돔을 지날 수 없기에 그들은 그들의 국경을 빙 돌아서 갔다.

많은 다른 히브리어 용어들처럼 이 말은(BDB 815, KB 937) 구체적이고 문자적인 의미(즉, 여기)와 발전된 은유적 뜻을 가진다. “돌이키다”라는 히브리어는 종종 “회개하다”로 번역된다(예, 왕하 17:13; 대하 30:6; 사 44:22; 렘 3:11-4:2; 호 14:1).

2:4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 용어(BDB 845, KB 1010, 피엘 명령)는 3 절의 “돌이켜”(BDB 815, KB 937, 칼 명령)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야웨께서 하신 그 명령(이는 5 절의 “그들과 다투지 말라”가 히트파엘 미완료형이 지시형으로 사용된 것과 같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들의 여행을 친히 지시하시고 계신다.

■

NASB	“너의 형제들”
NKJV	“너의 형제”
NRSV	“너의 친족”
TEV	“너의 먼 친척”
NJB	“너의 동족”

영어 번역본들은 히브리어의 “형제”(BDB 26)가 내포하는 의미를 보여준다. 이것은 에돔을 일컫는데 여러 번 사용되었다(에서의 자손들, 참조, 민 20:14; 신 2:4, 8; 욥 10 절).

■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이것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후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한 구원의 노래에 거슬러 올라가는 예언적 진술이다.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모압이 이스라엘을 인하여 낙담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다.

**2:4, 9, 19** 이 장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주관과 관련되어 주목할 만한 여러 표현이 있다:

“내가 주지 않으리라”(4, 9, 19 절)

“내가 주었다”(5, 9 절)

“주께서 주셨다”(12 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29 절)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셨다”(33 절)

이 장은 국가간의 경계에 대한 야웨의 주권을 보여준다(참조, 32:8; 느 9:22). 왜냐하면 위의 각 표현은 야웨께서 각 족속에게 거할 땅을 주사 상속케 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장은 야웨께서 이스라엘에게만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얼마만큼 땅을 주셨음을 보여준다. 어떤 족속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땅을 잃었고(예, 창 15:16) 이스라엘도 죄로 인해 얼마만큼의 기간(예, 앗시리아와 바벨론 포로)동안 자기들의 땅을 잃었다. 이 사실은 야웨께서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입증한다. 다신론이 횡횡하던 때에 이 사실은 유일신론에 대한 놀라운 선언이다.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한 하나님만 계시다, 신 6:4-6. 그 분은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아모리 족속과 그 외의 모든 족속에게까지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특히 70 인역[LXX]에서 신 32:8).

■

NASB, NRSV,

REB “따라서 매우 조심하라”

NKJV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주의깊게 살펴보라”

TEV 이 귀절을 5 절의 “그러나 너희가 전쟁을 시작해서는 안된다”와 합침

NJB “그리고 너희는 잘 보호될 것이다”

문자적으로는 “따라서 매우 조심하라”(접속사, 동사[BDB 1036, KB 1581, 니팔 완료형], 부사[BDB 547])이다. 70 인역의 번역은 TEV 와 유사하다.

이 표현은 신명기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 번 사용되었다(참조, 2:4; 4:9, 15, 23; 6:12; 8:11; 11:16; 12:13, 19, 30; 15:9; 24:8). 이것은 “너희의 마음이 깨어있게 하라,” “너희가 하고있는 일을 주의하라,” “너희의 행동이 암시하는 것을 명확히 생각하라”의 뜻을 가진다.

## 2:5

NASB “한 발자국만큼 작은 땅이라도”

NKJV “한 발자국만큼도 아니”

NRSV, NJB “한 발자국만큼도”

TEV “발바닥 넓이만큼도”

이것은 드물게 사용된 히브리어이다(BDB 204). 이것은 발을 딛는 장소를 말한다. 같은 어근이 11:24 과 수 1:3 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야웨께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에게 땅을 주셨다. 매우 조그마한 땅이라도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는 것을 진행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선물은 보장되었다.

한 가지 덧붙여야 할 사실은 결국 죄를 인하여 이 나라들(즉, 에돔과 모압)이 자신들의 땅을 잃게 되었고 망한 민족이 되었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창세기 6 장과 15 장을 제외하고는) 조건적이다.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조건적이지 않음). 그러나 각 사람/국가는 반드시 그에게 응답하여야 하고 또한 적합하게 응답하기를 계속해야만 한다! 계속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구약과 신약에서 야웨는 믿음, 회개, 순종, 인내를 요구하신다.

**2:6** 야웨께서 에돔에게 주신 땅에 대한 에돔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떡과 물을 사야했다.

1. “양식을 사라”(BDB 991, KB 1404, 칼 미완료형)
2. “물을 사라”(BDB 500, KB 497, 칼 미완료형)

**2: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한 때(즉,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에라도 계속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다.

광야에서 유량한 시기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적은 세대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시고 공급하시는 기간으로 바뀌었다. 랍비들은 이 시기를 야웨와 이스라엘의 밀월기였다고 부른다. 야웨가 공급하신 것은:

1. 보호하심
2. 친밀히 인도하심
3. 양식
4. 물
5. 헤어지지않은 옷
6. 전쟁에서의 승리

#### 개역개정 2:8-15

<sup>8</sup>우리가 세일 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sup>9</sup>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브람을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sup>10</sup>(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sup>11</sup>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sup>12</sup>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sup>13</sup>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sup>14</sup>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삼십팔 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sup>15</sup>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2:8** “우리가 세일 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여기서 “동족”은 약간은 반어적이다. 그들은 친족이었다. 같은 조상인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나왔지만 친척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은 행동했다.

“세일”은 에돔의 산악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세일”과 “에돔”은 동의어이다.

**2:8, 27** “아라바를 지나며” 이것은 “왕의 도로”를 말하는데 아카바 만에서부터 다마스쿠스에 이른다(참조, 1 절과 민 20:17, 19; 21:22).

**2:8** “엘랏” 이것은 글자대로는 “종려나무”이다(BDB 19). 이 곳은 아카바 만의 북쪽 끝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가까운 장소였을 것이다(참조, 왕상 9:26).

▣ “모압 광야 길” 맥밀란 성경지도의 10 번 지도는 이 광야 길이 “왕의 도로”와 평행하지만 동쪽으로 난 길임을 보여준다. 남쪽 끝은 에돔을 지나갔는데 “에돔 광야로 가는 길”로 알려졌다(참조, 왕하 3:8). 이 작은 사막 길과 왕의 도로는 여리고 동쪽에 있는 랍바 벤 암몬에서 서로 만났다.

**2:9**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이것은 2:5 에서 에돔에 관하여 주신 말씀과 평행을 이룬다. 용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다.

두 동사가 지시형이다:

1. “괴롭히다”(BDB 849 III, KB 1015, 칼 지시형, 참조, 출 23:22; 예 8:11)
2. “싸움을 걸다”(BDB 173, KB 202, 히트파엘 지시형, 참조, 19, 24 절; 잠 28:4; 단 11:10)

■ “아르” 이것은 모압 전체든지 그들의 수도를 가리킨다(참조, 민 21:15, 28; 신 2:8, 18, 29; 사 15:1). 이 곳은 아르논 강의 왼쪽 편에 위치했다.

■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창 19:38 을 보라.

**2:10-12** 이 절들은 20-23 절; 3:9, 11, 13-14 에서와 같이 편집자의 설명이다. 다음의 모든 용어는 거인을 가리킨다: (1) 에밋(10, 11 절) (2) 아나킴(10, 11, 21 절) (3) 르파임(11, 20 절). 이 용어들은 (ㄱ) 몸집이나 키가 큰 것, (ㄴ) 특정 인종적 출신, 혹은 (ㄷ)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처럼 후기에는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일컫기 위해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키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28 의 특별주제를 보라.

**2:12** “호리 사람” 호리 사람(BDB 360)과 후리 사람(ABD, WP 3RNJS, 335-338 쪽)의 관계에 대해 약간의 논란이 있다. 나는 이들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는다(ABD, 제 3 권, 288 쪽). 비록 교의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NET 성경, 348 쪽 5 항) 나는 그들이 서로 다른 종족이라고 믿는다. 호리 사람은 에돔이 국가를 형성하기 전에 에돔/세일 지방에 거주하던 족속이었다(참조, 창 14:6; 36:20-30).

**2:13**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이 두 동사(BDB 877, KB 1086 과 BDB 716, KB 778)는 모두 칼 명령이다. 야웨는 모세에게 무엇을 해야할 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 “세렛 시내” 이것은 모압과 에돔사이에 있는 시내의 이름이다(참조, 민 21:12). 여기서 시내는 침적토로 된 계곡으로서 우기에만 물이 있는 곳으로서 강은 아니다. 이 침적토는 종종 “길”의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에돔과 모압 접경에 있었다.

“세렛”(BDB 279)의 의미는 불확실하다.

**2:14**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삼십팔 년 동안이라” 이것은 광야유랑 기간을 말하는 절이다(참조, 7 절)

**2:14, 16** “모든 군인이” “군인”은 20 세 이상 50 세까지의 모든 남자를 말한다(참조, 출 30:14; 38:26; 민 11:3; 14:29). 믿지 않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즉, 야웨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 젊은 세대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죽어야 했다(참조, 15 절).

■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민 14:28-29; 신 1:34-35 을 보라.

**2:15** “여호와께서 손으로”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신인동형적 언어)

I. 구약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종류의 말

가. 신체의 일부분

1. 눈 – 창 1:4, 31; 6:8; 출 33:17; 민 14:14; 신 11:12; 욥 4:10
2. 손 – 출 15:17; 민 11:23; 신 2:15
3. 팔 – 출 6:6; 15:16; 민 11:23; 신 4:34; 5:15
4. 귀 – 민 11:18; 삼상 8:21; 왕하 19:16; 시 5:1; 10:17; 18:6

5. 얼굴 – 출 32:30; 33:11; 민 6:25; 신 34:10; 시 114:7
6. 손가락 – 출 8:19; 31:18; 신 9:10; 시 8:3
7. 소리 – 창 3:8, 10; 출 15:26; 19:19; 신 26:17; 27:10
8. 발 – 출 24:10; 겔 43:7
9. 인간의 모양 – 출 24:9-11; 시 47 편; 사 6:1; 겔 1:26
10. 하나님의 천사 – 창 16:7-13; 22:11-15; 31:11, 13; 48:15-16; 출 3:4, 13-21; 14:19; 사 2:1; 6:22-23; 13:3-22

나. 신체적 행동

1. 창조의 방편으로 말씀하심 – 출 1:3, 6, 9, 11, 14, 20, 24, 26
2. 에덴에서 걸으심(즉, 소리) – 창 3:8; 18:33; 함 3:15
3. 노아의 방주 문을 닫으심 – 창 7:16
4. 번제를 흠향하심 – 창 8:21; 레 26:31; 암 5:21
5. 내려 오심 – 창 11:5; 18:21; 출 3:8; 19:11, 18, 20
6. 모세를 묻으심 – 신 34:6

다. 인간의 감정

1. 후회하심/회개하심 – 창 6:6, 7; 출 32:14; 사 2:18; 삼상 15:29, 35; 암 7:3, 6
2. 화내심 – 출 4:14; 15:7; 민 11:10; 12:9; 22:22; 25:3, 4; 32:10, 13, 14; 신 6:5; 7:4; 29:20
3. 시기하심 – 출 20:5; 34:14; 신 4:24; 5:9; 6:15; 32:16, 21; 수 24:19
4. 싫어하심/혐오하심 – 레 20:23; 26:30; 신 32:19

라. 가족적 용어

1. 아버지
  - ㄱ. 이스라엘의 – 출 4:22; 신 14:1; 39:5
  - ㄴ. 왕의 – 삼하 7:11-16; 시 2:7
  - ㄷ. 아버지의 행동을 은유적으로 – 신 1:31; 8:5; 32:1; 시 27:10; 잠 3:12; 렘 3:4, 22; 31:20; 호 11:1-4; 말 3:17
2. 부모 – 호 11:1-4
3. 어머니 – 시 27:10(젖먹이는 어머니에 대한 유추); 사 49:15; 66:9-13
4. 신실한 젊은 연인 – 호 1-3 장

II. 이 종류의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

- 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남성으로 표현하는 여러 표현은 신인동형적이다!
- 나.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의미있는 면을 취하여 말씀하신다(아버지, 어머니, 부모, 연인)
- 다. 비록 그것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육체적 형태로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참조, 출 20 장; 신 5 장)
- 라. 궁극적인 신인동형은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하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만진 바 되셨다(참조, 요일 1:1-3).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참조, 요 1:1-18).

개역개정 2:16-25

<sup>16</sup>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sup>17</sup>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sup>18</sup>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sup>19</sup>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sup>20</sup>(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음이요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숨밌이라 일컬었으며 <sup>21</sup>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sup>22</sup>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sup>23</sup>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sup>24</sup>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sup>25</sup>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2:16**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사이의 균형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돕기 원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망선고를 내리셔서 38 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게 하셨지만 그들을 먹이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다. 이들의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때 보다 이른 죽음이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쳤던 20 세 이상의 남자들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죽었다.

**2:19** 이것은 2:5 과 2:9 에 평행한다. 이 귀절들에서는 9 절에서와 같은 동사가 사용되었다. 첫 동사(BDB 849, KB 1015)는 의미로는 지시형이지만 동사형태로는 아니다. 두 번째 동사(BDB 173, KB 202)는 히필 지시형이다. 암몬 자손은 롯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친척관계이다.

**2:20**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이들은 이 장소에 살았던 족속이었다. 그들은 삼숨민으로 불렸다. 21 절은 그들이 거인족속(참조, 9 절)임을 나타낸다. 1:2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삼숨밌” 창 14:5 을 보라.

**2:21** 야웨는 에서의 자손(5, 22 절)과 롯(9-10, 21-22)의 자손을 충실하게 대해 주셨다. 이스라엘이 정복에서 거둔 승리를 말하는 용어인 “거룩한 전쟁”은 에돔과 암몬이 그들의 땅을 정복할 때 거둔 승리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단어가 쓰였다.

## 2:23

NASB, NRSV,

TEV, REB “아위 사람들”

NKJV “아위 사람”

NJB “아위 족속”

이것은(BDB 732) 두 가지 뜻을 가진다:

1. 팔레스타인의 남쪽에 거주하던 민족. 그들은 에게 사람(즉, 팔레스타인들)에게 정복당했다. 올브라이트는 이들을 힉소스 거주민들과 연관시킨다(참조, ABD, 제 1 권, 531 쪽). 이 장은 전쟁에 패해 그 땅에서 쫓겨난 민족들의 이름을 열거한다.
2. 후에 여호수아서에서 이 용어는 베냐민 지파에 할당된 성읍의 이름으로 나온다(참조, 수 18:23).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아이 사람들이라고 추측한다.

■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 이 용어(BDB 499)는 크레테, 시프러스, 캅바도시아, 혹은 이집트 북부에 있는 섬을 말할 수 있다(참조, 창 10:13). 우리는 정확히 모른다. 갑도림( 갑돌의 복수형)은 블레셋의 이웃이나 친척일 가능성이 있다(참조, 창 10:14; 램 47:4; 암 9:7).

**2:24** 이 절에는 여러 명령이 나온다:

1. “일어나라” - BDB 877, KB 1086, 칼 명령형, 참조, 창 13:17
2. “떠나라” - BDB 652, KB 704, 칼 명령형, 참조, 신 1:19:2:1
3. “지나가라” - BDB 716, KB 778, 칼 명령형, 참조, 사 23:12
4. “보라” - BDB 906, KB 1157, 칼 명령형
5. “시작하라” - BDB 320 III, KB 319, 히필 명령형, 참조, 신 2:31
6. “소유로 삼으라” - BDB 439, KB 441, 칼 명령형, 참조, 신 1:8, 21; 2:31; 9:23
7. “싸우라” - BDB 173, KB 202, 히트파엘 명령형, 참조, 신 2:5, 9, 19; 단 11:10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모처럼 하지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야웨는 명령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신다. 그 땅은 그들이 믿음을 사용하는 한 그들의 것이다!

■ “아모리 사람” 1:4 의 설명을 보라. 이 왕국의 수도는 헤스본이었다. 이것은 르우벤 지파에게 할당되었다.

■ “주의 손이” 이것은 하나님께 사용된 신인동형적 표현이다(참조, 15 절). 하나님은 손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의미있게 말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용어로 그 분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2:25**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이것은 24 절에 있는 두 명령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지역에 있는 거주민들과 전쟁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전사로서 그들을 대신하여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 “무서워하며 두려워함” 처음 용어(BDB 808)는 “무서워함” 또는 “두려움”을 말한다:

1. 이스라엘의 적이 그들을 무서워함 – 신 2:25; 11:25; 시 105:38
2. 이스라엘이 범죄한다면 야웨를 무서워하게 될 것임 – 신 28:66; 67
3. 야웨는 경외의 대상이심 – 시 55:5

두 번째 용어(BDB 432)는 “두려워함”을 뜻한다:

1. 하나님을 두려워함 – 출 20:20
2. 하나님을 경외함 – 시 2:11; 5:8; 90:11; 119:38
3. 죽음을 두려워함 – 시 55:5
4. 이스라엘을 두려워함 – 신 2:25

■ “천하 만민이” 이것은 분명히 과장이다(즉, 온 지구, 4:19; 단 9:12). 이것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일컫는다.

■ “떨며 근심하리라” 이것은 “무서워하며 두려워함”에 병행하는 표현이다. 첫 동사(BDB 919, KB 1182, 칼 완료형)는 “떨다” 혹은 “흔들리다”(참조, 잠 29:9; 사 14:9)를 의미한다. 두 번째 동사(BDB 296, KB 297, 칼 완료형)는 “춤추다,” “선회하다”(참조, 애 4:6) 또는 “몸부림치다”(참조, 사 23:4; 26:18[아기를 낳음])를 의미한다.

#### 개역개정 2:26-31

<sup>26</sup>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sup>27</sup>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sup>28</sup>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sup>29</sup>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sup>31</sup>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sup>31</sup>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2:26** “그데못” 이것은 아르논 강 북쪽의 지역(또는 거주지)을 가리키지만,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이것은 후에 레위인들의 성읍이 되었다(참조, 수 21:37).

**2:27**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길로만 행하고” 첫 동사(BDB 716, KB 778, 칼 청유형)는 종종 역사적 진술을 요약하여 말할 때 사용된다(참조, 2:4, 8, 13, 14, 18, 24, 27, 28, 29, 30; 3:18, 21, 25, 27, 28; 4:14, 21, 22, 26).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히브리어인 “길” 또는 “도로”가 이중으로 전치사와 사용된 점이다. 이점은 그들이 큰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길은 왕의 도로로서 에돔, 모압, 시혼의 왕국을 지난다. 모세는 그들의 왕이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일으키지않고 그들의 왕국을 지나려는 점을 단언한다. 이 내용은 모세가 에돔에 제시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다(참조, 6 절).

▣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단체에 강조를 둔 자세로 말함을 주목하라. 성경에 대한 많은 오해는 개인에 강조점을 둔 현대의 서구적 관점을 인해 성경의 계시에 나타난 단체로서의 면을 상실함에 기인한다. 개인의 권리와 특권은 구약의 사회적 일체성을 잠식했다.

이 표현은 구약의 관용어로서 성경적 믿음을 걸음이나 길로 나타낼 때 사용된다(예, 시 119:105).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타났다. 이 개념은 여기서는 문자적이다(즉, 큰 길). 마찬가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라는 표현도 문자적이다. 대개 이 표현은 은유적으로 영적인 삶을 나타낸다(즉, 민 20:17; 22:26; 신 5:32; 17:11, 20; 28:14; 수 1:7; 23:6; 왕상 22:2).

**2:3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 . .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첫 동사(BDB 904, KB 1151, 히필 완료형)는 “단단하게 하다”로서 완고함이나 고집셈을 뜻한다:

1. 칼 미완료형, 1:17; 15:18
2. 히필, 출 7:3; 13:15 에서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심을 나타낸다
3. 히필, 신 10:17 에서 이스라엘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거나 고집을 부리지 말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

민수기 2 장은 하나님께서 시혼의 마음(즉, 의지)을 완강하게 하신 이 본문에 평행한다.

두 번째 동사 (BDB 54, KB 69, 피엘 완료형)는 “강하여지다”를 뜻한다. 이것은 대개 긍정적 의미를 갖지만(참조, 신 3:28; 31:6, 7, 23) 여기서는 “완고함”에 평행하여 사용된다(참조, 신 15:7; 대하 36:13).

이것은 바로에게 일어난 일과 유사하다: (1)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참조, 출 7:3; 9:12; 10:1, 20, 27; 11:10; 14:4, 8, 17) (2) 바로는 그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참조, 출 8:15, 32; 9:34). 이 귀절들은 하나님의 주권은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나타낸다. 문맥은 바로(출애굽기에서)와 시혼(신명기에서)이 자유의지를 가졌음을 암시하는데, 왜 모세는 그들에게 평화를 제안함으로 시간을 허비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였지만 그들이 거부한 것이다(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 142-143 쪽을 보라). 로마서 9 장과 10 장은 이와 같은 역설을 보여준다. 9 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강조점을 두고 10 장은 여러가지 우주적 제안을 나타낸다(참조, 4 절, “모든 이”; 11, 13 절 “누구든지”; 12 절, “모든”[2 회]).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하나님께서 강박케 하심

모순되어 보이는 이 내용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신학적 체계 사이에서 신학적 갈등을 가져왔다:

1. 하나님의 주권 대 인간의 자유의지
2. 어거스틴 대 펠라기우스
3. 칼빈 대 알미니안

나에게는 둘 다 성경적 진리이다. 두 진리는 신학적인 긴장을 가지면서 유지되어야 한다. “언약”의 개념은 두 가지를 함께 가진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오셔서, 내용을 주시고, 타락한 인간을 부르시지만(참조, 요 6:44, 65),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예, 요 1:12; 3:16). 인간의 책임과 그 결과는 인간에게 자유를 위임한다(즉, 인간의 권한)! 도덕적 행위는 실제 선택에 기초한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인정한다(즉, 신학적 양극단)!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나는 넘기리라”와 인간적 자유의지를 말하는 “차지하기 시작하라 그러면 그 땅을 얻으리라”를 주목하라!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내용이 고대 히브리어로 된 관용법적 신학적 표현을 오해하게 한 것은 확실히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독특한 유일신주의는 이스라엘이 이 신앙을 모든 면에서 방어할 것을 요구했다. 야웨께서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것은 유일신론을 지지하는 히브리식 표현이었다. 아무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이면서 유일한 원인이 있는데 야웨 그분이다. 이 사실을 말하는 본문은 현대인에게 다음 내용을 주장한다:

1. 악을 하나님께 핑계대는 것
2. 근본주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

**특별주제:** 마음

헬라어 카르디아는 70 인역과 신약에서 히브리어 렵에 대한 말로서 사용된다. 이것은 여러 의미를 지닌다(참조, 바우어, 아른트, 긴그리치, 댕커, 헬라어-영어 사전, 403-404 쪽):

1. 인간에 대한 은유로서 육체적 삶의 중심(참조, 행 14:17; 고후 3:2-3; 약 5:5)
2. 영적(도덕적) 삶의 중심
  - ㄱ.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참조, 눅 16:15; 롬 8:27; 고전 14:25; 살전 2:4; 계 2:23)
  - ㄴ. 인간의 영적 삶을 나타냄(참조, 마 15:18-19; 18:35; 롬 6:17; 딤후 1:5; 딤후 2:22; 벧전 1:22)
3. 생각의 중심(즉, 지적, 참조 마 13:15; 24:48; 행 7:23; 16:14; 28:27; 롬 1:21; 10:6; 16:18; 고후 4:6; 엡 1:18; 4:18; 약 1:26; 벧후 1:19; 계 18:7; 마음은 고후 3:14-15 과 빌 4:7 에서 생각과 동의어임)
4. 의지의 중심(즉, 뜻, 참조, 행 5:4; 11:23; 고후 4:5; 7:37; 고후 9:7)
5. 감정의 중심(참조, 마 5:28; 행 2:26, 37; 7:54; 21:13; 롬 1:24; 고후 2:4; 7:3; 엡 6:22; 빌 1:7)
6. 성령이 일하시는 독특한 영역(참조, 롬 5:5; 고후 1:22; 갈 4:6[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심, 엡 3:17])
7. 마음은 은유적으로 사람 전체를 가리킴(참조, 마 22:37, 신 6:5 의 인용). 생각, 동기, 행동을 말하는 마음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낸다. 구약의 몇가지 특이한 용법은:
  - ㄱ. 창 6:6; 8:21, “하나님이 그 마음에 슬퍼하셨다”(또한 호세아 11:8-9 를 보라)
  - ㄴ. 신 4:29; 6:5,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 ㄷ. 신 10:16, “할례받지 못한 마음”과 롬 2:29
  - ㄹ. 겔 18:31-32, “새 마음”
  - ㅁ. 겔 36:26, “새 마음” 대 “돌로 된 마음”

**2:31** 여기에는 24 절에 나오는 세 명령이 반복된다:

1. “보라” - BDB 906, KB 1157, 칼 명령
2. “시작하라” - BDB 320, KB 319, 히필 명령
3. “차지하라” - BDB 439, KB 441, 칼 명령

#### 개역개정 **2:32-37**

<sup>32</sup>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sup>33</sup>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매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sup>34</sup>그 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sup>35</sup>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sup>36</sup>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sup>37</sup>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압복 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2:32**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시혼은 자신의 튼튼한 성에서 나와 평지에서 싸웠기에 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심에 있어 인간의 교만을 사용하시는 좋은 예이다.

■ “야하스”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남쪽에서 온 것을 볼 때 시혼의 왕국에서 요단 동편에, 아마도 수도인 헤스본의 남쪽에 위치했을 것이다.

**2:33**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매” 31 절에서 처럼 하나님의 주권(32a 절, “하나님께서 넘기시매” BDB 678, KB 733, 칼 미완료형)과 인간의 자유(32b 절, “우리가 쳤고” BDB 645, KB 697, 히필 미완료형)가 모두 명확히 말해진다.

**2:34**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것은 거룩한 전쟁의 신조이다(헤렘, BDB 355 I, 참조, 3:6). 모든 이를 죽여야 했는데 이는 이들 민족들이 오랫동안 죄를 행하였기 때문이다(참조, 신 7:16; 20:14). 창 15:16 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치 아니 함이라”라고 말하고,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그들은 회개치않고 따라서 심판이 마침내 이르렀다. 만일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시내산에서 주신 예배와 신학을 오염시키게 될 것이었다. “거룩한 전쟁”은 심판이요 또한 보호하는 울타리였다!

**2:35**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여기에는 제한적으로 적용한 금지의 예이다(예, 3:6-7; 수 8:2, 27; 11:14). 그들은 사람들을 멸망시킨 후에 물건을 탈취할 수 있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거룩한 전쟁의 일부 모습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탈취물도 그렇다(예, 여리고, 여호수아 7 장).

#### **2:36**

NASB	“계곡에 있는 성읍”
NKJV	“골짜기에 있는 성읍”
NRSV	“개울 자체에 있는 마을”
TEV	“그 계곡 한 가운데 있는 성읍”
NJB	“계곡 아래의 마을”

영어 번역본에 나타나는 다양성은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다. 내 생각은 개울에는 홍수의 위험때문에 성읍이 결코 거기에 건설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계곡이 더 나은 설명으로 보인다.

■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성읍들이 잘 방비되었고, 거주민들은 키가 컸기에 그만 두어야 했다. 이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한다(참조, 신 1:28).

**2:37** 정복할 지역은 정확하게 나타난다(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참조, 5, 9, 19 절).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지도에서 정복의 여정을 살펴보라.
2. 거인들은 누구였나?
3. 34 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신명기 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뉴킹 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전쟁에 진 옥	역사적 회고 (1:1-3:29)	광야에서 보낸 날들	옥의 나라를 정복하다
3:1-11	3:1-11	3:1-2 3:3-7	3:1-7
	3:8-17	3:8-10 3:11	3:8-11
분배된 요단강 동편의 땅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	요단강 저편의 분배
3:12-17		3:12-13a 3:13b-14 3:15-17	3:12-17 모세의 계속되는 지시
3:18-22	3:18-22	3:18-20 3:21-22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허락받지 못하다	3:18-22
그 땅에 들어가기를 금지받은 모세			
3:23-29	3:23-29	3:23-25 3:26-28 3:29	3:23-28 3:29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3:1-7**

<sup>1</sup>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sup>2</sup>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sup>3</sup>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sup>4</sup>그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옥십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sup>5</sup>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sup>6</sup>우리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sup>7</sup>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3:1** “올라가매” 이것은 왕의 도로를 말한다. 이 길은 요단 건너편에 있는 길로서 에돔, 모압, 암몬의 중심부를 지난다. 이 길은 아카바 만에서부터 다마스쿠스에 이르는 대상들의 주요 경로였다.

■ “바산” 이 이름은 “완만함”을 뜻하는데(BDB 143) 좋은 농경지(즉, 돌이 없는)를 의미한다. 이 지역은 매우 비옥하고 나무가 많은 땅으로서 야르묵 강 혹은 압복 강 북쪽 즉 요단 건너편의 북쪽에서 헤르몬 산 바로 기슭 바로 남쪽까지 이르는 지역이다. 따라서 길르앗으로 알려진 땅을 말한다. 이 곳은 재목과 가축의 큰 때로 알려져 있다.

■ “바산 왕 옥” 민 21:33-35 과 신 1:4 을 보라.

■ “에드레이에서” 이 성읍은 야르묵 강가의 나루터에 위치하였고 왕궁이 있던 장소이다. 수도는 북쪽에 있는 아스타롯이었다. 여기서 옥이 이스라엘을 마주하였는데, 아마도 강을 방어벽으로 이용하였을 것이다.

**3: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2:2 의 설명을 보라.

■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동사(BDB 431, KB 432,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 칼 미완료형)는 신명기에서 자주 사용된다(예, 1:19, 21, 29; 2:4; 3:2, 22; 4:10).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계신다(즉, 거룩한 전쟁, 예, 민 21:34; 수 10:8; 11:6).

■

NASB, NKJV “내가 그를 넘겼으니”

NRSV “내가 그를 너에게 넘겼으니”

TEV “내가 그를 넘기려 하니”

NJB “내가 그를 너의 자비에 맡겼으니”

이 동사(BDB 678, KB 733, 칼 완료형)는 “주다,” “놓다,” 또는 “정하다”를 뜻한다. 이것은 자주 사용되는 동사이다. 이 단어가 사용된 문학적 단위인 신명기에서의 용법을 주목하라(참조, 1:8, 15, 20, 21, 25, 27, 35, 36, 39; 2:5, 9, 12, 19, 24, 25, 28, 29, 30, 31, 33, 36; 3:2, 2, 12, 13, 15, 16, 18, 19, 20; 4:1, 8, 21, 38, 40). 야웨는 수여자이시다.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다!

■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거룩한 전쟁”의 용어와 실재이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헤렘 이라는 개념 혹은 “멸망시키다”를 말한다(참조, 6 절). 다음은 이 용어가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구약에서의 대표적 표본이다. 헤렘의 개념 혹은 “거룩한 전쟁,” “멸망시키다,” 혹은 “코르반”은 다음을 말한다:

1. 완전한 파멸—호흡있는 것은 아무것도 살리지 않고, 어떤 물건도 취하지 않음(참조, 신 20:16-18; 삼상 15:3; 수 7 장)
2. 사람은 모두 죽이지만 가축은 살림(참조, 신 2:34, 35; 3:6, 7)
3. 남자만 죽음(참조, 신 20:10-15)

**3:4 “아르굽 온 지방” “지방”(BDB 286)**이라는 용어는 문자적으로는 “줄”을 말한다. 그 용법은:

1. 밧줄
2. 길이를 재는 줄
3. 땅의 구획(즉, 지방, 참조, 수 17:5, 혹은 유산, 참조, 신 32:9; 수 17:14)
4. 사람들의 무리(즉, 선지자들의 무리, 참조, 삼상 10:5, 10)

▣ “아르굽” 이 용어(BDB 918)는 지방 혹은 땅의 구획에 붙여진 이름으로서 바산의 땅에 위치했다(참조, 3:4, 13, 14; 왕상 4:13). 어근은 “덩어리”(BDB 918) 또는 “더미”(BDB 918)를 의미할 수 있는데 확실치 않다.

**3:5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이 성읍들은 화성암으로 지어졌고 꽤 큰 규모였다. 집을 먹도록 위용을 지닌 성읍이었다. 성읍들의 크기는 그곳에 사는 민족들의 인구를 수용할 만큼 컸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믿음은 그들이 거인들을 무서워했던 것보다 더 강했다(참조, 2:20-24).

세계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신명기의 핸드북은 68-69 쪽에서 “문과 빗장”은 아마도 쇠로 된 빗장으로 잠그는 장치가 있는 이중 문을 말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원문에서 복수형으로 된 “문들”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하나 이상의 문이 있었거나 (2) 내문과 외문의 특징을 가진 구조의 문(즉, 방)이었을 것이다.

### 3:6

NASB, NKJV,

NRSV “완전히 멸망시켰으나”

TEV “멸망시켰으나”

NJB “멸망의 저주”

REB “완전한 멸망”

JPSOA “멸망한다는”

이 동사(BDB 355, KB 353)는 이 절에서 두 번 사용된다(히필 명령과 히필 부정사 절대형).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이 사람이 사용하기에 너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멸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거룩한 전쟁”의 문맥에서 사용되는데(참조, 2:34; 7:2; 출 22:20; 수 6:17, 21) 승리를 선언하고 그 결과 탈취물이 야웨께 속함을 나타낸다. 이 정복의 문맥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가나안 사람과 그들의 소유였다. 그들은 혐오스러운 죄와 회개치 않음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참조, 창 15:16; 레 18:24-26; 신 9:5).

“거룩한 전쟁”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로랜드 데 보, 고대 이스라엘, 제 1 권 258-267 쪽을 보라.

### 개역개정 3:8-11

<sup>8</sup> 그 때에 우리가 요단 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sup>9</sup>(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sup>10</sup>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sup>11</sup>(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나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3:8** “그 때에 우리가 요단 강 이쪽 땅을 . . .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24 절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은 신인동형적으로(2:15의 특별주제를 보라)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 사이의 상호작용을 거듭 말한다.

▣ “헤르몬 산” 헤르몬 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북쪽 경계이다. 이것은 긴네렛 바다(즉, 갈릴리) 북쪽에 있는 레바논 전 지역에서 가장 큰 산이다. 이 이름(BDB 356)은 헤렘(바친 물건)과 여러 신전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참조, 고대 이스라엘, 로랜드 데 보, 제 1 권, 279-282 쪽). 이것은 정복한 땅의 북쪽 경계이다(참조, 샅 1:1).

**3:9** “시돈” 이것은 고대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이다(참조, 왕상 16:31). 후에 커다란 도시가 된 두로의 아래에 있는 해안에 위치한다. 두로대신 사용되는 지명은 이 본문의 고대성을 나타낸다.

▣ “시론” 헤르몬 산을 가리키는 이 용어(BDB 970, 시 29:6)는 우가릿 문서에서 발견되는데, 그 문서의 고대성을 나타낸다.

▣ “스닐” 이 용어(BDB 972, 참조, 대상 5:23; 아 4:8; 겔 27:5)는 앓시리아 왕으로서 다마스커스를 공격했던 살만에셀 III의 자료에 나온다.

### 3:10

NASB, TEV “고원”  
NKJV “평지”  
NRSV, NJB “고원”

이 용어(BDB 449)는 “평평한 지역”을 뜻한다. 평지나 평평한 고원지대를 의미했을 것이다. 여기는 아르는 강과 헤스본 성읍 사이의 고원을 말한다(참조, 4:43; 수 13:9, 16, 17, 21; 램 48:8, 21). 이 고원은 모압의 일부였고 르우벤 지파가 유업으로 받았다(참조, 수 20:8).

▣ “길르앗” 이 용어(BDB 166)는 그 기원이나 뜻이 알려져 있지 않다. 널리 알려진(언어 유희) 정의는 창 31:48에 있다. 이것은 다음을 말할 것이다:

1. 부족(예, 민 26:29; 샅 5:17)
2. 땅(예, 창 37:25)

이것은 항상 아르는 강으로부터 바산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의미했다.

▣ “살르가” 이 도시는 바산의 남동쪽 경계를 이루며, 헤르몬 산과 함께 사용되어 바산의 경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수 12:5; 13:11; 대상 5:11).

**3:11** 이것은 2:10-12, 20; 3:9 과 같이 편집자의 설명으로 보인다.

▣ “르바임” 이것은 (1) 민족 (2) 거인들 혹은 (3) 죽은 자들의 세계를 뜻한다. 문맥에서 이 말은 거인들을 일컫는다. 1:28의 특별주제를 보라.



NASB, NKJV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NRSV, NJB “그의 침상, 철 침상”  
 TEV “그의 관, 돌로 됨”  
 REB “현무암으로 된 그의 관”

이 용어(BDB 793)는 기본적으로 “나무로 된 틀”을 뜻한다. 이것은 격자, 긴 의자, 침대, 안장, 의자/왕좌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여기서는 잠자는 장소를 가리킨다:

1. 침대 – 삼하 17:28; 욥 7:13; 시 6:6; 41:3; 암 6:4
2. 침상 – 잠 7:16
3. 관(석관, 즉 사람이 마지막으로 쉬는/잠자는 장소)

“철”은 석관의 색을 이루는 현무암을 뜻할 수 있다(참조, NET 성경, 350 쪽). NIDOTTE, 제 1 권, 741 쪽은 말하기를 “이것이 석관이나 고인돌을 의미한다고 지지하는 자료가 없다”라고 한다.

■ “랍바” 이 곳은 암몬 왕국의 수도였다(참조, 수 13:25). 이 곳은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이다.

■ “보통 규빗으로” 이것은 문자적으로 “사람의 규빗으로”이며 “표준 규빗”을 가리키는 관용어이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규빗

성경에 두 가지 규빗이 나온다(BDB 52, KB 61). 일반 규빗은 보통사람의 가장 긴 손가락에서부터 그의 팔꿈치까지의 길이로 대략 45cm 이다(예, 창 6:15; 출 25:10, 17, 23; 26:2, 8, 13, 16; 27:1, 9, 12, 13, 14, 16, 18; 민 35:4, 5; 신 3:11). 또한 긴 규빗(왕의 규빗)이 건축에 사용되었는데(즉, 솔로몬의 성전) 이것은 이집트(즉, 21 손가락 두께), 팔레스타인(즉, 24 손가락 두께), 때로 바벨론(즉, 30 손가락 두께)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했다. 이 길이는 대략 53cm 였다(참조, 겔 40:5; 43:13).

고대인들은 측량을 위해 신체의 일부분을 사용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사용한 것은:

1.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규빗)
2. 엄지 손가락에서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벌린 넓이(뽀, 참조, 출 28:16; 39:9; 삼상 17:4)
3. 주먹을 쥐었을 때 네 손가락의 넓이(손바닥 넓이, 참조, 출 25:25; 37:12; 왕상 7:26; 대하 4:5)
4. 손가락 가운데 마디의 길이(손가락 넓이, 램 52:21)

규빗(BDB 52, KB 61)은 완벽하게 표준화되지 않았고 두 가지 종류의 길이가 있었다.

- ㄱ. 보통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약 45cm, 참조, 신 3:11)
- ㄴ. 왕의 규빗은 좀 더 길었다(대략 50cm, 참조, 대하 3:3; 겔 40:5; 43:13)

#### 개역개정 3:12-17

<sup>12</sup>그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으매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sup>13</sup>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sup>14</sup>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sup>15</sup>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sup>16</sup>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압복 강까지며 <sup>17</sup>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3:12**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이 두 지파는 시혼의 왕국을 차지했다(참조, 수 13:14-23, 24-28).

**3:13** “반 지파”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을 이루었다(참조, 창 41:50, 52; 48:1-7) 므낫세의 유산은 요단강 동편에 절반이, 서편에 절반이 나뉘어 있었다.

**3:14** “야일” 이 용어는 “~의 아들”이라기 보다는 “~의 자손”을 의미한다(참조, 민 32:41). 이 계보는 여러 세대를 건너 뛰었다. 12-13 절은 일반적으로, 14-17 절은 보다 상세히 다룬다(참조, NIC, 신명기, 크레이기, 121 쪽).

■ “오늘날까지” 이것은 후기의 어떤 사건보다는 기간을 말한다(참조, 2:22; 3:14; 4:38; 10:8, 15; 29:28; 수 7:26; 8:28, 29; 9:27; 13:13; 14:14; 16:10; 22:3, 17; 23:8; 삿 1:21, 26; 10:4; 18:12, 30; 19:30). 5 절도 비슷한 의미인 것 같다. 문제는 “얼마나” 후인가 이다. 이것은 “얼마 안 있어”(예, 수 6:25; 23:9)를 뜻하거나 여러 세대 이후를 가리킬 수 있다. 누가 모세의 말을 기록했는가? 누가 모세오경을 편집했는가? 누가 최종 편집자였는가?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없다!

■ “므낫세의 아들” 여기서 “아들”은 다음 세대인 아들이라기보다 후손을 의미한다(참조, 대상 2:22).

■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 이들은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다(BDB 178 과 591). 그들은 바산 땅의 북쪽 경계에 살았다(참조, 수 13:13). 이스라엘은 이들과 싸우지 않았다.

■ “하봇야일” 이것은 야일의 “촌락,” “지역,” 또는 “왕국”을 의미한다(BDB 975 II).

**3:15** “마길에게” 민수기 32:39-40 은 이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한다.

**3:17** “아라바” 이것은 요단 계곡을 말하는 또 다른 용어이다. 이 계곡은 위쪽으로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를 거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아카바 만에 이른다(1:1 의 설명을 보라). 이것은 지형학적인 협곡으로서 요단 강이 헤르몬 산 기슭에서부터 사해까지 이것을 따라 흐른다.

■ “긴네렛” 이것(BDB 490)은 갈릴리에 있는 성읍의 이름이다. 이 호수는 성경에서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1. 긴네렛(예, 민 34:11; 수 12:3; 13:27)
2. 갈릴리(예, 마 4:18; 막 1:16; 요 6:1)
3. 게네사렛(예, 눅 5:1)
4. 티베리아스(예, 요 6:1; 21:1)

■ “비스가” 이 산(BDB 820)은 느보 산(BDB 612 I, 참조, 32:49; 34:1)이거나 이와 매우 가까이 있는 산이다. 이 둘은 아마도 같은 지층에 있는 두 봉우리이거나 혹은 산등성이와 가장 높은 봉우리의 이름이다. 이 산들은 아라바 위에 있는 모압 고원의 침식작용의 결과이다. 이 이름은 구약에서 느보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참조, 민 21:20; 23:14; 신 3:17, 27; 4:49; 34:1).

■ “아라바 바다” 이것(참조, 4:49; 수 3:16; 12:3 또한 “평지의 바다”로 왕하 14:25 에서 불림)은 염해의 또 다른 이름이다(참조, 창 14:3; 민 34:3, 12; 수 3:16; 15:2, 5; 19:19). 오늘날에는 사해로 불린다. 이것은 “동편 바다”(참조, 겔 47:18; 욥 2:20; 숙 14:8) 또는 그냥 “바다”(참조, 사 16:8; 렘 48:32)로 불린다.

### 개역개정 3:18-22

<sup>18</sup>그 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sup>19</sup>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sup>20</sup>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sup>21</sup>그 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sup>22</sup>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3:18**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이것은 아라바의 동쪽 지역(요단 건너편)을 말한다.

■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지역에 정착하였기에 그들은 이제 형제들이 정착할 땅을 얻도록(참조, 19-20 절) 그들 앞에서 싸움에 임해야 했다.

**3:19** “가축이 많은 줄” “많은 가축”은 그들이 (1) 이집트에서 취한 것과 (2)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에서 탈취한 전리품이었다.

■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다(종종 “주었다”라는 동사가 사용됨, BDB 678, KB 733, 칼 완료형).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의 전리품을 얻은 것이 아니다.

**3:20** “여호와께서 . . .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신약에서 히브리서는 오경에 대한 가장 좋은 주석이다. 히브리서 4 장은 “안식”을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1.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안식하셨듯이 제 7 일에 쉼, 안식일
2.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안식함(참조, 12:10; 25:19; 수 23:1)
3. 천국, 영원한 안식일인 쉼

여기서 “안식”은 2 항의 안전을 말한다.

**3:21** 이광야에서 야웨께서 공급하시고 요단 건너편에서 승리를 주셨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했다!

**3:22**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 재주, 재원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뜻한다(참조, 1:30; 29:4; 출 14:14; 15:3).

### 개역개정 3:23-29

<sup>23</sup>그 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sup>24</sup>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sup>25</sup>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sup>26</sup>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sup>27</sup>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sup>28</sup>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sup>29</sup>그 때에 우리가 벳브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3:23-29** 이것은 모세의 아주 개인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다. 성경의 기록에서 모세가 자신을 위해 간구한 것에 대해 말하는 유일한 곳이다. 다른 곳에서는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나 땅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것은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 3:23

NASB, NKJV,

NJB “간구하기를”

NRSV “간청하기를”

TEV “간청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간절히 주께 구했다(BDB 335, KB 334, 히트파엘 미완료형, 참조, 왕상 8:33, 47, 59; 대하 6:37; 욥 8:5; 9:15; 시 30:8; 142:1; 호 12:4).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함을 고통스러워 했다.

**3:24** “주 여호와여” 여기서 “주”라는 용어는 아도나이(BDB 10)로서 히브리어에서는 “주인,” “주,” “남편,” 또는 “주님”을 뜻한다. “하나님”은 히브리어의 야웨(BDB 217)이다. 모세는 “주 여호와여”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모세의 글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모세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다. 1:3의 특별제목: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모세는 자신이 야웨, 하나님의 성품(4:31과 10:17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친밀히 알고 있는 점이 야웨로 하여금 자신이 요단을 건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간구하지만, 야웨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행하지 않는다!

▣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이것은 단일신교 즉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라는 개념(예, 출 15:11과 신 4:7; 5:7, 유대인의 연구성경, 379-380을 보라)을 말하는가? 이것은 모세가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야웨가 가장 강하신 분임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유일신론(예, 4:35, 39; 6:4; 출 20:2-3; 사 43:11; 44:6, 8, 24; 45:5, 6-7, 14, 18, 21, 22) 즉 한 분이시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가? 우리는 잘 모른다. 나는 모세가 다른 신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엘로힘으로 불리는 다른 영적인 힘(참조, 시 8:5:82:1, 6; 삼상 28:13)을 말하는 것으로 믿는다.

**3:25**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 . . 보게 하옵소서” 이 구절은 두 동사가 있다:

1. “건너가다” - BDB 716, KB 778, 칼 청유형
2. “보다” - BDB 906, KB 1157, 칼 미완료형이지만 지시형의 의미

**3:26** “여호와께서 . . . 내게 진노하사” 이것은 신인동형적 표현이다(“화냄” BDB 720, KB 780, 2:15의 특별주제를 보라).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마음 상태에 있음을 인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는 표현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며,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음을 잘 기억해야만 한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우리는 인간의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한다.

모세의 공적인 죄(참조, 32:51; 민 20:10-12; 27:12-14)는 공적인 결과를 가져 왔다!

▣ “너희 때문에” 1:34, 37의 설명을 보라.

■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거듭 거듭 기도했다(참조, 민 20:2-13; 27:13; 신 1:37; 3:23-27),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BDB 414, KB 418, 히필 지시형).

**3:27** 이 절과 28 절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일련의 명령이다:

1. “올라가서” - BDB 748, KB 828, 칼 명령
2. “눈을 들어” - BDB 669, KB 724, 칼 명령
3. “바라보고” - BDB 906, KB 1157, 칼 명령
4. “명령하고” - BDB 845, KB 1010, 피엘 명령
5. “담대하게 하며” - BDB 304, KB 302, 피엘 명령
6. “강하게 하라” - BDB 54, KB 65, 피엘 명령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필요를 공급하셨다(여호수아에게 능력을 덧 입히심, 참조, 28 절 b, c).

■ “비스가 산 꼭대기” 17 절의 설명을 보라.

■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에 대한 완전한 보기이다.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내가 말했다. 하지만 네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한 나머지 그에게 끌려 다니지 않으신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군이었지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이에 따른 고통을 맛보았다(참조, 욥 34:11; 시 28:4; 62:12; 잠 24:12; 전 12:14; 램 17:10; 32; 19; 마 16:27; 25:31-46; 롬 2:6; 14:12; 고전 3:8; 고후 5:10; 갈 6:7-10; 딤후 4:14; 벧전 1:17; 계 2:23; 20:12; 22:12).

**3:29 “벧브올”** 이것은 문자적으로 “브올의 집/전”(BDB 112)이다. 브올은 모압 북동쪽에 있는 산이나 성읍이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했던 장소이다(풍요의 신 바알 숭배, 참조, 민수기 22-23 장). 이것은 르우벤의 기업이 되었다(참조, 수 13:20).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배워야 할 신학적인 사항은 무엇인가?
2. 당신은 3 절과 6 절에서의 하나님과 신약에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관련이 있다고 보는가?
3. 24 절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가?
4. 하나님께서는 27 절에서 어떻게 모세에게 자비를 보이시며 동시에 정의를 나타내셨는가?

## 신명기 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뉴킹 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모세가 순종할 것을 명하다	처음 설교의 결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하다	참 지혜와 대조되는 벧브올에서의 배교
4:1-8	4:1-4 4:5-8	4:1-4 4:5-6 4:7-10	4:1-8  호렙에서의 계시; 그 요구사항
4:9-14 우상숭배를 조심하라	4:9-14	4:11-14	4:9-14
4:15-24	4:15-20 4:21-24	4:15-24	4:15-20 장차 올 형벌과 회개
4:25-31	4:25-31	4:25-31	4:21-24 4:25-28 4:29-31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광
4:32-40	4:32-40	4:32-40	4:32-34 4:35-38 4:39-40
요단 동편의 도피성	부록	요단 동편의 도피성	도피성
4:41-43	4:41-43	4:41-43	4:41-43
하나님의 법에 대한 서론	모세의 두 번째 설교 (4:44-26:19; 28)	하나님의 법을 주는 것에 대한 서론	모세의 두 번째 설교 (4:44-11:32)
4:44-49	4:44-49	4:44-49	4:44-49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4:1-4

<sup>1</sup>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sup>2</sup>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sup>3</sup>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sup>4</sup>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4:1 “듣고”** 이 동사(BDB 1033, KB 1570, 칼 명령)는 신명기에서 종종 사용된다(예, 1:16; 4:1; 5:1; 6:3, 4; 9:1; 20:3; 27:10; 33:7). 이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행할 수 있도록 들어라”이다. 이 초점이 행동에 있지 단지 듣는 것에 있지 않다(참조, 약 1:22-25). 이 장에는 여러 경고가 나온다, 1, 2, 6, 9, 13, 14, 15, 19, 23, 26 절(참조, 미 1:2; 3:1; 6:1).

▣ “규례와 법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포함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그의 언약적 요구 사항에 대해 계시하신 모든 내용을 말한다. 그 의미에 있어서 토라와 비슷한 뜻을 가진다(글자적으로는, “가르침,” 즉, 모세의 율법).

###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용어들(신명기와 시편에서)

#### I. “규례” BDB 349, “법령, 선언, 또는 법령”

- 가. 남성형, קח - 신 4:1, 5, 6, 8, 14, 40, 45; 5:1; 6:1, 24, 25; 7:11; 11:32; 16:12; 17:19; 26:17; 27:10; 시 2:7; 50:16; 81:4; 99:7; 105:10, 45; 148:6
- 나. 여성형, קחה - 신 6:2; 8:11; 10:13; 11:1; 28:15, 45; 30:10, 16; 시 89:31; 119:5, 8, 12, 16, 23, 26, 33, 48, 54, 64, 68, 71, 80, 83, 112, 124, 135, 145, 155, 171

#### II. “법” BDB 435, “가르침”

- 신 1:5; 4:44; 17:11, 18, 19; 27:3, 8, 26; 28:58, 61; 29:21, 29; 30:10; 31:9; 시 1:2; 19:7; 78:10; 94:12; 105:45; 119:1, 18, 29, 34, 44, 51, 53, 55, 61, 70, 72, 77, 85, 92, 97, 109, 113, 126, 136, 142, 150, 153, 163, 165, 174

III. “증거” BDB 730, “신적 규례”		
가. 복수형, עדה	-	신 4:45; 6:17, 29; 시 25:10; 78:56; 93:5; 99:7; 119:22, 24, 46, 59, 79, 119, 125, 138, 146, 152, 167, 168
나. עדות 또는 עדת	-	시 19:8; 78:5; 81:6; 119:2, 14, 31, 36, 88, 99, 111, 129, 144, 157
IV. “계율” BDB 824, “권면”	-	시 19:8; 103:18; 111:7; 119:4, 15, 27, 40, 45, 56, 63, 69, 78, 87, 93, 94, 100, 104, 110, 128, 134, 141, 159, 168, 173
V. “명령” BDB 846	-	신 4:2, 40; 5:29; 6:1, 2, 17, 25; 8:1, 2, 11; 10:13; 11:13; 15:5; 26:13, 17; 30:11, 16; 시 19:8; 119:6, 10, 19, 21, 32, 35, 47, 48, 60, 66, 73, 86, 96, 98, 115, 127, 131, 143, 151, 166, 176
VI. “심판/규정” BDB 1049, “판결” 또는 정의”	-	신 1:17; 4:1, 5, 8, 14, 45; 7:12; 16:18; 30:16; 33:10, 21; 시 10:5; 18:23; 19:10; 48:12; 89:30; 97:8; 105:5, 7; 119:7, 13, 20, 30, 39, 43, 52, 62, 75, 84, 102, 106, 120, 132, 137, 149, 156, 160, 164; 147:19; 149:9
VII. “그의 길” BDB 202, 그의 백성의 삶의 양식에 대한 야웨의 지침	-	신 8:6; 10:12; 11:22, 28; 19:9; 26:17; 28:9; 30:16; 32:4; 시 119:3, 5, 37, 59
VIII. “그의 말씀”		
가. BDB 202	-	신 4:10, 13, 36; 9:10; 10:4; 시 119:9, 16, 17, 25, 28, 42, 43, 49, 57, 65, 74, 81, 89, 101, 105, 107, 114, 130, 139, 147, 160, 161, 169
나. BDB 57		
1. “말씀”	-	신 17:19; 18:19; 33:9; 시 119:11, 67, 103, 162, 170, 172
2. “약속”	-	시 119:38, 41, 50, 58, 76, 82, 116, 133, 140, 148, 154
3. “명령”	-	시 119:158

■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세는 구원과 계시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섬겼다(즉, 선지자, 참조, 3:14; 4:1-17; 18:15-18; 34:10-12).

■ “준행하다” 이 부정사(BDB 9793, KB 889, 칼 부정사 연계형)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격려한다(참조, 16:12; 30:8).

■ “그리하면 너희가 . . .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에 조건적인 면이 있음을 주목하라(예, 5:33; 8:1; 16:20; 30:16, 19). 이 동사들의 형태가 칼 완료형이다. 1절의 마지막 동사(주시는)는 칼 분사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스라엘의 행동에 달려있다!

■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 표현은 족장들을 말한다(아브라함, 이삭, 야곱, 참조, 1:11, 21; 4:1, 31, 37; 6:3; 12:1; 26:7; 27:3). 조상들과 맺은 모든 언약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창세기 6-9 장과 15:12-21 은 예외임).

**4: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것은 서기관들이 율법 본문의 내용을 현대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금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내용에 사람이 첨가할 수 없음을 뜻한다(참조, 12:32; 잠 30:5-6; 전 3:14; 렘 26:2). 이렇게 내용에 대한 가감을 금지하는 조치는 고대 근동의 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출애굽기 20 장과 신명기 5 장에 기록된 십계명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4:3** “바알브올” 이곳은 이스라엘 족속이 야웨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모압의 풍요의 신을 따라간 장소를 말한다(참조, 민 25:1-9).

**4:4**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붙어 있다,” “충실히 붙어 있다”라는 히브리어((BDB 180)는 NASB 에서 동사로 번역되었다. 이 동사의 뜻은 3 절에 있는 “~을 따랐다”(즉, 바알브올)와 정반대이다. 이 단어의 동사형태가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1. 사람이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창 2:24
2. 롯이 나오미를 붙좃아, 롯 1:14.

이 단어는 충성이나 헌신의 자세를 말한다. 이것은 창 34:3; 왕상 11:2; 잠 18:24 에서 “사랑”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NIDOTTE, 제 1 권, 911 쪽).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서도 인간은 적합하게 응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된 나라로 택하셨음에도(참조, 출 19:5-6), 각 사람은 하나님을 택하여야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균형이 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또한 전체(“너희” 복수형)와 각 개인(“너희 각 사람”)의 반응에 균형이 있음을 말한다.

4 절에는 동사가 없지만, 두 형용사(BDB 180, 311)가 동사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개역개정 4:5-8

<sup>5</sup>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sup>6</sup>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sup>7</sup>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sup>8</sup>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 4:5

NASB, NRSV	“보라”
NKJV	“반드시”
TEV	-----
NJB	“바라보라”

이것은칼 명령(BSB 9906, KB 1157)이다. 이 단어는 모세가 자신의 책임을 다 완수하였고 따라서 백성들은 이제 적합하게 응답해야만 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4:6

NASB	“따라서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NKJV	“그러므로 그것들을 준행하기에 조심하라”
NRSV	“너희는 반드시 부지런히 그것들을 준행하여야만 한다”
TEV	“그것들을 충성스럽게 순종하라”
NJB	“그것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여기에는 두 동사가 사용되었다:



1. “지키다” (BDB 1036, KB 1581, 칼 완료형)는 “지키다,” “경계하다,” 또는 “보관하다”를 뜻한다. 이 동사는 오경에서 종종 사용된다(신명기, 참조, 2:4; 4:2, 6, 9, 15, 23, 40; 또한 다른 여러 곳)
2. “행하다” (BDB 793, KB 889, 칼 완료형)는 “행하다,” 또는 “만들다”를 뜻한다. 이 동사도 구약에서 자주 사용된다(참조, 신 4:1, 3, 6, 13, 14, 16, 23, 25).

**4:6 “지혜”** 이 단어(BDB 315)는 잠 1:2, 7 에서 사용되었고, 1:6 에서는 형용사가 사용되었다. 이 지혜는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인간은 지혜를 추구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참조, 창 1:26-27), 또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참조, 7-8 절).

■ “지식” 이 용어(BDB 108)는 지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지식의 목적은 정보가 있고, 경건하며, 행복한 삶이다(예, 신 32:28; 잠 2:1-22; 3:13-18).

■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인가? 하나님은 모든 이를 똑같이 사랑하신다(요 3:16; 딤후 2:4; 뱀후 3:9). 하나님은 단지 이 일을 시작하실 곳이 필요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셔서 그들이 세상에 대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참조, 창 12:3; 출 19:4-6; 행 3:25; 갈 3:8). 이스라엘이 받은 선택은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밥의 복음적 편향**

나는 독자인 당신에게 내가 이 점에 있어서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나의 조직신학은 칼빈주의나 세대주의가 아니라 대위임에 기초한 복음주의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예, 창 3:15; 12:3; 출 19:5-6; 랍 31:31-34; 겔 18; 36:22-39; 행 2:23; 3:18; 4:28; 13:29; 롬 3:9-18, 19-20, 21-32),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이(참조, 창 1:26-27)를 위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는다. 언약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된다(참조, 갈 3:28-29; 골 3:11).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지만 지금은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이다(참조, 엡 2:11-3:13)!

이 점은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 미리 갖고 있는 모든 색채이다(즉, 요나). 나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본문을 읽는다. 이것은 정말 어떤 편향을 나타낸다(모든 해석자는 편향을 가진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사실에 기초한 전제조건이다.

**4:7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쉼이나 구름(광야방랑 시기)과 후에 언약법궐(요단 건너편에 있었던 시기와 왕정시기)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인격적 임재(즉, 함께 하심)를 나타내신 일을 말한다.

■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이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유대인들의 확신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또한 인격적이시다(예, 시 34:18; 145:18)!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들과 완전히 대조된다!

**4:8 “율법 . . . 규례와 법도”** 4:1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공의” 이것은 강가에 자라는 갈대로부터 가져온 은유이다. 하나님의 의는 표준이요 자로서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 율법은 하나님의 특성에 기초한다. 1:6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개역개정 4:9-14

<sup>9</sup>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sup>10</sup>네가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sup>11</sup>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sup>12</sup>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sup>13</sup>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sup>14</sup>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시라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 4:9

NASB	“오직 네 자신에 주의하며 네 마음을 부지런히 지키라”
NKJV	“오직 네 자신에 주의하며, 네 자신을 부지런히 지키라”
NRSV	“그러나 너희 자신을 돌보며 자세히 살피라”
TEV	“경계하라! ~을 확실히 하라”
NJB	“그러나 네가 너희의 삶을 소중히 여기듯이 돌보라”

이 구절에는 같은 어근을 갖는 두 명령형이 있다:

1. “주의하다” - BDB 1036, KB 1581, 니팔 명령, 참조, 4:15; 수 23:11; 렘 17:21
2. “지키다” - BDB 1036, KB 1581, 칼 명령으로서 “~을 함으로써 지키다”의 의미(참조, 7:12).

순종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다(참조, 30:15-20)!

▣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 . .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신 8:11-29 을 보라.

▣ “마음” 히브리인들의 심리에서 감정은 창자에서 나온다. 심장은 지식(특별히 기억력)과 개성의 중심적 위치이다. 하나님은 “울레를 잊지말라!”라고 말씀하신다. 2:30 의 특별주제: 마음을 보라.

▣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삶의 양식으로서의 헌신이 요구된다(참조, 10 절; 6:2; 12:1; 16:3).

▣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것은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다(참조, 10 절; 6:7, 20-25; 11:19; 31:13; 32:46; 또한 출 10:2; 12:26; 13:8, 14 을 보라). 만일 신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부모로서 실패했다(성경적으로 말해서)! 믿음은 가족을 통해 이어진다(참조, 5:10; 7:9)!

**4:10** “네가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출애굽 당시에는 듣고 있는 자들이 아이들이었다. 이 내용은 특별히 출애굽기 19-20 장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즉,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은 반복되는 주제이다(참조, 5:15; 7:18; 8:2, 18; 9:7, 27; 11:2; 15:15; 16:3, 12; 24:8, 18, 22; 25:17; 32:7).

■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호렙산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경외함을 갖게 하셨다(참조, 출 20:20 잠 1:7; 9:10; 전 12:15; 사 11:2-3; 시 34:11).

**4:11** “그 산에 불이 붙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다(참조, 출 19:18; 신 5:23; 9:15; 히 12:18). 이것은 아마도 순결을 의미한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불**

성경에서 불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가. 긍정적 의미

1. 따뜻하게 함(참조, 사 44:15; 요 18:18)
2. 빛을 비춤 (참조, 사 50:11; 마 25:1-13)
3. 음식을 익힘(참조, 출 12:8; 사 44:15-16; 요 21:9)
4. 정화함(참조, 민 31:22-23; 잠 17:3; 사 1:25; 6:6-8; 렘 6:29; 말 3:2-3)
5. 거룩함(참조, 창 15:17; 출 3:2; 19:18; 겔 1:27; 히 12:29)
6. 하나님의 인도하심(참조, 출 12:21; 민 14:14; 왕상 18:24)
7.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심(참조, 행 2:3)

나. 부정적 의미

1. 태움(참조, 수 6:24; 8:8; 11:11; 마 22:7)
2. 멸망시킴(참조, 창 19:24; 레 10:1-2)
3. 화냄(참조, 민 21:28; 사 10:16; 스 12:6)
4. 멸함(참조, 창 38:24; 레 20:14; 21:9; 수 7:15)
5. 거짓된 종말론적 표식(참조, 계 13:13)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 은유로 나타난다

1. 그의 진노가 불타고 있다(참조, 호 8:5; 습 3:8)
2. 그가 불을 쏟고 있다(참조, 나 1:6)
3. 영원한 불(참조, 렘 15:14; 17:4)
4. 종말론적 심판(참조, 마 3:10; 13:40; 요 15:6; 살후 1:7; 벰후 3:7-10; 계 8:7; 13:13; 16:8)

라. 성경에 있는 여러 은유적 표현과 같이(즉, 누룩, 사자) 불은 문맥에 따라서 축복 혹은 저주를 나타낼 수 있다.

■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야웨께서 현존하심은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될 수 있다:

1. 화산 활동 – 출 19:18; 시 68:7-8; 77:18; 97:2-5; 삿 5:4-5; 삼하 22:8; 사 29:6; 렘 10:10
2. 폭풍 – 출 19:16, 19; 시 68:8; 77:18; 삿 5:4; 사 29:6; 나 1:3

따라서 짙은 어두움(참조, 5:22; 삼하 22:10; 왕상 8:12; 대하 6:1)은 다음을 나타낼 수 있다:

1. 재로 생긴 구름
2. 비구름

이것으로 뒤덮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하심을 나타낸다(참조, 출 19:18).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는 죽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참조, 창 16:13; 32:30; 출 3:6; 29:19; 33:20; 사 6:22-23; 13:22).

**4:12** “너희가 . . .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육체의 형태를 갖고 계시지 않는다(참조, 요 4:24). 출 33:23 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후광”을 보도록 허락하셨다. 야웨는 어떤 형태로든 육신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는데 이는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우상숭배의 경향때문이다(참조, 15-19 절).

**4:13**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이 동사(BDB 616, KB 665, 히필 미완료형)가 하나님을 주어로 취할 때는 새로운 계시를 나타낸다(예, 삼하 7:11; 사 42:9; 45:19; 암 4:13).

미완료형 시제는 “십계”가 모두 야웨의 계시에 속함을 나타낸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많은 부분은 십계명에 대한 설명과 적용이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언약

구약의 용어 베릿(언약)은 정의하기에 쉬운 용어가 아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동사가 히브리어에는 없다. 이것을 어원적으로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는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이 개념이 갖는 중요성은 학자들로 하여금 이 단어의 기능적인 의미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하도록 이끌었다.

언약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이다. 성경의 계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언약, 계약, 혹은 동의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긴장은 언약의 개념에서 분명하게 보여진다. 어떤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성과 행동에 기초한다:

1. 창조 자체(참조, 창 1-2 장)
2. 아브라함을 부르심(참조, 창 12 장)
3. 아브라함과의 언약(참조, 창 15 장)
4. 노아를 보전하시고 약속을 주심(참조, 창 6-9 장)

그러나 언약은 그 특성상 반응을 요구한다

1. 믿음으로 아담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에덴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만 했다
2.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친척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야 했고 또한 후손을 갖게 될 것을 믿어야만 했다
3. 믿음으로 노아는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커다란 배를 건축하여 동물들을 모아야만 했다
4.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족속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었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과 함께 특별한 종교적 사회적 생활의 규정들을 받았다(참조, 신 27-29 장)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된 이같은 긴장은 “새 언약”에서 나타난다. 이 긴장관계는 겔 18 장과 겔 36:27-37 을 비교할 때 분명해 진다.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에 기초하는가 혹은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는가? 이 점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쟁점이 되는 내용이다. 두 언약은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창 3 장에 있는 상실한 교제의 회복 (2)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의로운 백성을 형성하는 것.

렘 31:31-34 의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가 언약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그 긴장을 해결한다. 하나님의 법은 외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내적인 갈망이 되었다. 경건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 목적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방법은 달라졌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에 부적절함을 입증했다. 문제는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되고 약함에 있다(참조, 롬 7 장; 갈 3 장).

구약에 있는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 사이의 긴장과 같은 내용이 신약에 나타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완전히 거저로 주어지지만 이것은 회개와 믿음을 요구한다(시작과 계속적 진행에 있어서). 이것은 법적 선언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의 초대이고, 받아주심에 대한 선언인 동시에 거룩함의 명령이다! 신자들은 그들의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인하여 구원받는다(참조, 엡 2:8-10). 경건한 삶은 구원의 증거가 되지만 구원의 방법은 아니다. 이 긴장은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 “십계명” 문자적으로 이것은 “열 가지 말씀”(BDB 797 과 182)인데, 헬라어에서는 십계명으로 알려져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계시의 매우 간략한 요점이다(참조, 출애굽기 20 장; 신명기 5 장).

■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 자신이 “열 가지 말씀”(참조, 출 31:8; 32:15-16)을 쓰셨다(신인동형적, 2: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표현의 문자적인 의미는 명령이 갖는 신적 기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두 돌판” 근래에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견과 히타이트 봉신조약(주전 2000-1000 년)에 비추어 볼 때 신명기는 그러한 조약의 골격과 형태를 따르고 있다. 나는 여기서 “두 돌판”을 이러한 조약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십계를 기록한 두 개의 같은 돌판으로 본다(또한 조약을 맺는 당사자 중 강한 자가 이전에 행한 일을 기록하는 것과 더불어, 즉, 신명기 1-4 장). 이 점은 신명기의 역사성을 확립한다. 이 책에 대한 서론, 제 VII 항을 보라.

**4:14** “너희가 . . .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그 뜻을 행하여야 한다(참조, 1, 2, 5, 6 절; 눅 6:46; 약 2:14-20).

#### 개역개정 4:15-20

<sup>15</sup>여호와께서 호렙 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sup>16</sup>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sup>17</sup>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sup>18</sup>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sup>19</sup>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sup>20</sup>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 4:15

NASB	“그런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NKJV	“너희는 깊이 주의하라”
NRSV	“너희를 돌보고 자신을 가까이 지키라”
TEV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그때에 확실히 하라”
NJB	“너희가 하는 것을 매우 조심하라”

이 동사(BDB 1036, KB 1581, 니팔 완료형)는 4:2, 6, 9(두 번), 15, 23, 40 에서 사용되었다. 이스라엘의 행동은 조건적으로 야웨의 언약에 관련된다. 그들은 분투 노력하여 우상숭배를 피하여야만 했다(참조, 5:8-10).

**4:16** “스스로 부패하여 . . .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것은 야웨의 무형성과 관련된 금송아지 사건을 말한다(참조, 출 32 장). 이스라엘은 야웨를 어떤 형상으로든 나타내지 말아야 했다(참조, 16-18, 23, 25 절; 5:8; 출 20:4).

■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인간은 하나님을 남자나 여자의 형상을 따라 만들려는 경향을 가졌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낸다면 우리는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것이다.

**4:17**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이것은 (1) 이방인들이 그들의 남신이나 여신을 동물로 나타내는 것 혹은 (2) 동물의 어떤 특징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

**4:18**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이것은 아마도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긴 이집트의 투구풍뎡이를 가리킬 수 있다.

**4:19**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현대인들처럼 고대인들도 별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나 힘을 나타낸다고 여겼다(천궁도). 천체를 숭배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창세기 1 장은 이런 종류의 우상숭배에 대하여, 출애굽기 20 장은 이집트인들의 우상숭배에 대한 반작용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런 형태의 우상숭배를 강력히 거부해야만 했다!

■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이 동사(BDB 323, KB 322, 칼 완료형)는 할당 혹은 분배의 의미에서 “나누다”를 뜻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별들을 섬기는 것을 격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 것이 야웨의 주권이 온 땅에 미침(참조, 29:26; 32:8)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생각한다. 우상숭배는 결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아니었다.

**4:20** “쇠 풀무불” 풀무는 쓸모없는 원석을 가열하여 그것이 유용한 금속이 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유추이다(참조, 왕상 8:51; 램 11:4 또한 사 48:10 에 있는 똑같은 은유).

■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이것은 야웨의 언약 백성을 일컫는 특별한 칭호이다(예, 출 19:5; 신 7:6; 14:2; 26:18; 딤후 2:14; 뱀전 2:9). 그들은 신적 유산(야웨와 땅)을 가졌는데 이는 야웨께서 창세 전에 그들을 택하시라(참조, 32:8-9; 시 33:6-12; 램 10:16; 51:19)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게 하셨기 때문이다.

#### 개역개정 4:21-24

<sup>21</sup>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sup>22</sup>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sup>23</sup>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sup>24</sup>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라

**4:21**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불순종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참조, 1:37; 3:26; 민 20:7-13). 만일 그들이 불순종한다면 그들도 역시 벌을 받게 된다!

**4:23** “너희는 스스로 삼가” 이 동사(BDB 1036, KB 1581, 니팔 명령)는 자주 이 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언약에는 혜택이 있지만 동시에 언약에 따른 결과도 있다(참조, 4:25; 27-29 장).

■ “언약을 잊지 말고” 이 동사(BDB 1013, KB 1489, 칼 완료형)도 이 장에서 여러 번 사용된다(참조, 9, 23, 31 절; 또한 6:12; 8:11, 14, 19[두 번]; 9:7; 24:19[두 번]; 25:19; 30:13; 31:21; 32:18). 이것은 반복되는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4:24** “질투” 야웨는 이 절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설명된다:

1. “소멸하는 불” (BDB 77 와 BDB 37, KB 46, 칼 능동 분사, 참조 출 24:17; 신 4:24; 9:3; 히 12:29)로서 이것은 다음을 나타낸다
  - ㄱ. 야웨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 ㄴ. 그는 언약이 깨뜨려졌다면 이에 대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2. “질투하시는 하나님”(BDB 888 과 42, 참조 출 20:5; 34:14; 신 5:9; 6:15; 수 24:19)으로서 이것은 결혼 언약과 같은 것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낸다(참조, 호세아 1-3 장). 깨어진 언약은 거부를 가져온다(예, 수 24:19; 나 1:2). 이 단어는 넓은 범주의 의미를 가진다:

- ㄱ. 열정 – 잠 6:34; 애 8:6
- ㄴ. 화 – 잠 14:30; 27:4
- ㄷ. 질투 – 창 26:14; 민 5:11-22; 겔 31:9
- ㄹ. 경쟁 – 전 4:4
- ㅁ. 헌신 – 민 11:29

(NIDOTTE, 제 3 권, 938 쪽에서 가져 온 항목임)

2:15 절의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신인동형적 용어)를 보라.

#### 개역개정 4:25-31

<sup>25</sup>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sup>26</sup>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sup>27</sup>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흠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sup>28</sup>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sup>29</sup>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sup>30</sup>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sup>31</sup>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4:25** “그 땅에서 . . . 오래 살 때에” 이것은 개인의 장수에 대한 약속이라기 보다 공동체 전체에 주신 약속으로서 부모가 하나님께 대해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에 해당한다. 안정된 가정은 안정된 사회를 만든다(예, 9, 10, 40 절과 5:16, 33).

▣ “부패하여” 이 동사(BDB 1007, KB 1469, 히필 완료형)는 “버릇없게 되다” 혹은 “망가지다”를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으로서 언약을 범하는 것을 일컫게 되었다(즉, 우상숭배, 참조, 4:16, 25; 9:12; 31:29).

▣ “그의 노를 일으키면” 이 표현은 히필 부정사 연계형(BDB 494, 예, 32:21; 왕상 15:30; 16:13)으로 되어있다. 다시 한번 인간의 죄에 대한 야웨의 반응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인동형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2: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4:26**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이것은 히타이트 봉신조약의 한 부분이다(강력한 영적 증인에 대한 필요, 참조, 이 책의 서론, VII 항). 이것은 창조된 세계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 요소이다. 천지는 종종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불리어 진다. 이 점은 이스라엘의 법 제도에서 판결을 위해 두 증인이 요청된 점을 반영한다(참조, 출 35:30; 신 17:6; 19:15). 이 표현은 종종 야웨의 언약을 비준하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된다(참조, 4:26; 30:19; 31:28).

▣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신 27-29 장을 보라. 또한 31 절에 있는 신학적 균형을 유의하라.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타락한 인간이 언약을 순종할 희망이 없다!

**4:27**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흠으실 것이요” 이것은 28:64 과 29:28 에 예고된 바 앗시리아로 언약 백성이 잡혀갈 것(주전 722 년)과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주전 605, 597, 586, 582 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언약을 깨뜨렸을 때 일어나는 결과의 일부이다. 이것은 창 15:5 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과 정반대 내용이다.

**4:28**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 . . 신들을 섬기리라” 이 동사 “섬기다”(BDB 712, KB 733, 칼 완료형)는 예배나 예배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 긍정적으로 야웨께 대해 – 출 3:12; 4:23; 신 6:13; 삼상 7:3
2. 부정적으로 다른 신들에 대해 – 출 23:33; 신 4:19, 28; 수 23:7; 삿 2:10, 19; 10:6, 10; 삼상 22:10; 왕상 16:31; 왕하 17:12

이 히브리어 어근은 야웨의 종을 가리키는 명예로운 호칭이 되었다:

1. 족장들 – 출 32:13; 신 9:27
2. 갈렙 – 민 14:24
3. 모세 – 출 14:31; 민 12:7; 신 34:5; 왕상 8:53
4. 여호수아 – 수 24:29
5. 다윗 – 삼상 23:10; 25:39
6. 이사야 – 사 20:3
7. 메시아 – 사 53; 스 3:8
8. 느부갓네살 – 렘 25:9; 27:6; 43:10
9. 고레스 – 사 44:28; 45:1
10. 이스라엘 국가 – 사 41:8; 44:1-2; 45:4

26, 27, 28 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적인 성격과(즉, 26 절, 야웨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 내신다; 27 절, 야웨는 그들을 여러 민족 중에 흠으신다; 28 절, 그들은 직접적으로 우상숭배를 목도한다)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4:29**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이 동사(BDB 134, KB 152, 피엘 완료형)는 “구하다”로서 불순종으로 깨진 야웨와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한다. 회개는 전적 헌신을 요구한다(즉, “너희의 모든 마음과 모든 힘으로,” 참조, 26:16; 30:2, 10).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라도 참된 회개로 가능하게 된다(참조, 29-31 절; 30:1-3, 10). 참된 회개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이다. 회개는 삶의 변화이지 감정의 변화가 아니다. 우리는 호세아 6:1-3 과 예레미야 3:21-25 에서 알은 수준의 단 기간만 이루어진 회개의 예를 본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은 그를 만날 것이다(참조, 렘 24:7; 29:13). 야웨는 찾기 어려운 분이 아니시다. 그는 그의 백성이 자신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기 기대하신다! 30:1 의 특별주제를 보라.

**4:30** 이스라엘의 반역을 모세가 예고했고 여호수아도 예고했다(참조, 수 24:19-28).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영적으로 망가뜨렸다(참조, 로마서 1-3 장; 갈라디아서 3 장).

26 절은 임박한 심판을, 27 절은 앗시리아로 포로됨(주전 722 년)과 바벨론으로 포로됨(주전 605, 597, 586, 582 년)을, 30 절은 마지막 때(“끝날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야웨께 언약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스라엘은 언약적 순종(이것을 롬 1-3 장과 갈 3 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혹은 새언약을 따라 예수를 믿음/회개함에 의해 이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신자는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 가운데 있을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즉, 스 12:10 혹은 롬 11 장).



**4:31** “네 하나님 여호와와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하나님의 이름(엘, 야웨, 엘로힘)을 위해서는 1:3의 특별주제를 보라.

형용사 “자비하신”(BDB 933)은 “인자한” 혹은 “자비로운”을 뜻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여러 성품 가운데 하나이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특성**

1. 자비하심(BDB 933) - 출 34:6; 신 4:31; 대하 30:9; 시 86:15; 103:8; 111:4; 느 9:17, 31; 욥 2:13; 욥 4:2
2. 자애로우심(BDB 337) - 출 34:6; 대하 30:9; 시 86:15; 103:8; 111:4; 느 9:17, 31; 욥 2:13; 욥 4:2
3. 노를 더디내심(BDB 74 와 BDB 60) - 출 34:6; 시 86:15; 103:8; 느 9:17; 욥 2:13; 욥 4:2
4. 인자가 많으심(BDB 912 I 과 BDB 338) - 출 34:6-7; 시 86:15; 103:8; 느 9:17; 욥 2:13; 욥 4:2
5. 신실하심(BDB 54) - 출 34:6; 시 86:15
6. 용서가 많으심(BDB 699) - 느 9:17
7. 버리지 않으심(BDB 736 I) - 느 9:17, 31
8. 악을 버리심(BDB 636, KB 688, 니팔 분사 + BDB 948) - 욥 2:13; 욥 4:2
9. 위대하심(BDB 42, 152) - 느 1:5; 9:32
10. 크고 두려우심(BDB 152, 431) - 느 1:5; 4:14; 9:32
11. 언약을 지키심(BDB 1036, 136) - 느 1:5; 9:32
12. 영원한 사랑(BDB 338) - 느 1:5; 9:32

■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세 가지 부정의 뜻을 가진 동사가 있다:

1. 버리다 - BDB 951, KB 1276, 히필 미완료형(문자적으로 “손이 내려오게 하다”), 이것은 버리다 혹은 잊다를 뜻한다(참조, 31:6, 8; 수 1:5; 10:6; 대상 28:20; 히 13:5)
2. 멸하다 - BDB 1007, KB 1469, 히필 미완료형, 이것은 “망하다,” “약탈하다,” “멸망시키다”를 뜻한다(참조, 9:26; 10:10; 램 30:11).
3. 버리다 - BDB 1013, KB 1489, 칼 미완료형(참조, 레 20:45, 9:5의 특별주제: 족장에게 주신 언약적 약속을 보라)

신학적으로 이 주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 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전에 주신 언약적 요구사항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수 없었던 점은 그들의 역사와 바울서신에 잘 나타나 있다(참조, 롬 2-3 장; 갈 3 장).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에 기초한 “새 언약”의 필요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다(참조, 램 31:31-34; 겔 36:22-38).

하나님께서서는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지만 이스라엘은 바꾸었다!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적 노력이나 의지로 따를 수 없다!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영이 필요하다!

당신은 반드시 결심해야만 한다!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볼 것인가 아니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볼 것인가? 초점이 이스라엘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가?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가 아니면 인종의 문제인가?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대한 “삼화”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즉, 세대주의적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특별주제:** 왜 구약의 언약적 약속은 신약의 언약적 약속과 다른 것처럼 보이는가

나는 종말론에 대한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정리되고 조직된 마지막 때의 연대에 대해 모르거나 혹은 그것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 심리적, 혹은 교파적 이유에서 이것에 강조점을 두거나 이것을 기독교의 주요 교리로 삼아 연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것이 끝나게 될지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결국 복음의 긴급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종말적(세상 끝) 예정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복음전파의 위임에는 참여할 수 있다(참조, 마 28:19-20; 눅 24:47; 행 1:8).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에 성취될 것을 믿는다. 역설적으로 보이는 여러 성경구절로부터 어떻게 이 절정을 시간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학적 문제가 제기된다.

1. 옛 언약적 예언 모델과 새 언약적 사도 모델 사이의 긴장
2. 성경의 유일신론(모든 이를 위한 한 분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선택(특별한 민족으로) 사이의 긴장
3. 성경의 언약과 약속이 갖는 조건적인 면(“만일... 하면 그 때는”)과 타락한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신실하심 사이의 긴장
4. 근동의 문학적 장르와 서구의 문학적 모델 사이의 긴장
5. 지금 있는 하나님의 왕국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왕국 사이의 긴장
6.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에 대한 믿음과 반드시 어떤 일들이 먼저 있는 후에 임하실 것이라는 믿음 사이의 긴장

첫 번째 긴장(구약의 인종적, 국가적, 지역적 단위 대 온 세상에 있는 믿는 자 모두)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에 두고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왕국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다. 거기에 땅의 모든 민족이 찬양드리기 위해 모여들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 다스릴 것이 또한 예견되었다. 하지만 예수님이나 신약의 사도들은 이 내용에 초점을 둔 적이 없다. 구약이 영감되지 못하였는가(참조, 마 5:17-19)? 신약의 저자들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 질 중요한 사건들을 생략하고 있는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자료의 여러 원천은 다음과 같다:

1. 구약의 선지자들(이사야, 미가, 말라기)
2. 구약의 묵시적 책의 저자들(참조, 겔 37-39 장; 단 7-12 장; 스가랴)
3. 신구약 중간시대의 정경이 아닌 묵시적 책의 저자들(유다서에서 암시된 에녹 I서와 같은 책들)
4. 예수님 자신(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
5. 바울의 서신들(참조, 고전 15 장; 고후 5 장; 살전 4-5 장; 살후 2 장)
6. 요한의 글들(요한 1서와 계시록).

이것들은 모두 분명하게 마지막 때의 일(사건, 연대, 인물들)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치는가? 만일 아니라면 왜 그런가? 이것들은 모두 영감받지 못했는가(신구약 중간시대의 유대저작은 제외하고)?

성령은 구약의 저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내용으로 진리를 그들에게 드러내셨다.

그러나 점진적인 계시를 통하여 성령님은 구약의 종말론적 개념을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해 나가셨다(“그리스도의 신비,” 참조, 엡 2:11-3:13. 10:7의 특별주제를 보라). 여기에 몇 가지 관련된 예가 있다:

1. 구약에서 예루살렘 도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은유(시온)로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약에서 모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나타내는 용어로 제시된다(계시록 21-22 장의 새 예루살렘). 글자대로 눈에 보이는 도시를 하나님의 새 백성(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신학적 확장은 창 3:14에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아직 유대인도 유대인의 수도도 없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에서 미리 보여진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부르심(참조, 창 12:1-3)에도 이방인들이 말해진다(참조, 창 12:3; 출 19:5).

2.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은 주위에 있는 고대 근동 국가였지만 신약에서 원수는 믿지않고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사탄에의해 영감을 받는 모든 이들로 확장되었다. 전쟁은 지형적, 지역적 갈등에서 세계적, 우주적 갈등으로 바뀌었다(참조, 골로새서).
3.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땅의 약속(창세기에서 족장에게 주신 약속, 참조, 창 12:7; 13:15; 15:7, 15; 17:8)은 이제 지구 전체가 되었다. 새 예루살렘은 재 창조된 땅으로 내려오지 근동에만 혹은 배제적인 면으로 성취되지 않는다(참조, 계 21-22 장).
4. 구약에서 예언의 개념이 확장된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로는:
  - ㄱ. 아브라함의 씨는 이제 영적으로 할례받은 자이다(참조, 롬 2:28-29)
  - ㄴ. 언약의 백성은 이제 이방인을 포함한다(참조, 롬 9:24-26 에서 인용한 호 1:10; 2:23; 또한 고후 6:16-18 에서 인용한 레 26:12; 출 29:45; 그리고 딤후 2:14 에서 인용한 출 19:5; 신 14:2)
  - ㄷ. 이제 예수님이 성전은 되셨고(참조, 마 26:61; 27:40; 요 2:19-21) 그를 통하여 지역교회(참조, 고전 3:16) 혹은 믿는 각 사람(참조, 고전 6:19)이 성전이 되었다.
  - ㄹ. 심지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일컫는 독특한 구약의 명칭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즉, “이스라엘,” 참조, 롬 9:6; 갈 6:16, 즉, “제사장 나라,” 참조, 벧전 2:5, 9-10; 계 1:6)

예언 모델은 성취되었고, 확장되었으며 이제 더욱 많이 포괄적이 되었다. 예수님과 사도적 저자들은 마지막 때를 구약의 선지자들과 똑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지 않는다(참조, 마틴 원가르텐, 예언에서의 왕국의 미래와 성취). 구약의 모델을 문자적 혹은 규범적으로 취하려는 현대의 해석가들은 계시록을 매우 유대적인 책으로 뒤틀며, 그 의미를 따로 떼어 놓아 예수님과 바울의 표현을 불분명하게 만든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예언을 부정하지 않았고 그것의 궁극적이고 우주적인 의미를 나타내었다. 예수님이나 바울의 종말론은 조직화된 논리적 시스템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그들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구속적이거나 목회적이었다.

하지만 신약 자체 안에도 긴장이 나타난다. 종말론적 사건이 분명하게 조직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놀라우리만큼 많은 면에서 계시록은 예수님의 가르침 대신에 구약의 암시를 사용하여 마지막 때를 설명한다(참조, 마 24 장; 막 13 장)! 이것은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에 의해 시작되고 신구약 중간시대를 거쳐 발전된(유대 묵시문학) 문학적 장르를 따른다. 이것은 요한이 옛 언약을 새 언약과 연결시키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오래된 인간 반역의 형태와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해 헌신하심을 나타낸다! 그러나 명백히 하여야 할 점은 비록 계시록이 구약의 언어, 인물, 사건을 사용하지만 이것을 1 세기의 로마시대의 배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계 1:7).

두 번째 긴장(유일신론 대 선택받은 한 백성)

성경의 강조점은 한 영이시며,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 한 분께 있다(참조, 출 8:10; 사 44:24; 45:5-7, 14, 18, 21-22; 46:9; 렘 10:6-7). 당시 구약의 독특성은 유일신론에 있었다.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다신교 신앙이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구약 계시의 핵심이다(참조, 신 6:4).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사람과 하나님의 교제의 목적을 위한 장이다(참조, 창 1:26-27). 그러나 인간은 반역했고 하나님의 사랑, 지도력, 목적에 거스려 범죄했다(참조, 창 3 장).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은 아주 강력하고 분명하여 타락한 인류를 구속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족, 한 국가를 택하시나 나머지 인류를 구원코자 하실 때 긴장이 발생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유대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참조, 출 19:4-

6) 섬김 대신에 자긍심을, 끌어냄 대신에 배척을 야기시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모든 인류에 대한 의도적인 축복을 포함했다(참조, 창 12:3). 구약에서 택함이 섬김을 위한 것이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하고 강조해야 한다. 결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며, 그들이 전적으로 출생에 의해서(참조, 요 8:31-59; 마 3:9)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믿음과 순종에 의하여서였다(참조, 롬 4 장에서 인용한 창 15:6). 이스라엘은 받은 바 사명을 잃어버렸고(이제는 교회가 제사장 나라이다, 참조, 1:6; 뱀후 2:5, 9), 위임을 특권으로 바꾸어버렸고, 섬김을 특별한 지위로 간주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택하시기 위해 한 명을 택하신다!

세 번째 긴장(조건적 언약 대 무조건적 언약)

조건적 언약과 무조건적 언약 사이에 신학적인 긴장 혹은 역설이 있다.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계획이 무조건적임은 확실히 사실이다(참조, 창 15:12-21). 그러나 요구되는 인간의 응답은 항상 조건적이다!

“만일 ... 하면 그 때는”의 표현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 나타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인간은 신실하지 않다. 이 긴장은 많은 혼동을 일으킨다. 해석가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주권 또는 인간의 자유의지. 두 가지 다 성경적이고 또한 필요하다.

이것은 종말론,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으면, 그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얽매어 있으시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참조, 겔 36:22-38).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난다(참조, 사 53 장)! 하나님의 궁극적 신실하심은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지 당신의 아버지/어머니에 달려있지 않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열쇠가 되신다. 만일 성경에 어떤 신학적인 삽입구가 있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참조, 행 7 장과 갈 3 장).

복음 전파를 위한 세계선교는 교회에 전해졌다(참조, 마 28:19-20; 눅 24:47; 행 1:8). 이것은 아직 조건적인 언약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거부하심을 뜻하지 않는다(참조, 롬 9-11 장). 믿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를 위한 장소와 목적이 있다(참조, 슥 12:10).

네 번째 긴장(근동의 문학적 모델 대 서구의 모델).

장르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교회는 서구(헬라)의 문화적 환경에서 발전되었다. 동양의 문학은 현대의 서양 문화에 배경을 둔 문학적 모델보다 더 회화적이고, 은유적이며, 상징적이다. 이것은 간결한 명제적 진리보다 사람들, 만남, 사건에 더 큰 관심을 둔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역사와 문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성경(구약과 신약)의 예언을 해석하려는 잘못을 해 왔다. 각 세대와 지역에 속한 공동체가 자신의 문화, 역사, 문학적성을 사용하여 계시록을 해석하려 했다. 이 모두가 잘못되었다! 현대의 서양 문화가 성경의 예언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만한 생각이다!

영감받은 원저자가 글을 쓰기 위해 사용한 장르는 독자와의 문학적 약속이다. 계시록은 역사적 이야기체가 아니다. 이것은 편지(1-3 장), 예언, 그리고 대부분은 묵시적 문학의 조합이다. 성경의 원저자가 의도한 것 이상으로 말하게 하는 것은 그가 의도했던 것 이하로 말하게 하는 것만큼 잘못이다! 해석자의 거만함과 교리적 독선은 계시록과 같은 책을 해석함에 있어서 더욱 부적합하다.

교회는 계시록의 적절한 해석에 있어서 결코 동의한 적이 없었다. 나의 관심은 성경의 일부분이 아닌 전 책을 듣고 다루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동양적 사고 방식은 진리를 긴장으로 가득찬 짝으로 제시한다. 명제적 진리를 추구하는 서양의 접근방법은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 세대의 신자들에 맞춘 바뀌어진 목적을 인식함으로써 적어도 몇 가지의 막다른 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많은 해석가들이 반드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이것의 장르를 고려하여 계시록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계시록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반드시 첫 번째 독자가 이해했거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을 다루어야 한다. 여러 면에서 오늘날의 해석가들은 그 책에 있는 많은 상징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계시록의 일차적인 관심은 박해받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이 책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준다(구약의 예언서들이 그리하였듯이); 이 책은 역사가 심판이든 축복이든 정해진 끝을 향하여 진행함을 확인해 준다(구약의 예언서들이 그리하였듯이). 이 책은 1 세기의 유대 묵시적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 임재, 능력, 주권을 나타낸다!

이 책은 각 시대에 속한 신자들에게 이같은 신학적 방법으로 말한다. 이 책은 선과 악의 우주적 싸움을 그린다. 1 세기의 세세한 설명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거나 위기가 되는 진리의 상실이 아니다. 오늘날 서구의 해석가들이 계시록의 세세한 부분을 자신의 최근 이야기로써 이해하려 할 때 잘못된 해석의 형태는 계속된다!

하나님께 대해 적대적인 지도자(참조, 살후 2 장)와 문화에 의해 마지막 세대의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이 책에 있는 상세한 내용이 다시 한번 놀랍도록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구약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죽음에 대하여 그리하였듯이). 예수님의 말씀(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과 바울의 증거(참조, 고전 15 장; 살전 4-5 장; 살후 2 장)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무도 계시록에 있는 이러한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될지를 모른다. 추측, 관망, 교리화는 모두 부적절하다. 묵시 문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러한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비유적인 표현과 상징이 역사적 기술방법을 뛰어 넘어 메시지를 전달함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가 다스리신다; 그가 오신다!

대부분의 현대 주석가들은 이 장르가 지닌 특징을 놓치고 있다! 현대 서구 번역가들은 종종 명확하고 논리적인 신학적 구조를 추구하는 반면, 모호하고 상징적이며 극적 장르에 속하는 유대 묵시문학을 공정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은 랄프 P. 마틴의 글, “신약성경 주해의 방법”에서 잘 표현되었다. 마틴의 글은 I. 하워드 마샬이 편저한 책 신약성경 해석에 있다:

“우리가 이 책의 극적 특징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이 책의 언어가 종교적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갖는 특징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하게 된다. 곧 이 책의 이상을 마치 그것이 일반적인 산문으로 기록된 책에 있는 내용으로서 경험적인 사건들과 측정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인 것처럼 해석하려는 잘못을 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 경향을 갖는 것은 해석에 따르는 모든 종류의 문제를 일으킨다. 더 심각하게는 이것은 묵시로 표현된 본질적 의미의 변질을 가져와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양식으로 쓰여진 부분의 중요한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신약의 묵시문학은 신비로운 시적 표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능력과 사랑이 역설적으로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지배(즉, 5:5, 6; 그 사자는 그 어린 양이시다)를 극적으로 확인한다”(235 쪽).

W. 란돌프 테이트는 그의 책 성경적 해석에서:

“열정적으로 읽혀지는 책이지만 묵시적 장르를 갖는 다니엘서와 계시록만큼 서글픈 결과를 가져오는 성경의 장르는 없다. 이 장르가 갖는 문학적 형태, 구조, 목적에 대한 뿌리깊은 오해로 인해 묵시적 장르의 내용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재앙적인 역사적 고통을 받아 왔다. 가까운 시기에 일어날 일들을 드러낸다고 이 장르가 주장하기때문에 묵시적인 책은 미래에 대한 지도와 청사진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비극적 생각의 시작은 묵시적 책이 말하는 사항이 저자의 시대적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기보다 오늘날의 독자의 시대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있다. 묵시적 책(특히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접근방법은 마치 이 책의 본문에 나오는 상징을 오늘날의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암호문으로 여기게 한다... 첫째로, 묵시적 본문이 상징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해석자는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은유적 의미로 사용된 상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길이다. 묵시적 책에 있는 사건들이 역사적 사건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일일 수 있다; 그 일들은 실제로 일어날 수도 혹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저자는 표상과 본을 통하여 그 사건들을 말하고 있고 표상과 본을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137 쪽).

리켄, 율호스트, 룽만 III가 편저한 성경의 표상 사전에서:

“오늘날의 독자들은 이 장르로 인해 종종 당황하고 당혹하게 된다. 예상치 못한 표상들과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은 기괴하고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과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학적 장르를 액면 그대로 취함으로써 많은 독자들은 서둘러 “무엇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알기 위해 혼동에 빠지게 되고, 따라서 이 묵시적 메시지가 의도한 바를 놓치게 된다”(35 쪽).

다섯 번째 긴장(지금 있는 하나님의 왕국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현재 있지만 또한 미래에 있을 왕국이다. 이러한 신학적 역설은 종말론의 관점에 초점을 둔다.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구약 예언의 문자적 성취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지형적으로는 자신의 땅을 갖고 신학적으로는 뛰어난 나라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대개 뜻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5장이 교회가 비밀스럽게 휴거됨을 말하는 것으로 또한 그 이후의 장들이 이스라엘에 관계된 내용으로 계시록을 이해하게 한다(그러나 계 22:16을 보라).

그러나 우리가 약속된 구약의 메시아가 시작하신 왕국에 초점을 둔다면 이 왕국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현재적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삶, 가르침, 죽음, 부활에 초점을 두게 된다. 신학적 강조점은 현재적인 구원에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도래했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에게 베푸시는 구원으로 구약이 성취되었지만, 어떤 이들에 대한 그의 천년왕국 통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나는 대부분의 구약 예언이 메시아 왕국의 설립인(참조, 단 2장) 초림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와 같은 개념이다(참조, 단 7장). 구약에서 초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에 있는 한편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기작은 메시아 사역을 통하여서이다(참조, 고전 15:26-27). 이것은 어느 것이 옳은가의 질문이 아니다; 둘 다 옳다, 하지만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어떤 해석가들은 메시아의 천년 왕국에 강조점을 둔 나머지(참조, 계 20장) 성부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성경적 초점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분명히 말해 두어야겠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예비적인 사건이다. 구약에서 초림과 재림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메시아의 임시적 통치도 그러하다!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것은 현재적(구원과 섬김에 있어서)인 동시에 미래적(견인과 능력에 있어서)이다. 만일 계시록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예비적인 것이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참조, 계 21-22). 구약은 임시적인 통치가 필요한 것인지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 사실상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메시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지 천년의 통치가 아니다.

여섯 번째 긴장(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 대 늦춰진 파루시아)

대부분의 신자는 예수님께서 곧,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실 것으로 배워왔다(참조, 마 10:23; 24:17, 34, 44; 막 9:1; 13:30; 계 1:1, 3; 2:16; 3:11; 22:7, 10, 12, 20).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던 모든 세대의 신자들은 많이 잘못되었다! 예수님께서 곧(즉시) 오심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약속이요 소망이었지만, 실제로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랬다. 신자들은 반드시 주께서 내일 오실 것 처럼 살아야만 하며, 또한 주께서 더디 오실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대위임(참조, 마 28:19-20)을 수행해야만 한다.

복음서(참조, 막 13:10; 눅 17:2; 18:8)와 데살로나가 전후서의 몇 본문은 늦춰진 재림(파루시아)에 기초한다. 몇 가지 역사적 사건이 반드시 먼저 일어날 것이다:

1. 전 세계적 복음전파(참조, 마 24:14; 막 13:10)
2. “죄의 사람”이 나타날 것임(참조, 마 24:15; 살후 2 장; 계 13 장)
3. 대 박해(참조, 마 24:21, 24; 계 13)

의도적인 불명료함이 여기에 있다(참조, 마 24:42051; 막 13:32-36)! 매일의 삶이 마치 당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면서도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계획하고 자신을 훈련하라!

#### 개역개정 4:32-40

<sup>32</sup>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sup>33</sup>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sup>34</sup>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sup>35</sup>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sup>36</sup>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sup>37</sup>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sup>38</sup>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sup>39</sup>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sup>40</sup>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와 그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 없이 오래 살리라

**4:32** “상고하여 보라” 이 동사(BDB 981, KB 1371, 칼 명령)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갖는 독특함을 하나님께 묻는 것을 뜻한다(참조, 32-40 절).

■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이것은 창세기 1-2 장을 가리킨다; 또한 시 104 편을 보라.

**4:34** “강한 손과 편 팔” 이것은 신인동형적 표현(2:15의 특별주제를 보라)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5:15; 6:21; 7:19; 9:29; 11:2; 26:8). 어떤 본문에서는 이 표현이 축약적으로 되어 “강한 손”(참조, 3:24; 6:21; 7:8; 9:26; 수 4:24) 혹은 “편 팔”(참조, 9:29; 출 6:6)로 사용된다. 이 관용적 용어는 이집트의 문서에서 “왕”과 관련된 표현과 특별한 평행을 이룬다(NIDOTTE, 제 3 권, 92 쪽).

**4:35**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4 절의 기적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참조, 출 7:5, 17; 10:2; 31:12). “알다”(BDB 393, KB 390, 칼 부정사 연계형)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알다(대부분 신명기를 전형적인 예로 사용함)

히브리어의 “알다”(BDB 393)는 칼 동사형에서 여러가지 의미(의미의 장)를 나타낸다.

1. 선과 악을 이해하다 – 창 3:22; 신 1:39; 사 7:14-15; 온 4:11
2. 이해하여 알다 – 신 9:2, 3, 6; 18:21
3. 경험으로 알다 – 신 3:19; 4:35; 8:2, 3, 5; 11:2; 20:20; 31:13; 수 23:14

4. 고려하다 – 신 4:39; 11:2; 29:16
5. 개인적으로 알다
  - ㄱ. 사람 – 창 29:5; 출 1:8; 신 22:2; 28:35, 36; 33:9
  - ㄴ. 신 – 신 11:29; 13:2, 6, 13; 28:64; 29:26; 32:17
  - 야웨 – 신 4:35, 39; 7:9; 29:6; 사 1:3; 56:10-11
  - ㄷ. 성적으로 – 창 4:1, 17, 25; 24:16; 38:26
6. 습득한 기술 또는 지식 – 사 29:11, 12; 암 5:16
7. 지혜로움 – 신 29:4; 잠 1:2; 4:1; 사 29:24
8. 하나님께서 아심
  - ㄱ. 모세를 – 신 34:10
  - ㄴ. 이스라엘을 – 신 31:21, 27, 29

■ “여호와와는 하나님이지요” 1:3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 야웨의 영역에 다른 영이나 신을 위한 여지가 없다(예, 39 절; 6:4; 32:39). 6:4의 설명을 보라.

**4:36**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이 절은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사건인 호렙산/시나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나타내신 사건을 가리킨다.

**4:37**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신 것을 가리킨다(창세기 12-50장에서의 족장들, 참조, 7:7-8; 10:15).

■ “택하시고” 선택(즉, 선택하다, BDB 103, KB 119, 칼 미완료형)은 구약에서 섬김을 위한 것이지(예, 고레스, 사 44:24-45:7), 신약에서처럼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친히”라는 용어(BDB 815)는 문자적으로 “얼굴”을 뜻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말한다(참조, 5:4; 창 32:30; 출 33:14-15; 사 63:9, “그의 천사의 임재”). 이 용어는 또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참조, 출 33:11; 신 34:10, 또한 민 12:8의 “입과 입을 마주하여”도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를 뜻한다.

진실로 야웨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즉, 사 7:14; 8:8, 10의 임마누엘). 죄는 이 친밀한 관계를 망가뜨리고 야웨께서 그의 얼굴을 돌리게 한다(참조, 31:17; 레 17:10; 20:3, 6; 사 59:2; 렘 18:17; 겔 7:22; 39:23, 24, 29).

#### 4:38

NASB, NKJV,

NRSV “더 크고 더 강한 민족들을”

TEV, REB “더 크고 더 힘센 민족들을”

NJB “더 크고 수가 더 많은 민족들을”

이 민족들은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4:38; 7:1; 11:23; 수 23:9):

1. 인구가 더 많은(참조, 7:7)
2. 신체적으로 더 큰(거인들) 거주민(참조, 민 13:22, 29, 33; 신 1:28)



■ “오늘과 같으니라” 이것은 후기 편집자의 말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요단 동편에 있던 시혼과 옥의 왕국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3:14의 설명을 보라.

**4:39** 이것은 유일신주의에 대한 또 다른 강한 표현이다. 6:4의 설명을 보라.

**4:40** “규례와 명령” 4:1의 특별주제를 보라.

■ “땅에서 . . . 오래 살리라” 여기서 동사는 문자적으로 “장수하다”(BDB 73, KB 88, 히필 미완료형, 참조, 출 20:12; 신 4:26, 40; 5:16, 33; 6:2; 11:9; 17:20; 22:7; 25:15; 30:18; 32:47)이다. 조건적인 요소를 주목하라!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 없이” “한 없이”를 고려하여 동사(BDB 678, KB 733, 칼 능동 분사)를 해석해야 한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영원히(헬라어 관용법)**

히브리어 올람을 반영하는 헬라어의 관용적 표현 가운데 하나는 “세대들에”(참조, 눅 1:33; 롬 1:25; 11:36; 16:27; 갈 1:5; 딤후 1:17)이다. 로버트 B. 거들스톤의 구약의 심볼, 321-319 쪽을 보라. 다른 표현으로는 “세대에”(참조, 마 21:19[막 11:14]; 살전 1:55; 요 6:58; 8:35; 12:34; 13:8; 14:16; 고후 9:9)와 “세대의 세대”(참조, 엡 3:21)가 있다. “영원히”를 일컫는 이러한 관용적 표현들에 있어서 차이점은 없는 것 같다. “세대들”이라는 용어는 “장엄함을 말하는 복수형”으로 불려지는 랍비들의 문법적 구문에서 나타내는 수사적 의미를 갖는 복수형일 것이다. 혹은 이 복수형이 유대적 의미에서 “무죄한 세대,” “악한 세대,” “오는 세대,” “의의 세대”의 여러 세대를 가리키는 개념일 수 있다.

**개역개정 4:41-43**

<sup>41</sup>그 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sup>42</sup>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 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sup>43</sup>하나를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4:41**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 이 도시들은 “도피자의 성읍”(참조, 민수기 35 장; 신명기 19 장; 여호수아 20 장)으로 불린다. 모두 여섯 성읍이 구별되었는데, 요단 강 양쪽에 각기 세 성읍이 있었다. 이 성읍들은 모두 레위인의 성읍으로서(참조, 여호수아 21 장)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살았다.

도피성제도는 “눈에는 눈”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의 사법구조의 일부분을 이룬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고로 언약적 동반자를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의 가족은 그를 죽일 법적 권리를 가졌다(즉, 피의 복수자, 민 35:12; 신 19:6, 12; 수 20:3, 5, 9). 만일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가 이 도피성의 하나로 피할 경우에는 장로들이 재판을 하게 되었다; 만일 그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그 사람은 그 성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대제사장이 죽을 때 까지). 그 이후에 그는 안전하게(법적 의미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요단 이편”이 요단강의 동쪽편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4:42 “부지중에”** 부정을 나타내는 용어(BDB 395)가 미리 계획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 사고에 의해 동료 이스라엘 사람을 죽게하였음을 뜻한다. 우리는 이것을 살인이라고 부른다.

악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것은 제사제도에서 신학적인 핵심을 이룬다. 고의적으로 범해진 어떤 죄를 위하여도 제사가 가능하지 않았다(참조, 출 21:12-14; 레 4:2, 22, 27; 5:15-18; 22:14; 민 15:27, 30; 신 17:12-13; 수 20:1-6). 속죄일(레위기 16 장)에 대제사장에 의해 드러진 국가적 제사조차 고의적인 죄(참조, 시 51:14-17)를 속하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적 희생제사 아래에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시점에서 나는 NIDOTTE, 제 2 권에서 이 개념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첨가하고 싶다:

“‘부지중에’ 혹은 ‘부주의하여’(레 4:2)는 둘 다 전략적이며 문제를 내포한다(참조, 4:13, 22, 27; 5:15, 18; 22:14; 민 15:22, 24-29). 이 사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속죄제사가 오직 부주의한 죄만을 다룬다고 결론짓는다. 즉 실수에 의해서 지은 죄나 혹은 어떤 행위가 죄됨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말한다(멜그롭, 1991, 228-29 쪽을 보라). 그러나 “부지중에”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잘못하여”(이 동사는 잘못을 범하는 것, 길을 잃는 것을 뜻한다). 그 잘못이 고의적이 아니거나 실수로 행해진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반드시 그 경우로 볼 것은 아니다(삼상 26:21; 전 5:6 을 보라)” (94 쪽).

#### 개역개정 4:44-49

<sup>44</sup>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sup>45</sup>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sup>46</sup> 요단 동쪽 벳브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sup>47</sup>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sup>48</sup>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 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sup>49</sup>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4:44-45 “율법 . . . 증언과 규례와 법도”** 4:1의 특별주제를 보라.

**4:45 “증언”** 이 단어는 시편에서 토라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토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율법은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다. 율법을 중심으로 확대된 구전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짐으로 만들었다. 구약은 인간의 무지함 가운데 사랑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구약의 율법은 죄의 심각성, 인간의 나약성, 구원자의 필요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랑으로 주신 것이다(참조, 시 19:7-9).

■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는 여기서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고 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 장에 기록된 내용을 첫 번째로 주었을 때 지금 이 계명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어린아이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할 일로서 그가 기대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각 세대는 새 세대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려주어야만 한다.

**4:46-49** 이 절들은 두 가지 승리에 대한 역사적 요약이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두 번의 승리를 주신 이유는 첫 열매의 개념과 유사하다. 유대교에서 첫 열매는 수확의 매우 적은 양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입증하며 또한 전체 수확을 곧 거두게 될 것을 의미했다.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이긴 일은 이스라엘에게 다음을 상기시킨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알고 있다. 나를 신뢰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것은 광야생활의 끝부분에 모압에서 이스라엘의 경험을 간략히 진술하는 또 다른 부분이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구약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지키기 위한 법이었는가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는가?
2. 왜 성경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하나님께 대해 가르치기를 강조하는가?
3.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육체적 모습을 나타내는 것 만들기를 금하셨는가?
4.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화가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5.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두 가지 전제조건을 말하라.
6. 언약을 범하는 것의 세 가지 결과를 말하라.
7. 이 본문은 유일신주의를 가르치는가 혹은 단일신주의를 가르치는가?
8.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9.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10. 제사제도는 인간의 죄를 적절히 다루었는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아니라면 왜 그렇지 않은가?
11. 어떻게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더 우월한가?

# 신명기 5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뉴킹 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십계명의 회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줌	십계명	십계명
5:1-5	5:1-5	5:1-5	5:1-5
			5:2-5
5:6-7	5:6-7	5:6	5:6
		5:7	5:7
5:8-10	5:8-10	5:8-10	5:8-10
5:11	5:11	5:11	5:11
5:12-15	5:12-15	5:12-15	5:12-15
5:13	5:13	5:13	5:13
5:14	5:14	5:14	5:14
5:15	5:15	5:15	5:15
5:16	5:16	5:16	5:16
5:17	5:17	5:17	5:17
5:18-21	5:18	5:18-21	5:18-21
	5:21b		
5:22	5:22-27	5:22	5:22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무서워하다		백성들의 두려움	중재자 모세
5:23-33		5:23-27	5:23-27
	5:28-33	5:28-31	5:28-31
		5:32-33	야웨를 사랑함이 율법의 핵심이다 (5:32-6:13) 5:32-6:3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배경 연구

가. 로랜드 드보는 고대 이스라엘, 제 1 권, 143-144 쪽에서 구약의 법전을 열거한다:

1. 십계 – 출 20:2-17; 신 5:6-21
2. 언약 법전 – 출 20:22-23:33
3. 신명기 법전 – 신명기 12-26 장
4. 성결 법전 – 레위기 17-26 장
5. 제사 법전 – 레위기 1-7, 11-16 장

이 모든 법전은 토라로 여겨졌다. 이 법전들은 어떤 행위나 태도에 대해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말한다.

나. 이스라엘 법의 유형

1. 결의론적 법 – 이 법은 “만일 ... 하면 그때는”의 구조를 갖는다.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가 따른다. 이것은 대개 사회적 관행을 규정짓는다.
2. 필연적 법 – 이 법은 일반적인 금지사항을 말한다(대개의 경우 2 인칭 복수형으로 말해진다 – “너희는 ... 해서는 안된다”). 이 법은 대개 영적 삶을 위한 규정을 다룬다.

다. 문화적 영향

1. 내용에 있어서 – 초기의 법전들
  - ㄱ. 리팻-이쉬탈
  - ㄴ. 함무라비 법전
2. 형식에 있어서 – 히타이트 조약(봉신)은 여러 종류의 형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신명기와 여호수아 24 장의 형식은 주전 2000 년 경의 것을 따르고 있으며, 그 내용의 역사성을 뒷받침한다 (참조, 요한 H. 왈튼, 문화적 상황에서 본 고대 이스라엘의 문학, 95-107 쪽; K. A. 키친, 성경의 세계, 80-95 쪽; 이 책의 서론 VII 항을 보라).

##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5:1-5

<sup>1</sup>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sup>2</sup>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sup>3</sup>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sup>4</sup>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sup>5</sup>그 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와 말씀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5:1** “온 이스라엘” 율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특별한 계층이 아닌), 하지만 모세는 아마도 장로들에게 그것을 말하여 그들이 그에게 들은 내용을 모든 백성(즉, 지파, 씨족)에게 전하게 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항목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1:1의 특별주제를 보라.

■ “듣고” 4:1의 설명을 보라.

■ “규례와 법도” 4:1의 설명을 보라.

■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귀절에는 세 동사가 나타난다:

1. “배우며”(BDB 540, KB 531, 칼 완료형, 참조, 4:10; 5:1; 14:23; 17:19; 18:9; 31:12, 13)
2. “그것을 지켜라”(BDB 1036, KB 1581, 칼 완료형, 참조, 4:2, 6, 9, 40; 5:10, 12, 29, 32; 6:2, 3, 17[2 회], 25; 7:8, 9[2 회], 11, 12[2 회], 기타)
3. “행하라” – 문자적으로 “하라”이다(BDB 793, KB 889, 칼 부정사 연계형)

이 세 가지 동사는 “하기 위해서 들어라”를 뜻하는 쉼마의 의미를 요약하고 있다(BDB 1033, KB 1570, 예, 4:1; 5:1, 23, 24, 25, 26, 27[2 회], 28[2 회]; 6:3, 4; 9:1; 20:3; 27:9)!

**5:2**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1:3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 “세우셨나니” 이것은 문자적으로 “자르다”(BDB 503, KB 500, 칼 완료형[2 회])이며, 구약에서 언약을 비준하는 방법이다(즉, “언약을 자르다,” 참조, 창 15:18; 21:27, 32; 31:44; 출 34:27; 신 5:3; 29:12; 31:16). 아브라함은 염소, 황소, 그 외의 동물들을 취하여 그것을 반으로 가르고 양쪽에 각 편을 마주보게 놓았고 언약의 상징으로 절반으로 가른 사이로 걸어 지나갔다. 이것은 언약을 범한 사람에 대한 저주를 암시하거나(참조, 창 15:9-18; 렘 34:18) 혹은 언약을 맺기 위해 하는 식사였을 것이다.

■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4:13의 설명을 보라.

■ “호렘 산에서” 호렘은 시내산을 뜻하는 히브리어이다. 신명기 1:2의 특별주제를 보라.

**5:3** “우리 조상들과”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을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편, 다른 학자들은 이들이 광야에서 죽은 악한 세대인 자신들의 부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참조, 민 26:63-65). 다음 구절은 두 번째 견해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본다.

■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이것은 악한 세대의 자녀들(즉, 20세 이하의)을 가리킨다. 이것은 야웨의 말씀이 이들의 세대와 오늘날의 세대를 포함하여 모든 세대에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5:4** “대면하여”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호렘산/시내산에서의 직접적인 대면(문자적으로는 아님)을 가리킨다. 이것은 반복되는 표현이다(참조, 창 32:30; 출 33:11; 신 5:4; 34:10; 삿 6:22; 겔 20:35).

■ “불 가운데에서”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사건에 대한 반복되는 언급이다(참조, 4:12, 15, 33, 36; 5:4, 22, 24, 26; 9:10; 10:4).

**5:5** “그 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 . .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백성들이 야웨를 두려워했기에 모세는 야웨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었다(참조, 출 19:16).

#### 개역개정 5:6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5:6**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은 “나는 ‘나인’ 자이다.” 나는 항상 살아 있는 유일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실존하는 자이다로 풀어줄 수 있다. 야웨는 “~이다”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형태이다(참조, 출 3:14). 1:3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야웨의 은혜와 선택적인 택함은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있었음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다. 창 15:12-21에 기록된 무조건적 약속/언약인 이러한 택함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분명히 말해졌다.

#### 개역개정 5:7

<sup>7</sup>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5:7**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앞에”(BDB 818 #7)은 문자적으로 “나의 얼굴 앞에”로서 “나의 영역에 있는 다른 어떤 이”(참조, 출 20:3, 23)를 가리키는 관용어이다. 야웨는 홀로 유일하시며 항상 계신 분이시다! 이것은 유일신주의의 선언이다(참조, 출 8:10; 9:14; 신 4:35, 39; 33:26; 삼상 2:2; 삼하 7:22; 22:32; 사 46:9). 고대 근동의 다신교적 환경에서 이 첫 번째 선언이자 명령은 이스라엘이 가진 신앙의 독특한 모습이다! 6:4의 설명을 보라.

#### 개역개정 5:8-10

<sup>8</sup>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sup>9</sup>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sup>10</sup>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5:8** “우상” 이것은 문자적으로 “새긴 형상”(BDB 820)이다. 이것은 (1) 어떤 모양으로 야웨를 대신하는 것(참조, 4:12, 15-19, 23, 25)을 말할 수 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는 야웨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혹은 (2) 이방인의 우상들(참조, 레 19:4; 26:1)을 일컬을 수 있다.

**5:9** “질투하는” 4:24의 설명을 보라.

▣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부정의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동사로 이루어진다:

1. “절하다” – BDB 1005, KB 295, 히쉬타펠 미완료형 혹은히트파엘 미완료형으로서 “몸을 굽혀 절하다,” “엎드리다”(참조, 4:19; 8:19; 11:16; 출 20:5; 23:24)를 의미한다.
2. “섬기다” – BDB 712, KB 773, 호팔 미완료형으로서 “행하다” “종으로 섬기다” 혹은 “예배의 의식을 행하다”(참조, 13:2; 출 20:5; 23:24)를 의미한다.

야웨께서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종교적”이고 “미신적” 경향을 아셨고, 근동의 우상숭배로 인한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의 계시와 자신의 목적을 보호하려고 하셨다.

▣ “갚되”라는 동사(BDB 823, KB 955, 칼 능동 분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1. 축복하기 위해 방문하다 – 창 21:1; 50:24, 25; 출 13:19; 룻 1:6; 시 65:9; 106:4; 렘 27:22; 29:10; 32:5
2. 벌하기 위해 방문하다 – 출 20:5; 34:7; 렘 11:22; 13:21; 21:14; 24:25; 암 3:2, 14; 호 1:4; 2:15; 4:14; 12:2

■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여기서 “죄”(BDB 730)는 비슷한 어근을 갖는 “뒤틀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예, 삼하 19:20; 24:17; 왕상 8:46; 시 106:6).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인하여 벌을 받았다(예, 출 20:5; 34:7; 레 18:25; 민 14:18; 신 19:15; 렘 25:12; 36:31; 암 3:2).

■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처벌이 아무렇게나 혹은 아무에게나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야웨를 “미워하는”(BDB 971, KB 1338, 칼 능동 분사)자에 대한 것임을 기억하라. 이것은 불신앙이 가족을 통해 이어짐을 뜻한다. 부모의 영향은 믿음의 형성에 있어서 절대적이다(4:10의 설명을 보라). 고대 근동에서 각기 다른 세대에 속한 가족이 함께 살았다. 한 세대의 불신앙이나 불순종은 가족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히브리적 관념의 일부이다(즉, 한 명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아담, 아간, 다윗, 예수).

이 공동체적 개념에 개인이 갖는 믿음의 측면이 반드시 더해져야 한다(참조, 24:16; 왕하 14:6; 렘 31:29-30; 겔 18장)!

**5:10 “지키는”** 이 동사(BDB 793, KB 889)는 칼 능동 분사이다. 이것은 9 절에 있는 동사의 계속되는 행동과 연결된다.

■ “은혜”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인자함(헤세드)

이 용어는 매우 넓은 의미의 범위를 갖는다. BDB 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나눈다(338-339 쪽).

##### 가. 인간과 관련된 용법

1. 동료 인간에 대한 친절(예, 삼상 20:14; 대하 24:22)
2. 가난한 자 어려운 자에 대한 친절(예, 미 6:8)
3. 동정(참조, 렘 2:2; 호 6:4)
4. 모습(참조, 사 40:6)

##### 나. 하나님과 관련된 용법

1. 언약적 충성과 사랑
  - ㄱ. “원수나 어려움에서 구속하심”(예, 렘 31:3; 스 27:28; 9:9)
  - 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지키심”(예, 욥 10:12; 시 86:13)
  - ㄷ. “영적 생명을 활기치게 하심”(예, 시 119:41, 76, 88, 124, 149, 150)
  - ㄹ. “죄에서 구하심”(예, 시 25:7; 51:3)
  - ㅁ. “언약을 지키심”(예, 대하 6:14; 느 1:5; 9:32)
2.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함(예, 출 34:6; 미 7:20)
3. 하나님의 친절
  - ㄱ. “풍성하심”(예, 느 9:17; 시 103:8)
  - ㄴ. “범위가 넓음”(예, 출 20:6; 신 5:10; 7:9)
  - ㄷ. “영원하심”(예, 대상 16:34, 41; 대하 5:13; 7:3, 6; 20:21; 스 3:11)
4. 친절하신 행동(예, 대하 6:42; 시 89:2; 사 55:3; 63:7; 애 3:22)

■ “천 대까지” 이 두 절은 내가 야웨의 성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벌하신다(특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자들, 즉 언약백성). 이 두 절에 나오는 숫자는 나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1. 삼사 대까지 죄를 갚으심
2. 천 대까지 언약에 따른 사랑을 나타내심(참조, 7:9)

■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야웨의 언약에 대한 순종을 야웨께 대한 사랑과 연결시키는 것은 신명기의 특징이다(참조, 6:5; 7:9; 10:12; 11:1, 13, 22; 13:3; 19:9; 30:6, 16, 20).

야웨의 사랑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히 정의되어 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언약적 사랑은 언약에 순종함으로써 유지된다.

“지키다” (BDB 1036, KB 1581)는 이 장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참조, 5:1, 10, 12, 29, 32, 또한 신명기에서 여러 번 나온다). 구약은 야웨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행동에 기초한다. 야웨께서는 인간에게 그들이 적합하게 응답할 수 없음을 보이기 원하셨다(참조, 갈라디아서 3 장). 신약(참조, 램 31-34 장; 겔 36:22-38)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 기초한다. 신자들은 의롭게 될 운명이지만(참조, 엡 1:14; 2:10), 믿음을 통한 은혜를 따라 받아들여졌고 용서받았다(참조, 엡 2:8-9). 이제 그들은 감사의 마음과 가족적 사랑(즉,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서 순종하고 행동한다. 의로운 (그리스도를 닮은) 백성이 되는 목적은 같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방법은 인각적 행함에서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바뀌었다(참조, 막 10:45; 고후 5:21).

#### 개역개정 5:11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5:11** “너는 . . . 일컫지 말라” 이 동사(BDB 669, KB 724, 칼 미완료형)는 “들어 올리다,” “나르다,” 혹은 “취하다”를 뜻한다. 이것은 말하는 행동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예배에서 “그 이름”을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참조, 6:13; 10:20)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강조는 창 4:25-26 에서 시작되는데, 이곳에서는 셋의 후손이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증거한다; 아브라함(창 12:8; 21:33)도, 이삭(창 26:25)도 같은 일을 했다. 이와 똑같은 개념이 요엘 2:28-32 의 종말론적 배경에서 사용된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에 의해 오순절 때 계속되었고 성취된 것으로 말해진다(참조, 행 2:14-21); 사도 바울은 롬 10:9-13 에서 우주적 구원을 제시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한다.

야웨의 이름은 야웨의 인격과 성품을 대표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상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참조, 출 19:5-6). 하지만 비극은 다음의 사실로 인해 언약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이 야웨로 하여금 그들을 벌하시게 함으로써(참조, 신명기 27-29 장) 세상에 향하여 전해질 말씀이 뒤늦어졌다는 점이다: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대신 심판하심
2.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들에게 향함
3. 하나님의 백성이 거만하게 되고 배타적이 되며 자기 의로 가득차게 됨!

■ “망령되이” 이 용어(BDB 996)는 “빈,” “실재하지 않는,” “헛된”을 뜻한다(참조, 출 20:7; 시 139:20). 이것은 5:20 에서 사용된 “거짓”증거와 같은 단어이다. 이 계명이 야웨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참조, 6:13; 10:20), 오히려 거짓으로 법적 증언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야웨의 심판으로 결말을 맺은 그들의 반복적인 불순종을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 되었다(참조, 신명기 27-29 장). 4:6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나 여호와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동사(BDB 667, KB 720, 피엘 미완료형으로서 “사면하다”를 뜻함)는 깨끗한 것에 대한 은유이며, 이로써 무죄함 혹은 죄없음을 뜻한다(참조, 출 20:7; 34:7; 민 14:18; 램 30:11; 46:28; 욥 3:21; 나 1:3). 인간의 죄에는 이에 따른

결과가 있다. 야웨를 잘못 전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죄인데, 특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렇다(참조, 눅 12:48; 히 10:26-31)!

#### 개역개정 5:12-15

<sup>12</sup>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sup>13</sup>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sup>14</sup>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sup>15</sup>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5:12 “지켜”** 이 동사(BDB 1036, KB 1581, 칼 부정사 절대형)는 “지키다”를 뜻하며, 신명기에서 반복되어 사용된다.

▣ “거룩”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거룩

##### I. 구약의 용법

- 가. 이 용어(카도쉬)의 어원은 불확실하지만, 가나안어에서 나온 말일 수 있다. 이 단어의 어근(즉, 카드)의 일부가 “나누다”를 뜻할 가능성이 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함”(가나안 문화에서, 참조, 신 7:6; 14:2, 21; 26:19)을 뜻하는 일반적인 정의의 기원이다.
- 나. 이것은 제사를 위한 물건, 장소, 시간, 사람에 관련된다. 이 의미는 창세기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 다. 예언서 이전 시기에는 나타났지만 강조되지 않았던 사람과 관련된 용법이 예언서(특히 이사야서 호세아서)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법이였다(참조, 사 6:3).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드러내야 할 그의 백성은 거룩하다(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언약을 순종한다면).
- 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언약, 정의, 본질적 성품과 같은 신학적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하였고 반역적인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 갈등이 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글이 로버트 B. 거들스톤, 구약의 동의어, 112-113 쪽에 있다.

##### II. 신약의 용법

- 가. 신약의 저자들은 히브리인의 사상을 가졌지만(누가만 제외하고는) 코이네 헬라어(즉, 70 인역)의 영향을 받았다. 그들의 어휘에 영향을 끼친 것은 헬라어로 번역된 이 구약성경이었지 전통적 헬라어 문학, 사상, 또는 종교가 아니었다.
- 나. 예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며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시다(참조, 눅 1:35; 4:34; 행 3:14; 4:27, 30).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시다(참조, 행 3:14; 22:14).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에 거룩하시다(참조, 요 8:46; 고후 5:21; 히 4:15; 7:26; 벰전 1:19; 2:22; 요일 3:5).
-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한다(참조, 레 11:44-45; 19:2; 20:7, 26; 마 5:48; 벰전 1:16). 예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를 따르는 자들은 거룩해야 한다(참조,

롬 8:28-29; 고후 3:18; 갈 4:19; 엡 1:4; 살전 3:13; 4:3; 벧전 1:15).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 섬기도록 구원받았다.

▣ “안식일”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안식**

이 용어(BDB 992)는 “휴식” 혹은 “활동을 중단함”을 뜻한다. 예배의 날로서 시작된 것은 창 2:2-3 에 나오는데, 여기서 야웨는 자신의 안식을 동물들(참조, 출 23:12)과 인간(사람들은 일, 휴식, 예배를 정기적으로 행할 것을 필요로 한다)을 위한 본으로 사용하신다. 이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특별히 지킨 것은 출 16:25-26 에서 만나를 거둘 때였다. 그 이후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의 한 규정이 되었다(참조, 출 20:8-11; 신 5:12-15). 이것은 출애굽기 20 장에 있는 십계명이 신명기 5 장에 있는 십계명과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신명기는 가나안에서의 정착된 농경생활을 위해 이스라엘을 준비시킨다.

**5:13 “일”** 이 13-14 절과 같은 율법은 발전된 구전(참조, 마 5:21-48)이 기록되는데 기여했는데, 이는 “무엇이 일인가?”와 같은 질문이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랍비들은 정의를 생각해 내었기에 신실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할 수 없었다. 기록된 율법의 애매한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구전의 발전을 가져왔다.

**5:14 “일곱째 날은 . . . 안식일인즉”** 안식일은 휴식의 날이었다(BDB 992). 안식일의 기원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1) 출애굽기 20:11 은 이것이 창세기 1-2 장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한편, 신명기는 이것을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로 돌린다(참조, 5:15). 이것은 야웨의 백성에게 언약의 표식(할레처럼)이 되었다(참조, 출 31:13, 17; 겔 20:12, 20). 순종이 요구되었다(참조, 사 56:2; 58:13; 렘 17:21-22).

해와 달처럼(참조, 창 1:14) 안식일은 인간의 활동을 시간적으로 구분하였다(참조, 전도서 3 장). 칠일로 구성된 주간은 특별한 날과 년을 나타내는 방법이 되었다(참조, 출애굽기 23 장과 레위기 23 장). 특별히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여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졌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1 장에 있는 방법(“저녁과 아침,” 참조, 창 1:4, 8, 13, 19, 23, 31)으로 날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5:15 “너는 기억하라”** 7:18 에 있는 설명을 보라.

▣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모세는 노예생활의 경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사회에 있는 빈민들에 대하여 동정을 베풀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

1. 종(과 짐승)에게 쉬는 날을 허용하는 것 – 5:12-15; 16:12
2. 히브리인 종을 돈을 받지 말고 놓아주고 그들을 힘있게 하는 것 – 15:12-15
3. 가난하고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을 공평과 정의로 대하는 것 – 24:17-18
4. 가난한 자를 위해 밭의 모퉁이를 남기며 떨어진 곡식을 거두지 않는 것 – 24:19-22

이러한 귀절은 야웨께서 선물로 땅을 주신 은혜에 비추어 이스라엘이 적합하게 행하고(예, 6:10-15) 언약을 순종함으로써(예, 8:1-10) 심각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예, 8:11-20) 경고를 주기 위해 여러 번 사용된다.

**개역개정 5:16**

<sup>16</sup>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5:16** “공경하라” 이 동사(BDB 457, KB 455, 피엘 명령)는 원래 “무겁다”를 의미하는 말로서 은유적으로는 “마땅한 무게를 주다” 또는 “공경하다”를 뜻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이 공경은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위와 존경에 기초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모본으로 한다. 권위에 대하여 복종하는 자세는 종교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은 이러한 명령을 신명기의 다른 부분과 함께 여러 번 언급하셨다:

1. 5:16 - 마 15:4; 막 7:10
2. 5:16-20 - 마 19:18-19a; 막 10:19; 눅 18:20
3. 5:17 - 마 5:21
4. 6:4-5 - 마 22:37; 막 12:29-30; 눅 10:27
5. 6:13 - 마 4:10; 눅 4:8
6. 6:16 - 마 4:7; 눅 4:12
7. 19:15 - 마 18:16
8. 19:15 - 마 5:38

또한 바울도 자주 신명기를 인용한다:

1. 5:16 - 엡 6:2-3
2. 5:21 - 롬 7:7
3. 19:15 - 고후 13:1
4. 21:23 - 갈 3:13
5. 25:4 - 고후 9:9; 딤후 5:18
6. 27:26 - 갈 3:10
7. 30:12-14 - 롬 10:6-8
8. 32:21 - 롬 11:8
9. 32:35 - 롬 12:19-20
10. 32:43 - 롬 15:10

(참조, 리처드 N. 롱벡커, 사도시대의 성경석의, 42-43, 92-95 쪽).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을 폭 넓게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만 율법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 “그리고 너의 어머니” 이것은 동양 사회에서 여자들의 지위가 법적으로는 가재도구나 재산 정도였을 지라도 어머니를 많이 존중했던 것을 보여준다. 히브리 어머니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존경을 받았다. 부모의 권위는 엄격하게 존중되었다(참조, 출 21:17; 신 27:16). 부모는 양쪽 다 존중받았고 그들에게 자녀들이 순종했다(참조, 잠 1:8; 6:20; 15:20; 19:26; 20:20; 23:22-25; 30:11, 17).

■ “네 생명이 길고” 33 절; 4:40; 11:9 은 이것이 사회에 주신 약속이었지 개인에게 우선적으로 주신 약속이 아님을 보인다. 만일 어떤 사회가 존중하는 가정과 존경하는 가족 생활로 특징지어진다면 그 사회는 안정되고 시간적으로 오래 지속될 것이다. 4:40의 설명을 보라.

**5:17** 모든 동양의 사회에 공통적인 법들이 있다. 고고학적 발견을 통하여 우리는 모세의 법전보다 수 백년 앞선 시기에 속하는 바벨론의 리팻-이스탈 법전과 함무라비 법전이 있음을 안다. 함무라비 법전은 십계와 유사하다. 이 유사성은 (1) 각 상황과 사회에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사항이 있었다는 점과 (2)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자기 시대와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임을 보인다.

#### 개역개정 5:17

<sup>17</sup> 살인하지 말지니라

**5:17 “살인”** 히브리어 동사인 “살인하다”(BDB 953, KB 1283, 칼 미완료형)는 원래 “격렬하게 부딪히다”를 뜻한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형제도(예, 민 35:30)와 거룩한 전쟁(예, 20:13, 16-17)의 규율은 이스라엘에 어떤 종류의 살인도 없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계명은 “너희는 이기적 이유나 보복을 인하여 살인을 범하지 말라” 혹은 “비 합법적이고 미리 계획된 살인을 하지 말라”를 말하고 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군복무나 사형제도를 성경적으로 반대하기 위해 이 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 특별주제: 평화와 전쟁

### I. 서론

- 가. 우리의 믿음과 행함에 있어 유일한 근거가 되는 성경은 평화에 대한 어떤 명확한 본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이것을 제시하는 것은 역설이다. 구약은 군사적으로 평화에 접근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약은 그 갈등을 영적 용어인 빛과 어둠으로 나타낸다.
- 나. 과거와 현재에 있었던 세계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적 믿음은 이러한 갈등이 없는 번영의 황금시기를 추구했고 아직도 그것을 기대한다.
  1. 사 2:2-4; 11:6-9; 32:15-18; 51:3; 호 2:18; 미 4:3
  2. 성경적 믿음은 인간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다, 사 9:6-7
- 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이 있는 세상에서 살 것인가? 이에 대해 사도들이 죽은 이 후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발전된 3 가지 유형의 기독교적 반응이 있다.
  1. 평화주의 - 고대에는 드물게 나타났던 생각이지만 이것은 로마 군사 사회에 대한 초대 교회의 반응이었다.
  2. 정의로운 전쟁 - 콘스탄틴의 회심(주후 313 년)이후에 계속되는 야만족들의 침입에 대한 반응으로서 교회는 “기독교 국가”가 군사적으로 행할 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고대 헬라인들의 입장이었다. 이 견해는 암브로스가 처음으로 주창했고 어거스틴에 의해 확장되고 발전되어졌다.
  3. 십자군 - 이것은 구약의 거룩한 전쟁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것은 중세에 이슬람이 “성지”와 고대 기독교 지역이었던 북 아프리카, 소 아시아, 동로마제국을 점령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행해졌고 또한 교회의 후원을 받았다.
  4. 세 가지 견해는 모두 기독교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타락한 세상의 제도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다른 관점이 발전한 것이다. 각 각의 견해는 성경의 어떤 본문은 강조하는 한편 다른 곳은 배제시켰다. 평화주의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려는 경향을 가졌다. “정의로운 전쟁”은 악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증진시켰다(마틴 루터). 십자군의 입장은 교회가 타락한 세상의 구조를 공격하여 이를 지배해야 한다는 점을 고수했다.
  5. 로랜드 H. 베인톤은 아빙돈 출판사가 출판한 그의 책 전쟁과 평화에 대한 크리스찬의 태도 15 쪽에서 말하기를,

“종교개혁은 세 가지 역사적 입장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종교전쟁을 촉진시켰다: 루터교와 성공회의 정의로운 전쟁을, 개혁교회의 십자군 전쟁을, 재침례파와 후기 웨이커들의 평화주의가 그것이다. 18 세기는 문예부흥의 이상인 인간 평화 사상을 이론적으로와 실제적으로 부활시켰다. 19 세기는 상대적인 평화의 시기였고 전쟁을 없애기 위한 대 격동의 시기였다. 20 세기에는 두 차례 세계대전이 있었다.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세 가지 역사적 입장이 재현되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제 1 차 세계대전시 십자군의 태도를 가졌다; 두

전쟁 사이의 시기에는 평화주의가 팽배했다; 제 2 차 세계대전시의 분위기는 정의로운 전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 “평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어 왔다.

1. 헬라인들은 이것을 사회적 질서와 일치로 여겼다.
2. 로마인들은 이것을 갈등이 없는 상태로서 국가의 힘을 통해 얻어진다고 보았다.
3. 히브리들은 평화를 인간이 하나님께 적합하게 응답함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농경적 의미를 가졌다(참조, 신 27-28 장). 이것은 번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보호를 포함한 개념이었다.

## II. 성경적 자료

가. 구약

1. 거룩한 전쟁은 구약의 기본적 개념이다. 출 20:13 과 신 5:17 에서 “죽이지 말라”는 히브리어에서 계획된 살인(BDB 953)을 가리키는 것이지 사고, 격노, 혹은 전쟁에 의한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야웨는 그의 백성을 대신해 싸우시는 전사로도 나타내신다(참조, 여호수아-사사기, 또한 엡 6:15 에서 암시된 사 59:17).
2. 하나님은 전쟁마저 그릇된 길로 가는 그의 백성을 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 이스라엘의 앗시리아 포로(주전 722 년); 유다의 신바벨론 포로(주전 586 년).
3. 이러한 군사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구속적인 평화주의로 구분되는 이사야서 53 장의 “고난받는 중”이 기록된 사실은 충격적이다.

나. 신약

1. 복음서는 군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언급한다. 로마 “백부장”은 거의 모든 경우 고상한 의미에서 말해진다.
2. 믿는 군인들조차 그들의 직업을 버리도록 요구받지 않았다(초대교회).
3. 신약은 정치적 이론이나 행동으로 사회적 악을 다루도록 자세한 지침을 주지않고 영적 구원의 문제로 여긴다. 초점이 육체의 싸움에 있지 않고 영적 전쟁에 있었다. 그 전쟁은 빛과 어둠, 선과 악, 사랑과 미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다(엡 6:10-17).
4. 평화는 세상의 문제에 대한 마음의 자세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갖는 관계(롬 5:1; 요 14:27)이지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마 5:9 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정치가가 아니라 복음 전파자이다! 다툼이 아니라 교제가 교회생활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이 특징은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에 대해 나타나야 한다.

## 개역개정 5:18

<sup>18</sup> 간음하지 말지니라

**5:18 “간음”** 구약에서 간음(BDB 610, KB 658, 칼 미완료형)은 혼인관계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만을 말한다. 이것은 사후생활에 대한 구약의 관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속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자신의 씨를 통하여 산다고 믿었다. 또한 야웨께서 그들에게 할당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면에서 중요했던 지파적 개념은 간음을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었다.

첫 계명은 부모에 대한 신실함이요, 두 번째 계명은 형제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신실함이요, 세 번째 것은 가정에서의 신실함이다. 약혼한 여자들은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어 언급된다(참조, 신 22:23 이하). 마리아는 그녀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았다.

간음에 대한 이 같은 견해는 종종 은유적으로 우상숭배를 가리켰다. 에스겔서와 호세아서는 둘 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따라 간 일은 “매춘하는 것”으로 불렸고 영적 간음 혹은 신실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 개역개정 5:19

<sup>19</sup>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5:19 “도둑질”** 이웃 나라들의 법을 고려할 때, 이것은 아마도 유괴하여 파는 것을 말한다(BDB 170, KB 198, 칼 미완료형, 참조, 24:7; 출 21:16). 이것은 언약적 형제로서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 대한 신실함과 관련이 있다. 이웃 나라의 모든 법은 이 경우에 사형을 실시했다. 좀 도둑질에 대한 처벌로서 이것은 심하게 여겨진다.

#### 개역개정 5:20

<sup>20</sup>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5:20 “거짓 증거하다”** 오늘날의 미국 사법제도의 관행처럼 그가 죄있는 것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일로 고소받을 때 고소인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소인에게 있었다. 만일 고소인의 잘못임을 당신이 입증한다면 그가 비난했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그가 당하게 되어 있었다(참조, 19:16-21). 십계의 불순종은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엄중한 죄였다!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거짓말은 명예를 실추시키고 언약관계에 있는 형제나 자매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을 중요하게 다루신다(참조, 욥 17:5; 시 101:5; 잠 11:9; 렘 9:8-9).

#### 개역개정 5:21

<sup>21</sup>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5:21 “탐내지 말지니라 . . . 탐내지 말지니라”** 이 두 동사는 동의어적이다:

1. “탐내다” - BDB 326, KB 325, 칼 미완료형, 이것은 물질에 대한 “강한 욕망”을 뜻하며 긍정적 의미나 부정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 문맥에서 이것은 조절이 안되는 이기적 욕망으로서 언약적 관계에 있는 형제에게 속한 어떤 물건을 탐내는 것을 말한다.
2. “갈망하다” - BDB 16, KB 20, 히트라엘 미완료형, 이것은 “욕망”(참조, 14:26) 혹은 “탐욕”(5:21 에서와 같이 종종 성적의미를 나타낸다)을 뜻하는 말로서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나를 위해 더 많이 갖겠다는 의미이다(예, 민 11:4; 시 106:14; 잠 13:4; 21:26; 23:3, 6; 24:1).

이것은 사람의 내적 태도와 동기와 관련된다. 이것은 다른 모든 계명의 모퉁이 돌이다. 이것은 어떻게가 아닌 왜를 말하는 유일한 계명이다. 이 계명은 “~을 하지 말라”만 아니라 “이것을 생각지 말라”도 말한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살인만 아니라 미워함, 또는 살인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계명을 취하여 다른 계명들이 말하는 외적 행동에 구별되는 내적 동기와 태도를 다루는 것으로 삼으셨다(참조, 마 5:17-48). 도둑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의 세계와 불잡히게 될까봐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의 세계에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한 쪽은 그리스도인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자이고 다른 한 쪽은 이기적 이유에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 개역개정 5:22-27

<sup>22</sup>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sup>23</sup>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아와 <sup>24</sup>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sup>25</sup>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sup>26</sup>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발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sup>27</sup>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5:22**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십계명(데카로그)과 그 설명은 모세가 아니라 야웨로부터 온 것이다(출 31:18 과 34:27-28 을 비교하라). 이것은 계시이지(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발견이나 합리적 이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계시의 완성을 주장하는 방법이다(참조, 4:2; 12:32).

22-27 절은 출애굽기 19-20 에 기록된 사건인 호렙/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을 가리킨다. 이 계시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고 함부로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4:2; 12:32; 잠 30:6; 겔 3:14).

**5:23**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아 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호렙/시내 산에 눈에 보이도록 임재하시는 것을 인하여 두려웠기 때문이다(참조, 25-26 절; 출 19:16, 18; 20:18-20).

**5:24** “그의 영광과 위엄” “영광”(BDB 458)을 뜻하는 히브리어 어근은 16 절에 있는 “영예”(BDB 457)와 같은 어근이다. 이것은 모두 상업적 용어로서 “무거운” 혹은 “무게가 나가는”을 뜻하는 용어로서 “영예”를 나타낸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예, 시 29:2; 66:2; 79:9; 96:8), 인격(출 24:16-17; 33:18, 22; 40:34-35; 민 14:22), 행하심(예, 출 16:7, 12)과 관련하여 종종 사용된다.

두 번째 용어인 “위엄”(BDB 152)은 신명기에서 종종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참조, 3:24; 5:24; 9:26; 11:2; 32:3; 시 150:2). 4:31 과 10:17 의 설명을 보라.

### 특별주제: 영광

성경의 개념인 “영광”은 정의하기 어렵다. 신자들의 영광은 그들이 복음과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이해한다는 것이지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영광이 아니다(참조, 1:29-31; 램 9:23-24).

구약에서 “영광”(카보드)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는 원래 저울(“무겁다”)과 관련된 상업 용어였다. 무게가 나가는 것은 가치가 있거나 내재적인 가치를 가졌다. 종종 밝음의 개념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첨가되었다(참조, 출 19:16-18; 24:17; 사 60:1-2). 하나님은 홀로 귀하시며 영예로우시다. 그는 매우 빛나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그를 뵈 수 없다(참조, 출 33:17-23; 사 6:5).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야웨를 알 수 있다(참조, 램 1:14; 마 17:2; 히 1:3; 약 2:1).

“영광”이란 단어는 애매 모호한 부분이 있다: (1)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평행을 이룰 수 있다; (2)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혹은 “온전하심”을 가리킬 수 있다; 또는 (3)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일컬을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참조, 창 1:26-27; 5:1; 9:6) 후에 반역 때문에 그것이 망가졌다(참조, 창 3:1-22). 이 용어는 광야 방랑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출 16:7, 10; 레 9:23; 민 14:10 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말 드러내시며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관계를 맺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하는 기본적 내용이다.

**5:27**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이것은 두 개의 칼 명령으로 되어 있다:

1. “가까이 나아가서” - BDB 897, KB 1132, 이것은 “가까이 가다” 혹은 “접근하다”를 뜻한다. 야웨께 접근하는 일은 종종 위험한 결과를 가져왔다(참조, 출 16:7; 레 16:1; 민 16:16).
2. “듣고” - BDB 1033, KB 1570, 이것은 종종 반복하여 나타나는 동사 웨마(즉, “우리가 그것을 듣고 하겠다”)이다.

#### 개역개정 5:28-33

<sup>28</sup>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sup>29</sup>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sup>30</sup>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sup>31</sup>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sup>32</sup>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sup>33</sup>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5:28-33**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을 주목하라. 이 명령들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명령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 그의 율법을 주셨다.

**5:29**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이 감탄문의 시작 부분(“다만 그들이 ... 하기를,” BDB 566 과 BDB 678, KB 733, 칼 미완료형)은 구약에서 25 회 사용된 일반적 구문이며 주로 읊기에 나온다(NIDOTTE, 제 3 권, 209 쪽). 여기에서 이것은 바람을 나타낸다(참조, 삼하 18:33; 시 55:6).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시지만 이것에는 책임이 따른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면 이것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과, 계속 이어지는 그 다음 세대에 속한 자들에게 좋을 것이다(참조, 신 27-29 장).

**5:30, 31** 이 두절은 일련의 명령을 나타낸다:

1. “가라” - BDB 229, KB 246, 칼 명령, 30 절
2. “말하라” - BDB 55, KB 65, 칼 명령, 30 절
3. “돌아가라” - BDB 996, KB 1427, 칼 명령, 30 절
4. “서라” - BDB 763, KB 840, 칼 명령, 31 절
5. “말하라” - BDB 180, KB 210, 칼 명령, 31 절
6. “가르치라” - BDB 540, KB 531, 피엘 명령(아마도 의미상으로는 이 문맥에서 청유형임), 31 절

**5:31**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 4:1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여기에 두 동사가 사용되었다:

1. “주다” - BDB 678, KB 733, 칼 능동 분사
2. “소유하다” - BDB 429, KB 441, 칼 부정사 연계형

이 선언은 다음에 기초한다:

1.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창 12:1-3; 15:18-21
2.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창 26:3-5
3.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창 28:13-15; 35:9-12
4.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창 15:16; 출 6:4, 8; 신 4:38, 40; 19:10; 20:16; 21:23; 수 1:2, 3, 6, 11, 13, 15; 2:9, 24; 18:3; 21:43; 24:13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땅을 약속하셨고 주셨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1) 그것을 취하여야 했고 (2) 거기에 정착해야 했으며 (3) 거기에 살면서 언약적 신실함을 유지해야만 했다(참조, 4:40; 7:12-13; 8:1-20).

**5:32** “너희는 . . .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닦인 길이나 도로로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시 119:105; 잠 6:23). 바른 하나님의 길/도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이다(참조, 9:12, 16; 17:11, 20; 28:14; 수 1:7; 23:6; 31:29; 왕하 22:2; 대하 34:2; 잠 4:27). 2:27의 설명을 보라.

**5:33** “행하라” 이 문맥에서 “행하다”는 “삶의 양식”(BDB 229, KB 246, 칼 미완료형)을 말한다. 성경적 믿음은 갖고 있기 위한 율법만이 아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양식으로서, 믿음으로써 하루 24 시간, 일 주일의 7 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 믿음은 반드시 경건한 삶을 가져 온다.

■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이 동사(BDB 373, KB 370, 칼 완료형)은 문자적으로 “기쁘게 하는” 혹은 “좋은”의 뜻이다. 이 형용사는 종종 약속의 땅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참조, 1:25, 25; 3:25; 4:21, 22, 기타). 동사는 언약적 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약속하고 있음을 나타낸다(참조, 15:16; 19:13).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2. 무엇이 율법의 목적인가?
3. 출애굽기 20 장과 신명기 5 장에 있는 십계명을 비교할 때 왜 그것이 서로 다른가?
4. 무엇이 안식일의 목적인가? 왜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드리지 않는가?
5. 16-21 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커다란 하나의 주제는 무엇인가?

# 신명기 6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계명의 의미	큰 계명	야웨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5:32-6:13) 5:32-6:3
6:1-3	6:1-3	6:1-3	
6:4-5	6:4-9	6:4-9	6:4-9
6:6-9			
불순종에 대한 주의		불순종에 대한 경고	
6:10-15	6:10-15	6:10-15	6:10-13 충성에 대한 권고 6:14-16
6:16-19	6:16-19	6:16-19	
6:20-25	6:20-25	6:20-25	6:20-25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배경

6 장이 십계명의 결론을 형성하는지 또는 십계명에 나타난 개념의 확장에 대한 부분의 서론인지에 대해 주석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5:28-33 때문에 이것이 순종을 강조하는 새로운 부분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에게서는 분명히 보여진다.

가. 6 장이 우리의 삶에서 야웨께 대한 우선순위를 확신하는 첫 번째 계명의 확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나. 이 장은 창세기 12:1-3 에서 야웨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원래의 약속과 그것의 성취에 대한 계속적인 강조이다(참조, 6:1, 3, 10, 18, 23).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6:1-3

<sup>1</sup>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sup>2</sup>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sup>3</sup>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6:1 “명령과 규례와 법도”** 4:1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1:3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 “가르치라고...행할 것이니” 5 장의 결론과 함께 6 장은 순종의 필요에 대한 강력한 강조로서 특성을 지을 수 있다(참조, 5:29, 31, 32, 33; 6:1, 2, 3, 4, 17, 24, 25). 순종의 필요에 대한 이 같은 강조는 신약에서도 반복된다(참조, 눅 6:46; 요 14:21; 약 2:14-26; 요일 5:2). 우리가 하나님께 그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은 그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순종의 초점은 첫째는 하나님께 그리고 다음은 언약의 형제/자매에게 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언약적 혜택)로 먼저 시작하시지만, 그는 그의 언약적 요구에 우리가 순종할 것을 기대하신다!

■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은 물론 창 12:1-3 을 가리킨다. 구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 “땅”의 관점을 강조하는 반면에, 신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 “씨”의 관점을 강조한다(유다 지파, 이새의 가족, 다윗의 계보).

**6:2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가족적 경외심과 예배의 개념은 신명기에서 강조되고 있다(참조, 4:9-10; 5:29; 6:13; 11:19; 32:46). 신 5:9 과 이 절은 신학적으로 반대의 개념이다!

■ “경외하며...지키게” 경외(BDB 431, KB 432, 칼 미완료형)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적 요구를 “지키는 것”(BDB 1036, KB 1581, 칼 부정사 연계형)으로 나타난다!

■ “평생에” 이것은 특별한 예배의 기간이나 연중 절기 때만이 아닌 생활양식—매일의 순종을 강조하는 것임을 주목하라. 성경적 믿음은 처음의 믿음과, 또한 믿음과 회개의 생활양식이 따르는 회개이다(참조, 막 1:15; 행 3:16, 19; 20:21).

■ “지키게” 5:1의 설명을 보라.

■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구절은 부모를 존경하는 자들에게 개인적 장수의 약속으로서 신 5:16과 연결하여 종종 해석되었다. 그러나 신 4:40; 5:16, 33; 6:2; 11:9에서 이 구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것은 개인적 장수가 아닌 안정된 사회에 대한 약속의 관용적 표현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경건하고, 안정되고, 건강하며, 생산적인 사회를 이루는 것을 의도하였다(참조, 3절; 4:40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6:3** 이 절의 동사들과 개념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주목하라.

■ “네가 복을 받고” 이것은 2절의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절과 평행을 이룬다. 이 구절이 또한 5:33; 15:16; 19:13에 기록되었음을 주목하라.

■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민족들이 야웨께 주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본 방법은 독특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임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이 각본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신명기 27-29장의 저주와 축복의 부분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면 그들에게 축복이 뒤따르고, 만일 그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구절은 우가릿과 이집트의 자료에서 팔레스타인을 가리키는 특별한 표현이다. 이것은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출 3:8, 17; 13:5; 33:3; 레 20:24; 민 13:27; 14:8; 16:13; 신 6:3; 11:9; 26:9; 27:3; 31:20).

#### 개역개정 6:4-9

<sup>4</sup>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sup>5</sup>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sup>6</sup>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sup>7</sup>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sup>8</sup>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sup>9</sup>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6:4 “들으라”** 이것은 히브리어 동사 웨마(BDB 1033, KB 1570, 칼 명령)이다. 4:1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이것은 “행하기 위해 들어라”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성경적 언약의 핵심이다. 신명기에서 이 동사의 사용법은 그것이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예배의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한다(즉, 4:1; 5:1; 9:1; 20:3; 27:9-10). 두 번째 성전 시기부터 신 6:4-6의 이 기도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 의해 아침과 저녁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그들 믿음의 중심되는 고백이다.

■

NASB, NKJV,

NET, NIV

NRSV, TEV

NJB

“여호와와는 유일하시다”

“홀로이신 여호와”

“유일하신 야웨”

LXX	“여호와와는 유일하시다”
JPSOA	“홀로이신 여호와”
REB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구절에는 동사가 없다. 이것은 유대 유일신적 확신의 핵심 내용이다(비록 이 중심되는 신학적 진리가 문맥에서 강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웃 나라들의 다신론 특히 여러 지역에서 행해진 바알에 대한 가나안인들의 강조로부터 이스라엘은 두드러지게 구별되었다.

이것이 잘 정립된 철학적 유일신론(참조, 4:35, 39)인지 또는 실천적 유일신론(참조, 5:7)인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14 절에서 다른 신들의 언급을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한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계시다고 실제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약에서 8 세기 선지자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잘 정립된 철학적, 존재론적 유일신론에 대한 충분히 명확한 표현이 발견되지 않는다(즉, 사 43:9-11; 45:21-22; 렘 2:11; 5:7, 10). 신약은 이러한 주장을 이어 간다(즉, 롬 3:30; 고전 8:4, 6; 딤후 2:5; 약 2:19).

**6: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삶 전체를 포함해야 되는 것을 확인하는 강한 강조이다. 예수님은 율법 전체의 핵심을 확증하시기 위해 레 19:18 과 더불어 이 절을 사용하셨다(참조, 마 22:36-38; 막 12:29-34; 눅 10:27-38).

믿는 자들의 “사랑”(BDB 12, KB 17 칼 완료형)은 당연한 일로 생각되어진다. 야웨의 언약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보는 것이 신명기의 특징이다(참조, 5:10; 6:5; 7:9; 10:12; 11:1, 13; 13:3; 19:9; 30:6, 16, 20). 5:10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마음”과 “뜻”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 전체를 일컫기 위해 종종 함께 사용되었다(참조, 4:29; 10:12; 11:13; 13:3; 26:16; 30:2, 6, 10).

“뜻”(BDB 659)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동물의 생명력(즉, 호흡)을 묘사한다(즉, 창 1:20-30; 2:7, 19; 7:22; 욥 34:14-15; 시 104:29, 30; 146:4; 전 3:19-21). 여기서 이것은 열정적인 소원을 의미한다.

“힘”(BDB 547)은 “풍부함” 또는 “힘”(참조, 왕하 23:25)을 의미한다. 세 단어 “마음,” “뜻,” “힘”은 한 사람 전체를 나타내고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란 구절과 평행을 이룬다. 전치사(all)인 “다하고”(BDB 481)가 강조를 위해 세 번 반복된 것을 주목하라.

예수님은 이 계명을 가장 큰 계명으로 강조하셨다(참조, 마 22:34-40; 막 12:29-30; 눅 10:25-37). 각 계명을 다른 유형의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또한,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지는 시기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두 가지의 법인 하나님을 사랑하라(신 6:5)와 네 형제를 사랑하라(레 19:18)는 확실히 새 언약의 요약이다!

구약의 법에 “신약의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위해 다음을 보라:

1.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읽을 것인가, 더글라스 스튜어트, 165-169 쪽
2. 구약법전의 분해, D. 브렌트 샌디와 로날드 L. 기즈, 123-125 쪽.

**6:6** “이 말씀”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야웨의 언약을 가리킨다.

■ “마음에 새기고” 히브리어에서 마음(BDB 523)은 개인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강조를 나타낸다. 구약에서의 강조점은 신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적인 신실함을 의미한다(참조, 신 4:29; 6:5, 6; 10:12; 11:13, 18; 13:3; 26:16; 30:2, 6, 10; 신약, “힘을 다하여,” 막 12:30; 눅 10:27). 우리는 때때로 구약의 언약은 외적 법이고 신약의 언약은 내적 믿음이라고 잘못 구분한다. “새 마음”을 강조하는 렘 31:31-34 로부터 우리는 이같은 잘못된 구분을 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심지어 구약에서도 믿는 각 개인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전체 인격, 행동, 동기를 드릴 것을 기대한다.

**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의 동사(BDB 1041, KB 1606, 표엘 완료형)는 “날카롭게 하다”를 의미하고 피엘형으로는 오직 여기에서만 사용되었다. 우가리트어에서 이 단어는 “반복하다”라는 뜻이다. 이 점은 이 절에 있는 근본적인 강조를 나타낸다. 랍비들은 이 쉼마가 아침 저녁으로 “반복”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 절을 사용한다. 우리는 매일 이루어지는 활동의 모든 범주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해야만 한다. 믿음의 생활양식을 전수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참조, 신 4:9; 6:20-25; 11:19; 32:46; 4:9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가르쳐야 하는 여러 다른 시기가 시 139:2-6 과 잠 6:20-22 에서 처럼 같은 문학양식에서 나타나는 것은 흥미롭다. 부모의 책임감에 대한 이 강조는 잠 22:6 에서 반복된다. 오늘날의 교회학교가 부모 훈련을 대신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것을 보충할 수는 있다!

**6: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원래 이 구절은 은유로서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참조, LXX). 이 문맥은 생활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를 말한다. 그러나 랍비들은 이 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들은 토라에서 취한 말씀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테필린)를 그들의 왼손 주위에 가죽끈으로 묶기 시작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상자를 그들의 이마에 묶었다. “성구함” 또는 “전두엽”(BDB 377)은 신 11:18; 마 23:5 에서도 언급한다.

**6: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 역시 집에서의 삶뿐 아니라 사회적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태도이다(즉, 바깥문, 참조, 21:19; 22:15, 24). 집의 문지방(BDB 265)이 종종 헬라나 로마세계에서 마귀의 장소로 보여진 것처럼 유대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다(즉, 유월절에 피를 바른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참조, 출 12:7, 22, 23).

“바깥문”(BDB 1044)은 사회적 모임과 재판의 자리를 의미할 것이다(즉, 성문과 같이). 보통 문에 설치한 이 작은 상자(메주자) 안에는 정해진 여러 성경 구절들이 들어있었다: 신 6:4-9; 11:13-21; 출 13:1-10, 11-16.

#### 개역개정 6:10-15

<sup>10</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sup>11</sup>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sup>12</sup>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급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sup>13</sup>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sup>14</sup>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sup>15</sup>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6:10-11**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참조, 창 15:16). 이스라엘은 가나안인들의 집, 들, 포도원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12 절은 이것을 공급하는 분은 여호와이지 그들 자신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4:9; 8:11-20; 시 103:2). 만일 그들이 야웨를 잊으면 그 반대상황이 생길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집, 들, 포도원을 잃을 것이다(참조, 28:27-48).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관계를 시작하게 했고 인간의 순종은 그 관계를 지속시켰다.

**6:12** “너는 조심하여” 이 동사(BDB 1036, KB 1581, 니팔 명령)는 신명기에서 자주 사용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칼 형태로 사용되었다. 니팔형은 2:4; 4:9, 15, 23; 6:12; 8:6, 11; 11:16; 12:13, 19, 30; 15:9; 23:9; 24:8 에서 사용되었고 보통 “조심하라”는 의미이다!

■ “너는...잊지 말고” 이 동사(BDB 1013, KB 1489, 칼 미완료형)는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경고이다(참조, 4:9, 23, 31; 6:12; 8:11, 14, 19[두 번]; 9:7; 25:19).

■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임했던 것에 대한 신명기의 계속적인 강조이다(참조, 신 4:10; 5:29; 6:2). 구약을 율법으로, 신약을 은혜로 특징짓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마틴 루터).

**6:13** 이 절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 갔을 때 그들이 야웨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1.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 BDB 431, KB 432, 칼 미완료형
2. “그를 예배하며” - BDB 712, “섬기며” KB 773, 칼 미완료형
3.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 BDB 989, KB 1396, 니팔 미완료형. 5:11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이 모든 것들은 예배에 관계되고 모세의 글에 종종 사용된다.

이스라엘 예배의식의 한 부분은 야웨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었다. 마 4:10에서 예수님은 마귀와의 대결에 이 절을 인용하신 것 같다. 그는 13 절의 “경외하다”를 “경배하다”로 바꾸셨다. 두 단어는 근본적으로 동의어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성품과 인격을 반영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고백적 진술 중 하나는 사 48:1에서 볼 수 있다.

**6:14** 이 절은 13 절의 목록에 또 다른 요구사항을 첨가한다:

4.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 BDB 229, KB 246, 칼 미완료형  
여기에서 가나안인들의 풍요를 가져오는 신들에 대한 숭배는 철저히 금지되었다.

■ “신들...신들” 이것은 엘로힘(BDB 43)과 엘(BDB 43)이라는 단어이다. 1:3의 특별주제를 보라.

**6:15**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창조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그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신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참조, 창 1:26-27).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인 임미누엘의 메시아적 개념이다(참조, 사 7:14; 마 28:20).

■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열심인” 또는 “질투하시는”(BDB 888, 참조, 신 4:24; 5:9; 4:24의 설명을 보라)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 질투는 사랑의 언어이다. 우리는 오직 깊고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질투한다. 이것은 인간, 가족의 용어로서 신인동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2:15의 특별주제를 보라.

■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만큼, 같은 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같은 책은 그의 진노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불러일으키다” BDB 354, KB 351, 칼 미완료형, 참조, 11:16-17; 31:16-17; 삿 2:14; 6:13, “멸절시키다” 또는 “전멸시키다” BDB 1029, KB 1552, 히필 완료형, 참조, 1:27; 2:22; 9:20; 수 9:24).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진노의 관계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신 5:9와 7:9를 비교하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삼 사대 자손까지 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를 쫓아 버리신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비상한 일”이라고 불렀다(참조, 사 28:21).

#### 개역개정 6:16-19

<sup>16</sup>너희가 맞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sup>17</sup>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sup>18</sup>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으니라

**6:16**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장소의 이름은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진 맛사였다(BDB 650).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과 임재에 대하여 불평했던(참조, 신 9:22; 33:8) 출 17:1-7 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시험한” BDB 650, KB 702, 피엘 완료형). 그들은 부족한 믿음을 보였다(참조, 시 95:8; 히 3-4).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말라(“시험하다” 피엘 미완료형)! 또한 예수께서 이 동사를 사탄에게 시험받으실 때 사용하셨다(참조, 마 4:7; 눅 4:12).

**6: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명령...(을) 삼가 지키며” 6:3 의 설명을 보라. 순종에 대한 계속적인 강조는(5:1 의 설명을 보라)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으로서 언약 관계를 설정한다.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에 의하여 무조건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반응은 필수조건이다(참조, 5:32, 33; 6:1, 2, 3 17, 24, 25).

▣ “명령과 증거와 규례” 4:1 의 특별주제를 보라.

**6:18** 이스라엘의 경험을 나타내는 세 용어가 있다:

1. “정직하게 행하라” - 동사, BDB 793 I 항, KB 889, 칼 완료형, “행하다”
  - ㄱ. “정직한” - BDB 449 는 “옳은” 또는 “기쁘게 하는,” 참조, 출 15:26; 신 6:18; 12:25, 28; 13:18; 21:9
  - ㄴ. “선량한” - BDB 373 II 항, “기쁘게 하는 것”이 두 번 사용되었다, 참조, 창 16:6; 신 12:28(BDB 375 III 항, 24 절)
2.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 BDB 405, KB 408, 칼 미완료형, “선행,” 참조, 4:40; 5:16, 29, 33; 6:3, 18; 12:25, 28; 22:7

위의 세 용어가 12:25, 28; 22:7 에서 모두 발견되는 것을 주목하라.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의 요구를 지키면 야웨는 번영과 장수를 허락하실 것이다!

**6:19**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쫓아 내심으로,” BDB 213, KB 239, 칼 부정사 연계형, 참조, 창 15:16-21). 하나님은 그들에게 군사적 승리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을 준비하고 나가서 싸워야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꼭 필요한 신실한 언약적 반응의 좋은 연합일 것이다(참조, 수 1-12 장)

### 개역개정 6:20-25

<sup>20</sup>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sup>21</sup>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sup>22</sup>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sup>23</sup>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sup>24</sup>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sup>25</sup>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6:20** 이것은 자녀들에게 영적, 언약적 훈련을 할 것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이다(4:10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이 문맥의 색다른 점(즉, 20-33)은 목격자들이 죽었고 그들의 후손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 주고 있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식적인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즉, “네 아들이 묻기를...너는 이르기를...” 출 12:26, 27; 13:14-15; 신 6:20-25; 수 4:6-7, 21-24).

6:20-24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애굽-정복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야웨와 함께한 믿음의 여정을 기술한 여러 구절 중 하나일 것이다(참조, 26:5-9; 수 24:2-13; 시 77; 78; 105; 136).

**6:21** “권능의 손으로” 4:34의 설명을 보라.

**6:22** 이것은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을 말한다. 이 재앙의 각각은 이집트 신 중의 하나에 대한 심판이다. 어느 정도는 자연적 현상에 따라 되어진 것으로 가정할 때, 이 열 가지 재앙들은 18개월 정도에 걸쳐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좀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도 있었지만, 나의 개인적 믿음으로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믿음은 물론 이집트인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셨다. 이집트를 떠난 섞인 무리들 중에는 믿는 이집트인이 어느정도 들어있었다.

**6:24** 이 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받는 유익을 표현하고 있다 (1) 항상 복을 누리고(BDB 375 III 항, 참조, 18 절) (2) 백성으로서(즉, 4:1; 8:1; 30:16, 19) 살아 남게 하려고 (BDB 310, KB 309, 피엘 부정사 연계형).



NASB, NKJV

TEV

“항상”

NRSV

“영속적으로”

NJB

“영원히”

이것은 영속성을 나타내는 은유로서 사용된 “모든”(BDB 481)과 “날들”(BDB 398)을 합친 것이다(참조, 5:29; 28:33; 창 6:5; 시 52:1, 로버트 B. 거들스톤의 구약의 동의어들, 316 쪽을 보라).

**6:25**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아브라함의 처음 신뢰/믿음과 계속된 순종이 야웨께 “의로움”으로 서 받아들여진 것처럼(참조, 창 15:6), 이스라엘 편에서의 언약적 순종 역시 의로움으로 받아들여졌다(참조, 24:13). 1:16의 특별주제: 의를 보라.

■ “우리가...이 모든 명령을...삼가 지키면” 이 반복되는 약속의 조건적 특성을 주목하라:

1. “만일 우리가 삼가하여” - BDB 1036, KB 1581, 칼 미완료형, 참조, 4:6, 9, 40; 5:1, 10, 12, 29, 32; 6:2, 3, 17(두 번)
2. “지키면” - BDB 793, KB 889, 칼 미부정사, 참조, 4:6; 5:1, 15, 27, 32; 6:1, 3, 18, 24, 25. 5:1의 설명을 보라.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6장은 십계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언약의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신 6:4-6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그것이 다신론, 단일신론, 유일신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4. 믿는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져야 하는 책임은 무엇인가?
5. 구약과 신약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의”라는 단어의 어원론과 성경적 사용을 설명해보라.

# 신명기 7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선택된 백성	가나안에서의 생활	여호와 자신의 백성	구분된 백성인 이스라엘
7:1-5	7:1-6	7:1-6	7:1-6
7:6-11	7:7-11	7:7-11	하나님의 선택과 그의 호의 7:7-11
순종의 축복들	7:12-16	순종의 축복들 7:12-16	7:12-15 7:16 야웨의 능력
7:17-26	7:17-26	7:17-26	7:17-20 7:21-24 7:25-26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7:1-5

<sup>1</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헛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sup>2</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sup>3</sup>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sup>4</sup>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sup>5</sup>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7:1 “헛 족속”** 1:4의 특별주제: 이스라엘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거하던 사람들을 보라.

▣ “일곱 족속” 족속들의 목록은 10, 7, 5, 3 개 또는 1 개까지 다양하다(가나안 족속 또는 아모리 족속).

**7:1-5**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무리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취하여야 할 반응으로서 요구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여러 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1. “쫓아내다” - 1 절, BDB 675, KB 730, 칼 완료형, 문자적으로 그것은 “없애다”라는 뜻이다, 참조, 왕상 16:6; 이것은 은유적으로 “제거하다”라는 뜻이다, 참조, 2 절.
2.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 2 절, BDB 678, KB 733, 칼 완료형, 참조, 23 절; 민 21:3; 왕상 14:16 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신다
3. “그들을...네게 치게 하시리니” - 2 절, BDB 645, KB 697, 히필 완료형, “강타하다,” 참조, 출 9:25; 21:20
4. “진멸할 것이라” - 2 절, BDB 355, KB 353, 히필 부정사 절대형, 참조, 2:34; 3:6(두 번); 7:2(두 번)
5.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 2 절, BDB 503, KB 500, 칼 미완료형, “언약을 하지 않다”, 참조, 출 23:32; 34:12
6.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 2 절, BDB 335, KB 334, 칼 미완료형, 참조, 16 절; 13:8
7.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 3 절, BDB 368, KB 364, 히트파엘 미완료형, 문자적으로 “사위가 되지 말라”이다, 참조, 창 34:9; 수 23:12
8. “그들의 제단을 헐며” - 5 절, BDB 683, KB 736, 칼 미완료형, 참조, 12:3; 출 34:13(23:24); 왕하 23:12; 대하 31:1
9. “주상을 깨뜨리며” - 5 절, BDB 990, KB 1402, 피엘 미완료형, 참조, 왕하 11:18; 다산의 남성 신인 바알의 상징으로서 남근 모양의 돌
10.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 5 절, BDB 154, KB 180, 피엘 미완료형, 참조, 25 절; 12:3; 대하 14:3; 31:1; 34:4, 7
11.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 5 절, BDB 976, KB 1358, 칼 미완료형, 참조, 대하 14:12; 미 1:7 에서 우상숭배 예식과 관련된 물품을 불살랐다.

**7:2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것은 헤렘이란 단어이다(BDB 355, KB 353, 히필 부정사 절대형). 이것은 파괴함으로 하나님께 드러진 어떤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가진 신약의 단어는 고르이다. 이것은 거룩함의 개념 또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어떤 것과 관계된다. 어떤 것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부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서 도시가 함락되었을 때 남자, 어떤 때는 여자, 어린이, 동물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다. 현대에 이것은 매우 잔인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었다. 이것의 좋은 예는 여호수아 6 장의 여리고나 수 10:28, 35 의 라기스일 것이다. 창 15:16; 민 33:55; 수 23:13 은 가나안인들을 진멸하여야 할 신학적 이유를 기록하고 있다.

■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여호수아 9 장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역사적 예이다.

■

NASB	“그들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 것이며”
NKJV	“그들에게 자비를 보이지 말 것이며”
NRSV	“자비를 그들에게 보이지 말 것이며”
TEV	“그들에게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 것이며”
NJB	“그들에게 어떤 동정도 보이지 말 것이며”

부정된 동사(BDB 335, KB 334, 칼 미완료형)는 “호의를 보이다” 또는 “친절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다(참조, 16 절; 13:11-16; 19:13, 21; 25:12). 자비는 그 땅을 악으로 오염시킬 것이다; 자비는 야웨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용서하는 것과 같다!

**7:3**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이것은 인종적인 의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종교적인 이유였다(참조, 출 34:12-17). 이것과 관계된 중요한 본문은 에스라 10 장과 느헤미야 13 장이다. 하나님은 가나안인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그의 백성이 가나안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우상숭배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부패시킬 것이다.

**7:4**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민 33:55; 수 23:13 을 보라. 유대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이해의 열쇠가 되는 현대 유대인들이 가진 어머니의 개념이 비롯된 곳이 바로 여기이다.

**7:5** “혈며...깨트리며...찍으며...불사를 것이니라” 7:1-5 의 자세한 사항을 보라.

■ “아세라” KJV 역은 “작은 숲”으로 되어있다. 문자적 의미는 “나무로 된 여성 신의 상징”이다(BDB 81). 이것은 다산의 남성 신인 바알의 돌기둥 옆에 세워진 나무 기둥이었다. 아세라 또는 아스타테스는 여성 배우자로서 나무 기둥으로 상징되었다. 그것이 살아있는 나무였는지 아니면 조각한 나무 기둥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 개역개정 7:6-11

<sup>6</sup>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sup>7</sup>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sup>8</sup>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중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sup>9</sup>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이니 신실하신 하나님이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sup>10</sup>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만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sup>11</sup>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7:6** “성민이라...하나님께서...너를...택하셨나니” 구약의 선택(즉, “택한” - BDB 103, KB 119, 칼 완료형)은 항상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참조, 사 44:28; 45:1 에서의 고레스) 섬김을 위해서이다. 신약에서 신자에 대해 “성자”를 사용하는 것처럼, “택해진”은 “거룩한”과 같이 개인적 경건보다 야웨와 그들과의 관계를 더 많이 의미한다. 하나님은 민족과 세상을 택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참조,

출 19:5-6).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BDB 872)이 세상에 그의 성품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였다. 그러나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도 단순히 언약 공동체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개인적 믿음의 행동이 항상 요구되었다(참조, 겔 18 장).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율법에 믿음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개인들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오직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 중에 있던 나그네, 그들의 땅에 살던 외국인, 그들의 집에 있던 이방 종들도 모두 관대하게 받아들여졌고 선택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었다(참조, 출 12:38).



NASB	“자신의 소유”
NKJV, NASB 각주	“특별한 보물”
NRSV, NIV	“보배로운 소유”
TEV	----
NJB	“그의 보배로운 백성”
JPSOA, REB	“특별한 소유”
NET 성경	“귀중한”

이것은 문자적으로 “소유된 백성”(BDB 766 I 항과 688, 참조, 출 19:5) 또는 “특별한 보물”이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참조, 7:6; 14:2; 26:18; 시 135:4; 딤후 2:9) 값진 소유물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야웨의 보석 왕관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즉, 모든 민족에게 그의 지식과 계시를 전하기 위한). 4:6의 특별주제: 밥의 복음적 편견을 보라.

**7:7**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처음 동사(BDB 365 I 항, KB 362, 갈 완료형)는 “같이 껴안다” 또는 “뭉다,” 참조, 10:15(사랑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참조, 8 절]이지만 4:37에서 같은 진리를 나타낸다)라는 의미이고 사 38:17의 단어도 이와 같은 뜻이다. 이 동사는 창 34:8; 신 21:11에서 욕구를 위해 사용되었다.

이 절은 공로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9:4-6의 특별주제: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은혜로운 행동을 보라. 사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완고함 때문에 사랑받기 어려웠다(참조, 9:6, 13; 31:27).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7:8**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은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참조, 창 12, 15, 18, 26, 28 장).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대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신다!

■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이 동사(BDB 422, KB 425, 히필 완료형)는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신명기에서의 예):

1. 문자적
  - ㄱ. 군대가 전쟁을 위해 나갔다, 1:44; 2:32; 3:1; 20:1, 10; 24:5; 29:7
  - ㄴ. 샘으로부터 물이 나왔다, 8:7
  - ㄷ. 나왔다, 9:7; 16:3, 6
  - ㄹ. 들의 소산, 14:22; 28:38
  - ㅁ. 전당물을 내다, 24:11
2. 은유적
  - ㄱ. 인도하다와 평행을 이룸, 1:27; 4:20; 5:6, 15 등
  - ㄴ. 원래의 장소, 2:23
  - ㄷ. 속량하다와 평행을 이룸, 7:8

- ㄹ. 중상자 또는 나쁜 이름, 22:14
- ㅍ. 결혼에 응함, 22:19; 24:2
- ㅂ. 매일의 삶, 28:6, 19; 33:18
- ㅅ. 이끌다, 31:2

오직 문맥에서 적당한 의미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단어에 적용된다!

■ “속량하셨나니” 이 동사(BDB 804, KB 911, 칼 미완료형)는 “값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다음의 것을 사거나 구입할 때 사용되었다 (1) 첫 태생(참조, 출 13:1-22; 민 18:15-17)과 레위인(민 3:44-51) 또는 (2) 종(참조, 15:15; 24:18; 즉, 이스라엘).

## 특별주제: 속량하다/구속하다

### I. 구약

가. 이 개념을 표현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히브리어 법적 용어가 있다:

1. 가알, 기본적으로 값을 지불하여 “자유하게 하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에서 나온 고엘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일원인(즉, 친척인 속량자) 개인적 중재자의 개념을 첨가한다. 물건, 동물, 땅(참조, 레 25, 27 장), 또는 친척(참조, 룖 4:15; 사 29:22)을 되돌리는 권리의 문화적 측면은 신학적으로 야웨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해 내시는 것으로 나타난다(참조, 출 6:6; 15:13; 시 74:2; 77:15; 렘 31:11). 그는 “구속자”가 되신다(참조, 욥 19:25; 시 19:14; 78:35; 잠 23:1; 사 41:14; 43:14; 44:6, 24; 47:4; 48:17; 49:7, 26; 54:5, 8; 59:20; 60:16; 63:16; 렘 50:34).
2. 파다, 기본적으로 “구해내다” 또는 “구출하다”라는 뜻이다
  - ㄱ. 첫 태생의 속량, 출 13:13,14; 민 18:15-17
  - ㄴ. 신체적 속량은 영적 속량과 대조된다, 시 49:7, 8, 15
  - ㄷ. 야웨는 이스라엘을 죄와 반역으로부터 구속하실 것이다, 시 130:7-8

나. 신학적 개념은 세 가지의 관계된 영역을 포함한다:

1. 필요, 속박, 상실, 감금이 있다.
  - ㄱ. 육체적
  - ㄴ. 사회적
  - ㄷ. 영적(참조, 시 130:8)
2. 자유, 해방, 회복을 위해 반드시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 ㄱ. 이스라엘 민족의(참조, 신 7:8)
  - ㄴ. 개인의(참조, 욥 19:25-27; 33:28)
3. 어떤 사람은 반드시 중재자로서 그리고 후원자로서 행동해야만 한다. 가알에서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다(즉, 고엘).
4. 야웨는 종종 자신을 가족과 관계된 단어로 묘사하셨다:
  - ㄱ. 아버지
  - ㄴ. 남편
  - ㄷ. 가까운 친척
 구속은 야웨의 개인적 대리인을 통해 확보되었다; 값은 지불되었고 구속은 성취되었다!

### II. 신약

가. 신학적 개념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단어가 사용되었다:

1. 아고라조(참조, 고전 6:20; 7:23; 벧후 2:1; 계 5:9; 14:34). 이것은 어떤 것을 위해 값을



- 지불한 것을 의미하는 상업용 용어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죄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있다!
2. 엑싸고라조(참조, 갈 3:13; 4:5; 엡 5:16; 골 4:5). 이것 역시 상업용 용어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행위에 기초한 율법(즉, 모세의 율법)에 의한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 저주를 담당하셨다(참조, 신 21:23)!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한 용서, 받아들임, 나아감으로 융합된다!
  3. 뤼오, “자유롭게 하다”
    - ㄱ. 뤼트론, “지불된 값”(참조, 마 20:28; 막 10:45).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빚지지 않은 죄의 빚을 갚으심으로(참조, 요 1:29)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오신 목적을 생각하시며,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힘있는 단어이다.
    - ㄴ. 뤼트루, “해방하다”
      - (1) 이스라엘을 구속하심, 눅 24:21
      - (2) 백성을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 딤후 2:14
      - (3) 죄 없으신 대속물이 됨, 뱌전 1:18-19
    - ㄷ. 뤼트로시스, “구속, 구출, 해방”
      - (1) 예수님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 눅 1:68
      - (2)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안나의 찬양, 눅 2:38
      - (3) 예수님의 단 번에 드러진 더 나은 제사, 히 9:12
  4. 아폴리트로시스
    - ㄱ. 재림 때의 구속(참조, 행 3:19-21)
 

(1) 누가복음 21:28	(3) 에베소서 1:14; 4:30
(2) 로마서 8:23	(4) 히브리서 9:15
    - 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속
 

(1) 로마서 3:24	(3) 에베소서 1:7
(2) 고린도전서 1:30	(4) 골로새서 1:14
  5. 안틸리트론(참조, 딤후 2:6). 이것은 십자가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놓아 주심과 연결되는 중요한 본문이다(딤후 2:14 에사와 같이). 그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제물이었다; “모든 자”를 위해 죽은 자(참조, 요 1:29; 3:16-17; 4:42; 딤후 2:4; 4:10; 딤후 2:11; 뱌후 3:9; 요일 2:2; 4:14).
  - 나. 신약이 내포하는 신학적 개념:
    - ㄱ.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다(참조, 요 8:34; 롬 3:10-18; 6:23).
    - ㄴ. 죄에 대한 인간의 속박은 구약의 모세 율법(참조, 갈 3 장)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참조, 마 5-7 장)에 의하여 드러났다. 인간에게 죽음의 집행이 선언되었다(참조, 골 2:14).
    - ㄷ. 하나님의 죄없는 어린양이신 예수는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참조, 요 1:29; 고후 5:21).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죄로부터 사신 바 되었다(참조, 롬 6 장).
    - ㄹ. 함축적으로 야웨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가까운 친척”이 되셨다. 이것은 가족적 은유의 연속이다(즉, 아버지, 남편, 아들, 형제, 가까운 친척).
    - ㅁ. 구속은 사탄에게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즉, 중세 신학)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섭리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화목이다. 십자가에서 평화가 회복되었고, 인간의 반역이 용서되었으며,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친밀한 교제 안에서 다시 완전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 ㅂ. 우리 몸의 부활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육체적 친밀함이 포함된 구속의

미래적인 면이 아직 남아 있다(참조, 롬 8:23; 엡 1:14; 4:30).

**7:9 “알라” 4:35**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했던 내용을 주목하라:

1.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이지요” – 마지막 단어 엘로힘 앞에 나오는 모든 명사(참조, 4:35, 39)는 정관사와 함께 사용됨
2. “신실하신 하나님” – BDB 52, 니팔 분사, 참조, 사 49:7.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 주장이다(참조, 시 89)! 이것은 다음에 있는 두 가지 표현에 의해 정의된다.
3.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 동사, BDB 1036, KB 1581, 칼 능동분사, 참조, 12 절 창 28:15, 20; 수 24:17; 시 146:6
4. “인애를 베푸시되” – 명사, BDB 338, 참조 9, 12 절; 왕상 8:23; 대하 6:14; 느 1:5; 9:32; 단 9:4

위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1.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9 절, BDB 12, KB 17, 칼 능동분사(참조, 6:5; 7:13; 11:1, 13, 22; 13:3). 5:10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2.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9 절, BDB 1036, KB 1581, 칼 능동분사. 5:1의 설명을 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충성됨이 같이 사용됨을 주목하라!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축복은 “천 대”까지 흘렀다. 천은 항상 문자적 숫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대단히 풍성한 것을 가리키는 은유이다(참조, 시 90:4; 계 20:2, 3, 4, 7). 5:9의 설명을 보라.

**7:10-11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대한 여호와와의 반응을 주목하라 - BDB 971, KB 1338, 칼 능동분사, 참조, 5:9; 출 20:5; 민 10:35; 대하 19:2; 시 68:1; 81:15; 83:2; 139:21:

1. “멀하시나니” - BDB 1, KB 2, 히필 부정사 연계형
2.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 BDB 1022, KB 1532, 피엘 미완료형, “값다,” “보복하다”라는 의미이다, 참조, 렘 51:24

**7:11 “명령과 규례와 법도” 4:1**의 특별주제를 보라.

#### 개역개정 7:12-16

<sup>12</sup>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sup>13</sup>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sup>14</sup>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sup>15</sup>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sup>16</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공홀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울무가 되리라

**7:12** 상호적인 관계를 주목하라(즉, 상호 언약적 책임감). “그의 언약”과 “그의 인애”가 평행을 이룸을 주목하라.

**7:13-15** 야웨의 언약적 축복을 주목하라:

1. 너를 사랑하신다
2. 너에게 복을 주신다

3. 너를 번성하게 하신다
4. 너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5. 너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신다
  - ㄱ. 곡식
  - ㄴ. 포도주
  - ㄷ. 기름
6. 너의 짐승을 번식하게 하신다
7. 생육하지 못함이 없다(참조, 출 23:26)
  - ㄱ. 사람(참조, 11:30; 16:1; 25:21; 29:31)
  - ㄴ. 짐승(참조, 28:4; 30:9)
8. 질병을 없게 하신다(드물게 사용된 단어로 이곳과 28:10 에서만 나타난다)
9. 너의 적을 쳐부수신다

이런 풍성한 축복(참조, 출 23:25-26)이 신명기 28 장에 다시 명확하게 제시되지만, 그것들은 불순종의 결과로 마무리된다(참조, 신명기 27 장; 28:15:58). 모세 언약의 조건적 특성은 분명하다. 이스라엘 역사의 나머지는 신명기 27-29 장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오직 이스라엘이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순종할 때 유효하다. 이스라엘은 결코 이런 행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야웨의 행동이 기초가 된 새언약이 필요했다(참조, 렘 31:31-34; 겔 36:22-38; 갈 3 장).

구약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든 추종자들은 마지막 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고 기대했다(참조, 롬 9-11 장).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언약적 희망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진술되어야 한다(참조, 요 14:6; 1:12; 3:16; 20:31).

**7:16 “올무”** 가나안의 신들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한다(BDB 430, 참조, 출 23:33; 민 33:55; 수 23:13; 삿 2:3; 8:27; 시 106:36). 올무는 문자적으로 “미끼를 단 동물의 덫”이라는 뜻이다!

#### 개역개정 7:17-26

<sup>17</sup>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sup>18</sup>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sup>19</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sup>20</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sup>21</sup>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sup>22</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sup>23</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sup>24</sup>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sup>25</sup>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sup>26</sup>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 당할 것임이니라

**7:17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은 “만일 네가 생각이 들거나 의심이 생기면”(참조, 21 절; 9:23; 시 95:8)이라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이 단락의 전체 핵심은 이스라엘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1. 이집트에 대한 야웨의 행동으로(즉, 재앙들), 18-19 절
2. 가나안에 대한 야웨의 약속하신 행동으로(즉, 왕벌), 20-24 절

**7:18** “기억하되” 이 동사(BDB 269, KB 269, 칼 부정사 절대형과칼 미완료형)는 강조를 위해 종종 사용된다(참조, 5:15; 7:2[2 회]; 8:18; 9:7, 27; 15:15; 16:3, 12; 24:9, 18, 22; 25:17; 32:7). 믿는 자들은 현재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위해 과거를 돌아보아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임재하실 것이다(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야웨는 역사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위해 행동하셨고 행동하실 것이다!

**7:19** 이집트에서 행하신 야웨의 구속적인 일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주목하라:

1. “큰 시험” BDB 152; 650 II, 참조, 4:34; 29:3(같은 어근[III]이 광야 방랑시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사용되었다, 참조, 6:16, 9:22)
2. “이적” BDB 16, 참조, 4:34; 7:19; 26:8; 29:2; 34:11; 시 28:43; 105:27; 135:9
3. “기사” BDB 68, 참조, 4:34; 6:22; 7:19; 26:8; 34:11; 시 78:43; 105:27; 135:9
4. “강한 손” BDB 305; 388, 참조, 4:34; 5:15; 6:21; 7:8, 19; 9:26; 11:2; 26:8; 34:12, 4:34 의 설명을 보라
5. “편팔” BDB 283; 639(칼 수동 분사), 참조, 4:34; 5:15; 7:19; 9:29; 11:2; 26:8

지금 나는 신명기에서 평행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을 보였다. 그것은 또한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난다. 야웨께서 행하신 구속의 일은 이스라엘의 커다란 희망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이다(참조, 창 15:12-21). 그것은 민족에게 주신 언약의 시작이다.

**7:20**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실 것이다” “왕벌”(BDB 864)에 대한 두 가지 가능한 의미가 있다: (1) 이것은 비유적(참조, 신 1:44, 벌 때 같은 군대를 묘사한) 또는 (2) 문자적 (참조, 출 23:28; 수 24:12, 이방 군대를 쳐부수기 위해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가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계심을 보이신다!

**7:21**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동사(BDB 791, KB 888, 칼 미완료형)는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참조, 1:29; 7:21; 20:3; 31:6; 수 1:9).

■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것은 놀라운 진리이다. 초월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참조, 출 29:45; 민 5:3; 35:34). 이것이 임마누엘이 의미하는 내용이다(참조, 사 7:14; 8:8, 10).

■ “크고 두려운 하나님” 이 구절은 다음으로 구성되었다:

1. 형용사 – “크고” BDB 42
2. 니팔 분사 – “무서운” BDB 431, KB 432

야웨에 대한 이 표현(니팔형을 사용하는)은 또한 10:17; 느 1:5; 4:14; 9:32; 단 9:4 에서도 발견된다.

**7:22** 이 절은 야웨의 능력(즉, “쫓아내다” BDB 675, KB 730, 칼 완료형)과 인간의 한계 사이의 대조를 보여준다:

1.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2.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7:23**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20 절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23 절(같은 어근에서 나온 명사와 동사), 참조, 출 23:27(이것은 거룩한 전쟁에 대한 어휘이다)
3.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24 절

**7:24** “너를 당할 자가 없이” 이것은 군사적 대결에 대한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즉, 두 군대, 참조, 11:25; 수 1:5; 10:8; 23:9).

■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여기서 이 동사(BDB 1, KB 2, 히필 완료형)는 후손을 전혀 남기지 않는 완전하고 총체적인 파괴와 죽음에 대한 표현으로서 사용되었다(즉, 거룩한 전쟁).

**7:25-26** 이 절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묘사이다(즉, “조각한 신상들”(BDB 820; 43; 12:3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1. “불사르고” - BDB 269, KB 269, 칼 미완료형, 참조, 5, 25 절; 12:3
2.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 ㄱ. 네 집에 들이지 말라, 25, 25 절
  - 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울무에 걸리지 않게(BDB 430)
  - ㄷ.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BDB 1072, 참조, 12:3)
  - ㄹ. 그것을 진멸하라(즉, “저주받은 것,” BDB 214)
  - ㅁ. 너는 그것을 멀리하고(BDB 1055, 동사와 명사) 심히 미워하라(BDB 1073)

**7:26** “드려진 것” 이것은 “완전한 파괴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을 의미했던 헤렘이란 단어와 관계된다. 이것은 보통 “진멸 당하다”로 번역된다. 진멸된 물건의 세속적인 사용은 그것을 더럽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완전히 파괴되어야 했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하나님은 왜 한 민족의 땅을 빼앗아 다른 민족에게 주셨는가?
2. 다른 인종간의 결혼에 대해 성경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가?
3.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신명기 8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8:1-10	자만과 자족의 시험 8:1-10	소유하게 된 좋은 땅 8:1-10	사막에서의 시련 8:1-4 8:5-6 약속의 땅과 그것의 시험 8:7-10
8:11-20	8:11-20	여호와를 잊는 것에 대한 경고 8:11-20	8:11-16 8:17-20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8:1-10

<sup>1</sup>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sup>2</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sup>3</sup>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sup>4</sup>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츠지 아니하였느니라 <sup>5</sup>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sup>6</sup>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sup>7</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sup>8</sup>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sup>9</sup>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는 것이라 <sup>10</sup>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8:1**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명사(BDB 846, 4:1의 특별주제를 보라)와 동사(BDB 845, KB 1010, 피엘 분사)는 어원이 같음(같은 어근에서 나왔음)을 주목하라.

■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동사(BDB 269, KB 269, 칼 미완료형, 6:12의 설명을 보라)는 신명기에서 종종 사용되었다(참조, 칼 4:2, 6, 9, 40; 5:1, 10, 12, 29, 32; 6:2, 3, 17[두 번], 25; 7:8, 9, 11, 12[두 번]; 8:1, 2, 6, 11; 10:13; 11:1, 8, 22[두 번], 32; 니팔 2:4; 4:9, 15, 23; 6:12; 8:11; 11:16). 이 절은 사랑의 언약적 관계와 순종이 인간을 축복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참조, 2, 6, 16, 18 절; 4:1).

■ “땅을 차지하라” 다음에 있는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그 땅을 차지하라**

이 동사(BDB 439, KB 441, 칼 완료형)는 다음의 내용과 연결되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1. 족장들에게 하신 야웨의 약속/맹세(참조, 1:8; 10:11)
2. 이 약속을 따라 그 땅을 침략하는데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행동(참조, 2:24; 3:18-20)
3. 이것은 “기업”과 평행을 이룬다(3:28)
4. 이스라엘이 그 땅을 계속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에 순종해야 한다(참조, 4:1, 5, 14; 6:1; 8:1; 11:8-9, 26-32)

**8:2** “기억하라” “기억하다”라는 동사(BDB 269, KB 269, 칼 완료형, 참조, 5:15; 7:18[두 번]; 8:2, 18; 9:7, 27; 15:15; 16:3, 12; 24:9, 18, 22; 25:17; 32:7)는 구약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의 법을 기억하는 것은 언약 관계에 있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조건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히브리식 관용어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요구이다.

■ “광야” 이스라엘(즉, 그들의 랍비들)은 광야 방랑 시기를 야웨와 이스라엘의 “밀월기”로서 회상했다. 괴로웠던 이 시기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더 가까이 계신 적이 없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모든 면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풍성함과 축복을 막 누리려 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를 계속 의지할 것에 대해 경고하시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이다(참조, 18 절).

■ “사십 년” 이 숫자는 음력의 주기(즉, 28 일)보다 긴 시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 이것은 문자적으로 사용되었다. 다른 역사적 또는 성경적 정보없이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종종 어려움이 된다. 광야 방랑 시기는 대략 38년간 계속되었다.

■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단어들이 연결되는 순서를 주목하라:

1. 전치사, “~하기 위하여”(BDB 775)

2. 세 개의 피엘 부정사 연계형:

ㄱ. “낮추시며”(BDB 776, KB 853, 참조, 2, 3, 16 절)

ㄴ. “시험하사”(BDB 650, KB 702, 참조, 16 절)

ㄷ. “알려 하심이라”(BDB 393, KB 390, 참조, 2 절[두 번], 3 절[세 번], 5, 16 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는 의도로(예, 창 22:1; 출 15:25; 16:4; 20:20; 신 8:2, 16; 13:3; 삿 2:22; 대하 32:31 과 마 4:1; 히 12:5-13) 우리를 시험하신다(BDB 650, KB 702, 피엘 부정사 연계형, 16 절, 13:3; 삿 2:22; 3:1, 4).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험받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영역에 대해 시험받게 된다. 시험은 우리를 좀 더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낮추다”란 용어(BDB 776, KB 853, 피엘 부정사 연계형)는 2, 3, 16 절에서 사용되었다. 구약은 오직 모세를 겸손하다(참조, 민 12:3; 시편에서 여러 번)고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겸손하시다(참조, 마 11:29)라고 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겸손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갖기 원하신다(즉, 10:3; 스 8:21).

“마음”이란 용어는 우리의 동기(참조, 2, 5, 14, 17 절)를 가리키기 위해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다. 2:30의 특별주제를 보라.

**8:3 “만나”** 이것은(BDB 577, 출 16:4에서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따라 그것을 “만나”[출 16:31]라고 불렀다. 모세는 이것을 “하늘에서 온 양식”이라 불렀다, 출 16:4) 광야 방랑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음식의 공급이었다. 이것은 출 16:4, 14-15; 31 장; 민 11:7-8에 기록되었지만 그것의 정확한 실체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BDB는 그것이 시내산에 살고있던 베두인들에게 알려졌다고 말한다. 그것이 어떤 나뭇가지에서 나온 지스라고 엄밀히 말하였지만 성경의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매일의 필요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도록 긴 기간에 걸친 필요가 아닌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다. 하나님은 또한 새 언약의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하신다(참조, 마 6:11).

■ “알다” 이것의(BDB 393, KB 390) 어근은 이 절에서 세 번 사용된다(4:35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1. “너도 알지 못하며” - 칼 완료형

2.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 칼 완료형

3.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 히필 부정사 연계형

또한 이 장의 다른 곳도 주목하라:

2 절 “알려 하심이라” - 칼 부정사 연계형

5 절 “생각하고” - 칼 완료형

16 절 2번의 반복

■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예수께서 그의 시험에서 사탄에게 인용한 구절 중 하나이다(참조, 마 4:14; 눅 4:4). 인간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개인적인 관계가 필요하다(예, 시 42:1-4; 63:1; 143:6, 어거스틴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겨논 구멍이 있다고 말했다)! 물질적인 것은 참된 삶에 충분하지 않다(즉,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8:4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라쉬(중세 시대의 유대 주석가)와 순교자 저스틴(초대 교회 교부)은 어린이들의 옷이 그들이 자라는 것에 맞추어 커졌을 것이고 절대 헤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참조, 신 29:5은 그들의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첨가했다; 느 9:21)!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가!



■ “네 발이 부르츠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드물게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BDB 130, KB 148, 칼 완료형, 참조, 느 9:21)로서 “부풀다”란 의미이다. 같은 어근의 명사는 부푼 빵을 일컫는다. 이것은 그들의 몸 역시 길고 어려운 여행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8:5**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사랑하는 아버지와 야웨의 특별한 유사점이 여기에 있다(참조, 잠 3:15). 그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히 12:5-13). 2: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 I. 구약

가.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이시다라는 의미이다:

1. 창 1:26-27
2. 말 2:10
3. 행 17:28

나. 아버지는 유추적으로 여러 의미를 갖는다:

1. 이스라엘의 아버지(선택에 의해)
  - ㄱ. “아들” – 출 4:22; 신 14:1; 39:5; 사 1:2; 63:16; 64:8; 렘 3:19; 31:20; 호 1:10; 11:1; 말 1:6
  - ㄴ. “첫 태생” – 출 4:22; 렘 31:9
2. 이스라엘 왕의 아버지(메시아적)
  - ㄱ. 삼하 7:11-16
  - ㄴ. 시 2:7; 행 13:33; 히 1:5; 5:5
  - ㄷ. 호 11:1; 마 2:15
3. 사랑하는 부모에 대한 유추
  - ㄱ. 아버지(은유)
    - (1)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가다 – 신 1:31
    - (2) 훈련하다 – 신 8:5; 잠 3:12
    - (3) 공급(즉, 출애굽기) – 신 32:1
    - (4)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 시 27:10
    - (5) 사랑하다 – 시 103:13
    - (6) 친구/안내자 – 렘 3:4
    - (7) 고치는 자/용서하는 자 – 렘 3:22
    - (8) 자비를 베푸는 자 – 렘 31:20
    - (9) 훈련자 – 호 11:1-4
    - (10) 특별한 아들 – 말 3:17
  - ㄴ. 어머니(은유)
    - (1)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 시 27:10
    - (2) 젖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 – 사 49:15; 66:9-13; 호 11:4(“멍에”를 “젖 먹는 자식”으로 바꾸기를 제시한 본문에서)

##### II. 신약

가. 삼위 일체(삼위가 모두 언급된 본문들)

1. 복음서
  - ㄱ. 마 3:16-17; 28:19
  - ㄴ. 요 14:26

2. 바울 서신
  - ㄱ. 롬 1:4-5; 5:1, 5; 8:1-4, 8-10
  - ㄴ. 고전 2:8-10; 12:4-6
  - ㄷ. 고후 1:21; 13:14
  - ㄹ. 갈 4:4-6
  - ㅁ. 엡 1:3-14, 17; 2:18; 3:14-17 4:4-6
  - ㅂ. 살전 1:2-5
  - ㅅ. 살후 2:13
  - ㅇ. 딤후 3:4-6
3. 베드로서 – 뱀전 1:2
4. 유다서 – 20-21 절
- 나. 예수
  1. “독생자”로서의 예수 – 요 1:18; 3:16, 18 요일 4:9
  2.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 마 4:3; 14:33; 16:16; 눅 1:32, 35; 요 1:34, 49; 6:69; 11:27
  3. 사랑하는 아들이로서의 예수 – 마 3:17; 17:5
  4. 예수께서 하나님께 아바를 사용함 – 막 14:36
  5.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께서 사용하신 대명사
    - ㄱ. “나의 아버지,” 예, 요 5:18; 10:30, 33; 19:7; 20:17
    - ㄴ. “너의 아버지,” 예, 마 17:24-27
    - ㄷ. “우리 아버지,” 예, 마 6:9, 14, 26
- 다.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가족에 대한 많은 은유 중 한 가지:
  1.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2. 믿는 자들을 일컬어:
 

ㄱ. 하나님의 아들들	ㅁ. 양자된
ㄴ. 자녀	ㅂ. 출생했다
ㄷ. 하나님께서 난	ㅅ. 하나님의 가족
ㄹ. 거듭난	

**8:6** “그의 길을 따라가며” 이것은 생활양식을 가리키는 성경의 일반적 은유이다(예, 5:33; 8:6; 10:12; 11:22; 19:9; 26:17; 28:9; 30:16).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그를 위해 살기 원하신다. 성경적 믿음은 신조나 의식에 따른 행동이나 암송적 교훈이나 조직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관계이다.

▣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칼 부정사 연계형은 “따라가며”와 평행이다. 이것은 두려움과 존경의 개념이다(참조, 4:10; 5:29; 6:2, 13, 24; 7:19; 8:6; 10:12, 20; 13:4; 14:23; 17:19; 31:12-13).

**8:7-10** 이것은 농경사회에서의 물의 가치와 약속의 땅에서 흙의 비옥함을 강조하고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자료에서 팔레스타인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알려졌다(참조, 출 3:8, 17; 13:5; 33:3; 신 6:3; 11:9; 26:9; 27:3; 31:21). 그곳은 또한 막대한 광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9 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마음을 자아내기 위함이었다(참조, 10 절).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을 우리가 즐기기 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기 원하신다.

**8:10** 이 절의 처음 부분은 먹은 후에 기도하라는 랍비식 명령의 출처이다. 비록 경건해 보이지만 문맥에 관계없이 해석하는 이런 형태는 “저자의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개역개정 8:11-20

<sup>11</sup>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sup>12</sup>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sup>13</sup>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sup>14</sup>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와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sup>15</sup>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sup>16</sup>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sup>17</sup>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sup>18</sup>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sup>19</sup>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sup>20</sup>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8:11 “삼갈지어다”** 이 동사(BDB 1013, KB 1489, 니팔 명령, 참조, 5:12; 8:6; 11:8; 16:1)는 “지키다,” “관찰하다,” “조심스럽게 하다”로 번역된다(6:12의 설명을 보라). 이것은 순종에의 부름이다.

■ “잊어버리다” 이 동사(BDB 1013, KB 1489, 칼 미완료형, 참조, 4:9, 23, 31; 6:12; 8:11, 14, 19[두 번]; 9:7; 25:19)는 “기억하다”(참조, 5:15; 7:18; 8:2, 18; 9:7, 27; 15:15; 16:3, 12; 24:9, 18; 25:17; 32:7)와 반대된다. 이것은 만족하고 타락한 인간, 심지어 종교적인 인간의 경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여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는 분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한다(참조, 시 103:20)!

■ “네 하나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점과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적합한 방법은 순종임을 주목하라(참조, 눅 6:46).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는 1:3의 특별주제를 보라.

■ “명령과 법도와 규례” 4:1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용어들을 보라.

**8:13 “번성하며”** 이 동사(BDB 915, KB 1176, 칼 미완료형)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다른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 세 번 반복되었다.

**8:15 “불뱀”** 이것(형용사, BDB 977 I; 명사, BDB 638)이 그들의 색깔(동사에서)이나 혹은 그것들이 물 때(참조, 민수기 21장)의 아픔(독으로 인한) 때문에 이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사건은 출 17:6에 기록되었으며 민 20:11에 다시 기록되었다. 고전 10:4에서 바울은 이 바위가 하나님의 메시아적 공급에 대한 상징이었다고 말한다.

**8:16** 야웨는 축복하시기 위해 시험하신다(예, 창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출 20:20에서 이스라엘을; 출 16:4에서 만나를 통해). 심지어 시험(BDB 650, KB 702)은 시 26:2에서 기도가 되고, 시 139:1, 23에서는 같은 생각이지만 다른 용어로 표현한 기도로 사용된다.

**8:17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자만과 자궁(참조 18절; 약 4:13-17)을 주의하라. 9:4-6의 특별주제: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은혜로운 행동을 보라.

**8:18 “기억하라”** 7:18의 설명을 보라.

▣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정복은 창 3:15; 12:1-3; 26:24; 28:13-15에 이미 말씀하셨던 야웨의 구속 계획의 완성이었다. 신명기에서 이 구절은 반복되는 확인이다(참조, 1:8; 6:10; 8:18; 9:5, 27; 29:13; 30:20; 34:4).

이 동사(BDB 989, KB 1396)는 언약적 약속에서 수동형이나 재귀형이 될 수 있는 니팔 완료형이다(예, 창 12:3).

**8:19** 불순종의 결과는 순종의 결과와 같이 명백하다! “따라 가다”(BDB 229, KB 246, 칼 완료형), “섬기다”(BDB 712, KB 773, 칼 완료형), “절하다”(BDB 1005, KB 295, 히쉬타펠 완료형)의 동사가 평행을 이룸을 주목하라.

▣

NASB	“만일 네가 언제라도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면”
NKJV	“만일 네가 어떤 방법으로든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면 ”
NRSV	“만일 네가 여호와를 정말 잊어버린다면”
TEV	“절대로 여호와를 잊지말라”
NJB	“네가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면... 확실히 하라”

이 구문은 “잊어버리다”(BDB 1013, KB 1485)의 동사가 반복되어 사용되는 구조로서 부정사 절대형에 이어 칼 미완료형이 따라온다. 이 구문은 강조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방법이다. “멸망하다”가 같은 방법으로 19절에서 사용되었다.

**8:20 “너희도 멸망하리니”** 19절과 20절에서 “멸망하다”(BDB 1, KB 2)라는 동사가 네 번 사용된 것을 주목하라(19절에서 부정사 절대형; 19절과 20절에서 칼 미완료형이 두 번; 20절에서 히필 분사). 신명기에서 이것은 일반적인 경고이다. 이것은 여러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1.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 4:26(두 번); 8:19, 20; 9:3; 11:17; 28:20, 22, 51, 63; 30:18(두 번).
2.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인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명령하신다 – 7:24; 8:20; 12:2, 3.
3.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는 자를 멸망시키신다 – 7:10.
4. 하나님은 이집트의 군대를 멸망시키셨다 -11:4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을 범한다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전쟁의 결과에 놓여질 것이다(신명기 27-29 장)!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

순종에 커다란 유익이 있는 것처럼 불순종에 준엄한 결과가 있다. 특권에는 책임이 수반된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참조, 눅 12:48)!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8장에 기술된 일로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그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은혜로우신 기사들을 열거하라.
2.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가? 그 이유는?
3. 이 장에서 겸손을 그렇게 자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신명기 9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회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는 유혹 (9:1-10:11)	사람들의 불순종	이스라엘이 아닌 야웨께서 승리를 거두심
9:1-12	9:1-3 9: 4-5	9:1-3 9:4-6	9:1-6
	9:6-7		호렘에서 보인 이스라엘의 태도; 모세의 중재
	9:8-14	9:7-11	9:7-14
9:13-24		9:12 9:13-14	
	9:15-21	9:15-21	9:15-21
			이스라엘이 다시 죄를 짓다. 모세의 기도
	9:22-24	9:22-24	9:22-24
9:25-29	9:25-29	9:25-29	9:25-29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9:1-6**

<sup>1</sup>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sup>2</sup>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sup>3</sup>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sup>4</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sup>5</sup>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sup>6</sup>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9:1** “들으라”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 쉘마(BDB 1033, KB 1570, 칼 명령, 참조, 4:1; 5:1; 6:3, 4; 9:1; 20:3; 27:9)로서, “행하기 위하여 들으라”는 의미이다. 4:1의 설명을 보라.

■ “이스라엘아” 1:1의 특별주제를 보라.

■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 이것은 반복되는 주제이다(1:28의 설명을 보라). 이것의 신학적인 관점(즉, 족장들에게 한 야웨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의 약속)은 7:6-9에 있다. 야웨는 신뢰할 만하시고 참되시다. 이스라엘의 완고하고 목이 곧음을 통하여 야웨의 특성은 확대되었다(참조, 6, 7, 13, 24, 27 절; 10:16; 31:27).

**9:2** “아낙 자손...아낙 자손” 어원론적으로 이 단어가 “긴 목”을 의미하므로, 이것은 거인을 말하고 있다. 신 2:10-11에서 그들은 르바임과 연결되고 민 13:33에서는 그들이 네피림과 연결된다. 1:28의 특별주제를 보라.

■ “아는” 4:35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9:3** “알라” 이 동사(BDB 393, KB 390, 칼 완료형)는 자주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4:35의 특별주제를 보라.

■ “맹렬한 불” 이것은 BDB 77과 BDB 37의 내용을 합하여 말한 것이다. 이 은유는 그 땅 사람들의 악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심을 설명하고 있다(참조, 4-5 절; 창 15:16). 4:24의 설명을 보라. 하나님께 사용된 이미지에 대한 훌륭한하고 간결한 설명은 성경의 이미지 사전, 332-336 쪽을 보라.

■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정복에 대한 두 동사는 평행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낸다:

1. “멸하다” – BDB 1029, KB 1552, 히필 명령
2. “엎드러지다” – BDB 488, KB 484, 히필 명령

또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공격해야만 하는 것을 보라:

1. “너는 그들을 쫓아내어야 한다” – BDB 439, KB 441, 히필 명령

2. “그들을 속히 멸하라” – BDB 1, KB 2, 히필 명령과 부사(BDB 555 II)

주권자이신 야웨의 약속과 이스라엘 군대와 지도자들의 위임된 신실한 반응 사이에 신학적이고 언약적인 균형이 있음을 주목하라.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

야웨는 그의 일을 성취하셨으나 이스라엘은 그곳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하는 그들의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음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참조, 삿 1-2 장). 이스라엘은 그 일을 속히 했어야 했음에도(참조, 7:22) 그렇게 하지 않았다!

**9:4-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하지 말라” 이것은 8:11-20 과 유사하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다음의 이유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있다: (1) 그 땅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참조, 창 15:12-21; 레 18:24-25; 20:13-14) (2) 창 12:1-3 에서 시작되는 족장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고 있음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심중에)“이르기를”이란 동사(BDB 55, KB 65)는 칼의 완료형으로서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존재하며 영적으로 위험하다.

“쫓아내신”이란 동사 (BDB 213, KB 239, 칼 부정사 연계형)는 정복에 관계된 야웨의 행동을 보여준다(참조, 6:19; 수 23:5).

**특별주제:**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은혜로운 행동

출애굽, 광야생활, 정복은 이스라엘 행동에 대한 공로의 상이 아니라, 야웨의 은혜로운 행동이심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1. 이것은 그들의 “조상”에 대한 야웨의 사랑이시다 – 신 4:37-38; 7:3; 10:15
2. 이것은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 신 7:7
3.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다 – 신 8:17
4. 이것은 이스라엘이 의롭거나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다 – 신 9:5-6
5. 야웨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하신다 – 렘 31:3

**9:5**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여기의 두 명사는 이 문맥에서 평행을 이룬다:

1. “공의” – BDB 842, 참조, 6:25; 9:4, 5, 6; 24:13; 33:21, 1:16 의 특별주제를 보라
2. “정직함” – BDB 449, 고결함 또는 도덕적 삶의 양식을 의미한다, 참조, 대상 29:17; 시 119:7 이스라엘의 경건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의 악함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다(참조, 4 절; 창 15:12-21; 레 18:24-28, 3:6 의 설명을 보라).

■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음의 동사들을 주목하라:

1. “맹세를 이루려” – BDB 877, KB1086, 히필 부정사 연계형
2. “여호와께서...하신” – BDB 989, KB1396, 니팔 완료형

**특별주제:** 족장에게 주신 언약적 약속

특별한 언약의 관계에 대한 처음의 약속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1. 아브라함, 창 12:1-3
  - ㄱ. 땅, 창 12:7; 13:4-15; 15:18-21
  - ㄴ. 사람, 창 13:16; 15:4-5; 17:2-6; 22:18
  - ㄷ. 세상에 대한 축복, 창 18:18; 22:18



2. 이삭, 창 26:2-4
  - ㄱ. 땅
  - ㄴ. 사람
  - ㄷ. 세상에 대한 축복
3. 야곱, 창 28:2-4, 13; 35:9-12; 48:3-4
  - ㄱ. 땅
  - ㄴ. 사람
4. 국가인 이스라엘(땅), 출 3:8, 17; 6:8; 13:5; 33:1-3; 신 1:7-8, 35; 4:31; 9:3; 11:25; 31:7; 수 1:6

■ “공의” 1:16의 특별주제를 보라.

**9:6, 13**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것은 원래 농업적 용어로서 제어하기 어려운 소들을 의미한다. 문자적으로 이것은 “목이 뻗뻗한” 또는 “목이 단단한”이라는 의미이다(BDB 904 이 BDB 791과 연결되어 사용됨, 참조, 6, 7, 13, 24, 27 절; 10:16; 31:27; 출 32:9; 33:3, 5; 34:9).

#### 개역개정 9:7-21

<sup>7</sup>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 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sup>8</sup>호렙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sup>9</sup>그 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사십 주 사십 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sup>10</sup>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sup>11</sup>사십 주 사십 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sup>12</sup>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sup>13</sup>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sup>14</sup>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sup>15</sup>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sup>16</sup>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sup>17</sup>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sup>18</sup>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사십 주 사십 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sup>19</sup>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sup>20</sup>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 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sup>21</sup>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 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9:7**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기의 두 동사(BDB 269, KB 269, 칼 명령형, 참조, 5:15; 7:18[두 번]; 8:2; 9:7, 27; 15:15; 16:3, 12; 24:9, 18, 22; 25:17; 32:7과 BDB 1013, KB 1489, 칼 미완료형, 지시형으로서의 기능, 참조, 4:9, 23; 6:12; 8:11, 14, 19[두 번]; 9:7)는 이스라엘이 기억하도록 돕고(7:18의 설명을 보라) 또한 그들이 출애굽 과정과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여러 번 행동했던 것처럼 다시는 야웨, 그의 약속들, 그의 능력에 둔 그들의 약한 믿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8 절은 호렙산 기슭에서 아론이 백성의 강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와 반역을 하였음을 모세가 언급하고 있다!

**9:7-8** “너희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몇가지 예로 출 16:32; 민 13-14 장; 16:21, 25 을 보라.

**9:7-22** 이곳에서는 모세가 호렙/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이 취한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참조, 출 32 장).

**9:9**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 돌판들과 언약의 돌판들은 분명히 평행을 이룬다. 4:13 의 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이것은 야웨의 말씀이지 모세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계시이지 사람의 견해나 발명품이 아니다.

**9:9, 11, 18** “사십 주” 이 수자는 종종 길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않은 기간으로서 달의 주기(즉, 28 일)보다는 길지만 계절의 주기보다는 짧은 기간을 상징한다. 호렙/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38 년이 걸렸다.

**9:9, 18** “내가...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이것은 두 번 행해진 40 일간의 금식을 의미하는데 (1) 기적적인 보존(참조, 출 24:18; 34:28)을 뜻하든지 (2) 혹은 한정된 금식(음식은 금하되 물은 마시는)에 대한 과장적인 표현일 것이다.

**9:10** “두 돌판” 히타이트 봉신조약을 가능한 역사적 배경으로 고려할 때, 이것은 율법의 완전한 두 개의 복사본을 의미할 것이다. 이 책의 서론, VII 항을 보라.

■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이것은 십계명과 그 설명에 대한 신적 기원을 나타내는 관용구이다(참조, 출 31:18; 32:15-16; 신 4:13). 2:15 의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 (신인동형론적 표현)을 보라.

■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이것은 반복되는 주제이다(참조, 4:12, 15, 33, 36: 5:5, 22, 24, 26; 9:10; 10:4). 이 구절은 호렙/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의 인격적인 언약의 계시내용을 강조한다.

**9:12-14** 모세가 호렙/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와의 대화를 기록할 때 야웨는 여러 가지 명령을 사용하신다:

1. “일어나,” 12 절 - BDB 877, KB 1086, 칼 명령
2. “내려가라,” 12 절 - BDB 439, KB 434, 칼 명령
3. “나를 막지 말라,” 14 절 - BDB 951, KB 1276, 히필 명령
4. “내가 그들을 멸하여,” 14 절 - BDB 1029, KB 1552, 청유의 의미로 사용된 히필 미완료형
5. “(그들을) 없애고,” 14 절 - BDB 562, KB 567, 청유의 의미로 사용된 칼 미완료형

■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이 동사(BDB 422, KB 425, 히필 완료형)는 야웨께 대해 여러 번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모세에 대해 사용되었다.

■ “우상을 부어” 이것은 우상이 아니라 야웨의 육체적인 표현이었다. 이것은 둘째 계명에 대한 위반이었다. 그들은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신을 원했다.

**9:14**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예인가 아니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시험인가(참조, 25 절 이하; 출 32:30-35)?

■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진멸을 나타내는 히브리식 표현이다(참조, 25:5; 시 41:5)!

**9:15** “산에는 불이 붙었고” 불이 붙거나 밝은 빛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상징이었다(참조, 1:32-33; 사 66:15). 4:11 의 특별주제: 불을 보라.

**9:16** “너희가...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같은 동사가(BDB 793, KB 899, 칼 완료형) 12 절과 21 절에 사용되었다. 여기서 형상은 (1) “부어 만든 송아지” (BDB 722, 참조, 출 32:4, 8)와 (2) 21 절에서는 “송아지”라고 불렀지만, (3) 12 절에서는 “부어 만든 우상”(참조, 출 34:17; 레 19:4)이라고 불렀다.

**9:17**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록하신 바로 그 날 그것은 부서졌다 (문자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9:19** “여호와께서...내 말을 들으셨고” 출 34 장을 보라. 모세의 두려움의 근원을 주목하라 (BDB 388, KB 386, 칼 완료형, 참조, 28:60):

1. 야웨의 노 – BDB 60, 참조, 출 32:12
2. 야웨의 진노와 격분 – BDB 404, 참조, 29:23
3. 야웨의 진노 – BDB 893, KB 1124, 칼 완료형, 참조, 1:34; 레 10:6; 민 16:22
4. 너희를 멸하러 – BDB 1029, KB 1552, 히필 부정사 연계형, 참조, 6:15; 9:20

민수기 1-2 장은 중언법(이사일의)의 기능을 가질 것이다(참조, TEV, NET 성경).

**9:20** “아론에게” 모세를 위한 아론의 기도는 출 32 장에 기록되지 않았다.

**9:21** 출 32:20 을 보라. 죄된 물건인 금송아지에게 모세가 한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의 동사를 사용하는가 주목하라:

1. “그것을 불살랐다,” BDB 926, KB 1358, 칼 완료형
2. “그것을 부수었다,” BDB 510, KB 507, 칼 완료형, 참조, 왕하 18:4; 미 1:7
3. “그것을 가늘게 갈았다,” BDB 377, KB 374, 칼 부정사 절대형, 참조
4. “그것은 티끌같이 되었다,” BDB 200, KB 229, 칼 완료형
5. “그것을 시내에 뿌렸다,” BDB 1020, KB 1527, 히필 미완료형

#### 개역개정 9:22-24

<sup>22</sup>너희가 다베라와 맛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느니라 <sup>23</sup>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sup>24</sup>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9:22** “다베라” 이 장소의 이름은 “태우다”(BDB 129)라는 동사의 언어유희에서 유래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불만에 야웨가 불 심판으로 반응하신 지리적 장소였다(참조, 민 11:1-3, 34-35). 이것은 호렙/시내산의 북쪽으로 대략 삼일 길이었다.

■ “맛사” 이것은 출애굽 후에 야웨와 이스라엘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또 다른 장소이다(참조, 출 17:7). 이것은 보통 프리바(참조, 신 33:8)와 연결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참조, 6:16; 9:2). 모두 “시험(BDB 650 III, 참조, 6:16; 9:22; 33:8; 출 17:7; 시 95:8)과 다툼을 의미한다.”

■ “기브롯 핫다아와” 이 이름은 “욕심의 무덤들”(BDB 869, 참조, 민 11:31-35)이라는 의미이다. 민 11 장에는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아 사이에 이동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지만, 두 장소는 신명기에서 서로 구분된다.

**9:23** “올라가서...땅을 차지하라” 둘 다 칼 명령으로서 야웨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나타낸다:

1. “올라가서” - BDB 748, KB 828
2. “차지하라” - BDB 439, KB 441

이스라엘에게 야웨의 주권과 약속을 믿고 행할 것을 말씀하는 야웨의 명령을 다시 한번 주목하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 대신 그들의 불신앙을 나타내었다:

1. “너희가 그 명령을 거역하였다” - BDB 598, KB 632, 히필 미완료형, 참조, 민 20:24; 27:14; 신 1:26, 43; 9:23; 시 107:11
2.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 BDB 52, KB 63, 히필 완료형
3.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 BDB 1033, KB 1570, 칼 완료형(이와 같은 칼 완료형은 확고한 모습을 나타낸다). 이것은 언약적인 순종과 책임감과는 완전히 반대이다.

■ “너희가 거역하였다” 1:26의 설명을 보라.

#### 개역개정 9:25-29

<sup>25</sup> 그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사십 주 사십 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sup>26</sup>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sup>27</sup>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sup>28</sup>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일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sup>29</sup>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퍼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9:25** 모세의 중보기도를 위해 두 절을 사용했다:

2. “내가...엎드리고” - BDB 656, KB 709
  - ㄱ. 히트파엘 미완료형, 25 절
  - ㄴ. 히트파엘 완료형, 25 절
3. “(내가) 간구하여” - 26 절 - BDB 813, KB 933, 히트파엘 미완료형

**9:26-29** 26-29 절은 “내가 왜 이스라엘을 살려두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에 모세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답하고 있다:

1.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참조, 출 32:13)
  2. 가나안인들이 야웨에 대하여 잘못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3. 가나안인이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 이 구절은 세 개의 간구하는 동사를 포함하고 있다:
1. “멸하지 마옵소서,” 26 절 - BDB 1007, KB 1469, 히필 지시형
  2. “생각하사,” 27 절 - BDB 269, KB 269, 칼 미완료형
  3. “보지 마옵소서” (즉, “돌리다”), 27 절 - BDB 815, KB 937, 칼 지시형

모세는 야웨의 성품과 모든 민족에 대한 그의 영원한 구속계획에 근거하여 불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호소했다. 한 민족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위협에 처해 있다! 4:6의 특별주제: 밥의 복음적 편향을 보라.

**9:26** 어떻게 모세의 기도가 야웨께서 그의 언약적인 관계를 기억하시도록 하는지 주목하라:

1. “주 여호와여”(문자적으로, “아돈 야웨,” 참조, 3:24. 1:3의 특별주제를 보라).
2. “주의 백성” – 언약의 주제, 참조, 29절
3. “주의 기업” – 언약의 선물, 참조, 29절
4. “주께서...속량하시고” – BDB 804, KB 911, 칼 완료형, 언약을 따라 은혜로 행하신 일(7:8의 특별주제: 속량하다/구속하다을 보라). 야웨는 이스라엘을 종에서 가족으로 이끌어 내셨다 (참조, 7:8; 9:26; 13:5)
5.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 BDB 422, KB 425, 히필 완료형,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적 약속 (참조, 29절; 창 15:16-21)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임을 인하여 행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 일하신다! 모든 인류의 큰 소망은 변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사랑이신 야웨의 인격이시다(예, 출 34:6; 말 3:6). 4:31과 10:17의 설명을 보라.

■ “강한 손으로” 이 구절과 29절의 “펴신 팔”은 이집트의 왕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이집트의 문서에서 발견된다. 이스라엘이 이전에 들어온 바로와 연관된 구절들을 모세가 선택했다. 야웨는 그들의 참된 왕이셨다!

**9:27** 이스라엘의 특성을 주목하라:

1. “이 백성의 완악함” - BDB 904, 참조, 6, 7, 13, 24, 27절
2. “악” - BDB 957, 참조, 렘 14:20; 겔 3:19; 33:12
3. “죄” - BDB 308, 참조, 출 32:30; 신 9:18; 시 32:5; 51:5; 잠 5:22; 13:6; 14:34; 21:4; 24:9(신명기는 현인들의 어휘를 사용한다)

**9:28**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의 평판과 전세계적인 구속의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존하신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같은 의미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로 사용되었다(참조, 사 48:9-11; 겔 20:9, 14, 22, 44; 36:21-23; 단 9:17-19).

**9:29**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 4:34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 14절이 하나님의 참 본질을 반영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이스라엘을 멸해서는 안되는 이유로 모세가 하나님께 설명한 세 가지 내용을 열거하고 토론하라.

# 신명기 10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두 번째의 두 돌판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는 유혹 (9:1-10:11)	모세가 다시 명령을 받다	언약궤; 레위인을 선택함
10:1-5	10:1-5	10:1-5	10:1-5
10:6-11	10:6-9	10:6-9	10:6-9
	10:10-11	10:10-11	10:10-11
율법의 본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10:12-11:32)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마음의 할례
10:12'22	10:12-22	10:12-22	10:12-13
			10:14-22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10:1-5

<sup>1</sup>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sup>2</sup>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sup>3</sup>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sup>4</sup>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sup>5</sup>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10:1 “산”** 이것은 호렘/시내산을 일컫는다. 1:2의 특별주제를 보라.

▣ 모세는 야웨와의 두 번째 만남을 위해 준비해야 했다:

1.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 BDB 820, KB 949, 칼 명령, 참조, 출 34:1, 4
2.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 BDB 748, KB 828, 칼 명령
3. “궤 하나를 만들라” - BDB 793, KB 889, 칼 완료형, 참조, 출 25:10

히타이트조약은 동의가 이루어진 내용의 두 복사본을 요구했다. 하나는 속국 왕에게 주어 매년 읽도록 하였고, 다른 하나는 지배하는 왕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두었다. 이 책의 서론, VII 항을 보라.

▣ “(너를 위한) 나무궤” 출 37:1은 브살렐이 언약궤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궤의 상세한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로 내려오기까지 주어지지 않았다고 라쉬는 말한다. 그러므로 모세는 거친 형태로 첫 번째의 궤를 만들어야만 했고, 나중에 브살렐은 좀 더 정교한 다른 것을 만들었다(참조, 출 25:10-22). 모세가 급하게 만든 첫 번째 궤에는 오직 십계명만 들어 있었다(참조, 왕상 8:9). 나중에 만들어진 궤 안에는: 십계명, 만나의 샘플,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다. 이것에 대한 훌륭한 토론을 위해 로널드 드보의 고대 이스라엘, 제 2권, 292-303 쪽을 보라.

**10:2 “내가...쓰리니”** 야웨께서 율법을 기록하셨다(4 절; 출 34:1). 그러나 출 34:27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말한다. 아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쓰시고, 모세는 그것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기술적이고 서술적인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다. 율법의 근원은 모세의 지성이나 그의 문화적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익숙한 문화적 실례나 형식을 사용하셨다. 율법의 형식은 여러 면에서 바벨론의 법과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

▣ “그 궤에” 신 앞에 특별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근동의 특징이다. 이집트의 죽은 자의 책(쓰트의 발 밑의 상자 안에 둔)과 주전 2000-1000년의 히타이트 봉신조약을 비교하라. 이 책 서론, VII 항을 보라.

**10:3 “조각목”** 이것은 단단한 밝은 갈색나무로서 사막지대에서 자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작은 사막지대의 나무이다(참조, 사 41:19). 이 나무는 성막의 모든 가구와 관계가 있다. 이 용어가 출애굽기 외에서 사용된 것은 여기 뿐이다.

**10:4 “십계명”** 이것은 문자적으로 “열 개의 말씀”이다(BDB 796과 BDB 182). 이 법의 기본적 특징과 기초는 매우 간단하고 일반적인 원리들이다. 십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와 순종으로 나타나는 야웨와의 친밀하고 독특한 관계(참조, 20 절)를 요구하고, 이어서 언약 관계에 있는 다른 구성원과의 합당한 관계에서 그들을 가엾게 여기도록 명령한다(멤버가 아닌 사람들도, 참조, 10:17-19). 야웨를 아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과 우선순위에 영향을 준다!

▣ “산 위 불 가운데에서” 이것은 출 19:16-20에 기록된 호렘/시내산 위의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의 임재는 “맹렬한 불”로 묘사된다(참조, 출 24:17). 이 구절은 신명기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참조, 4:12, 15, 33, 36; 5:4, 24, 26).

그 불(BDB 77)은 야웨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이었다:

1. 횃불, 창 15:17
2. 불꽃, 출 3:2
3. 호렘산 위의 불, 출 19:18; 신 4:11, 12, 15, 33, 36
4. 켈키나 불 기둥, 출 13:21, 22; 14:24; 민 9:15, 16; 14:14; 시 78:14
5. 에스겔이 이상에서 본 야웨의 움직이는 보좌 바퀴에 있는 숯불, 겔 1:13; 10:2

십계명은 불 가운데에서 거듭 말하여지고 있다(참조, 4:12, 15, 33; 5:4, 22, 24, 26; 9:10; 10:4). 이 계명들은 야웨로부터 나오는 인격적 언약의 계시이지, 모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 개역개정 10:6-9

6(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7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옷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8그 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와 언약 궤를 메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9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 특별주제: 나중에 신명기에 추가된 글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10:6-9)을 모세의 저작에 나중에 추가 편집된 여러 글 중의 하나로 본다. 이 요약이 모세의 시대로부터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 번 편집상의 삽입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스라엘은 수 세기 동안 이집트에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 서기관들과 다르게 이집트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본문을 고치도록 훈련받았다.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영감과 본문의 보존을 믿는 우리들은 구약에서 이렇게 추가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 성령의 인도가 있었음을 확신한다. 그것들은 중심 교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변에 있는 본문의 역사성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그렇다고 솔직히 인정해야만 한다: 그것은 구약의 가장 이른 시기의

1. 때
2. 저자
3. 편집의 방법을 포함한다

우리의 전제는 MT 를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추정되는 편집상의 추가에 대한 몇몇 새로운 이론을 성경에 대한 문학적 안내의 “신명기”에서 R. H. 풀진이 제시하고 있다. 그는 추가된 설명이 서술자에 의한 것이지, 편집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서술자에 의한 설명이 다음의 구절에서 보여진다고 제시한다: 1:1-5; 2:10-12, 20-23; 3:9, 11, 13b-14; 4:4-5:1a; 10:6-7, 9; 27:1a, 9a, 11; 28:69; 29:1; 31:1, 7a, 9-10a, 14a, 14c-16a, 22-23a, 24-25, 30; 32:44-45, 48; 33:1; 34:1-4a, 5-12.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서까지의 “신명기적 역사”의 기반을 놓은 모세만큼 권위를 갖는 어떤 서술자가 추정된다고 풀진은 주장한다. 이 이론은 모세 오경과 전기 예언서의 유사성을 설명할 수 있다.

**10:6** “브에롯 브네야아간에서...모세라에 이르러” 처음의 두 단어(BDB 91, 122)는 문자적으로, “야간의 아들들의 우물들”(참조, 민 33:31)로 번역된다. 모세라의 뜻은 “징벌”이다(BDB 64). 호르산(참조, 민 20:22-29; 33:38)과 동의어로 보이는 모세라(지역을 말할 것이다)는 아론이 죽은 장소이다. 이 두 곳은 이스라엘이 유랑하던 지리적 장소를 말한다.

▣ “아론이 거기서 죽어” 민 20:27-28 은 이것이 호르산에서 일어났다고 말한다. 모세처럼 아론도 자신의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참조, 민 20:8, 12).

▣ “엘르아살”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이다(BDB 46). 그는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다(참조, 출 6:23). 큰 두 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다가 죽음을 당했다(참조, 레 10:1-7; 민 3:4). 레



10:9 에서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동안 술을 금하였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이를 어겨 술취했다라고 랍비들은 말한다.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가족을 통해 이어졌다(참조, 출 29:9; 40:15; 민 3:5-10; 25:13).

**10:7** “굿고다” 이 이름의 뜻은 불분명하다(BDB 151). 이것은 민 32:33 의 홀하깃갓과 동일한 곳으로 보인다. 이 두 곳은 호렙/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의 이스라엘 광야생활에서 진을 쳤던 장소이다. JPSOA 는 “굿곤”이라고 나타낸다.

▣ “웃바다” 이 단어의 의미는 “유쾌함”이다(BDB 406, 아마 물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민 33:33-34 에서는 진을 친 장소로서이 곳을 언급한다. JPSOA 는 “웃바쓰”라고 나타낸다.

**10:8**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구별하여”(BDB 95, KB 110, 히필 완료형, 참조, 신 8:14; 16:9; 대상 23:13)라는 동사의 의미는 “나누다”이다. 여기서 구별은 (1) 성막에서와 그 이후의 성전에서 행해진 특별한 예배의식을 위해 (2)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참조, 10:8; 레 9:22-23; 민 6:22-27) (3) 백성들의 분쟁에 대한 재판을 위해(참조 21:5) (4)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참조, 레 10:10)하기 위해서이다. 이 동사는 “선택하다”와 평행을 이룬다(BDB 103, KB 119, 참조, 18:5; 21:5).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되었다(참조, 레 20:24-26; 왕상 8:53; 즉, “거룩한 민족,” 참조, 출 19:6). 마찬가지로 레위지파는 야웨의 특별한 예식을 위해 섬기는 자로서 다른 지파로부터 구별되었다.

그들은 다음의 이유로 선택되었다: (1) 레위지파는 모세와 아론의 지파에서 나왔다 (2) 레위인은 히브리인의 “장자”의 위치를 차지했다(참조, 출 13; 민 3:12; 8:14-19) (3)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처벌하라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참조, 출 32:25-29). 창 29:34 에서 레아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이름을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BDB 532)라고 했다.

제사장 지파로서, 그들은:

1. 언약궤를 운반할 것이다
2.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그 앞에 설것이다(즉, 성막,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모든 임무, 참조, 18:5; 민 18:1-7)
3. 여호와와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다(예, 민 6:24-27)

나중에 레위 지파의 어떤 가족들은 제사장장으로, 다른 가족들은 레위인으로서 기능을 담당 하도록 특별한 임무들이 맡겨질 것이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모든 레위인은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다(3:19 와 25 절을 비교하라). 로랜드 드보의 고대 이스라엘, 제 2 권 358-371 쪽을 보라.

**10:9**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레위 지파는 48 성읍과 그 주위의 목초지 이외에는 어느 땅도 받지 못했다(참조, 민 35:1-8; 수 21 장).

▣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것은 그들이 가진 섬김의 특별한 자리를 나타낸다(참조, 민 18:20; 신 10:9; 18:1, 2, 수 13:33; 겔 44:28)! 레위지파에 대한 이 놀라운 약속은 진실되게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외침이 되었다(참조, 시 16:5; 73:23-28; 119:57; 142:5; 애 3:24).

#### 개역개정 10:10-11

<sup>10</sup>내가 처음과 같이 사십 주 사십 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 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sup>11</sup>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모세의 중보사역이었다(참조, 9:25-29; 출 32:9-14).

**10:11** 야웨는 그가 이미 약속하신대로 이스라엘이 행할 것을 명령하셨다—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

1. “일어나서” - BDB 877, KB 1086, 칼 명령 단수형, 참조, 2:13, 24 은 복수형이며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단수형으로 모세를 가리킨다.
2. “떠나라” - BDB 229, KB 246, 칼 명령 단수형, 문자적으로 “장막을 걷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여행을 시작하라”는 뜻이다”(참조, 출 17:1; 40:36, 38; 민 10:2, 12; 33:1, 2). 모세는 그 백성을 앞서서 인도해야 했다.
3. “그들이 들어가서” - BDB 97, KB 112, 칼 명령 복수형, 지시형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4. “그것을 차지하리라” - BDB 439, KB 441, 칼 명령 복수형, 지시형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스라엘은 야웨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참조, 1:8; 수 21:43).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예, 출 3:7-12)! 하나님의 능력과 갖고 계신 목적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의 언약의 백성은 믿음과 신뢰로 행동해야만 한다!

▣ “오늘날까지” 3:14의 설명을 보라.

#### 개역개정 10:12-22

<sup>12</sup>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sup>13</sup>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sup>14</sup>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sup>15</sup>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니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sup>16</sup>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sup>17</sup>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sup>18</sup>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sup>19</sup>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sup>20</sup>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sup>21</sup>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sup>22</sup>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칠십 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10:12-13**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야웨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따라 요구하시는 내용

야웨께서 요구하시는 사항(BDB 981, KB 1371, 칼 능동 분사)은 연속되는 칼 부정사연계형으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1. “여호와를 경외하여” - BDB 431, KB 432, 참조, 4:29; 10:20
2.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 BDB 229, KB 246, 참조, 4:29
3. “그를 사랑하며” - BDB 12, KB 17, 참조, 6:5; 10:15; 5:10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4.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 BDB 712, KB 773, 참조, 4:29; 6:5; 10:12; 11:13; 13:3; 26:16; 30:2, 6, 10
5.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 BDB 1036, KB 1581

이 구절은 미 6:6-8 과 유사하다. 둘 다 매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

**10:13** “네 행복을 위하여” 순종은 축복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심판을 가져온다(참조, 27-29 장).

**10:14** 이 절은 유일신 신앙을 암시한다. 이것은 이 지구의 대기, 우주(천개), 하나님의 보좌(즉, 삼층천)를 언급한다.

**10:15** 야웨께서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을 묘사함에 있어 나타나는 평행에 주목하라(즉, “심지어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 뛰어나고,” 참조, 출 19:5-6; 신 7:6; 14:2).

1. “기뻐하시고” - BDB 365 I, KB 362, 칼 완료형, 참조, 7:7. 4:37 에서 사랑에 대한 다른 단어(BDB 12, KB 17)가 사용된다.
2. “(그가) 그들의 후손인 택하셨음이” - BDB 103, KB 119, 칼 미완료형, 참조, 4:37.

■ “오늘과 같으니라” 3:14 의 설명을 보라.

**10:16** 이스라엘은 야웨의 선택에 다음과 같이 반응해야 한다:

1.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 BDB 557, KB 555, 칼 완료형. 이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한 은유이다(참조, 레 26:41; 신 10:16; 30:6; 램 4:4; 9:25-26).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된다:
  - ㄱ. 몸의 할례 - 창 17:14(언약의 표시)
  - ㄴ. 입술의 할례 - 출 6:12, 30
  - ㄷ. 귀의 할례 - 램 6:10
  - ㄹ. 단순한 몸의 할례가 아닌 참 마음을 의미한다 - 30:6; 램 4:4; 9:25-26; 겔 44:9; 롬 2:28-29
2.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 BDB 904, KB 1151, 히필 미완료형, 참조, 9:6, 7, 13, 24, 27; 31:27. 2:30 의 설명을 보라.

**10:17** 야웨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칭송들을 보라:

1. 신 가운데 신 - BDB 43, 참조, 시 136:2
2. 주 가운데 주 - BDB 10, 참조, 시 136:3
3. 크신 하나님 - BDB 152, 참조, 3:24; 5:24; 9:26; 11:2; 32:3; 느 1:5; 9:32
4. 능하신 하나님 - BDB 150, 참조, 느 9:32; 시 24:8; 사 10:21
5. 두려우신 하나님 - BDB 431, KB 432, 니팔 분사, 참조, 7:21; 느 1:5; 9:32

■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히브리어로는 “얼굴을 보고 편들지 않으며”(BDB 669, KB 724, 칼 미완료형, BDB 815)이다. 이것은 때때로 재판관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나타난다(참조, 1:17; 16:19; 24:17; 레 19:15).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한 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야웨의 성품을 인간의 법적용어로 표현하였다(참조, 18-19 절). 이것은 종종 위의 구절과 함께 사용된다.

**10:18-19** 법적인 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19 절에서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지를 주목하라:

1. “그는 정의를 행하시며(BDB 793, KB 889, 칼 분사):
  - ㄱ. 고아
  - ㄴ. 과부(참조, 24:17; 26:12-13; 27:19; 시 68:4-5)
2. “나그네를 사랑하여(BDB 12, KB 17, 칼 분사) 그에게...주시나니”(BDB 678, KB 733, 칼 부정사 연계형):
  - ㄱ. 음식
  - ㄴ. 옷

이스라엘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한다:

1.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므로(17 절; 사 58:6-7, 10).
2. 공정하지 않게 취급받는 것의 느낌을 그들이 앎으로(19 절; 24:18, 22; 출 22:21; 23:9).

또한 출 22:22-23 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언급한다(참조, 시 146:9; 말 3:5; 메시아도 그렇게 하신다, 참조, 사 11:4).

**10:20** 하나님의 요구를 12-13 절에서 여러 부정사 연계형으로 나타낸 것처럼, 여기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칼 미완료형 동사들로 나타내고 있다:

1. “여호와를 경외하며” - BDB 431, KB 432, 참조, 5:29; 6:13; 13:4
2. “그를 섬기며” - BDB 712, KB 773, 참조, 13:4
3. “그에게 의지하고” - BDB 179, KB 209, 참조, 11:22; 13:4
4.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 BDB 989, KB 1396, 참조, 5:11; 6:13. 5:11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모든 것들은 예배의 적합한 동기와 행동에 관계된다.

**10:21** “그는 네 찬송이시요” 신명기의 표현은 지혜서와 공통된 것이 많다. 이 구절은 시 109:1 에 있다. 이 구절과 다음 구절에 동사가 없다. 이것은 출애굽과 광야생활 기간동안 나타난 야웨의 구속사역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다:

1. 그들의 찬송(BDB 239)
2. 그들의 하나님(BDB 43)

▣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것은 출애굽과 광야생활을 통해 행하신, 또한 정복하는 과정에서 반복되어질 하나님의 행하심과 공급을 가리킨다!

**10:22** “겨우 칠십 인이었으나” 칠십은 어렵잡은 사람의 수이다. 창 46:27; 출 1:5 을 보라. 쿰란(즉, 사해사본)에서 발견된 출 1:5 의 한 본문은 행 7:14-15 과 부합하는 75 명으로 되어있다. 수자가 다른 것에 대한 훌륭한 토론을 위해서는 성경의 어려운 말들, 521 쪽이나, 글래슨 L. 아처의 성경난해 백과사전, 378-379 쪽을 보라.

▣ “하늘의 별 같이”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이다. 1:10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하나님의 법이 목적하는 것은 무엇인가(구약의 의미에서)?
2. 이 장은 유일신 신앙을 반영하는가? 어디에서 어떻게?
3. 신명기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 신명기 1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사랑과 순종의 보상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10:12-11:32)	여호와와 광대하심	이스라엘의 지난 경험
11:1-7	11:1-7	11:1-7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	11:1-7 약속과 경고
11:8-12	11:8-12	11:8-12	11:8-9 11:10-17
11:13-17	11:13-17	11:13-17	결론
11:18-21	11:18-21	11:18-21	11:18-21
11:22-25	11:22-25	11:22-25	11:22-25
11:26-32	11:26-28 11:29-30 11:31-32	11:26-32	11:26-32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11:1-7**

<sup>1</sup>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sup>2</sup>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sup>3</sup>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sup>4</sup>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날까지 이른 것과 <sup>5</sup>또 너희가 이 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sup>6</sup>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sup>7</sup>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11:1** 이 절에서 두 동사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주목하라. 이것들은 신학적으로 평행을 이룬다. 하나는 다른 것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

1. “여호와를 사랑하여” - BDB 12, KB 17, 칼 완료형, 참조, 13, 22 절. 5:10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2. “그가 주신 책무와...지키라” - BDB 1036, KB 1581, 칼 완료형

이것은 6:2, 4-5; 10:12 의 반복이다. 사랑은 행동(순종)이며 느낌이다(“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참조, 13:3).

■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4:1 의 특별주제를 보라.

**11:2**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생활을 경험한(참조, 4:34; 7:19) 목격자들(레위인과 병역을 하기전인 스무살 이하의 사람들, 참조, 1:6, 9, 14; 5:2, 5; 11:2, 7)에게 호소하고 있다.

■ “기억할 것은” 4:35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 “여호와와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BDB 416)은 긍정적인 때도 있고(3 절); 또한 부정적인 때도 있다(6 절).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특성이시다(참조, 히 12:5-13). 이것은 잠언에서 아주 많이 사용된 지혜서의 또 다른 용어이다.

■ “그의 위엄과” 10:17 과 4:31 의 설명을 보라.

■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참조, 4:34; 5:15; 6:21; 9:26)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신인동형적 구절이다. 4:34 의 설명을 보라.

**11:4**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히브리 단어로 “갈대 바다”(BDB 410 과 693 I)이다. “덮어”는 문자적으로 그들의 얼굴에 물이 넘쳐흐르다”(BDB 847, KB 1012, 히필 완료형, 참조, 출 14:23-31)라는 뜻으로 물에 빠진 것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다.

**11:5** 이것은 광야생활 기간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초자연적 공급에 대한 기억이다. 8:4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11:6** “다단과 아비람” 신 16:1-35; 26:9-10; 시 106:16-18 을 보라.

■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1:1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11:8-12**

<sup>8</sup>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sup>9</sup>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sup>10</sup>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sup>11</sup>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sup>12</sup>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1:8** “그러므로” 이것은 11 장이나 그 이전의 모든 역사적 내용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신명기의 많은 부분은 같은 훈계를 거듭해 왔다.

**11:9**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21 절; 신 5:16 과 비교해 보라. 이것은 개인에게 장수의 약속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므로(참조, 4:1; 8:1) 가족을 존중하는(참조, 4:40; 5:16, 33; 6:2) 사회의 안정을 약속하는 문화적 내용이다. 4:40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9:5 의 특별주제: 족장에게 주신 언약적 약속을 보라.

■ “땅 곧 젓과 꿀이 흐르는” 이것은 물리적 표현일 뿐 아니라 우가릿과 이집트 문서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가리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6:3 의 설명을 보라.

**11:10**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팔레스타인에서의 곡식 재배는 이집트와는 완전히 달랐다. 팔레스타인에는 우기가 있었으나(참조, 11 절), 이집트는 나일강과 그 강이 매년 범람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관개에 의존했다.

■ “발로 물 대기를” 이것은 아마 (1) 들이 범람하면 발로 독에 구멍을 뚫어 물이 나가도록 하는 관개시설이나 (2) 발로 밟아서 돌리는 수레로 관개를 위해 물을 끌어 올리는 데 사용한 것을 의미할 것이다.

**11:11**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때에 맞는 적당한 비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참조, 8:7-9). 이런 좋은 땅은 언약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참조, 16-17 절; 레 26:14-20; 신 28:12, 23-24; 왕상 8:35; 17:1; 대하 7:11-14; 사 5:6; 렘 14 장: 암 4:7-8).

**11:12** “여호와의 눈” 이것은 2 절과 같이 여호와에 대한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임재를 표현한다. 2: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11:13-17**

<sup>13</sup>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sup>14</sup>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sup>15</sup>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sup>16</sup>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sup>17</sup>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11:13** 여호와와의 축복의 조건적(“만일”과 BDB 49, 참조, 22 절, “순종” BDB 1033, KB 1570, 칼 부정사 절대형과 같은 어근인 칼 미완료형, 이것은 강조를 나타내며 “행하기 위해 들으라!”는 의미이다) 본질을 주목하라:

1. “사랑하여” - BDB 12, KB 17, 칼 부정사 연계형
2. “섬기면” - BDB 712, KB 773, 칼 부정사 연계형. 아라비아어에서 이것의 어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출 3:12; 4:3; 7:16; 8:1
3.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참조, 4:29; 6:5; 특히 10:12.

모세는 이 권면을 강조하기 위해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다.

■ “마음” 고대 히브리어에서 “마음”은 정신과 의도, 개인의 지성과 동기를 의미한다. 2:30의 특별주제를 보라.

■ “뜻”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힘”(BDB 659)을 말한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인간이나 동물을 의미할 수 있다.

**11:14** “나는 비를 내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리시리니”(BDB 678, KB 733)는 야웨의 언약적 축복과 저주를 나타내고 있다:

1. 9 절 - 칼 부정사 연계형(축복)
2. 14 절 - 칼 완료형(축복)
3. 15 절 - 칼 완료형(축복)
4. 17 절 - 칼 미완료형(저주)
5. 17 절 - 칼 완료형(저주)
6. 21 절 - 칼 부정사 연계형(축복)
7. 25 절 - 칼 미완료형(축복)
8. 26 절 - 칼 분사(축복/저주)
9. 29 절 - 칼 완료형(축복/저주)
10. 31 절 - 칼 분사(축복)
11. 32 절 - 칼 분사(축복/저주)

여호와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은 그들이 받을 것에 대한 응답(축복 또는 저주, 참조, 27-29 장)을 결정한다.

하나님은 자연과 분리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자연을 사용하신다(참조, 신 27-28 장; 시 19:1-6; 롬 1:19-25; 2:14-15).

■ “이른” 팔레스타인에는 연중 두 시기의 강수가 있다. 이른 비(과종)는 10-11 월에 온다(BDB 435, 참조, 렘 5:24; 호 6:2; 욥 2:23).

■ “늦은 비” 늦은 비(작물의 성숙기)는 3-4 월에 온다(BDB 545, 참조, 렘 3:3; 욥 2:23). 다른 경우에 많은 이슬은 수분의 유일한 공급원이다. 호 6:3은 마지막 때 있을 영적 회복의 은유로서 이것을 사용한다.

■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것들은 그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참조, 7:13).

**11:15** “가축을 위하여” “가축”(BDB 96)은 다음을 가리킨다:



1. 인간 이외의 살아 있는 모든 창조물, 창 8:1; 출 9:9, 10, 22
2. 가축들, 창 47:17; 출 20:10; 레 19:19; 26:22; 민 3:41, 45; 신 2:35

■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동사는 신명기에서 되풀이 되는 약속이다(참조, 6:11; 8:10; 11:15; 14:29). 이것은 두 개의 동사로 되어있다:

1. “먹다” - BDB 37, KB 46, 칼 완료형
2. “배 부르다” - BDB 959, KB 1302, 칼 완료형

**11:16-17** 이 절들은 우상숭배와 그 결과에 대한 경고이다(“삼가라” BDB 1036, KB 1581, 니팔 명령, 참조, 4:9, 15, 23; 6:12; 8:11; 11:16; 12:13, 19, 28, 30; 15:9; 24:8, 6:12 의 설명을 보라).

#### 특별주제: 우상숭배의 결과

- 가. “마음에 미혹하여” - BDB 834, KB 984, 칼 미완료형, 참조, 욥 31:27
1. “돌이켜” - BDB 693, KB 747, 칼 완료형, 참조, 출 32:8; 9:12; 17:11, 17; 렘 5:23
  2. “다른 신들을 섬기며” - BDB 712, KB 773, 칼 완료형, 참조, 7:4, 15; 8:19; 11:16; 13:6, 13; 17:3; 28:14, 36, 64; 29:26; 30:17; 31:20; 수 23:16; 24:2, 16; 렘 11:10; 13:10; 16:11, 13; 22:9; 25:6; 35:15
  3. “절하르로” - BDB 1005, KB 295, 히트파엘(오웬, 805 쪽)과 히쉬타펠(분해 안내, 146 쪽)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내용이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심각했다.
- 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시라” - BDB 354, KB 351, 칼 완료형, 참조, 출 4:14; 22:24; 32:10; 민 11:1, 10; 12:9; 32:10; 신 6:15; 7:4; 11:17; 29:27; 수 23:11
1.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이것은 언약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저주의 한 부분이다, 참조, 28:24; 대하 6:26-28; 7:13
  2.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 비가 내리지 않아서 생긴 결과들
- 다. “너희가...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 BDB 1, KB 2, 칼 완료형, 참조, 4:26; 7:4; 8:19, 20; 28:20, 22; 30:18; 수 23:13, 16

중간은 없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이나 미리 정해진 것으로서 그의 언약을 보이셨다. 타락한 인간은 지속적이고 완전한 순종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참조, 수 24:19).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행하심에 기초로 하는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고 필요하다(참조, 렘 31:31-34; 겔 36:22-38; 롬 3:9, 13, 23; 갈 3 장)!

#### 개역개정 11:18-25

<sup>18</sup>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sup>19</sup>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sup>20</sup>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sup>21</sup>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sup>22</sup>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sup>23</sup>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sup>24</sup>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테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sup>25</sup>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11:18-20** 이 절들은 6:6-9의 요약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야 하는 것을 신실한 자들이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러므로 너희는...이 말을...두고” 이것은 은유적이다, BDB 962, KB 1321, 칼 완료형, 참조, 32:46. 이것은 6:8과 출 13:9, 16이 은유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11:19**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4:9의 설명을 보라.

**11:20** “기록하라” 과거에 어떤 학자들은 모세와 초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다. 고고학적 증거가 계속 발굴됨으로써, 오늘날 아무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의 접근, 제 2권에 있는 “이스라엘 문학에 대한 질문,” 142-53쪽 (성경적 고고학의 사회 출판, 1995)를 보라.

#### 11:21

NASB “하늘이 땅 위에 남아 있는 동안”

NKJV “하늘의 날들이 땅 위에 있듯이”

NRSV “하늘이 땅 위에 있는 동안”

TEV, NJB “창공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이것은 “영속적인 섭리”에 대한 평행적 진술이다(예, 출 12:14, 17, 24, 25; 13:10). 이것은 영원함을 나타내는 은유이다.

**11:22** 언약의 조건적 본질(참조, 13 절)과 언약의 요구는 반복된다:

1. 조건은 13 절과 유사하지만, 약간 다르다:

ㄱ. “만일”과, BDB 49

ㄴ. “지켜” BDB 1036, KB 1581,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미완료형 동사(문법적으로 이 구문은 강조를 나타낸다)

2. 요구사항(13 절과 같이 칼 부정사 연계형의 연속):

ㄱ. “행하여” - BDB 793, KB 889

ㄴ. “사랑하고” - BDB 12, KB 17

ㄷ. “도를 행하여” - BDB 229, KB 246, 참조, 8:6

ㄹ. “의지하면” - BDB 179, KB 209, 참조, 10:20; 13:4

**11:23-25** 조건적 언약의 약속된 결과들(즉,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25 절)은 다음과 같다:

1.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23 절, BDB 439, KB 441, 히필 완료형, 참조, 출 34:24; 신 32:21; 신 4:37-38; 9:4-5; 수 23:5-13

2.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23 절, BDB 439, KB 441, 칼 완료형, 참조, 7:17; 9:3; 민 33:52

3.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24 절, BDB 201, KB 231, 칼 미완료형, 참조, 수 1:3. 그들의 경계는 창 15:18; 출 23:31; 신 1:7; 3:12-17; 수 1:1-4; 13:8-12에 설명되어 있다.

4.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25 절, BDB 426, KB 427, 히필 미완료형, 참조, 7:24; 수 1:5; 10:8; 23:9

5.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하시리니,” BDB 678, KB 733, 칼 미완료형
    - ㄱ. “두려워하고” - BDB 808, 참조, 2:25
    - ㄴ. “무서워하게” - BDB 432, 참조, 창 9:2
- 출 23:27 과 수 2:9 은 같은 진리를 말하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

**11:24** 약속의 땅의 경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1:8 을 보라.

#### 개역개정 11:26-28

<sup>26</sup>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sup>27</sup>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sup>28</sup>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11:26-28** 이 절들은 야웨와 그의 백성들 사이의 조건적 언약의 결과를 계속 말한다. 이것은 신 27-29 장에서 확장되어 진다. 이 절들은 유대 역사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 문단은 일반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말인 “보라”로 시작한다- BDB 906, KB 1157, 칼 명령, 참조, 1:8, 21; 2:24; 4:5; 11:26; 30:15; 32:39. “오늘”이라는 단어(BDB 398)는 단호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재촉하는 방법이다(참조, 4:39).

#### 1. “복” - BDB 139

- ㄱ. “너희가 만일...들으면” - BDB 1033, KB 1570, 칼 미완료형, “행하기 위해 들으라,” 참조, 명령으로서는, 4:1; 5:1; 6:3, 4; 9:1; 20:3; 27:10; 33:7; 조건으로서는, 7:12; 11:13(2 회); 15:5(2 회); 28:1(2 회), 13; 30:10, 17

#### 2. “저주” - BDB 887

- ㄱ. “너희가 만일...듣지 아니하고” - BDB 1033, KB 1570, 칼 미완료형
- ㄴ. “돌이켜 떠나” - BDB 693, KB 747, 칼 미완료형
- ㄷ. “다른 신들을 따르면” - BDB 229, KB 246, 문자적으로 “걸으면,” 참조, 6:14; 8:19; 11:28; 13:2; 28:14; 사 2:12; 렘 7:6, 9; 11:10; 13:10

이 운명적인 대조는 자주 “두 가지 길”로 불려졌다(참조, 28 장; 30:1, 15-20; 시 1 편; 렘 21:8; 마 7:13-14).

**11:28** “따르면” 이것은 문자적으로 “알다”이다. 4:35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 개역개정 11:29-32

<sup>29</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sup>30</sup>이 두 산은 요단 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레 상수리나무 결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나 <sup>31</sup>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sup>32</sup>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11:29** “축복...저주” 이 절은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행한 언약의 새로운 의식을 묘사한다(참조, 27-28 장; 수 8:30-35). 노래를 부르는 두 무리의 레위인은 분명히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에발 산에서 저주를 노래하고 낭독했다. 이 두 산은 세겜의 양쪽에 있다(즉, 견갑골을 의미한다, BDB 1014). 고고학자들은 탈무드에 묘사된 이 단과 부합하는 에발산의 큰 돌단을 발견했다. 이 책 서론의 VII 항을 보라.

이것은 왕과 신하와의 관계를 말하는 히타이트 봉신조약을 따른다(참조, 신 27 장; 같은 방식이 여호수아 24 장에 있음).

**11:30 “아라바”** 이것은 사해의 남쪽 요단 계곡이다. 1:1 의 설명을 보라.

■ “길갈” 이것은 “돌들의 원”(BDB 166 II)으로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처음 진 친 곳의 이름이었다(참조, 수 4:19). 이곳은 세겜 근처에서 좀 더 북쪽에 있었을 것이다(IVP 성경 배경 주석, 구약, 181 쪽을 보라).

■ “모레 상수리나무” 이것은 신성한 나무이거나 작은 숲이었다. 창 12:6 과 35:4 을 통해 이곳이 세겜 근처의 신성한 장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모레는 “선생”이라는 뜻이다(BDB 435).

**11:31-32** 이 절들은 이전에 여러 차례 진술했던 것을 회상시키는 요약부분이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신명기에서 같은 구절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 왜 그렇게 많이 반복되는가?
2. 언약의 조건적이고 의지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강조되었는가?
3. 야웨의 주권이 어떻게 강조되었는가?

# 신명기 1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정해진 예배의 장소  12:1-28	예배의 중앙화  12:1  12:2-7  12:3-12  12:13-14 12:15-19  12:20-27 12:28	한 예배 장소  12:1-3  12:4-7 12:8-14  12:15-19  12:20-28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 (12:29-13:18) 12:29-31 12:32	신명기 법전 (12:1-26:15)  12:1  예배의 장소  12:2-3 12:4-7 12:8-12 희생 규제 12:13-14 12:15-16 12:17-19 12:20-28  가나안의 이교적 숭배에 대항하여 12:29-13:1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서론

- 가. 이 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세속적인 삶과 거룩한 삶을 포함한 매일의 삶으로 십계명을 확대해 나간다(즉, 12-26 장). 히타이트 조약의 개요를 따르다면 (1) 4:1-11:32 은 기본적인 율법이고 (2) 12:1-26:19 은 기본적인 율법의 특성을 확장하고 설명한다.

학자들은 모세오경을 네 개의 “법전”으로 묘사했다.

1. 언약의 책, 출 20:22-23:33
2. 제사법전, 출 25-31; 34:29 에서 레 16 장까지
3. 정결규례, 레 17-26 장
4. 신명기 법전, 신 12-26, 28 장

위 목록은 율리우스 벨하우젠(성경에의 접근, 13 쪽을 보라)과 모세오경에 대한 자료비평접근(즉, J=야웨; E=하나님; D=신명기; P=제사장적 기록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주전 2000 년에서 1000 년사이에 해당하는 것(참조, R. K. 해리슨, 구약의 시대와 존 H. 왈튼, 그것의 문화적 배경에서의 고대 이스라엘 문학)으로 보지 않는다.

- 나. 이 장은 신명기의 저작시기에 대한 논쟁을 고조에 달하게 만든 장이다. 이 논쟁의 핵심은 1-7 절에 있는 하나의 중앙화된 제단(후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

- 다. 이 본문은 두 시기와 목적에 관련이 있어 보인다: (1) 광야에서(즉, 성막) (2) 약속의 땅에서. 모든 율법의 목적은 합당한 장소, 동기, 형식으로 야웨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우상숭배와 그것의 예배장소는 거부된다. 이 긴장은 합법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예배장소와(출 20:24; 신 16:21) 이스라엘 중앙의 한 예배장소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에 있는 예배장소와 또한 특별한 단들(참조, 신 27 장)이 허락되었지만(즉, 왕상 3:3-5), 법례, 성막, 그리고 그 이후의 성전이 강조되고 있다.

- 라. 역사적으로 신명기의 저작(즉, 주전 621 년, 참조, 왕하 18:22; 대하 23:12; 사 36:7)에 대한 역사적 배경으로 가정되어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요시아의 개혁보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중앙의 한 예배장소에 대해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진다. 요시아의 개혁은 중앙의 한 예배장소보다는 우상숭배를 우선적으로 다루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모세오경 자료비평의 JEDP 이론을 거부한다(참조, 조쉬 맥도웰, 평결을 요구하는 더 많은 증거들).

##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12:1-7

<sup>1</sup>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sup>2</sup>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sup>3</sup>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멸하라 <sup>4</sup>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이처럼 행하지 말고 <sup>5</sup>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sup>6</sup>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sup>7</sup>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2:1** “규례와 법도” 4:1의 특별주제를 보라.

■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이것은 하나의 동사 “지켜 보다”(BDB 10363, KB 158, 칼 미완료형)와 칼 부정사 연계형(BDB 793, KB 889)의 결합이다. 이것은 반복되는 주제이다(예, 출 23:13, 21; 34:11-12; 레 18:4-5, 26, 30; 신 4:6, 9, 15, 23, 40; 특별히 신명기와 지혜서에 매우 빈번하게 나온다).

■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이 동사는 이루어진 행동을 말하지만(BDB 678, KB 733, 칼 완료형),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다. 이것은 확실성을 나타내는 히브리식 방법이다(즉, 예언적 완료). 이것은 신명기의 주제를 되풀이한다(참조, 1:8, 20, 21, 25, 35, 36, 39; 2:29; 3:18, 20; 4:1, 21, 38, 40; 5:16, 31; 6:10, 23; 7:13, 16; 8:10; 9:6, 23; 10:11; 11:9, 17, 21, 31; 12:1, 9; 15:4; 17:14; 18:9; 19:1, 2, 8, 14; 21:23; 24:4; 25:15, 19; 26:1, 2, 3, 6, 9, 10, 15; 27:3; 28:8, 11, 52; 31:7; 32:49; 34:4).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은혜로운 선택과 공급하심을 보여준다.

■ “차지하게 하신” 이 동사(BDB 439, KB 441, 칼 부정사 연계형)는 반복되는 약속이다. 8:1의 특별주제: 그 땅을 차지하라를 보라.

■ “지상에서(땅에서)” “지상에서”는 “땅에서”의 또 다른 표현이다(참조, 19 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다. 4:40의 설명을 보라.

이 절에는 “땅”에 대한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있다.

1. “땅에서” – BDB 75

2. “지구에서” – BDB 9

이것들은 전체 지구나 가나안 땅을 의미한다. 그 둘은 일반적으로 동의어이다(참조, 4:38-40; 11:8-9; 12:1; 26:2, 15).

**12:2**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마땅히 파멸하며”는 “멸망시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다(BDB 1, KB 2, 격렬함을 나타내는 피엘 부정사 절대형과 피엘 미완료형, 참조, 3 절; 민 33:52[두 번]; 왕하 21:3).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 풍요 숭배를 하지 않도록 이방인의 단을 파멸할 것을 훈계하셨다(참조, 출 23:24; 34:13).

■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이 장소들은 풍요의 의식을 위해 각 지역에 세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있었던 곳이다(참조, 램 2:20; 3:2, 6; 17:2; 사 57:5, 7; 호 4:13).

**12:3** “주상”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가나안인의 풍요 숭배에 대해 이스라엘이 취해야만 하는 태도

이 절은 바알 숭배에 대한 여러 의식의 종류와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어떻게 파멸해야 하는지를 열거하고 있다.

1. “그 제단을 헐며”

ㄱ. 동사(헐며), BDB 683, KB 736, 피엘 완료형, 참조, 신 7:5; 대하 31:3; 34:4

ㄴ. 종류, “제단,” BDB 258, 바알의 제단은 다듬은 돌단 위에 돌(기둥)을 올려놓고, 또 구멍이 있어 거기에 나무를 심거나 조각한 말뚝(아세라)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한 것

2. “주상을 깨트리며”

ㄱ. 동사(깨트리며), BDB 990, KB 1402, 피엘 완료형, 참조, 신 7:5; 왕하 3:2; 10:27

ㄴ. 종류, “주상,” BDB 663. 다산의 남성신에 대한 상징으로 남근모양으로 높이 세운 돌들이었다(참조, 16:22)

3.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 ㄱ. 동사(불사르고), BDB 976, KB 1358, 칼 미완료형, 참조, 신 7:5; 대하 31:3; 34:4; 그것들을 “빵아 가루로 만들었다.”
  - ㄴ. 종류, “아세라 상,” BDB 81. 이것은 생명의 나무를 상징했다. 아세라(참조, ABD, 제 1 권, 483-87 쪽, 심지어 우가릿의 시가서에서, 아나쓰는 바알의 배우자였다, 참조, ABD, 제 1 권, 225-27 쪽)는 바알의 여성 배우자였다. 이것은 살아있는 나무이거나 곡선이 있는 말뚝이었을 것이다.
4.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 ㄱ. 동사(찍어), BDB 154, KB 180, 피엘 미완료형, 참조, 신 7:5; 대하 14:2; 31:1; 34:4, 7
  - ㄴ. 종류, “그 조각한 신상,” BDB 820 과 43. 신 7:5; 대하 34:7 은 아세라 상과 신상들을 구별한다.
5.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멸하라”
  - ㄱ. 동사(멸하라), BDB 1, KB 2, 피엘 완료형, 참조, 신 12:2(두 번)
  - ㄴ. 종류, “이름,” BDB 1027. 이것은 지금 파괴되어 그들의 이름이 멸망당한 그 장소의 주인인 신의 이름을 나타낸다. 지금 이름/예배장소를 가진 분은 바로 야웨의 이름이다(참조, 신 12:5, 11).

**12:5**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택하신 곳” 하나님은 예배 장소(참조, 출 20:24)를 택하셨다(BDB 103, KB 119, 칼 미완료형, 참조, 11, 14, 18, 21, 26 절; 14:25; 15:20; 16:2, 6, 11, 15; 17:8, 10; 18:6; 26:2; 31:11).

성막(법궤)은 이스라엘과 같이 움직였다:

1. 길갈, 수 4:19; 10:6, 15
2. 세겜, 수 8:33
3. 실로, 수 18:1; 삿 18:31; 삼상 1:3
4. 벧엘, (가능한 구절) 삿 20:18, 26-28; 21:2
5. 기럇여아림, 법궤, 삼상 6:21; 7:1-2(놋에 있던 제사장들, 참조, 삼상 21-22 장)
6. 예루살렘
  - ㄱ. 다윗이 여부스 성을 빼앗다(참조, 삼상 5:1-10)
  - ㄴ.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가져오다(참조, 삼하 6 장)
  - ㄷ. 다윗이 성전장소를 사다(삼하 24:15-25; 대하 3:1)

많은 현대학자들은 신명기가 이스라엘 예배의 중앙화에 대한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개혁에 맞추기 위해 나중에 쓰였다고 주장하려고 한다. 하지만 신명기는 야웨가 고르실 특별한 장소로서 예루살렘을 지명하지 않는다. 문맥에서의 신학적인 대조는 다음과 같다:

1. 각 지역의 바알 신당과 이스라엘의 하나의 성소
2. 이스라엘의 유일신주의 대 가나안(그리고 고대근동의 다른 지역)의 다신주의



NASB	“그의 거하심을 위해 거기에 그의 이름을 세우시려고”
NKJV	“그의 거주지에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NRSV	“그의 이름을 거기 두실 그의 거주지로서”
TEV	“사람들이 그의 임재 안으로 와야 하는 곳”
NJB	“그의 이름을 두시고 그의 이름이 거할 곳인 장소”



11 절은 이 절을 번역하는데 영향을 준다. 11 절은 “두시려고”(BDB 1014, KB 1496, 피엘 부정사 연계형)가 있는 반면, 5 절은 “그 게실 곳”(BDB 1015)으로 쓰였다. 의미상으로 그것들은 매우 유사하며 신학적 차이나 언외의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 나타냈다. 이것은 초기에 나타난 성막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이다.

#### 특별주제: 야웨라는 “이름”

야웨 자신을 대신해서 사용한 “이름”은 출 23:20-33 에 있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라고 불리는 “사자”의 사용과 평행을 이룬다. 이와 같은 대치는 “그의 영광”(예, 요 1:14; 17:22)의 사용에서 보여진다. 모든 것은 야웨의 직접적이고 신인동형적 임재를 부드럽게 나타내기 위한 시도이다(참조, 3:13-16; 6:3). 야웨는 분명히 인간의 말로 말씀하셨고, 그가 창조물을 통해 영적으로 임재하신 것 역시 사실이다(참조, 왕상 8:27; 시 139:7-16; 렘 23:24; 행 7:49 은 사 66:1 을 인용한다).

야웨의 신적 본질과 인격적 임재를 나타내는 “이름”을 사용한 여러 예가 있다:

1. 신 12:5; 삼하 7:13; 왕상 9:3; 11:36
2. 신 28:58
3. 시 5:11; 7:17; 9:10; 33:21; 68:4; 91:14; 103:1; 105:3; 145:21
4. 사 48:9; 56:6
5. 겔 20:44; 36:21; 39:7
6. 암 2:7
7. 요 17:6, 11, 26

야웨의 이름을 “부르는”(즉, 예배하는) 개념은 이른 시기의 창세기에서 보여진다:

1. 4:26, 셋의 가계
2. 12:8, 아브라함
3. 13:4, 아브라함
4. 16:13, 하갈
5. 21:33, 아브라함
6. 26:25, 이삭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1. 5:23,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다
2. 9:16, 온 땅에 나의 이름을 나타내라(참조, 롬 9:17)
3. 20:7,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참조, 레 19:12; 신 5:11; 6:13; 10:20)
4. 20:24,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참조, 신 12:5; 26:2)
5. 23:20-21, 천사(“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6. 34:5-7, 모세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다(또는 “소리쳐 부르다”). 이것은 야웨의 성품을 묘사하는 본문들 중의 하나이다(참조, 느 9:17; 시 103:8; 욥 2:13).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아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한다(참조, 출 33:12). 모세는 여호와와 이름을 알고, 33:17 에서 여호와는 모세의 이름을 알았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문맥(참조, 18 절)이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그의 “이름”과 평행을 이루는(19 절) “그의 선하심”을 보도록 허락하신다(19 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신의 “이름”을 파괴해야 하고(참조, 신 12:3)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한 특별한 장소(참조, 출 20:24; 신 12:5, 11, 21; 14:23, 24; 16:2, 6, 11; 26:2) 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야만 한다(참조, 신 6:13; 10:20; 26:2).

야웨는 그의 이름과 관련하여 우주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창 12:3
2. 출 9:16
3. 출 19: 5-6
4. 신 28:10, 58
5. 미 4:1-5

**12:6** 이 절은 여러 가지 종류의 헌물:

1. “번제” 이것은 헌물 전체를 태우는 것을 말한다(BDB 750 II). 이것은 하나님께 전체를 완전하게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것은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이다(참조, 레 1 장).
2. “제물” 이것은 부분적으로 태우고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헌물이다(BDB 257). 이것에는 속죄제, 화목제, 감사제 등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피가 포함된 제사이다(참조, 레 7 장).
3. “십일조” 십일조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제사장들을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방법이었다. 두 가지의 십일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BDB 798):
  - ㄱ. 중앙의 성소를 위해
  - ㄴ. 각 지역의 레위인을 위해, 또 다른 가능성은
  - ㄷ. 매 삼년마다 각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레 27:30-37; 민 19:21-22)
4. “너희 손의 거제와” 이것은 히브리어로 “거제”(BDB 929, 참조, 레 7:32)이다. 이것은 동물에서 제사장들이 먹을 부분을 취하여 들어올리는 제사를 말한다.
5. “서원제” 이것은(BDB 623) 하나님께 하는 조건적인 서원의 예로서, “만일 당신이 그것을 하신다면 나는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서원을 지켰다(레 7:16-18).
6. “낙헌 예물” 이것은(BDB 621) 하나님의 선하심에 깊이 감동된 사람이 감사와 찬송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참조, 22:18 이하).
7. “처음 난 것” 이것은(BDB 114) 이집트에서 죽음의 천사가 가축이나 사람의 처음 난 것을 죽인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관점에서 모든 가축과 사람의 첫 태생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속해있다(참조, 출 13 장; 레 27:26-27)!

**12:7**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이것은 유월절과 성만찬의 신학적 전조인 교제의 식사를 의미한다(참조, 12, 18 절; 14:26; 계 3:20).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조된 세계와 예배의 친밀함(참조, 레 23:40; 민 10:10; 신 12:7, 12, 18; 14:26; 16:11; 26:11; 27:7; 28:47)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도록 창조되었다(BDB 970, KB 1333, 칼 완료형).

#### 개역개정 12:8-12

<sup>8</sup>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sup>9</sup>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sup>10</sup>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sup>11</sup>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sup>12</sup>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12:8**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런 일들이 약속의 땅에서 동일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 특별히 나중에 예루살렘에 위치하게 되는 성전에서의 조직화된 종교행위보다 광야생활 중의 종교 행위가 더 단순했다.

▣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여기서 이 구절은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사기에서는 악한 선택과 언약의 무시를 통해 언약의 책임을 개인이 남용하는 나쁜 의미를 나타낸다(참조, 17:6; 21:25).

**12:9** 12:1의 설명을 보라.

**12:10**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평안히” 야웨는 당신에게 적으로부터의 안식(BDB 628, KB 679, 히필 완료형)을 주신다. 평안함(BDB 442, KB 444, 칼 완료형)은 이스라엘의 큰 군대의 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야웨의 임재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12:11**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 이것은 실로에 처음있었던 중앙화 된 예배장소(즉, 성막, 법궤, 참조, 5, 13 절)를 의미한다.

**12:12** “즐거워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다(참조, 7, 18 절; 14:26; 28:47).

▣ “너희와” 노비와 성중의 레위인들을 포함하여 가족 모두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는지 주목하라! 이 점에서 이것은 확장된 가족의 일원을 말한다. 그들은 사랑했고 생활 필수품과 계속되는 삶(즉, 예배)의 기회를 공급했다.

**12:12, 19**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 모든 제사장들은 레위인이었지만,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은 아니었다. 여기의 “레위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로써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의 가족을 의미한다(참조, 18, 19 절; 14:27, 29; 16:11, 14; 26:12-13). 그 이유는 레위인에게 어느 땅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역의 율법선생으로 존경을 받았다.

#### 개역개정 12:13-14

<sup>13</sup>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sup>14</sup>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2:13**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번제할 특별한 장소를 보이실 것이다(참조, 5, 11, 14 절). 지역에 이미 있다고 각 곳에 널려있는 가나안인들의 제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알을 위해 세워진 제단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몇몇 지역에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단이 있었다(참조, 신 16:21: 왕상 3:4).

이 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있다:

1. “삼가라” - BDB 1036, KB 1581, 니팔 명령
2. “드리지 말라” - BDB 748, KB 828, 히필 미완료형
3. “보다” - BDB 906, KB 1157, 칼 미완료형

#### 개역개정 12:15-19

<sup>15</sup>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sup>16</sup>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sup>17</sup>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sup>18</sup>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sup>19</sup>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12:15, 20-24 “가축을 잡아”** 이것은 확장된 율법을 보여준다(참조, 레 17:1 이하). 제물로서가 아니라 음식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일(BDB 256, KB 261, 칼 미완료형)이라면 아무 곳에서나 동물을 죽일 수 있었다.

**12:15 “정한 자나 부정한 자”** 이것은 음식에 관한 부정한 동물(참조, 20-22 절; 레 11 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에 관한 부정을 말하는 것이다. 돼지같은 짐승은 먹지 못하지만 사슴같은 들짐승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흠이 있는 양도 사람이 먹을 수 있었다.

**12:16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이것은 생명의 상징으로 히브리인들이 피를 귀히 여긴 것과 관계된다. 심지어 음식을 위해서나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죽일 때 그들은 피를 부어버렸고(참조, 15:23; 레 17:13) 그것을 먹지 않았는데 그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피는 생명을 대표했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참조, 23-25 절; 창 9:4; 레 7:11-12; 17:10-11)!

**12:17-18** 이것은 예배를 위해 중앙의 성소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경고이다(참조, 26 절).

**12:17 “십일조”** 이 절은 십일조를 드려야 되는 것들에 대한 목록이다(BDB 798 참조, 14:23; 18:4; 신 18:12):

1. “곡식” - BDB 186
  2. “포도주” - BDB 440
  3. “기름” - BDB 850
- 이것은 농경사회였다.

**12:19** 12 절의 설명을 보라.

#### 개역개정 12:20-28

<sup>20</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sup>21</sup>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sup>22</sup>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sup>23</sup>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sup>24</sup>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으라 <sup>25</sup>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sup>26</sup>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sup>27</sup>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sup>28</sup>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12:20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이 동사(BDB 37, KB 46)는 세 번 반복된다:

1. 칼 청유형
2. 칼 부정사 연계형
3. 칼 미완료형

만일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고기를 먹기 원하면 그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해야한다:

1. 올바른 종류의 고기(17, 22 절)
2. 바른 장소에서 죽여야 했다(15, 18, 21, 27 절)
3. 바른 방법으로 죽여야 했다(16, 23-25 절)

**12:23 “삼가서”** 이 동사(BDB 304, KB 302, 칼 명령)는 어떤 것을 엄격하게 금하다(참조, 대상 28:7)라는 뜻에서 “강하라”(참조, 31:6, 7, 23)는 의미이다.

**12:26 “성물”** 이것은 17 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12:28 “지키라”** 이 동사(BDB 1036, KB 1581, 칼 명령)는 야웨의 언약에 순종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참조, 4:9, 14, 23; 6:12; 8:11; 11:16; 12:13, 19, 28, 30; 15:9; 24:8).

■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여기의 동사(BDB 405, KB 408, 칼 미완료형)는 신명기(참조, 4:40; 5:16, 29, 33; 6:3, 18; 12:25, 28; 22:7)와 예레미야(참조, 7:23; 38:20; 42:6)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 이것은 야웨의 백성이 누릴 복되고 행복하며 유익한 인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언약을 순종하는 것은 땅에서 복되고 장수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러한 완전한 순종이 후손들에게 계승되도록 권고되고 있다(즉, 영원히). 4:40의 특별주제: 영원히(올람)를 보라.

■ “선과 의를 행하면”

1. “선” BDB 373 II

ㄱ. 하나님이 보시기에, 6:18; 13:18; 대하 14:2

ㄴ. 사람이 보기에, 수 9:25; 삿 19:24; 렘 26:14

2. “의” BDB 449, 위와 동일하고 또한 신 12:25; 13:18; 왕상 11:38; 14:8; 15:11; 22:43; 왕하

12:2(1 번의 ㄴ 항과 평행을 이루는 것에 대해 12:8 을 보라).

#### 개역개정 12:29-31

<sup>29</sup>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sup>30</sup>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sup>31</sup>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12:29 “여호와께서...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여기의 동사(BDB 503, KB 500, 히필 미완료형)는 야웨께서 그 민족들을 죽이심으로 그들을 제거하신다는 의미이다(참조, 19:1; 수 23:4; 삼하 7:9; 렘 44:8).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야웨가 싸우고 계심을 가리킨다.

**12:30 “삼가”** 28 절을 보라.

■ “올무에 걸리지 말라” 여기의 동사(BDB 669, KB 723, 니팔 미완료형)는 칼 동사형에서 문자적으로 “스스로 얽히다”(참조, 시 9:16)라는 뜻이다. 여기서만 사용된 니팔형은 “과녁에 막대를 던지다”란 의미의 은유적 확장이다

■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마라” 이 동사(BDB 205, KB 233, 칼 미완료형)는 “탐구하다”라는 의미이다:

1. 야웨, 12:5; 4:29; 램 10:21; 29:13
2. 가나안인의 신들, 12:30; 대하 25:15, 20; 램 8:2

**12:31**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혐오스러운 풍요숭배의식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가나안인들에게 했던 것처럼(참조, 창 15:16-21)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옮기실 것이라고 야웨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참조, 7:4; 레 18:24-30). 야웨는 우상숭배를(참조, 12:31; 16:22; 2:15 의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신인동형론적 표현]을 보라) “몹시 미워하신다”(BDB 971, KB 1338, 칼 완료형).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몰렉**

야웨는, 몰렉(BDB 574)의 예배와 풍요를 염원하기 위해 공동사회의 모든 장자를 희생제물로서 예배드렸던 가나안의 (암몬)불의 신에게 대한 예배를 금지하셨다. 그 신의 이름 (이스라엘인들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서)이 히브리어말로 자음은 “왕”과 같으나 “부끄러움”이라는 모음을 넣어 불렀다. 이스라엘은 이 신들에 대해 일찍부터 그리고 자주 경고를 받았다(참조, 레 18:21; 20:2, 3, 4, 5; 왕상 11:7; 왕하 23:10; 램 32:35; 미 6:7). 이런 예배는 자주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이란 구절로 불려졌다(참조, 12:31; 18:10; 왕하 16:3; 17:17, 31; 21:6; 시 106:37; 램 7:31; 19:5).

**개역개정 12:32**

<sup>32</sup>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12:32** “너희는...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신다(4:2 의 설명을 보라). 그러나 신명기는 사막 생활 중 율법에 얼마간의 조정이 있었음을 보인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모든 새 시대와 새 문화에 그대로 적용해야만 한다. 독특한 시간에 독특한 문화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 중 어떤 것은 오직 그때와 그 사람들에게만 관계되지만(예, 거룩한 전쟁, 일부 다처제도, 노예제도, 여자의 종속), 대부분은 모든 시대에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진리이다(영원과 문화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위해 피와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읽을 것인가, 149-164 쪽과 고든 피의 복음과 성령, 1-36 쪽을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중앙화된 예배장소를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2. 율법이 일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3. 히브리인들에게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4. 이 규정들이 왜 그렇게 세분화되었는가?

# 신명기 1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배교자에 대한 징계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 (12:32-13:19)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 (12:29-13:18) 12:32-13:5	가나안 종교에 대항하여 (12:29-13:1)
13:1-5	13:1-5		우상숭배의 유혹에 대항하여 13:2-6
13:6-11	13:6-11	13:6-11	13:7-12
13:12-18	13:12-18	13:12-18	13:13-19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배경연구

- 가. 이것은 해석하고 이해하기에 어려운 구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다.
- 나. 이 장은 일상의 삶은 물론 종교적인 모든 경우에서 우상숭배를 대항하는 논쟁이다.
  1. 1-5 절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한다(참조, 18:20).
  2. 6-11 절은 가족의 다른 일원을 우상숭배로 끌어들리려는 가족의 일원에 대해 말한다.
  3. 16-18 절은 우상숭배를 포용하는 전체 도시나 공동체에 대해 말한다(참조, 29:18).
- 다. 구약에서 선지자와 꿈 꾸는 자 사이에 구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은 깨어 있고 자신의 정신적인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 경험되어진다. 그발 강가의 에스겔은 이상을 본 사람의 예이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한 사람의 예이다. 두 계시 모두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다. 오늘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상이나 꿈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둘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13:1-5

<sup>1</sup>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 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sup>2</sup>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sup>3</sup>너는 그 선지자나 꿈 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sup>4</sup>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sup>5</sup>그런 선지자나 꿈 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찢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13:1**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모든 사람의 주장을 다 믿을 수는 없다.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시험해보아야 한다(참조, 신 18:20-22; 마 7 장; 24:24; 요일 4:1-6; 뱀후 3:15-16).

**13:1, 3** “선지자”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구약의 예언

#### I. 서론

##### 가. 들어가는 말

1.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예언을 해석할 것인가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다. 예언 이외의 다른 진리들은 수 세기를 거치면서 정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2. 잘 정의된 구약 예언의 여러 단계가 있다:

##### ㄱ. 왕정 이전:

##### (1) 선지자로 불린 사람들

(ㄱ) 아브라함 – 창 20:7

(ㄴ) 모세 – 민 12:6-8; 신 18:15; 34:10

(ㄷ) 아론 – 출 7:1(모세의 대언자)

(ㄹ) 미리암 – 출 15:20

(ㅁ) 메닷과 엘닷 – 민 11:24-30

(ㅂ) 데보라 – 삿 4:4

(ㅅ) 무명 – 삿 6:7-10

(ㅇ) 사무엘 – 삼상 3:20

(2) 무리로서의 선지자 – 신 13:1-5; 18:20-22

(3) 선지자의 무리나 조합 – 삼상 10:5-13; 19:20; 왕상 20:35, 41; 22:6, 10-13; 왕하 2:3, 7; 4:1, 38; 5:22; 6:1 등

(4) 선지자로 불린 메시아 – 신 18:15-18

##### ㄴ. 책을 남기지 않은 왕정시대의 선지자들(그들은 왕들에게 말했다):

(1) 갓 – 삼상 22:5; 삼하 24:11; 대상 29:29



- (2) 나단 - 삼하 7:2; 12:25; 왕상 1:22
- (3) 아히야 - 왕상 11:29
- (4) 예후 - 왕상 16:1, 7, 12
- (5) 무명 - 왕상 18:4, 13; 20:13, 22
- (6) 엘리야 - 왕상 18 장-왕하 2 장
- (7) 미가야 - 왕상 22 장
- (8) 엘리사 - 왕하 2:8, 13

ㄷ. 책을 남긴 전통적인 선지자들(그들은 왕은 물론 나라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사야-말라기(다니엘은 예외)

#### 나. 성경적 용어

1. 로에= “예언자,” 삼상 9:9. 이 용어 자체는 나비라는 단어를 해석한 것이다. 로에는 “보다”를 뜻하는 일반적 용어에서 왔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이해했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 위해 그를 찾아 갔다.
2. 호제= “예언자,” 삼하 24:11. 이것은 기본적으로 로에의 동의어이다. 이것은 “보다”를 뜻하는 말로서 드물게 사용된 용어에서 왔다.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이 동사의 분사형태가 자주 사용되었다(즉, “보는 자”).
3. 나비= “선지자,”는 아카디아어의 동사 나부= “부르다”와 아라비아어 나바아= “알리다”와 같은 어근을 가진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이다. 이것은 300 번 이상 사용되었다. 이것의 정확한 어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의 “부르다”가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여진다. 아마 가장 적당한 이해는 아론을 통한 모세와 바로의 관계에 대한 야웨의 설명일 것이다(참조, 출 4:10-16; 7:1; 신 5:5).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암 3:8; 렘 1:7, 17; 겔 3:4).
4. 대상 29:29 에서 선지자직을 말하는 세 가지 용어가 모두 사용되었다; 사무엘 - 로에; 나단 - 나비; 갓 - 호제.
5. 이스 하 -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란 구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넓은 의미의 말이다. 이것은 “선지자”라는 의미로 구약에서 76 번 사용되었다.
6. “선지자”라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에서 유래되었다. 이것은: (1) 프로 = “앞에” 또는 “위해서” (2) 페미 = “말하다”에서 왔다.

#### II. 예언의 정의

- 가. “예언”이란 용어는 영어보다 히브리어에서 넓은 의미의 범위를 가진다.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에서 열왕기 상하에 이르는 역사서를 “전기 예언서”로 부른다. 아브라함(창 20:7; 시 105:5)과 모세(신 18:18)는 선지자로서 불린다(또한 미리암, 출 15:20). 그러므로 영어에서 가정되는 정의를 조심하라!
- 나. “선지주의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참여의 관점에서 역사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주의로 정의할 수 있다,” 해석가의 성경사전, 제 3 권, 896 쪽.
- 다. “선지자는 철학자나 조직 신학자가 아니라 언약의 중재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전하여 그들의 현재 삶을 개혁하여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도왔다,” “선지자와 예언,” 유다이카 백과사전, 제 13 권 1152 쪽.

#### III. 예언의 목적

- 가.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서, 그의 백성이 처한 상황에서의 안내와, 그들의 삶과 세상의 사건에 하나님이 주장하심에 대한 희망을

공급한다. 그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협력적이다. 그것은 꾸짖고, 격려하고, 믿음과 회개를 야기시키며, 하나님 자신과 그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언약에 충실하도록 유지한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대변자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예언이 종종 사용된 점도 함께 기억해야만 한다(신 13:1-3; 18:20-22).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메시아를 가리킬 것이다.

- 나. 선지자는 자주 자신의 시대의 역사적 신학적 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종말론적 상황으로 나타냈다. 이스라엘에서 역사에 대한 마지막 때의 관점은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적 약속에 대한 의미에서 독특하다.
- 다.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서 대제사장직과 균형을 이루고(렘 18:18) 그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림과 둠림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부터의 구두 메시지로 능가했다. 또한 선지자직은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400 년 후의 침례(세례)요한이 있기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신약에서의 “예언”의 은사가 구약에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신약의 예언자들(행 11:27-28; 13:1; 14:29, 32, 37; 15:32; 고전 12:10, 28-29; 엡 4:11)은 새로운 계시나 성경의 계시자들은 아니지만 언약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나 예언하는 사람이었다.
- 라. 예언은 본질상 전적 혹은 우선적으로 예언하는 것은 아니다. 예언은 그의 직분과 메시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구약에서 예언의 2%도 안되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다. 새 언약시대를 특별히 묘사하는 것이 5%도 안된다. 아직 오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관계된 것이 1%도 안된다.”는 것을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피와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읽을 것인가, 166 쪽)
- 마.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한다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진술이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하박국은 예외이다.
- 바. 선지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어떻게 그들의 책이 만들어 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연대순으로 되어있지 않다. 그것들은 주제별로 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상하는 것처럼 항상 그렇지는 않다. 종종 거기에는 분명하지 않은 역사적 배경과 시간의 틀 또는 예언 사이의 분명한 구분이 없다. 이러한 책들은 (1) 한 배경을 가지고 전체를 읽는 것 (2) 주제를 따라 개요를 말하는 것 (3) 각 예언의 중심 진리나 저자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이 어렵다.

#### IV. 예언의 특징들

- 가. 구약에서 “선지자”와 “예언”의 개념이 발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초기 이스라엘에서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강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아래서 선지자들의 교체가 발전했다. 때때로 “선지자의 아들들”이란 구절이 이런 무리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왕하 2 장). 선지자들은 황홀상태로 특징지어졌다(삼상 10:10-13; 19:18-24).
- 나. 그러나 이런 시대는 개인 선지자들의 시대로 빠르게 바뀌었다. 왕에게 인정받고 왕궁에서 살았던 선지자들(참 또는 거짓의)이 있었다(갓, 나단). 또한 독립적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때때로 이스라엘인의 사회와는 전혀 관계없이 지낸 선지자도 있었다(아모스). 선지자들은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다(왕하 22:14).
- 다. 선지자는 종종 사람의 즉각적인 반응에 따라 영향받는 미래를 드러내는 자였다. 선지자의 임무는 종종 인간의 반응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우주적 종말론적 계획은 고대근동의 예언에서 독특하다. 선지적 메시지의 두 가지 초점은 예언과 언약에 대한 충성이다(참조, 피와 스튜어트, 150 쪽). 이것은 선지자가 우선적으로 협응에 초점을 둔 것을 의미한다. 보통 그들은 배타적이지 않게 민족들에게 말했다.
- 라. 대부분의 예언은 구술로 표현되었다. 예언은 후에 주제, 연대기, 혹은 우리에게

알려져있지 않은 고대근동문학의 다른 방법으로 결합되었다. 그것이 구두로 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글처럼 구조화되지는 않았다. 이 점은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알지 않고 예언서를 죽 읽거나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마. 선지자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1. 법정 장면 -야웨께서 종종 그의 아내(이스라엘)의 불성실함 때문에(호 4 장; 미 6 장) 그녀를 거부하는 이혼소송의 장소인 법정으로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신다.
2. 장례식 애가 - 이런 종류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특징인 “슬프도다”와 같은 특별한 운율은 이 애가들을 특별한 형태로 분리한다(사 5 장; 합 2 장).
3. 언약적 축복의 선언 - 언약의 조건적 본질이 강조되었고, 미래에 나타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가 자세하게 설명되었다(신 27-28 장).

#### V. 예언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들

가. 역사적 배경과 각 예언에 대한 문학적 문맥을 주의해 보면서 원 선지자(편집자)의 의도를 발견하라. 보통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모세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말할 것이다.

나. 부분이 아닌 전체 예언을 읽고 해석하라; 내용의 개요를 말하라. 그것이 다른 예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라. 전체 책의 개요를 만들라.

다. 그 본문 자체에서 어떤 것이 비유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해질 때까지 그 구절의 문자적 해석을 하라; 그 다음에는 비유적인 표현을 산문으로 나타내라.

라. 역사적 배경과 평행 구절에 비추어 상징적인 활동을 분석하라. 고대근동문학은 서양문학이나 현대문학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라.

마. 조심스럽게 예언을 다루라:

1. 그것이 저자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인가?
2.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제로 성취되었는가?
3.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인가?
4. 그것이 그 시대에 성취되었지만 미래에도 성취될 것인가?
5. 현대 저자가 아닌 성경의 저자가 당신의 답을 이끌게 하라.

바. 특별한 고려점들

1. 어떤 조건에서만 그 예언은 적합한가?
2. 누구에 대한 예언인지(그리고 왜 이 예언을 주는지) 확실한가?
3. 이 성취가 성경과/또는 역사에서 여러 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4. 영감받은 신약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지만 구약의 여러 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모형론이나 언어유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영감받지 않았으므로 그것들에 이러한 방법을 피하는 것이 좋다.

#### VI. 도움이 되는 책들

가. 성경적 예언의 안내, 칼 E. 아멘딩과 W. 와드 바스큐

나.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읽을 것인가,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

다. 나의 종인 선지자, 에드워드 J. 영

라. 보습과 낮: 성경적 예언과 계시에 대한 표현의 재고찰, D. 브랜트 샌디

마. 새 국제 구약신학과 석의사전, 제 4 권, 1067-1078 쪽

NASB, NKJV,

NJB

NRSV

TEV

“꿈 꾸는 자”

“꿈으로 예언하는 자들”

“꿈의 해석자들”

이 단어는 동사(BDB 321, 칼 능동분사)와 복수형 명사(BDB 321)로 구성되어 있다. 점술(참조, 18:14-15)이나, 신/신들의 뜻을 이해하고, 미리 알고, 또는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신의 뜻을 아는 여러 방법이 있었다:

1. 꿈/황홀상태(정신적 상태)
2. 제비, 막대기(사람이 만든 품목)
3. 구름/ 폭풍우/가뭄(기후)
4. 새(나는 모습과 그 형태)
5. 하늘의 사건(별자리의 이동, 혜성, 일식, 월식 등)
6. 양의 간의 상태(다른 희생제물들)

**13:1, 2** “이적” 성경에서 “이적”이란 단어(BDB 16)는 이미 예언되었던 어떤 것이 성취된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신명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된다:

1. 이집트에서 야웨가 모세를 통해 바로를 강요하여 이스라엘을 떠나 가도록 만들었던 기적/재난, 4:34; 6:22; 7:18-19; 11:3; 26:8; 29:2-3; 34:11.
2. 성경 구절이 들어있던 작은 상자, 6:8; 11:8
  - ㄱ. 왼팔에
  - ㄴ. 이마에
  - ㄷ. 문설주에
3. 야웨에게만 드려야 할 예배로부터 이스라엘을 멀어지게 만든 거짓선지자의 기적/예언, 13:1-2
4.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야웨의 심판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미래에 대한 경고로서 작용할 것이다, 28:46.

▣ “기사” “기사”는 목격자 앞에서 기적적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종종 “이적”과 나란히 사용된다.

**13:2**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자동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참조, 출 7:11, 22; 마 24:24; 살후 2:9). 이것은 또한 정확한 예언을 바탕으로 둔다(참조, 18:22).

만일 신 18:18-19의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시라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시이다(참조, 18:20). 만일 다음과 같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1.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2. 야웨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두 동사는 야웨에게만 드려야 할 예배로부터 이탈을 제안하고 있다:

1. “따라” - BDB 229, KB 246, 칼 청유형. 이것은 반복되는 경고이다, 참조, 6:14; 8:19; 11:28; 13:2, 6, 13; 28:14; 29:18, 26
2. “섬기자” - BDB 712, KB 773, 호팔 미완료형, 청유형의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또한 반복되는 경고이다, 참조, 5:9; 7:4, 16; 8:19; 11:16; 13:2, 6, 13; 17:3; 28:14, 36, 64; 29:18, 26; 30:17; 31:20.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자”라는 구절은 신명기에서만 반복되는 경고가 아니라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신들(너희가 알지 못하던)” 여기에서 제시된 문제는 강한 이적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야웨에게만 드려야 되는 예배에 대한 것이다. 4:35의 특별주제: 알다를 보라.

**13:3** “너는 그 선지자의...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기의 동사(BDB 1033, KB 1570, 칼 미완료형)는 자주 반복되는쉐마이다. 이것은 “듣고 준행하라”는 의미이다. 4:1의 설명을 보라.

■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의 동사(BDB 650, KB 702, 피엘 분사)는 하나님을 믿는 인간의 믿음/신뢰/순종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이나 유혹의 환경에 두시는 진리를 표현한다(참조, 창 22:1-12; 출 15:25; 16:4; 20:20; 신 8:2, 16; 사 2:22; 3:1, 4; 대하 23:31). 심지어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의 거함은 주변적인 믿는 자들로부터 참 신자를 분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악을 사용하신다(참조, 창 3장)!

■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4:29의 설명을 보라. 이것은 전적이고 완전한 헌신에 대한 은유이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헌신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참조, 6:5; 7:9; 10:12; 11:1, 13, 22; 13:3; 19:9; 30:6, 16, 20).

**13:4** 이 절은 칼 미완료형의 연속이다. 이것은 야웨께만 드려야 되는 예배의 지침이다:

1. “따르며,” BDB 229, KB 246, 참조, 8:6
2. “경외하며,” BDB 431, KB 432
3. “지키며,” BDB 1036, KB 1581, 참조, 5:29; 6:2
4. “청종하며,” BDB 1033, KB 1570
5. “섬기며,” BDB 712, KB 773
6. “의지하며,” BDB 179, KB 209

이 절은 6:13; 10:20과 유사하다.

**13:5** “그런 선지자나 꿈 꾸는 자는 죽이라” 신명기 12장에서 분명히 나타난 것처럼 야웨는 그의 예배에 대한 오염을 상관하신다. 만일 구약에서 야웨의 예배가 오염되기 시작했더라면 신약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가 명령한 바 대로 그들이 예배드릴 것을 원하셨다(참조, 4:2; 12:32). 만일 그것이 순전한 예배가 아니라면, 그 결과는 가나안인들과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처럼 죽음이다(참조, 13:5, 9, 15). 유혹은 공동체에 있는 개인에게 가능한 일이었다(참조, 4:19; 13:5, 10).

■ “속량하신” 이 단어(BDB 804, KB 911, 칼 분사)는 노예신분이나 감옥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 지불한 값을 나타낸다. 7:8의 특별주제를 보라.

#### 개역개정 13:6-11

<sup>6</sup>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찢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sup>7</sup>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sup>8</sup>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sup>9</sup>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대라 <sup>10</sup>그는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찢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죽이라 <sup>11</sup>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13:6, 8** “(만일)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아내나...친구” 만일 아주 가까운 사랑하는 자, 친척, 친구가 너희를 다른 신에게 예배하도록 꾀한다면, 충성된 이스라엘인은 공동체가 그들에게 돌을 던지도록 해야만한다(참조, 9-10 절). 이것은 개인이 행할 언약적 책임감의 핵심이다. 이것은 가족을 매우 중요시 하는 문화적 구조에서 과격한 진술이다(참조, 마 10:34-39; 눅 14:25-27).

**13:6**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두 동사 모두 칼 청유형이다:

1. “가서” - BDB 229, KB 246
2. “섬기자” - BDB 712, KB 773

이 동사들은 예배에 대한 은유로서 함께 사용된다.

**13:7** “곧 네 사망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이 본문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구절은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가나안의 북쪽이나 남쪽에 있는 가나안인들의 신들(“지구” = “땅”)
2. 메소포타미아나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방신들(“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3. 태양, 달, 별, 행성, 별자리, 혜성, 유성, 신성, 일식, 월식 등의 별을 섬기는 것에 대한 특별한 경고

**13:8** 이 절은 야웨를 참되게 따르는 자들이 이방신들의 추종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기록한다(부정하는 칼 미완료형의 연속):

1.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 BDB 2, KB 3
2. 너는 그를 듣지 말며 - BDB 1033, KB 1570
3. 공허히 여기지 말며 - BDB 299, KB 298, 참조, 7:2, 16
4. 애석히 여기지 말며 - BDB 328, KB 328, 참조, 삼상 15:3
5. 덮어 숨기지 말고 - BDB 491, KB 487(문자적으로 “덮다”)

3 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을 할 때에 너희의 감정이 영향받지 않도록 하라”는 관용구이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 7:16; 13:8; 19:13, 21; 25:12(참조, NIDOTTE, 제 2 권, 50 쪽).

**13:9**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비록 이 절에서 이것이 돌로 죽이는 방법을 의미하지만(참조, 10 절), MT에는 “돌”이라는 단어가 없다. MT는 동사인 “죽이다,”의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BDB 246, KB 255[즉, “반드시 죽여라”]) 강조를 나타낸다.

그 사람을 본 목격자가 바로 그에게 돌을 먼저 던질 자이다(참조, 10 절; 17:7). 만일 누가 거짓 고소를 했다면 그는 계획적인 살인을 행한 것이다(참조, 5:20).

**13:10** “너는 돌로 쳐죽이라” MT는 문자적으로 “돌들로 그를 돌로 쳐라”의 의미인 “돌로 쳐 죽이라”(BDB 709, KB 768, 칼 미완료형)는 동사와 “돌”(BDB 6)이라는 단어로 되어있다. 돌로 치는 것은 언약의 공동체 전체에 의해 행해지는 사형이었다(참조, 레 20:2, 27; 24:13-23; 민 15:32-36; 신 13:10; 21:21; 수 7:22-26).

이것은 사법적 사형에 대한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다. 이 단어는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악을 정화해야 하는 긴급함을 말한다(참조, 출 32:27; 레 20:15, 16; 민 25:5; 신 13:10; 겔 9:6).

사람들이 공동체에 의하여 돌로 쳐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우상숭배, 레 20:2-5(6-8 절); 신 13:1-5; 17:2-7
2. 신성모독, 레 24:10-23; 왕상 11-14; 눅 4:29; 행 7:58(모두 출 22:28 을 반영한다); 요 8:59; 10:31; 또한 11:8 을 살펴보라
3. 부모의 권위에 대한 거부, 신 21:18-21(레 20:9)
4. 혼인의 불성실, 신 22:22, 23-27(레 20:10-16)
5. 반역(야웨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 7 장

NASB “유혹하려”  
 NKJV “피려”  
 NRSV “너를 돌려 떠나게 하는”  
 TEV “너를 이끌어 떠나게 한”  
 NJB “너를 판데로 돌리려 한”

이것은 “밀다”라는 의미의 동사(BDB 623, KB 673, 히필 부정사 연계형)이다. 거짓 선지자들과(1 절) 명목상 언약의 일원들(6 절)은 믿는 자들이 야웨를 떠나 다른 민족의 신들에게로 가도록 강권하였다. 이 동사(참조, 5, 12 절; 4:19; 왕하 17:21)는 “피다”(BDB 694, KB 749, 히필 미완료형)와 평행을 이룬다.

같은 히브리어 어근이 추방(즉, 흘뿌리는)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것은 흥미롭다.

**13:11** 개인에게 주는 형벌적인 면보다 형벌과 관련된 이유가 더 있다. 반역을 범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하지만(즉, 돌로 쳐 죽임), 처벌의 목격자나 듣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면도 있었다(참조, 17:12-13; 19:15-21; 21:18-21; 롬 13:4).

#### 개역개정 13:12-18

<sup>12</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sup>13</sup>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sup>14</sup>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 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sup>15</sup>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sup>16</sup>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 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sup>17</sup>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공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시니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sup>18</sup>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13:13** “어떤 불량배” 이것은 문자적으로 “벨리알의 아들들”(BDB 116)이라는 뜻이다. 히브리어 단어는 “가치 없는 것” 또는 “아무 쪽에도 쓸모 없는 것”이라는 의미이다(참조, 삿 19:22; 20:13; 삼상 10:27; 30:22; 왕상 21:10, 13; 잠 6:12). 신약시대에 벨리알은 사탄과 동의어이다(참조, 고후 6:15).

■ “유혹하여” 10 절의 설명을 보라.

**13:14** 이 절은 조사를 말하는 동사의 연속이다(모두 칼 완료형):

1. NASB “조사하다”  
 NKJV, NRSV “묻다”  
 NJB “문제를 들여다보다”

이 동사는 BDB 205, KB 233, “조사하다”의 의미이다, 참조, 17:4, 9; 19:18

2. NASB, NKJV “찾아내다”  
 NJB “검사하다”

이 동사는 BDB 350, KB 347, “찾다”의 의미이다, 참조, 시 139:1, 23; 잠 18:17

- |    |      |               |
|----|------|---------------|
| 3. | NASB | “철저히 묻다”      |
|    | NKJV | “부지런히 질문하다”   |
|    | NJB  | “매우 조심스럽게 묻다” |

이것은 BDB 981, KB 1371, 칼 완료형, “묻다”와 BDB 405, KB 408, 히필 부정사 절대형, “철저히,” 참조, 17:4; 19:8 의 결합이다

**13:15** “너는 마땅히...진멸하고” “진멸하다”(BDB 355)는 구절은 “멸망시켜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의미이다. 3:6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만일 유대인들이 다른 신들을 예배한다면 이방인들에게 행한 것과 같은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된다.

### 13:16

- |      |                            |
|------|----------------------------|
| NASB | “그것은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
| NKJV | “그것은 영원히 무더기가 될 것이다”       |
| NRSV | “그것은 영구한 폐허로 남아있을 것이다”     |
| TEV  | “그것은 영원히 폐허로 남아있어야만 한다”    |
| NJB  | “너는 멸망의 저주 아래 그것을 두어야만 한다” |

이 마지막 구절은 히브리식 저주에 대한 관용법이다(즉, 수 8:28; 램 49:2). “영원히”란 개념을 위해 4:40 의 특별주제를 보라.

**13:17** “진멸할” 이것은 “거룩한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히브리 개념이다(BDB 356).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바로 그것이(16-17 절) 여호수아 6-7 장에서 일어난다!

**13:17-18** 생각의 흐름을 주목하라:

1. 우상숭배는 심판받아 마땅하다(즉, 거룩한 전쟁,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죽인다), 12-15 절.
2. 도시의 모든 전리품은 전체 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려진다(즉, 거룩한 전쟁에서, 모든 가치있는 것을 여호와께), 16-17 절
3. 순종은 축복을 가져온다, 17-18 절:
  - ㄱ. 그는 그의 진노를 돌이키신다
  - ㄴ. 그는 자비를 보이신다, 참조, 30:3
  - ㄷ. 그는 궁핍이 여기신다(위와 같은 어근, BDB 933)
  - ㄹ. 그는 번성을 허락하신다
  - ㅁ. 그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신다
4. 축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 18 절

▣ “여호와와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 구절은 신명기에서 여러 번 사용된다(참조, 6:18; 12:28; 13:18). 이것은 또한 왕상 11:38; 14:8; 15:11; 22:43; 왕하 12:3 에서도 사용되었다. 야웨는 정의와 의의 표준으로서 모든 사람이 이에 따라 심판받는다. 1:16 의 특별주제: 의를 보라.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 장에서 다른 신앙을 왜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가?
2. 오늘날 우리가 다른 신앙을 다룰 때 이 장을 근거로 처리할 수 있는가?
3. 하나님께 대한 거짓 대변자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기적에 대하여는 어떤가?
4. 신약의 다양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단체에 대한 구약의 개념을 설명하라.

## 신명기 1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부적절한 애도 14:1-2	거룩한 사람의 생활양식 14:1-2	금지된 애도의 행위 14:1-2	우상숭배 행위를 반대하여 14:1-2
정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 14:3-8	14:3-8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14:3-8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14:3-8
14:9-10	14:9-10	14:9-10	14:9-10
14:11-20	14:11-20	14:11-18 14:19-20	14:11-20
14:21	14:21a 14:21b	14:21a 14:21b	14:21a 14:21b
십일조의 원리 14:22-27	14:22-27	십일조에 대한 율법 14:22-26 14:27-29	매해의 십일조 14:22-23 14:24-27 매 삼년의 십일조
14:28-29	14:28-29		14:28-29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14:1-16:17 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 가. 신 14:1-2 은 야웨의 유일한 백성으로서(참조, 출 19:5-6) 이스라엘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예비적인 확인을 하고 있다!
- 나. 신 14:3-16:17 은 출애굽기-민수기에서 설명해 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심되는 언약적 요구 사항의 재 요약이다
1. 14:1-21 의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은 레 11:1-23 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2. 14:22-29 의 십일조에 대한 내용은 민 18:21-29 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3. 15:1-11 의 빛의 말소는 레 28:8-38 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4. 15:12-18 의 히브리 노예를 놓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레 25:38-55 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5. 15:19-23 의 첫 태생의 구속은 출 13:1-16 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6. 16:1-17 의 세 가지 연중 순례절기는 레 23:4-8; 민 28:16-29:40 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구약신약에서의 개요, 바울 R. 하우스, 184 쪽)
  7. 신명기가 나타내는 요약적인 모습은 명확하게 보여진다. 종종 율법은 새로운 상황에서 조금씩 바뀐다.

현대인들이 구약 책의 구조에 대해 모르는 것—어떻게, 언제, 왜—이 있음을 다시 확인해야만 한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4:1-2

<sup>1</sup>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sup>2</sup>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14: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이니” 가족에 대한 은유가 언약적 용어로 사용된 것을 주목하라(참조, 1:31; 8:5; 32:5). 8:5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보라. 1-2 절에서 이스라엘인들을 위해 사용된 세 가지의 특별호칭에 주목하라.

▣ “자기 몸을 베다” 이 동사는 BDB 151, KB 177, 히트파엘(히트파엘형의 변형으로서 드물게 사용된다) 미완료형이고 이것은 종종 “베는”이나 “자르는” 내용이 있는 본문에서 사용된다. 이것은 이방인의 예배행위였다(신의 주목을 얻기 위해 또는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한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 참조, 레 19:28; 21:5; 왕상 18:28; 렘 16:6; 41:5; 47:5; 48:37).

### 특별주제: 슬픔의 의식

이스라엘인들은 공동체의 범죄를 인하여서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위해 그리고 개인의 회개를 위해 여러 방법으로 슬픔을 표현했다:

1. 옷을 찢는다, 창 37:29, 34; 44:13; 삿 11:35; 삼하 1:11; 3:31; 왕상 21:27; 욥 1:20
2. 베옷을 입는다, 창 37:34; 삼하 3:31; 왕상 21:27; 렘 48:37
3. 신발을 벗는다, 삼하 15:30; 사 20:3
4. 손을 머리위에 얹는다, 삼하 13:19; 렘 2:37
5. 머리위에 티끌을 뒤집어쓴다, 수 7:6; 삼상 4:12; 느 9:1
6. 땅에 앉는다, 애 2:10; 겔 26:16(땅에 엎드린다, 삼하 12:16); 사 47:1

7. 가슴을 친다, 삼상 25:1; 삼하 11:26; 나 2:7
8. 몸을 뻗다, 신 14:1; 렘 16:6; 48:37
9. 금식한다, 삼하 1:16, 22; 왕상 21:27
10. 애가를 부른다, 삼하 1:17; 3:31; 대하 35:25
11. 머리를 민다/대머리(머리를 뽑거나 깎는다), 렘 48:37
12. 수염을 짧게 깎는다, 렘 48:37
13. 머리카락이나 얼굴을 가린다, 삼하 15:30; 19:4

■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다” 이것은 (대머리를 만드는 것, BDB 901) 또한 주변 나라들에서 슬픔을 나타내는 의식이었다(참조, 렘 16:6; 41:5; 겔 27:31; 44:20). 대조적으로 (1)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털을 미는 것이 절대로 허락되지 않았고(참조, 레 21:5) (2)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의 수염을 다듬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참조, 레 19:27). 이스라엘 율법의 많은 부분은 가나안인들의 일반적 풍습과는 완전히 반대였다!

■ “죽은 자를 위하여” 이와 같은 슬픔의 의식은 다음과 연결된다:

1. 조상숭배
2. 바알숭배(가나안 신들 가운데 자연의 신이 죽고[겨울] 소생[봄]하는 것)

**14:2 “성민”** 이 개념은 야웨와 그의 메시아를 계시하는 이스라엘의 임무와 관계된다(참조, 출 19:6; 신 7:6). 4:6의 특별주제를 보라.

신명기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서의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택한,” “특별한 보물”인 백성으로 묘사한 언약적 표현을 사용한다(참조, 4:20; 7:6; 14:2; 26:18; 28:9; 29:12-13). 또한 예레미야서를 주목하라(참조, 7:23; 11:4; 13:11; 24:7; 30:22; 31:1, 33; 32:38). 물론 호세아 1-3 장도 기억해야만 한다!

■ “너를 택하여” 이 동사(BDB 103, KB 119, 칼 완료형)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위해 사용되었다:

1. 아브라함, 창 12:1; 느 9:7
2. 족장들, 신 7:8
3. 족장들의 후손들, 신 4:37; 10:15
4. 이스라엘, 신 7:6; 시 135:4; 사 44:1, 8; 43:10; 겔 20:5
5. 여수룬(이스라엘 또는 예루살렘), 신 32:15; 33:5, 26; 사 44:2
6. 이스라엘의 왕(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다윗을 예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야웨의 통치를 말하는 상징[참조, 삼상 10:24; 16:8, 9, 10; 삼하 6:21]), 신 12:5, 11, 14, 18, 21, 26; 14:24; 15:20; 16:2, 6, 7, 11, 15; 17:8, 10; 31:11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선택으로 표현되었다. 신약에서의 구원과는 다르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예배와 관계된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구원에 이르도록 전 세계에 야웨를 드러내야만 했다(참조, 창 12:3; 딤후 2:14; 벧 2:9의 인용). 4:6의 특별주제를 보라.

■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 “기업”(BDB 688)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의미이다(참조, 출 19:5; 시 135:4; 말 3:17). 이 구절은 신명기에서 반복된다(참조, 7:6; 14:2; 26:18). 4:6의 특별주제: 밥의 복음적 편견을 꼭 읽어보라! 그것으로부터 성경을 해석하는 나의 관점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나의 세계관의 총체적인 중심을 나타낸다(즉, 대 위임)!

### 개역개정 14:3-8

<sup>3</sup>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sup>4</sup>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sup>5</sup>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sup>6</sup>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sup>7</sup>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sup>8</sup>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14:3 “너는 먹지 말라”** 3-21 절은 레 11:2-19 를 반영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이것은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많은 규정들로 말해야 하는 것과 같은 차이점이다. “먹다”(BDB 37, KB 46)라는 동사가 이 장에서 17 번 사용된 것을 주목하라.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음식규정

나의 견해는 음식규정(레 11 장; 신 14 장)의 주 목적이 건강이나 위생상의 이유(즉, 마이모니데스, 안내 3:48; 키두쎌 49b [소책자 탈무드])가 아닌 신학적인 이유였다. 이스라엘인들은 가나안인들과 접촉을 가져서는 안 되었다(참조, 사 65:4; 66:3, 17).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많은 규정들은 가나안인들의 먹는 것, 사회생활, 예배습관과 관계가 있었다(예, 출 8:23).

“이러한 음식규정은 지켜져야 하는가 또는 신약의 믿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의 질문에 나는 아니나라고 대답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예수님은 음식규정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셨다, 막 7:14-23(확실히 19 절에 있는 베드로나 마가에 의한 편집자적 설명은 동등하게 감동되었다)
2. 바로 이 질문은 사도행전 15 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의 주제였다. 이방인들은 구약의 예배의식에 관한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참조, 특히 19 절). 20 절은 음식규정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교회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과 교제를 하도록 허가하는 내용이다.
3. 행 10 장에서 욥바의 베드로의 경험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베드로를 가르치는 상징으로서 음식규정의 부적절함을 사용했다!
4. 바울의 “약한” 또는 “강한” 신자들에 대한 언급은 모든 다른 신자들에게 우리의 개인적인 해석(특히 구약의 율법)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참조, 롬 14:1-15:13; 고전 8-10 장).
5. 골 2:16-23 에 기록된 영지주의의 거짓교사와 관계된 율법주의와 정죄에 대한 바울의 경고는 모든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로 여겨야만 한다!

#### 특별주제: 혐오

“혐오”(BDB 1072)는 다음의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1. 이집트인들과 관련된 것들:
  - ㄱ. 그들은 히브리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창 43:32
  - ㄴ. 그들은 양치는 자들을 몹시 싫어했다, 창 46:34
  - ㄷ. 그들은 히브리인의 제사를 몹시 싫어했다, 출 8:26
2.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한 야웨의 감정과 관련된 것들:

- ㄱ. 부정한 음식, 신 14:2
- ㄴ. 우상, 신 7:25; 18:9, 12; 27:15
- ㄷ. 이방 신접자들, 신 18:9, 12
- ㄹ. 몰렉에게 어린이들을 태워 바치는 것, 레 18:21-22; 20:2-5; 신 12:31; 18:9, 12; 왕하 16:3; 17:17-18; 21:6; 렘 32:35
- ㅁ. 가나안의 우상숭배, 신 13:14; 17:4; 20:17-18; 32:16; 사 44:19; 렘 16:18; 겔 5:11-6:9; 11:18, 21; 14:6; 16:50; 18:12
- ㅂ. 흠있는 동물의 제사, 신 17:1(참조, 15:19-23; 말 1:12-13)
- ㅅ. 우상에게 제사함, 렘 44:4-5
- ㅇ. 이혼한 여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 신 24:2
- ㅈ. 남자의 의복을 입는 여자(가나안의 예배에서), 신 22:5
- ㅊ. 창기가 번 돈(가나안의 예배), 신 23:18
- ㅋ.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렘 2:7
- ㅌ. 동성애(가나안의 예배에서), 레 18:22; 20:13
- ㅍ. 거짓 추의 사용, 신 25:16; 잠 11:1; 20:23
- ㅎ. 음식규정을 범하는 것(가나안의 예배에서), 신 14:3
- 3. 지혜서의 예:
  - ㄱ. 잠 3:32; 6:16-19; 11:1, 20; 12:22; 15:8, 9, 26; 16:5; 17:15; 20:10, 23; 21:27; 28:9
  - ㄴ. 시 88:8
  - ㄷ. 욥 30:10
- 4. 다니엘(참조, 9:27; 11:31; 12:11)에서 “가증한 것”이란 종말론적 구절이 반복된다. 이것은 세 가지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중복적인 예언 성취):
  - ㄱ. 신구약 중간기 마카비안 시대의 안티오커스 4 세인 에피파네스(참조, 마카비아 I 서 1:54, 59; 마카비아 II 서 6:1-2)
  - ㄴ. 로마 장군이었던 티투스(후에 황제가 됨)는 주후 70 년에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전을 파괴했다(참조, 마 24:15; 막 13:14; 눅 21:20)
  - ㄷ. “불법의 사람”(참조, 살후 2:3-4) 또는 “적그리스도”(참조, 요일 2:18; 4:3; 계 13)로 불리는 마지막 때의 세계 지도자

■ “가증한 것” 이 구절(BDB 481; 1072)은 신 14:3 에도 사용되었다.

**14:5**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 이것들은 제사를 위해 부정한 야생동물로 규정되었지만, 음식으로는 먹을 수 있었다. 이것들이 이집트에서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레 11 장에 언급되지 않는다. 현대인들이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

**14:6**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새김질도 하는” 이것은 레 11:4 에 언급된 제물로 드리는 정한 동물에 관한 기본 지침이다.

“굽이 갈라져”란 구절은 7 절과 같이 강조된 형이다(동사 BDB 828, KB 969, 히필 완료형이 명사 BDB 828 과 함께 사용되었다). 이 설명에 두 번째 강조형이 첨부되었다(동사 BDB 1042, KB 1608, 갈 능동분사와 명사 BDB 1043 가 함께 사용되었다). 이 표현은 매우 특별하고 명확하다.

■ 두 가지 요구조건(“굽이 갈라지고 새김질도 하는”)을 부분적으로 만족시키는 동물들은 7 절에 기록되어 있다.

**14:7**

NASB “사반”  
 NKJV “바위 너구리”  
 NRSV, TEV, “바위 오소리”  
 LXX, NJB,  
 NIV “토끼”  
 JPSOA “바위 너구리”

이 동물(BDB 1050 I)은 “산토끼”나 “토끼”로서 레 11:6 에 분명하게 언급되었다. 레위기에서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고 말하는 것(여기서 추측되는 것처럼)은 흥미롭다. 이것은 관찰되는 특징(현상학적인 표현)에 기초하여 이스라엘인들이 자연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좋은 곳이다. 토끼는 실제로 새김질을 하지 않지만, 코의 빠른 움직임은 마치 그들이 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며, 현대 과학적 방법이 아닌 관찰을 바탕으로 한 고대인들의 인식방법이다.

**14:8** “돼지” 가나안인들은 돼지를 먹고 제물로 사용했다(참조, 사 65:4; 66:3, 17). 돼지는 먹는 습관(개들과 똑 같음)과 그것들이 머무르기 좋아하는 장소(진흙 웅덩이)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었다. 히타이트,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돼지를 제사에 사용했다. 또한 지중해 문화에 속한 모든 곳에서 돼지를 먹었다(어떤 그룹들에 의해). 고대근동의 음식과 제사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위해 ABD, 제 6 권, “동물학,” 1109-1167 쪽을 보라. 돼지에 대해서는 1130-1135 쪽을 보라.

**개역개정 14:9-10**

<sup>9</sup>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sup>10</sup>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14:9**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레 11:9-12 에 있는 기본 지침이다. 다시 말하지만, 금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구약의 어떤 곳에도 주어지지 않았다. 14:3 의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14:11-20**

<sup>11</sup>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sup>12</sup>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sup>13</sup>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sup>14</sup>까마귀 종류와 <sup>15</sup>타조와 타흐마스과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sup>16</sup>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sup>17</sup>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sup>18</sup>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sup>19</sup>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sup>20</sup>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14:11** 이것은 레 11:13-19 와 평행을 이룬다. “부정함”에 대한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열거된 새들이 찢은 고기를 먹는 것은 분명하다.

**14:18** “대승” 이 종류의 새(BDB 189)는 말뚝구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벌레를 먹는다. 불결한 장소에서 먹고 자기 집을 똥으로 가득 채우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철새가 되었다.

**14:19**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이 구절(BDB 481; 1056 & 733, 참조, 창 7:14, 21)은 나는 곤충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떤 곤충은 먹기에 정하다고 기록된 레 11:20-23 과 평행을 이룬다(즉, 메뚜기, 참조, 3:4; 막 1:6). 이런 곤충들은 부정하다고 열거된 여러 새들의 먹이다.

#### 개역개정 14:21

<sup>21</sup>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14:21** “너희는...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이것은 출 22:31 을 반영한다. 그 이유는 피가 아직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참조, 12:16, 23-25; 창 9:4). 이 법은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즉, 객과 이방인은 제외되었다. 레 17:15 의 설명을 보라). 이와 같은 음식규정은 가나안 사회와 예배 풍습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의미가 있었다.

▣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라스 샴라(시루스 H. 고든, 우가릿 핸드북, 174 쪽) 본문은 이것이 다른 문화에서 비옥의 상징으로서 행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유대주의는 이 절을 기초로 엄한 음식 규정을 발전시켰다(고기와 유가공제품에 대해 요리 그릇과 접시가 구분된다). 그러나 그 목적은 가나안 예배의 희생제물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참조, 출 23:19; 34:26). 병이나 위생의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거의 혹은 전혀 아니다.

#### 개역개정 14:22-27

<sup>22</sup>너는 마땅히 매 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sup>23</sup>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sup>24</sup>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sup>25</sup>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sup>26</sup>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sup>27</sup>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14:22** “십일조” 민수기 18 장은 중앙의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레위인들에 대한 십일조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구절은 12 장과 평행을 이루며, 대체적으로 지역의 농업에 대한 십일조 문제를 다루고 있다. 12 장의 설명을 보라.

**14:26**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이것은 중앙 성소에 드릴 십일조의 품목을 가리킨다. 이것은 12:20 과 평행이다. 이 구절은 광신적인 “율법주의자들”을 몰아낸다! 야웨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 그는 바로 그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원하신다(참조, 12:7, 18; 16:14; 27:7; 대상 29:22; 시 104:15; 전 2:24; 3:12, 13, 22; 5:18; 8:15; 9:7-9; 사 22:13). 심지어 신약에서는 어떤 창조물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언급하므로 이 개념을 넓힌다(예, 행 10:15; 롬 14:2, 14, 20; 고전 6:12; 10:23-26; 딤후 4:4).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방종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율법주의와 판단주의로부터 자유하도록 격려하는 의미이다(참조, 골 2:16-23). 그러나 성숙한 신자들은 타락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연약한 형제들(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음)을 거스리는 어떤 일도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할 것이다(참조, 롬 14:1-15:13)!

▣ “독주” 이것(BDB 1016)은 알코올의 성분을 높이기 위해(즉, 좀 더 취하게 하는) 다른 자연적 발효즙을 첨가한 포도주였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술(발효)과 술취함(인박함)

### I. 성경적 용어

#### 가. 구약

1. 야인 – 이것은 포도주의 일반적 용어(BDB 406)로서 141 번 사용되었다. 이것이 히브리어의 어근으로 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의 어원은 불확실하다. 이것은 항상 과일(주로 포도)의 즙을 발효시킨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사용된 특별한 구절들은 창세기 9:21; 출 29:40; 민 15:5,10 이다.
2. 티로쉬 – 이것은 “새 포도주”(BDB 440)이다. 왜냐하면 근동의 날씨에서 발효는 즙이 나온 후 6 시간이 되었을 때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발효 중에 있는 포도주를 말한다. 다음의 전통적인 구절들을 보라, 신 12:17; 18:4; 사 62:8-9; 호 4:11.
3. 아시스 – 이것은 분명히 알코올음료를 말한다(“달콤한 술” BDB 779, 예, 욥 1:5; 사 49:26).
4. 세카 – 이것은 “독주”(BDB 1016)를 말한다. 히브리어 어근은 “술 취한” 또는 “주정뱅이”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좀 더 취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을 첨가한 것을 말했다. 이것은 야인과 평행이다(참조, 잠 20:1; 31:6; 사 28:7).

#### 나. 신약

1. 오니스 – 이것은 헬라어 야인과 같은 뜻이다.
2. 네오스 오이노스(새 포도주) – 헬라어 티로쉬와 같은 뜻이다(참조, 막 2:22).
3. 글레우코스 비노스(달콤한 포도주, 아시스) – 발효의 이른 시기에 있는 포도주(참조, 행 2:13).

### II. 성경에서의 사용

#### 가. 구약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창 27:28; 시 14:14-15; 전 9:7; 호 2:8-9; 욥 2:19, 24; 암 9:13; 스 10:7).
2. 포도주는 희생 제사의 일부분이었다(출 29:40; 레 23:13; 민 15:7, 10; 28:14; 신 14:26; 사 9:13).
3. 포도주는 약으로 사용되었다(삼하 16:2; 잠 31:6-7).
4. 포도주는 실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노아 – 창 9:21; 롯 – 창 19:33, 35; 삼손 – 사 16:19; 나발 – 삼상 25:36; 우리아 – 삼하 11:13; 암몬 – 삼하 13:28; 엘라 왕상 16:9; 벤하닷 – 왕상 20:12; 지도자들 – 암 6:6; 부녀자들 – 암 4).
5. 포도주는 남용될 수 있다(잠 20:1; 23:29-35; 31:4-5; 사 5:11, 22; 19:14; 28:7-8; 호 4:11).
6. 포도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었다(임무수행중인 제사장, 레 10:9; 겔 44:21; 나실인, 민 6 장; 지도자들, 잠 31:4-5; 사 56:11-12; 호 7:5).
7. 포도주는 중말론적인 배경에서 사용되었다(암 9:13; 욥 3:18; 스 9:17).

#### 나. 신구약 중간시대

1. 포도주를 적당하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다(전 31:27-30).
2. 랍비들은 “포도주는 모든 약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포도주가 없을 때 약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BB 58b).

다. 신약

1. 예수님은 많은 양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요 2:1-11).
2.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다(마 11:18-19; 눅 7:33-34; 22:17 이하).
3. 오순절 때 베드로는 “새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 되었다(행 2:13).
4. 포도주는 약으로서 사용되었다(막 15:23; 눅 10:34; 딤후 5:23).
5. 지도자들이 남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완전히 금욕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딤후 3:3, 8; 딤후 1:7; 2:3; 뱀전 4:3).
6. 포도주는 종말론적 배경에서 사용되었다(마 22:1 이하; 계 19:9).
7. 술 취함은 깊이 뉘우쳐야 한다(마 24:49; 눅 11:45; 21:34; 고전 5:11-13; 6:10; 갈 5:21; 뱀전 4:3; 롬 13:13-14).

III. 신학적인 통찰

가. 변증법적 긴장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2. 술 취함은 중요한 문제이다.
3. 어떤 문화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믿는 자는 반드시 그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마 15:1-20; 막 7:1-23; 고전 8-10장; 롬 14 장).

나. 주어진 한계를 넘는 경향성

1.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다.
2.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넘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남용해왔다.

다. 남용은 물질자체가 아니라 사용자인 우리에게 달려있다. 물질적인 창조 안에서 악한 것은 없다(참조, 막 7: 18-23; 롬 14:14, 20; 고전 10:25-26; 딤후 4:4; 딤후 1:15).

IV. 1 세기의 유대 문화와 발효

- 가. 발효는 포도가 으깨어진 후 6 시간 정도 후에 바로 시작된다.
- 나. 유대전통은 표면에 거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발효의 표시), 그것은 포도주 십일조에 적당했다(마 아세로쓰 1:7). 그것은 “새 술” 또는 “달콤한 술”이라 불렸다.
- 다. 첫 번째 격렬한 발효는 1 주일 후에 이루어진다.
- 라. 두 번째 발효는 40 일이 걸린다. 이 상태를 “숙성된 포도주”라고 간주하며 제단에 제사드릴 수 있다 (엔휴요쓰 6:1).
- 마. 포도주의 앙금(오래된 포도주)위에 있었던 포도주가 상품으로 여겨졌지만, 사용하기 전에 잘 걸러져야만 했다.
- 바. 보통 1 년 동안 발효된 포도주를 적당하게 오래된 것으로 생각했다. 3 년은 포도주가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이었다. 이와 같은 포도주를 “오래된 포도주라 불렀고 이것은 반드시 물로 묽게 만들어야만 했다.
- 사. 오직 지난 100 년 동안 멸균 환경과 화학적 첨가제를 사용하므로 발효기간이 길어졌다. 고대에는 발효의 자연적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V. 맺음말

- 가. 당신의 경험, 신학, 성경적인 해석이 예수님, 1 세기의 유대인, 그리고 혹은 기독교 문화를 깎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은 분명히 완전한 금욕주의자들은 아니었다.
- 나. 나는 알코올의 사회적인 사용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지나치게 말해 왔다. 그리고 문화적/교파적 편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의를 주장해 왔다.
- 다. 로마서 14장과 고린도 전서 8-10 장 말씀은 나에게 통찰력을 주었고 안내서가 되었다. 즉, 개인적인 자유나 판단하는 비평이 아닌 모든 문화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동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실행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라. 만약 우리가 전체적인 금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강요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또한 포도주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 문화(예 - 유럽, 이스라엘, 아르헨티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먹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이 함께 먹는 화목제를 의미한다. 고대근동에서 함께 먹는 것은 언약의 표시였다.

#### 개역개정 14:28-29

<sup>28</sup>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sup>29</sup>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4:29**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살고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 강조한다(참조, 10:18; 26:12-15)! 매 삼년마다 드리는 십일조는 레위인들과 가난한 지역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정한 것과 부정된 것을 나누는데 사용된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2. 이런 규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왜 그것들을 준수하지 않는가?
3. 십일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 신명기 15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매 칠년마다의 빛의 탕감	거룩한 백성의 생활양식 (14:1-15:23)	칠년째 되는 해	안식년
15:1-6	15:1-6	15:1-3	15:1-6
가난한 자들에게 너그러움		15:4-6	
15:7-11	15:7-11	15:7-11	15:7-11
속박된 노예들에 관한 법		노예에 대한 대우	노예들
15:12-18	15:12-17a	15:12-15	15:12-15
		15:16-18	15:16-17
	15:17b		
	0.6375		0.6375
동물의 첫 태생에 관한 법		소와 양의 첫 태생	첫 태생
15:19-23	15:19-23	15:19-23	15:19-23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15 장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 가. 15 장은 독특한 농업적 필요와 야웨가 그의 백성과 이루시기 원하셨던 상징적 관계의 진리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특별한 법의 연속이다.
- 나. 이 장은 세 부분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진다:
- 1-11 절은 출 23:10-13 과 레 25:1-7 에서의 채무자들과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안식년의 면제사항을 확장하여 다루고 있다. 대하 36:21 에서 사로잡혀간 것은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결과라고 말한다.
  - 12-18 절은 빚을 갚기 위해 팔린 동족인 히브리 노예(남자 또는 여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 19-23 절은 짐승의 첫 태생, 또는 처음 난 동물을 드리는 것을 다루고 있다.
- 다. 이 장은 이중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어떤 것은 같은 어근의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한다(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문법적 형태로서):
    -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4 절, BDB 138, KB 159 의피엘
    - “순종하여 듣고,” 5 절, BDB 1033, KB 1570 의칼
    - “후하게 펴서,” 8 절, BDB 834, KB 986 의칼
    - “넉넉히 꾸어주라,” 8 절, BDB 716, KB 778 의히필
    - “넉넉히 주라,” 10 절, BDB 678, KB 733 의칼
    - “후하게 펼지니라,” 11 절, BDB 834, KB 986 의칼
    - “후히 줄지니,” 14 절, BDB 778, KB 858 의히필
  - 어떤 것은 같은 동사를 두번 사용한다:
    - “꾸어 줄지라도...꾸지 아니하겠고,” 6 절, BDB 716, KB 778 의히필 완료형과 칼 미완료형
    - “통치할지라도...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6 절, BDB 605, KB 647 의칼 완료형과 칼 미완료형
    - “농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농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가게 하지 말고,” 12, 13 절, BDB 1018, KB 1511 의 세 개의 모든피엘 미완료형
    - “먹되...먹지 말고,” 22, 23 절, BDB 37, KB 46 의 두 개의 칼 미완료형 긍정적인 표현에 부정적인 표현이 뒤따라오는 2 번 항을 주목하라.
  - 2 절에서 같은 어근의 명사형과 칼 부정사 절대형이 반복된다 – “면제...면제하고,” BDB1030, KB 1557

### 개역개정 15:1-6

<sup>1</sup>매 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sup>2</sup>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sup>3</sup>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sup>4,5</sup>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sup>6</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15:1** “매 칠 년 끝에는” 두 가지의 일이 발생한다: (1)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의 상징으로 땅을 경작하지 않는 채로 놓아두어야 했다(참조, 출 23:10-13; 레 25:1-7).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XIII.8.1,에서 땅을 쉬게 하는 유대인의 습관에 대한 인용을 발견할 수 있다. (2) 이 때 이스라엘 형제들은 빛을 탕감받았다(참조, 2 절; 31:10). 창 1:1-2:3 에서 육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므로 일곱은 완전 수로 보여진다.

**15:2** “면제” 이 단어(BDB 1030)는 “중단하다”라는 의미이다. 출 23:10-11 에서 이 동사는 매 칠년마다 땅을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구약에서 명사형은 오직 두 번 사용되었는데 여기와 31:10 이다. 여기서 이것은 빛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 작물재배가 금지된 해에는 소작인들이 빛을 갚을 수가 없었고 또한 사람을 고용하는 일도 없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의 땅에서 일할 수 있었고 빛도 갚을 수 있었다.

■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이것이 영구적인 면제를 의미하는지 일시적인 면제를 의미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것이 영구적인 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는 경작하지 않는 해에만 그 빛이 면제되어지는 것으로 믿는다(참조, NET 성경, 368 쪽 16 번). 하나님의 면제는 채주의 빛면제에 대한 기초가 된다(상징적으로, 일시적으로).

**15:3** “이방인” 이것은 팔레스타인에 영구적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BDB 648, 참조, 14:21; 15:3; 17:15; 23:20; 29:22). 모세의 법에 의해 그들은 제한되었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법적 보호를 받았다.

또 다른 단어인 “외인”(BDB 158)은 역시 제한된 권리와 보호를 받았던 새로 온 사람이나 거주자에게 사용되었다(참조, 1:16; 5:14; 10:18, 19[두 번]; 14:21, 29; 16:11, 14; 23:7; 24:14, 17, 19, 20, 21; 26:11, 12, 13; 27:19; 28:43; 29:11; 31:12).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돌봄은 다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1. 야웨의 성품
2. 포함의 가능성
3.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과거 경험

**15:4**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4-6 절은 이상적인 상황을 말한다(안식년과 희년의 준수로 상징된). 이 이상은 역사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그들 가족의 땅을 잃었다. 유대인 중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참조, 마 26:11).

**15:5** 이것은 언약의 순종에 대한 반복적인 경고이다.

1. “네가 만일...말씀만 듣고” – BDB 1033, KB 1570 의 (강조를 나타내는)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미완료형
2.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 BDB 1036, KB 1581 과 BDB 793, KB 889 의 두 개의 칼 부정사 연계형

야웨의 언약적 약속은 지속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

**15:6** 말씀되어진/약속되어진 야웨의 축복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네게 복을 주시리니,” BDB 138, KB 159 의 피엘 완료형, 참조, 4 절(두 번); 1:11; 2:7; 7:13(두 번); 12:7; 14:24, 29; 15:10, 14, 18; 16:10, 15.
2.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이것은 BDB 716, KB 778 의 히필 완료형과 부정의 칼 미완료형.
3.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BDB 605, KB 647 의 칼 완료형과 부정의 칼 미완료형.

이 약속들은 국제적이고 종말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참조, 사 9:6-7; 11:1-10; 미 5:1-5a).

#### 개역개정 15:7-11

<sup>7</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sup>8</sup>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sup>9</sup>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sup>10</sup>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sup>11</sup>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15:7**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이것의 실체는 11 절에 기록되어 있다. 가난함은 존경과 명예의 부족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가족의 땅을 잃어버림으로 생기는 이 부족은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림으로 발생했다.

■ “가난한 형제가” 모세의 법은 다음의 사람들에게 대한 야웨의 특별한 관심과 자비를 보여준다:

1. 언약관계에 있는 가난한 형제/자매
2. 과부
3. 고아
4. 이방인 거주자
5. 외인

이것은 이스라엘인을 합법적으로 유일하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동정심이다. 다른 고대의 법들은 우수한 자, 부자, 왕족에게 유리하게 했다. 이스라엘은 약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적으로 취약하고,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편이었다!

■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단순히 지역의 가난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대우했는지 주목하라. 야웨는 그가 그의 백성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기를 원하셨다!

■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동기와 행동 두 가지 모두 포함된다(참조, 대하 9:7):

1.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칼 미완료형, BDB 54, KB 65, 참조, 대하 36:13
2.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칼 미완료형, BDB 891, KB 1118

**15:8** 부정사 절대형이 강조를 위해 그것의 미완료형과 조화되는 것을 주목하라:

1.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 BDB 834, KB 986 의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미완료형. 이 은유는 7 절과 평행이다.
  - ㄱ. 네 마음을 열어라(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 ㄴ. 네 손을 펴라(움켜 쥐지 말라) 참조, 11, 13 절
2.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 BDB 716, KB 778 의 칼 부정사 절대형과 히필 미완료형

■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이것은 BDB 191 쪽과 341 쪽이 관련된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을 나타낸다(참조, 약 2:15-26; 요일 3:16-17).

**15:9** “삼가” 이것은 니팔 명령(BDB 1036, KB 1581)으로서 반복되는 주제이다(참조, 4:9, 15, 23; 6:12; 8:11; 11:16; 12:13, 19, 28, 30; 15:9; 24:8).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언약의 결과를 말한다.

■ “악한 생각” “악한”이란 단어는 벨리알과 어근이 같다(BDB 116). 이것은 “가치 없는,” “생각이 없는,” “악한 사람”(참조, 잠 6:12)을 의미한다. 13:14 의 설명을 보라.

■  
NASB “눈이 적대적이다”  
NKJV “악해진 눈”  
NRSV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며”  
TEV -----  
NJB “얼굴을 찡그리다”

“적대적인”(BDB 949, KB 1269, 칼 완료형)이란 단어는 “나쁜” 또는 “악한”이란 뜻이다. 28:54, 56 에서 비슷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같은 동사가 10 절에서 반복되며 “슬퍼하는”으로 번역된다. 이 표현은 어떤 환경에서 그리고/또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우쭐대는 태도와 관계있다. 구약과 신약에서 중요한 것은 동기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15:9**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가난한 사람의 기도가 그것을 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즉, 불법), 그들의 기도가 이기적이고 나쁜일을 음모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여호와께 두드러지게 한다(참조, 24:18; 출 22:23). 야웨의 축복은 적합한 언약적 동기와 행동을 조건으로 한다. 그의 백성은 그의 성품을 본받아야만 한다!

**15:10** 이것은 7 절에서 시작한 문단의 요약이다.

■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문맥적인 통찰의 다, 1, ㅁ 향을 보라.

**15:11** “네 손을 펼지니라” 문맥적인 통찰의 다, 1, ㅂ 향을 보라.

#### 개역개정 15:12-17

<sup>12</sup>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sup>13</sup>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 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sup>14</sup>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sup>15</sup>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sup>16</sup>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sup>17</sup>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15:12** 이것은 문자적으로 “형제”(BDB 26)이지만 “언약의 동반자” 또는 “동족”이라는 민족적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레 19:17; 25:25, 35, 35, 39, 47; 신 15:12; 17:15). 이것은 민족적 단일성 대 지파나 가족의 독특함을 강조했다. 이것의 어원과 신학은 갈 6:10 과 유사하다.



■ “히브리” “히브리”(BDB 720, KB 782)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드물게 사용되었다. 이것은 (1) 에벨, 셈의 손자의 종족(참조, 창 10:21) (2) 주전 2000 년~ 1000 년 사이에 고대근동에서 유목민으로 메소포타미아를 건너 이주해 온 셈족(하비루)의 큰 무리를 묘사하는 단어 또는 (3) 일반적으로 가난한 이방 노동자들의 무리(이 단어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가족을 묘사할 때 사용했다)를 의미한다.

■ “남자나 여자” 이것은 법적으로 동등함을 나타낸다(참조, 17 절, 또한 창 1:26-27 을 보라). 초기의 법전은 그들을 분리했다(즉, 남자 – 출 21:2-6; 여자 – 출 21:7-11).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가나안 민족들의 문화적 체계보다 앞선 시기에 속하는 바벨론의 법적 문서인 함무라비 법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

■ “네게 팔렸다” 여기의 동사(BDB 569, KB 581, 니팔 미완료형)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계약된 노예 상태로 파는 것을 말한다(참조, 레 25:39, 47, 48, 50; 동료 히브리인에 대해서는 39-46 절; 출 21:2-6 에서 기록하고 있다).

■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이것은 1-11 절에 언급한 안식년과 시기적으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일 그렇다면 9 절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 동사(BDB 1018, KB 1511, 피엘 미완료형)는 매우 중요해서 12-13 절에서 세 번 반복된다.

**15:14** 종이 육년 동안 섬긴 후에 자유롭게 되었다면, 그가 그의 가족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졌어야만 한다.

1. “그에게 후히 줄지니,” 이것은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가 사용된 또 다른 경우이다.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서 글자 그대로, “너는 반드시 그를 위해 목걸이를 만들어야만 한다”이다. 문맥적인 통찰력 다, 1, 8항을 보라.
2. 주어진 품목을 보라:
  - ㄱ. 가족의 무리 중에서
  - ㄴ. 타작 마당에서
  - ㄷ. 포도주 틀에서
  - ㄹ. 추가된 지침들은 출 21:3-4; 레 15:41 에 있다
3. 이 공급은 이스라엘에게 야웨께서 보여주었던 대로(참조, 4, 6, 10, 18 절과 15 절; 레 25:4 에 있는 특별한 이유) 영적 질적인 면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15:15**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의 주인으로서 관대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대하셨다는 사실이다. 5:15 의 충분한 설명을 보라.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 이 동사(BDB 804, KB 911, 칼 미완료형)는 신명기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항상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야웨의 은혜로우신 일을 의미한다(참조, 7:8; 9:26; 13:5; 15:15; 21:8; 24:18). 7:8 의 특별주제를 보라. 신약과 마찬가지로 구약은 하나님의 솔선하시는 사랑과 자비에 대한 증거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그는 찾으시고 그들을 속량하신다! 그의 솔선적인 행동과 변함없으신 성품은 우리의 놀라운 희망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 구세주가 하신 일을 이스라엘을 위한 야웨의 행동에서 미리 보여 주셨다!

**15:16** 이것은 출 21:5 와 평행이다. 이것은 야웨와 이스라엘 사이의 믿음/사랑/순종의 언약 관계를 반영하는 자발적 종속 관계를 보여준다. 언약의 목적은 영적 영역에서 더욱 더 친밀한 관계의 계속성이 뒤 따르는 사랑스럽고 축복된 이 땅에서의 삶이다. 그 축복은 관계의 부산물이니 결코 목적이 아니다!

**15:17**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이것은 두 가지를 상징한다: (1) 귀는 순종의 상징이었다 (2) 문은 집에 대한 사랑의 상징이었다(TEV). 이 의식은 성소나 도시의 문에서가 아닌 집에서 출 21:6 이 언급하고 있는 엘로힘을 의지하여 행해졌다. 70 인역, 페쉬타, 아람어 탈굼은 초기 예식에서 변화된 것으로서(참조, 출 21:1-6)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이해한다. 이 예식은 그를 영구히 종으로 만들었다.

■ “영구히” 이것의 히브리어 단어는 올람(BDB 761)이다. 이 사용법은 히브리어 단어가 반드시 문맥에서 정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영구히” 또는 “정해진 한계까지 오랫동안”을 의미할 수 있다. 랍비들은 그것이 “희년까지”를 의미한다고 말했지만, 이 문맥에서 그것은 종의 전 생애를 의미한다. 4:40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개역개정 15:18

<sup>18</sup>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값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5:18**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종이 육년 동안 섬긴 후 자유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NASB	“섬김의 두 배”
NKJV	“그는 고용된 종의 두 배의 가치가 있었다”
NRSV	“고용된 일꾼의 값의 가치”
TEV	“고용된 종의 값의 절반에”
NJB	“그는 월급받는 종에게 네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의 두 배의 가치이다”
NET 성경	“고용된 일꾼의 두 배의 시간”

바른 번역에 관해 약간의 의문이 있다(문자적으로, “절반의 값으로,” BDB 1041 쪽과 969 쪽 I 항).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1. 종은 밤낮으로 섬겼다
2. 종은 거저 일했다. 반면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값이 지불되었다.
3. 사 16:14 는 고용된 사람들의 일하는 기간으로서 삼년을 말한다(함무라비 법전이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종은 두 배의 기간을 일했다.

■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특별히 합당한 사랑, 용서, 돕는 태도로 언약적 순종을 할 때 언약의 축복이 뒤따라 온다!

#### 개역개정 15:19-23

<sup>19</sup>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sup>20</sup>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sup>21</sup>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sup>22</sup>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sup>23</sup>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15:19-23** 이 절들은 가축의 첫 새끼에 대한 합당한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이집트와 고센에서 피를 바르지 않았던 집의 사람과 동물의 첫 태생이 죽음의 천사 재앙을 당한 문맥인 출 13:2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방법이었다(참조, 출 13:2; 레 2:14-16).

**15:19**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드릴 것이니” 출애굽기 13 장은 우리에게 성경적 출처를 준다. 또한 민 18:15-16을 주목하라. 이것은 레위인의 수입을 공급하는 방법이 되었다.

**15:20** 이것은 12:17-19; 14:23로 거슬러 올라간다.

**15:21**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어떤 종류든지 흠(비정상 즉, 눈이 멀었거나, 변색되었거나, 병이 들었거나, 절거나, 불구 등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제사에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각 지역에서 가족, 친구들과 음식으로 먹을 수 있었다(참조, 12:15-16).

#### **15:22**

NASB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같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  
NKJV “부정한 자나 정한 사람이 같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  
NRSV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같이”  
TEV “의식상 부정하거나 정하거나 너희 모두는 그것들을 먹을 수 있다”  
NJB “정한 자나 부정한 자”

히브리어에서 이것은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그것을 먹는 사람들
2. 그들이 먹는 것

1항이 더 적당하다(LXX).

**15:23** “오직 피는 먹지 말고” 피는 생명의 상징이었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참조, 창 9:4-6; 레 1:17; 7:26-27; 17:10-16; 19:26; 신 12:16, 23-25; 삼상 14:32-34). 앞에 있는 절에서 상징은 모든 창조물 특히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낸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안식년을 준수한 것에 대한 어떤 역사적 증거라도 있는가?
2. 15장에서 이와 같은 율법의 기본 목적은 무엇인가?
3. “히브리인”이란 단어의 가능한 출처로는 무엇이 있는가?

## 신명기 16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유월절의 회고 16:1-8	절기력 16:1-8	유월절 16:1-4 16:5-8	절기들: 유월절과 무교절 16:1-8
칠칠절의 회고 16:9-12	16:9-12	추수절기 16:9-12	다른 절기들 16:9-12
장막절의 회고 16:13-17	16:13-15 16:16-17	초막절 16:13-15 16:16-17	16:13-15 16:16-17
반드시 공의가 집행되어야 한다 16:18-20	공의와 종교에 대한 법 (16:13-17:20) 16:18-20	공의의 시행 (16:18-17:13) 16:18-20	재판 16:18-20
16:21-17:1	16:21-17:1	16:21-17:1	예배의 남용 (16:21-17:7) 16:21-17:1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개역개정 16:1-8

<sup>1</sup>아빔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빔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sup>2</sup>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sup>3</sup>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sup>4</sup>그 이레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sup>5</sup>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sup>6</sup>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sup>7</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sup>8</sup>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16:1 “지켜”** 이것은 신명기에서 73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이다(BDB 1036, KB 1581, 칼 부정사 절대형)! 히브리어에서 이 장은 5 장의 십계명과 같은 문체로 쓰였다.

■ “월” 이것은 “새 달”과 어근이 같다(BDB 294 I 항). 1:3 의 특별주제: 고대 근동 달력을 보라.

■ “아빔” 이 단어는 “새 곡식”(BDB 1)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확한 첫 번째 보리단을 가리킨다. 이것은 가나안의 명칭으로 3 월-4 월의 시기를 말한다. 후에 바빌론의 단어인 니산이 이 시기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한 것이 출 13:4 에서 특별한 날짜로 주어졌다.

**16:1 “행하라”** 이 일반적인 동사 “하다,” “만들다”(BDB 793, KB 1581)는 16 장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고 여러 방법으로 번역되었다:

1. “행하다,” 1, 10, 13 절
2. “할지니라,” 8 절
3. “지켜 행할지니라,” 12 절
4. “하지 말며,” 21 절

### 특별주제: 유월절

#### I. 들어가는 말

- 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은 야웨의 사랑과 이스라엘을 국가로 세우신 것에 대한 시금석이다(즉, 특히 선지서에서).
- 나. 출애굽은 창 15:12-21 에서 야웨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특별한 성취이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다.
- 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 야웨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열 개의 재앙중 가장 마지막이고 가장 광범위하며 (지리적으로, 즉, 이집트와 고센) 가장 호된(인간과 가축의 첫 태생을 죽였다) 것이었다.

#### II. 단어 자체(BDB 820, KB 947)

가. 명사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1. “재앙”에 관계되어, “강타를 치다”(즉, 출 11:1); 야웨의 천사가 사람과 가축의 첫 태생을 치다

나. 동사의 의미:

1. “절뚝거리다” 또는 “다리를 절뚝거리다”(참조, 삼하 4:4)는 “표시된 집을 넘어가다”의 의미에서 사용했다(즉, 출 12:13, 23, 27, BDB 619, 일반적인 어원론)
2. “춤을 추다”(참조, 왕상 18:21)
3. 아키디아어 – “가라앉히다”
4. 이집트어 – “치다”(가. 1 항을 보라)
5. 사 31:5 에서 평행되는 동사, “호위하여 지키다”(참조, 출 12:13 의 REB)
6.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한 히브리어 파샤와 “고통받다”를 뜻하는 헬라어 파스코의 소리유히

다. 역사적 전례의 가능성:

1. 목자의 새해제사
2. 봄에 초원지로 텐트를 옮길 때 악한 것을 막기 위해 행한 베두인의 제사와 공동 식사
3. 유목민들의 악을 막기 위한 제사

라. 단어 자체의 확실한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의 기원을 알아내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고대 의식에서도 여러 다양한 유월절의 특징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1. 봄철에 행해짐
2. 명사의 어원이 불명확함
3. 밤의 파수와 연결됨
4. 피의 사용
5. 천사/마귀의 형상
6. 특별한 식사
7. 농업적 요소들(무교병)
8. 제사장이 없음, 제단이 없음, 지역적 강조점

### III. 사건

가. 이 사건 자체는 출 11-12 장에 기록되었다.

나. 연중 절기는 출 12 장에 묘사되었고 무교병의 절기와 함께 8 일간의 명절이 되었다.

1. 원래 이것은 지역의 행사였다, 참조, 출 12:21-23; 신 16:5(참조, 민 9 장)
  - ㄱ. 제사장이 없음
  - ㄴ. 특별한 제단이 없음
  - ㄷ. 특별한 용도로 피를 사용
2. 이것이 중앙 성소에서의 행사가 되었다
3. 지역의 제사(즉,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한 양의 피)와 중앙 성소에서의 맥추절의 결합은 아빍 또는 니산 달의 14 일과 15-21 일 어간으로 이루어졌다

다. 사람과 가축의 모든 첫 태생의 상징적 소유권과 그들의 구속은 출애굽기 13 장에서 설명되었다.

### IV. 그것의 준수에 대한 역사적 기록

가. 이집트에서 첫 번째 유월절의 거행, 출애굽기 12 장

나. 호렘산/시내산에서, 민수기 9 장

- 다. 가나안에서 첫 번째 유월절 거행(길갈), 수 5:10-12
- 라. 솔로몬의 성전 헌당식 때, 왕상 9:25 과 대하 8:12(특별히 진술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 마. 히스기야 통치기간 동안 한 번, 역대하 30 장
- 바. 요시아의 개혁기간 동안 한 번, 왕하 23:21-23; 대하 35:1-18
- 사. 왕하 23:22 과 대하 35:18 에서 이 절기 지키기를 이스라엘이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 V. 중요성

- 가. 이것은 일년 중 꼭 지켜야 되는 세 절기 중 한 가지였다(참조, 출 23:14-17; 34:22-24; 신 16:16):
  - 1. 유월절/무교병
  - 2. 칠칠절
  - 3. 초막절
- 나.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것을 중앙의 성소(다른 두 절기처럼)에서 지켜져야 하는 날로서 예시한다.
- 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드러내시기 위해 매해의 유월절 식사를 어린 양이 아닌 빵과 포도주의 상징으로 사용하셨다:
  - 1. 애찬
  - 2. 구속의 제사
  - 3. 후 세대에 계속되는 중요성

■ “밤에” 죽음의 천사가 밤에(BDB 538) 넘어 갔을 때 바로는 “지금 가라”고 말했다(참조, 출 12:33). 이스라엘은 즉시 떠났다.

**16:2** “소와 양으로” 출 12:5 와 대하 30:24; 35:7 에서 양이나 염소만이 아닌 모든 종류의 가축을 제사에 사용했던 것을 비교해 보라.

■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집트에서 이것은 가족예배였다; 신명기에서 이것은 중앙의 예배성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참조, 12:5, 11, 13, 14, 18, 21, 26; 14:23, 25; 15:20; 16:2, 6, 7, 11, 15, 16; 17:8, 10; 18:6; 23:16; 26:2; 31:11).

**16:3** “무교병” 이스라엘은 빵이 부푸는 것을 위해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출애굽하던 밤의 세부사항은 농업적 절기와 연결되어지는 출애굽기의 유월절이 되게 한다(참조, 출 12:15-20; 23:14-17; 34:18).

제사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유교병(참조, 레 7:13; 23:17)은 죄와 반역의 상징이 되었다. 이 상징적 절기에서 발효는 이스라엘의 개인적 삶의 수준에서 야웨께 반역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졌다. 구속의 날(레위기 16 장)이 민족적 차원에서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무교병의 절기는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 역할을 감당했다.

유월절과 결부되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연중 절기는 야웨의 백성의 정신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속을 되새기도록 했다. 은혜와 약속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공급한 것처럼, 해가 거듭할수록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의지했다(참조, 4:9).

■ “고난의 떡” 출 12:8 을 보라.

▣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유대인은 바로의 요구에 응해 급히 떠났다(참조, 출 12:33).

▣ “네가 애굽 땅...을 기억할 것” 유월절은 역사적, 신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집트에서 유월절의 경험은 가족 중심이었다; 신명기에서 이것은 중앙 성소의 예배가 됨을 예시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것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다(성전에서의 역할과 집이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있는 동안 머무르는 곳에서의 역할).

**16:4** 모세의 말은 대부분 출애굽세대의 어린이들에 대한 것임을 기억하라. 이 절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죽은 첫 세대의 자리에 그들 자신을 두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연중 절기는 이스라엘이 야웨의 임재와 공급을 더욱 신뢰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계셨다.

**16:5** “네게 주신 각 성에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문”(BDB 1044, 참조, 12:15, 17, 21)을 말하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의 시기를 의미한다(참조, 18 절).

**16:6** “초저녁 해 질 때에” 이스라엘인에게는 이 때가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다(참조, 창세기 1 장, 참조, 출 12:6).

**16:7** “그 고기를 구워 먹고” 히브리어로 “끓이다” 또는 “굽다”(BDB 143, KB 164, 피엘 완료형)를 의미할 수 있지만, 출 12:8-9 에 의거하여 그것은 “굽다”로 보아야 한다.

▣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1) 광야 방랑생활(또는 최소한 모압 들에서의 생활) (2)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명절의 7 일 동안 텐트에 거함 또는 (3) “네 집으로 돌아가라”는 관용적 의미일 수 있다.

**16:8**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축제는 연합예배로 끝났다(참조, 출 12:16, “성회”). 중앙 성소의 한 가지 목적은 연합과 공동체의 정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 개역개정 16:9-12

<sup>9</sup>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 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sup>10</sup>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sup>11</sup>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sup>12</sup>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6:10** “칠칠절” 이것은 (1) 출 23:16 에서 맥추절 (2) 민 28:26 에서 칠칠절이라고 불린다. 후에 이것은 “오십 일”이라는 의미로 오순절(랍비적 해석으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것과 연결된)이 되었다. 이것은 5 월-6 월의 추수 축제 또는 밀 수확의 시기였다. 바알이 아닌 야웨가 공급자이다!

▣ “자원하는 예물” 이것은 여호와가 각 사람에게 축복하신 것에 따라 그들이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 허락되었다(참조, 17 절). 이것은 드림의 보편적 원리이다(참조, 고린도 후서 8-9 장).

**16:11** 야웨는 모든 사람이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전에 하신 일과 그들의 필요를 위해 특별히 돌보신 일들을 알기 원하셨다(참조, 14 절; 12:12, 18, 19; 14:27, 29; 26:11-13).



**16:12** “너는...기억하고” 칠칠절(농업적 수확)에 대한 신학적 이유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노예생활을 한 경험에서 비롯된다.

**개역개정 16:13-15**

<sup>13</sup>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sup>14</sup>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sup>15</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13** “초막절” 초막절은 가을에 그리고 수확 기간동안에 있었다(참조, 출 23:16; 34:22). 이 절기의 신학적 이유는 레 23:33-43에 있다.

“초막”의 배경은 다음과 같은 이스라엘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1. 수확기에 들에 초막을 세웠던 이집트에서의 농경생활
2. 출애굽과 광야 방랑생활 기간동안 일시적인 거처(즉, 텐트)에서의 삶
3. 일시적 용도의 초막은 순례자들이 중앙의 성소에 머무르기 위해 필요했다(가능성이 더 적음)

**16:15** 야웨는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참조, 12:7, 12, 18; 14:26; 16:11, 14; 26:11; 27:7) 기뻐하도록 하셨다(BDB 970, KB 1333, 갈 완료형).

**개역개정 16:16-17**

<sup>16</sup>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sup>17</sup>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6:16**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뵈옵되” 16절과 17절은 세 절기모두에 적용되는 요약 부분이다(참조, 출 23:14, 17). 식사는 친구관계와 가족의 교제를 위한 특별한 시간임을 기억하라.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에게 다음을 허용한다:

1. 민족적 공동체의 정신을 발전시킨다
2.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을 다음 세대에 가르친다
3.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4.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언약적 약속/ 축복에 대한 성취를 기뻐한다

왜 오직 남자인가? 이것은 여자의 종속적 역할을 반영하는가? 분명히 고대근동지역은 평등사회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들이 높임을 받았다(즉, 잠 31 장).

나는 두 가지의 좋은 가능성을 생각한다:

1. 여인들은 농장일과 농업적 환경을 구성하는 일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남자가 집을 비울 때에 집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2. 여인들의 역할을 기대하는 가나안의 풍요 숭배와는 달리 오직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남자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세 연중 순례절기에 대한 간단하면서 유익한 토론을 위해 로렌드 데 보의 고대 이스라엘, 제 2 권, 484-502 쪽을 보라.

■ “절기” 이 히브리어 단어(BDB 290, KB 290)의 동사형과 명사형은 중앙성소에서 행해지는 세 가지 연례 예배 중 하나를 가리킨다. 이것은 “순례-절기”라고 번역될 수 있다.

**16:17**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것은 드림의 일반적인 원리이다—각 사람은 그 힘대로 드려야 한다 (참조, 10 절; 고린도후서 8-9 장).

#### 개역개정 16:18-20

<sup>18</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sup>19</sup>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sup>20</sup>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16:18-20** 이 부분은 18 장과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으로서 분리된 부분이다. 이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다(지파 재판관, 레위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

**16:18**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이 사람들은 성문에 있는 각 지역 장로들과 같다(즉, 21:19; 22:15; 암 5:10, 12, 15). 모세는 재판장이었고 그는 돕는 자들을 두었다(참조, 신 1:9-18; 출 18:13-27).

**16:19** “너는 ~하지 말며” 이 절은 모세를 돕는 재판관에 대한 세 가지 지침을 열거한다:

1.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BDB 639, KB 692, 히필 미완료형, 참조, 출 23:6; 27:19; 신 16:19; 24:17; 27:19)
2.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BDB 647, KB 699, 히필 미완료형, 참조, 히브리어를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너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며”이다)
3.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BDB 269, KB 269, 칼 미완료형, 참조, 신 27:25).

■ “뇌물” 뇌물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 BDB 734, KB 802, 피엘 미완료형, 참조, 출 23:8; 이것은 돈의 힘에 대한 은유이다
2.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문자적으로 ‘뒤틀다’) - BDB 701, KB 758, 피엘 미완료형, 참조, 출 23:8; “올바른” 또는 “의로운”이란 단어는 “갈대로 재는 것” 또는 “뚝바른 선”(1:16의 특별주제를 보라)이라는 용어에서 왔다. 성경에서 죄를 일컫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이 개념에 대한 단어유희이다.

**16:20** “공의” 20 절의 “공의”(justice)와 18 절의 “의”(righteousness)라는 단어는 표준을 뜻하는 같은 히브리어 어근(BDB 841)에서 왔다. 재판관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공의, 그리고 오직 공의”)이었던 표준에 따라 재판했다. 지도자(지역에 있는 제사장 재판관)는 야웨의 자비와 공정함을 보이는 모본이 되어야 했다(참조, 출 23:6-8).

■ “너는 마땅히...따르라” 신 11:4; 19:6 에서 이 동사(BDB 922, KB 1191, 칼 미완료형)는 문자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재판 체계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다른 은유적 사용은 시 34:14; 잠 21:21; 사 51:5; 호 6:3 에서 발견된다.

■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야웨의 약속/축복을 누리는 것은 조건적이었다(참조, 4:1, 25-26, 40; 5:16, 29, 33; 6:18; 8:1; 11:8-9, 18-21; 16:20; 32:46-47).

### 개역개정 16:21-22

<sup>21</sup>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sup>22</sup>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16:21** 신명기 16:21, 22 과 17:1 은 한 문단이다. 이 문단은 제사드리는 바른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가나안의 예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위해 알프레드 J. 호레쓰의 고고학과 구약, 219-222 쪽과 윌리엄 폭스웰 알브라이트의 고고학과 이스라엘의 종교, 67-92 쪽을 보라.

■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작은 숲”이나 아세라는 가나안인들이 세워놓은 예배의 단에 있는 작은 나무 숲이나 또는 구멍을 말하는데, 그곳에는 남성 풍요신들의 여성 배우자를 나타내는 다름은 돌기둥이나 살아있는 나무가 있었다. 이것은 풍요 숭배의 상징이었다. 12:3 의 설명을 보라.

**16:22**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12:3 의 설명을 보라.

■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느니라” 12:31 의 설명을 보라.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여호와와는 왜 세 번의 연중절기에 모이는 것을 원하셨는가?
2. 세 절기가 모두 농경생활과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모세가 이미 있었던 절기를 택하여 그것들의 목적을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3. 이 절기들을 열거하고 설명해보라.
4. 재판관이 지킬 세 가지 규정을 열거하라.  
ㄱ.  
ㄴ.  
ㄷ.
5. 16:21-22 은 17:1 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